

중대장은 본대의 선두를 행진한다.

이때, 봉천 경찰대 호리우치 대장은 중대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연락을 취할 수 없다.

## 2. 전투 개시 직전부터 개시까지의 상황

: 중대는 앞에 언급한 명령에 따라 흔적을 거슬러 수색을 하고, 북대마록구하 상류 계곡을 따라 약 4킬로미터를 남진하였다.

25일 16시 무렵, 지도상 대마록구 서쪽 약 25킬로미터 지점의 북쪽(왼쪽)은 3개의 높이 200미터 민둥산 고지가 잇달아 있고, 남쪽(오른쪽)은 폭 약 150미터의 습지대를 끼고 완사면(緩斜面)을 이루는 잡목소림(雜木疏林)의 산지인 지형의 계곡 사이를 거쳐 행진하던 중(지도 참조), 갑자기 북쪽(왼쪽) 3개의 고지에 잠복해 있던 비적단으로부터 일제히 경기관총의 맹공격을 받았다.

중대 전원은 즉각 이에 응전하던 중, 갑자기 남쪽(오른쪽) 잡목소림지 일대에 흩어져 있던 비적단의 주력으로부터 중대 정면에 직접 사격을 받았다.

중대는 완전히 적으로부터 포위·협공을 받게 되었으나, 중대장 이하 전원은 침착하고 용감하게 결사적인 육탄전을 전개하였다.

## 3. 전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경과 상황

: 같은 날 16시 30분, 유리한 진지를 점거하고 기다리고 있던 비적단의 포위 협공을 받자 마에다(前田) 중대장은 즉시 전원을 그 곳으로 산개시켜 중대의 주력에 보내 북쪽(왼쪽)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으나, 남쪽(오른쪽) 잡림(雜林) 속에서 맹렬한 측면 사격을 받아 뜻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

이처럼 비적단의 포위권 내에 있는 우리 측은 시시각각 전사상자가 늘어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중대장은 위급한 정세를 직시하고 마지막 결전을 결의하고, 17시 30분 무렵에 이즈미(泉) 소대 및 요시카와(吉川) 소대의 일부는 남쪽(오른쪽) 잡목림 속에 있는 적을 향해, 또한 박(朴) 신선대·야마시타(山下) 소대 및 요시카와 소대(일부)는 북쪽(왼쪽) 고지의 적을 향해 돌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전 대원은 용맹하고도 과감하게 돌진하여 적탄을 뒤집어 썼다.

용감히 돌진하여 분투한지 1시간 여 동안 비적단에게 크게 패하였다.

중대장 이하 50여 명이 귀신도 눈물을 보일 정도로 장렬히 전사(戰死)를 하였으며, 그 밖에 2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마에다(前田) 중대는 안타깝게도 전멸을 하여 전사한 대원들의 장비품 등 많은 것을 약탈당하였으며, 비적단은 19시 무렵에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 4. 피아의 피해

### 1) 비적단의 피해

- ① 유기사체 21명(그중 간부급 2명이 있다.)
- ② 부상자 16명(납치되었다가 돌아온 자가 목격한 것)
- ③ 소총탄 345발(發)(탄대(彈帶) 6개)

- ④ 1호 모젤 권총탄 28발
- ⑤ 의복류 다수(대부분은 현지에서 소각하였다.)
- ⑥ 비적단의 행동 일지·그 밖의 선전문(宣傳文) 등 50여 종류.
- ⑦ 식량 미속(米粟)을 섞은 것(등짐) 약 2석(石) 8두(斗)
- ⑧ 비적단의 공작 우승기(工作優勝旗) (군기(軍旗)와 마찬가지로) 1개

2) 우리 측의 피해

- ① 전사자 58명(이 밖에 봉천(奉天) 경찰대 호리우치(堀内) 대대원(大隊員) 1명 있다.)
- ② 부상자 27명(이 밖에 행방불명된 자가 9명 있다.)
- ③ 경기관총 1936년식 / 체코식 5정(挺)(이 가운데 2정은 사수(射手)가 전사 전에 유저(遊底)를 파괴하여 사용 불능으로 만들었다.)  
경기관총 탄약 약 2,500발은 썩서 소모하였다.
- ④ 소총 1936년식 76정  
모두 87정  
소총 투통식(套筒式) 11정  
소총 탄약 약 8,000발은 썩서 소모하였다.
- ⑤ 모젤 1호 권총 12정  
모젤 1호 권총 탄약 약 1,000발은 썩서 소모하였다.
- ⑥ 철모 50개
- ⑦ 수통 60개
- ⑧ 반합 50개
- ⑨ 천막 77개
- ⑩ 배낭 53개
- ⑪ 그 밖에 대원들이 소지하였던 돈·시계 등 약간 있다.
- ⑫ 망원경 1개

5. 전투 후의 조치

: 3월 25일 20시, 마에다(前田) 중대가 고전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특수반원은 흥기하 삼림경찰대 본부에 급보해 옴으로써, 우나미(宇波) 경방대장은 ‘황군(皇軍)<sup>20)</sup> 아카호리(赤堀) 부대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즉각 흥기하 삼림경찰대원 20명을 직접 지휘하여 전투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다.

이튿날 26일 6시, 현장에 도착, 전사자·부상자의 수습 및 그 밖에 전장을 정리함 과 동시에, 아카호리 부대 및 봉천(奉天) 경찰대 호리우치(堀内) 대대와 연락을 취해, 부근을 수색·소탕하도록 하였으나, 비적단은 이미 북쪽으로 도주한 다음으로, 이후의 추적 활동은 아카호리 부대 및 봉천 경찰대 호리우치 대대에 맡기고, 일단 전사자를 수습하여 대마록구로 철수하였다.

---

20) 일본군.

〈비적단의 계통 및 장비, 그 밖의 참고 사항〉

: 비적은 동북항일연합군(東北抗日聯合軍) 제1 육군(陸軍) 제2방면군(方面軍) 김일성 비적단으로, 그 세력은 약 200명 안팎(그중 약 3분의 1은 만주인, 조선인 여성 몇 명을 포함한다.)이며, 장비는 경기 관총 4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자 소총·권총을 휴대하고 있고, 대부분은 만군경(滿軍警)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있으며, 붉은 선 두 개인 선에 붉은 성조장(星條章)을 부착한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마에다(前田) 부대는 교전 당일 추격에 추격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비적단의 후위 부대 사이 가까이까지 육박하였으며(납치되었던 인부가 돌아와 들려 준 이야기), 그리고 연일 산채(山寨)를 박멸하였고, 또한 흥기하 격퇴를 통해 획득한 약탈품 대부분을 탈환하는 등, 도주를 어렵게 하여 비적단을 절대적인 궁지로 몰아넣어 ‘구석에 몰린 쥐도 고양이도 문다’는 속담처럼 비적단은 최후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측은 일본계·만주계 모두 전 대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멸을 각오하면서 육탄전으로 비적단과 몸으로 부딪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본 전투의 전과로서 커다란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 D. 일본군 아카호리(赤堀) 부대, 교전을 하다

김일성 비적단을 수색하는 활동을 하던 중, 일본군 아카호리(赤堀) 부대는 4월 9일 11시, 지도상 대마 룡구·이마룩구 중간에 1269 고지 남쪽에서 약 20, 30명의 비적단의 흔적을 발견하고, 급히 추격한 결과 이 지역 동북쪽 2킬로미터 부근에서 비적단을 추적해 교전을 하여 비적단을 북쪽으로 쫓아냈다.

우리 측의 피해는 없고, 비적단으로부터 천막 1개, 방한모 3개, 모포 2개, 톱 1개, 그 밖에 백미, 두박(豆粕) 약간을 포획하였다.

#### E. 돈화현 한밀구(漢蜜溝)에 소규모 비적이 출현하다

4월 11일, 양강구의 특수반이 돈화현 황구(黃溝) 방향으로 파견한 밀정 2명은 같은 날 16시, 한밀구 북문(北門)에 이르렀는데, 그 때 5명의 비적(그중 3명은 장총, 탄약을 휴대하였다.)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밀정의 지하족대(地下足袋)를 강탈한 다음 부락의 중앙 포대(砲臺)에 감금하였다.

또한 휴대하고 있던 포미(包米) 5 승(升)과 식량 3일 분을 강탈하여 서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양강구(兩江口)에 있던 일본군 입선대(入船隊) 1개 소대는 13일 3시, 급거 출동하여 부근 일대를 수색하고 소탕에 나섰으나 비적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이 지역에서 비적 용의자 1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14일 21시 30분, 양강구로 귀환하였다.

#### F. 안도 남쪽 지구에 김일성 비적단 제8단 움직임이다

안도현 성(城)에 거주하는 만주인 한 사람이 4월 4일, 장수둔(長水屯)(안도 서남쪽 10킬로미터) 서쪽 3킬로미터의 숲 곁에 오두막 부근에서 무장한 비적 3명에게 납치되었고, 도중에 다시 무장 비적 3명이 합류하였으며, 서남쪽 2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약 100명의 비적단(그중 조선인 여성 3명, 경기

관총 3개, 각자 장총 휴대) 과 다시 합류하여 이 지역 부근에서 일주일 동안 야영(野營)하였다.

그리고 약 30킬로미터 남쪽으로 이동하여 이도백하(二道白河)에 이르렀으며, 12일에는 동쪽 삼도백하(三道白河)로 나와 강을 건넜는데, 이 때 납치되었던 그 만주인은 야음을 틈타 도주해 귀환하였다.

그 비적단은 지난번 화납자(花拉子) 부근에서 분리된 김일성 비적단의 제8단으로 보이며, 약탈한 소 3 마리, 천막 3개를 가지고 있고, 식량은 아주 부족하였다고 한다.

안도 경방대장은 안도에 있는 각 부대에 연락하여 안도 남쪽 일선 부락의 경방을 다시 한 번 엄격하게 단속하게 하고, 이 지역 각 방면에 유력한 밀정을 풀어 이 후의 정보 수집에 나섰다.

### G. 왕청현 방면의 비적 상황

(1) 왕청현 춘양에 거주하는 조선인 김선용(金仙龍) 외에 1명은 14일 9시 40분, 땀 나무를 하기 위해 이 지역 서쪽 약 4킬로미터 지점으로 갔는데, 부근 가까운 산 속에서 무장한 만주인 비적 2명이 나타나 이들이 입고 있던 만주인 옷을 강탈한 다음 서쪽으로 도주하였다.

또한 이 지점의 산 위에 약 20명의 무장 비적이 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위 비적들의 정황에 따라 즉각 고려촌(高麗村) 경방대에서 송(宋) 경방장 이하 5명은 밀정 4명을 동반하고 이 비적들의 동향을 정찰·토벌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2) 4월 14일 11시 30분, 왕청현 대구촌(大構村)(전(前) 하둔(河屯)) 에 거주하는 김봉섭(金峯燮)·김하동(金河東) 두 사람은 일이 있어 합마당(哈蟆塘) 삼림경찰대로 가던 도중에 대뢰자(大磊子) 서북쪽 5리(만주식 단위인 리(里)) 지점에 있는 벌채 고력(苦力) 오두막에 이르렀을 때, 경찰관 복장을 하고 권총 하나, 그리고 소총으로 무장한 비적 4명을 만났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 온 위 비적들은 독립단이라고 칭하며 두 사람을 검문하고 김봉섭에게서 신발을, 김하동에게서 거주 증명서를 빼앗았으며, 부근에 토벌대가 있는지 그 유무 여부를 묻고, 산 위로 철수하였다.

같은 날 12시 30분, 여괴(呂魁) 부대의 일개 소대는 위 비적들을 추적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 H. 잠입 비적 1명을 체포하다

4월 13일 16시, 연길현 명월구 관할 내 오봉촌(五峯村) 부근에 잠입한 비적 한 명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명월구 특수반에서 현(玄) 경위 이하 3명은 현장으로 급히 가서 이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를 취조한 결과, 최현 비적단의 부하인 영복산(榮福山)이라는 자이고 당년 40세라는 것을 알았다.

편자(編者) 주(註) : 원본(原本)은 등사(謄寫), 훈령정(璽領情) 기밀(機密) 제114호, 1940년 4월 20일, 재(在) 훈춘 영사(琿春 領事) 기노우치 다다오(木內忠雄) 보고(報告). 본신사송부선생략(本信寫送付先省略).

〈출전 : 「間島省内匪賊討伐狀況二關スル件」 외, 『現代史資料(30) 朝鮮(6)』, 미즈즈書房, 1980년, 406~413쪽·419~424쪽〉

### (3) 화룡현에서의 신선대 개관

#### 제6절 제국주의 침화(侵華) 유적지

##### 1. 두도구(頭道溝) 일본총영사관 경찰서 유적지

유적지는 화룡현(和龍縣) 동북부에 위치한 두도진(頭道鎮) 정부 담장 내에 있다. 현재 영사분관·경찰서·일본군병영·수위실·구치소·탄약고·물감방 등 크고 작은 17채의 건물이 있다. 건물의 사면은 벽돌담장으로 둘러싸여있고 서쪽 담벽 가운데 큰 대문이 열려 있다. 점용한 면적은 약 8천여 m<sup>2</sup>에 달한다. 북쪽 담장 일부가 파괴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모두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1907년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무장부대를 용정촌(龍井村)에 파견하여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를 세웠다. 1909년 11월 초 ‘간도협약’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통감부간도파출소’의 명칭을 ‘간도일본총영사관’으로 바꾸었다. 1911년 두도구(頭道溝)에 ‘일본총영사관’을 설립하고 ‘치외법권’을 취득하고 사법·행정 등 특권을 행사하였다.

‘두도구일본총영사분관’ 내에 영사·서기를 각각 1명씩 두었다. 1910년 간도일본총영사관은 경찰부를 증설하였다. 이듬해 ‘두도구일본총영사분관’은 경찰서를 증설하고 서장 1명을 배치하고 고등과·사법과·보안과·서무과 등을 설치하였다. 하부조직으로는 이도구(二道溝)·삼도구(三道溝)·남평(南坪) 등 경찰분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찰분소는 경찰서 고등계 주임이 직접 지휘하여 특무활동에 종사하였다.

1937년 12월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37년 11월 5일 일본과 위만주국이 체결한 ‘만주국에서의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남만철로 부속지역 행정권을 이양할 데 관한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년 12월 간도일본총영사관 및 5개의 영사분관과 경찰기구를 철폐하였다. 영사관인원은 전부 일본관동군 및 특무기관으로 전입하였고, 경찰관은 전부 위만주국경찰체제로 전입하였다.

두도구일본영사분관 및 경찰서는 1911년에 설립되어서부터 1937년에 철폐될 때까지 26년간 일제의 침략정책을 충실하게 실행하여 현지 여러 민족 인민의 반만항일투쟁을 탄압하는 최악적인 도구로 되었다. 그(두도구일본영사분관 및 경찰서 - 작성자)는 직접 치외법권을 행사하여 방대한 무장경찰과 특무기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특권을 이용하여 침략과 반공첩보활동에 종사하였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일본군대와 배합하여 우리 항일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였으며, 야만적이고 잔혹한 수단으로 우리 항일연군과 기타 항일혁명단체에 대한 피비린 탄압을 감행하였다. ‘토벌’ 중 많은 공산당원과 애국지사를 체포하고 살해하였으며, 미친 듯이 우리 항일근거지의 평화적인 주민들을 체포·살해하고, 방화·강간·약탈 등 죄악을 저질렀다. 1930년부터 1937년까지의 기간에 우리 화룡현 경내의 중공지하당의 1개 현위, 2개 구위, 22개 지부를 파괴함으로써 뜨겁게 타오르던 항일애국운동을 탄압하여 피의 빛을 짐으로써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저질렀다.

##### 2. 화룡현 위<sup>21)</sup> ‘신선대(新仙隊)’ 유적지

유적지는 화룡진(和龍鎮) 승리가(勝利街)(옛 양주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21) 여기서의 ‘위(僞)’는 괴뢰만주국 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위 '신선대'는 1939년 11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원 남평(南坪) 위경찰서장 박승벽(朴承璧)이 대장을 맡고, 원 청산리(靑山裏)자위단장 겸 위 청산리 분주소 소장 김일노(金一怒)가 부대장을 맡았으며, 대원은 모두 100여 명, 3개 소대로 나뉘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일위(日僞)군경에 배합하여 우리 항일연군을 '토벌'하였다. 1940년 3월 일제는 130명으로 '토벌대'를 구성하였다. 김일노(金一怒)가 거느린 선견대가 대마록하(大馬鹿河)상류(화룡임업국 長紅임장에서 12리 거리) 서북구(西北溝)에 도착하여 우리 항일연군 제2방면군을 습격하였다. 우리군은 매복전을 벌여 침범해온 적을 섬멸하였다.

'신선대'는 또 늘 사람을 '집단부락'에 파견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장인강(長仁江) 일대에서 우리 항일연군전사 여러 명을 체포하여 일본군에 넘겨주었는데 나중에 모두 살해되었다.

화룡현 '신선대'는 1941년 4월에 해산되었다.

### 3. 송하평(松下坪)탄광 '만인갱(萬人坑)' 유적지

화룡진 서남쪽으로 10리 떨어진 송하평탄광 서남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만 평방미터이다.

1935년 일본침략자는 송하평(松下坪)탄광을 강점한 이후 직과호웅(直鍋好雄)을 우두머리로 하는 만탄(滿炭)조사조를 파견하여 탐사를 진행하였다. 1937년 전후 또 야마시타 다이산(山下泰山) 등을 파견하여 광정(鑛井)을 건설하게 하였는데 1940년에 이르러 탄광이 기본상 건설되자 화룡탄광(和龍炭鑛)으로 명명하였다.

일본제국주역자는 일본군인 오가와 마사카(小川正香)를 광장(鑛長)으로 임명하고 아래에 경리·광무(鑛務)·노무(勞務)·동력전기(機電)·석탄채굴(揀炭)·서무(庶務)·관리(調度)·시유(試維) 등 8개 큰 부서를 두었다.

노무계(勞務系)는 또 광산노동자 경비대·외근반 등을 설치하고 광산노동자들을 탄압하였으며 8명의 십장과 반장을 두고 광산노동자들의 노동을 감독하였다. 이외에 당시 위간도성과 화룡현 경찰서도 광산에 형무소와 경찰분주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통치기구들은 모두 일위(日僞)통치자가 광산노동자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과 잔혹한 착취를 진행하는 도구였다.

일제는 광산에서 "석탄이 필요하지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으로 석탄을 바꾸는" 잔혹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탄갱에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낙반(落盤)하거나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광산노동자의 생명안전은 조금도 보장되지 않았다. 1942년 여름에 발생한 한차례의 낙반(落盤)사고에서만 24명의 노동자가 깔려죽었다.

일본침략자의 잔혹한 착취와 십장의 무단적인 횡령, 형무소의 비인간적인 혹형은 광산노동자들로 하여금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하였다. 광산노동자들은 매일 굴속에 들어가서 15~16시간씩 석탄을 캐야 했는데 먹는 것은 변질한 옥수수떡과 상수리나무 국수(橡子面)였으며, 덮는 것은 마대조각이었다. 많은 광산노동자가 굶어죽거나 병사하고, 얼어 죽거나 굴속에 파묻혀 죽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송하평탄광에서 일하다 죽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400여 명에 달하였다. 1940년에 이르러 광산노동자들의 형편은 더욱 참혹하였는데 어떤 때는 매일 □여 구의 시체가 '만인갱'

에 묻혔다.

광산노동자들은 죽은 후에도 아주 비참하였다. 옛 노동자의 회고에 따르면 사람을 통째로 잡아먹는 왜놈과 심장은 처음에 죽은 광산노동자에게 5푼짜리 관을 준비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심지어 돗자리도 주지 않았으며, 악독하게도 죽은 자의 옷까지 벗겨냈다.

이런 죽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본침략자와 심장놈들이 산둥성(山東省) 고밀(高密)·즉묵(卽墨) 등 지역에서 사기로 모집해오거나 갈 곳이 없는 고아와 항일지사(당시 특수노동자라고 불렀음)였다. 또 일부는 위만주국에서 잡아온 ‘근로봉사대’였다.

얼마나 많은 광산노동자들이 원한을 품고 죽었는지 헤아릴 수 없다. 1969년 송하평탄광에서 수난당한 노동자들의 무덤을 정리할 때 150여 m<sup>2</sup> 묘역에서 200여 구의 해골을 발견하였는데 유골들이 겹겹이 쌓여있었다. 어떤 것은 4겹이나 되었다. 이로부터 당시 죽은 광산노동자수가 1천 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죽은 광산노동자의 유골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골절되었고 어떤 것은 전기로 태워졌으며 어떤 것은 철사로 묶여 있었으며 어떤 것은 굵히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왜놈과 심장에게 산 채로 맞아죽거나 생매장을 당하거나 혹은 전기고문을 당해 죽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송하평 ‘만인갱’에 겹겹이 쌓인 유골은 가증스러운 일본제국주의자가 중국인민을 살해한 죄악의 증거이다.

〈출전 : 吉林省文物志 編委會 主編 『和龍縣文物志』, 吉林省: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1984년, 114~117쪽〉

## 2. 이주개척사업

### 1) 간도 훈춘 재주(在住) 40만 동포의 도현(倒懸)을 구제

(상략)

#### 읍소(泣訴)

간도 40만의 조선인은 공비의 발호와 지나인의 포학(暴虐)에 의하여 그 생명이 저녁때를 걱정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외국 국영지임을 말하며 아직 철저한 보호를 하지 않고, 조선인은 ‘지나’<sup>22)</sup> 관헌의 압박과 당국의 단속 때문에 자위책도 강구할 수 없으므로써,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죽음으로써 마중 받고, 개척의 공은 추방으로써 보답된 것이다. 이러한 절망의 늪에 빠져서 억울한 눈물로 지새는 우리도 한 줄기의 광명을 흐릿하게나마 바라는 것은, 오직 당국의 성의 있는 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구원의 손길은 아직 오지 않고 포학의 매(鞭)는 방자하다. 오호라! 한을 품고 죽음에 굴종하는 것은 오래되었으며, 당국의 철저한 보호는 과연 언제 올 것인가. 40만의 생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추방의 매에 시달리는 때가 될 것인가. 장래 또한 모두가 죽음의 고초를 훑는 뒷날이

22) 중국.

될 것인가. 보라! 추방의 때는 이미 높이 쳐들려서 무고한 죽음은 몇 번이나 피비린내를 되풀이 되고 있지 않은가.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저한 수단을 강구하여 단행하지 않음은 우리가 볼 때,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로 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이 부주의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우리들은 이제야 모든 방책이 다하였노라. 활로를 찾아야 할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이러한 때를 즈음하여 간도의 진상을 두세 가지 설명하며 우리들의 어려운 현상을 호소하고자 한다.

-다음-

#### 1. 제국위신에 관한 건

1) 작년 11월 23일 우리 영사관 경찰관 20명은 남양평(南陽坪)민회관내 장동(長洞)에 출장하여, 조선인 공비용의자 7명을 검거 동행하는 도중에 남양평 시내에 와서 그곳의 지부 공안국순경 20명 때문에 피(被)동행자 전부를 가로채지는 일이 있었다.

2) 작년 11월 26일 부동(釜洞)에서 우리 본서의 경관 10여 명은, 그 관내 합화사(合化社) 방면에 출장하여 조선인 공비용의자 4명을 검거하여 인치하는 도중에 남평(南坪)에 와서 그곳의 지부공안국순경 7, 8명 때문에 피인치자 전부를 강탈당한 일이 있었다.

3) 금년 1월 9일 우리 경찰관 40명(총영사관 경관 30명, 천보산(天寶山)경관 10명)은 두도구(頭道溝)관내 전인하소북구(佃麟河小北溝)에서 공비용의자 27명을 검거하여 동행하고자 할 즈음에 그곳의 지나 보위단 병(保衛團)(兵) 9명 때문에 피동행자 전부를 탈취 당한 일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일은, 지난 1907년 간도문제가 시작된 이래,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불법쟁탈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지나 측의 냉소적인 악평이 매우 많은 것은 물론 또한 우리 40만 동포에게 있어서는 낙망적인 비관을 극도로 이르게 할 뿐이었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전에 비하여 돌변하게 되어서 점차로 위험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사관에서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쓸데없이 연구 운운하며, 고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제국의 위신을 희생하고 있을 뿐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바이다.

#### 2. 영사관의 대 조선인 보호태만에 관한 건

1) 작년 12월 19일 천보산민회 관내 토문자(土門子)신흥평(新興坪)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정동섭(鄭東燮) 69세, 그의 장남 왕춘(旺春) 당31세, 차남 남극(南極) 당22세, 그곳 촌장 최민섭(崔敏燮) 당35세, 이종한(李鍾寒) 당31세 합계 5명은 모두 선량한 농민으로서 시국문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그곳 지나농민이 조직한 자위단장인 요진림(姚振霖)라는 자의 손에 학살 된 일이 있다. 그곳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지나관헌에게 고소했으나, 지나관헌인 검사라는 자로부터 앞에 적은 피해자 시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그곳 지방에 출장 왔을 때에 가해자인 요진림은 그 기미를 알고 그의 가족전부를 이끌고 다른 곳에 도주하여 종적을 감추었다.

2) 금년 1월 6일 도목구(倒木溝)에 거주하는 동포 2명과 금년 1월 7일 명월구(明月溝)에 거주하는 동포 4명도 이 사람들도 역시 선량한 농민으로서 지나 보위단병 때문에 학살 된 일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일은 완전히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사실임은 내외가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사관에서는 지나에 대해서 교섭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음으로써 영사관 당국에 대해서는 국민보호 상의 태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1931년 2월 일

간훈(間暉, 간도 훈춘-역자) 조선인민회연합회

## 잔혹 무쌍한 학살사건

간도 토문자(土門子)에서 동포 5명이 중국인 자위단에게 참살된 것은 이미 각 보도에 게재되었으나, 지금 조금 그 진상을 상세하게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간도 연길현 승례향(崇禮鄉)토문자 신흥평 중왕인(中旺人) 자위단장 요진림(姚振霖)은 무기와 곤봉을 휴대한 부하 30여 명(전부 중국인이나 반 이하는 대 지주에게 고용된 자)을 인솔하여 토문자 일대의 산기슭 마을, 강변 촌에 걸쳐서 집집마다 수사를 하던 중 강변 촌 농민 정동섭 집에서 휴식을 하던 중, 자신의 부하 즉 자신의 종형인 요진산(姚振山)이 총을 잡고 쉬고 있는 것을 공비로 잘못알고 한방으로 즉사시켜서, 곧바로 자신의 종형임을 발견하여 격앙이 극에 달한 예의 요진림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동섭의 차남 남극(22세)을 현장에서 총살하고 또 정동섭(68세)을 향하여 발사해서 하복부에 관통상을 입힌 후, 그 죄악을 전가하기 위하여 간계(奸計)로서 자신의 총기를 남극의 사체 곁에 던져놓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부하를 끌어 모아서 총상을 입은 정동섭 및 그의 장남 왕춘(31)을 한 줄에 엮어 인치하던 도중 그 부락에서 제일 영리한 촌장 최민섭(崔民燮)<sup>23)</sup>도 포박, 함께 자기 집에 인치하여 세 사람 모두를 총살, 또 본건을 철저히 공비의 소행으로 빙자하기 위하여, 요(姚)는 자기의 조짚(粟稈)을 쌓아 놓은 곳에 불을 질은 뒤에 총살한 세 사람의 사체를 던져 넣었다. 곧바로 부근의 관현 즉 다조구(茶條溝)공안국 및 보위부대에 가서 전기한 자신의 종형의 학살사건 및 자신의 야적 조짚에 방화한 것은 모두 공비의 폭행이라고 무고 하였다. 급보에 접한 공안국원 및 보위단원 23명은 급히 서둘러서 현장에 갔으며, 동민 60여 명을 검거함과 동시에 그곳 농민 이종한(李鍾寒)을 향하여 발사하고 중상을 입힌 채로 요진림의 집에 인치하고 검거한 60여 명의 농민들의 앞에서 곤봉으로 때려 죽였다. 또 붙잡혀 온 60여 명은 기둥에 거꾸로 묶어서 그들의 콧구멍에 고춧가루 물을 주입하거나 자루에 넣어서 두들겨 패는 등 그 취조방법은 보기에조차 참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취조결과 60여 명 중 13명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유를 얻어 국자가(局子街)에 압송되었다. 또 순경 및 보위단원은 앞에 말한 소위 죄인 압송여비로서 주민들로부터 돈 91원을 거뒀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영사관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만 피해자 최(崔)촌장의 모친이 중국법원에 고소한 결과 1월 9일에 중국검사가 그 지방에 출장 가서 시체를 발굴하여 검안을 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요진림(姚振霖)은 그 기미를 먼저 눈치 채고 그 가족을 전부 이끌고 다른 곳에 도주하여 그 종적을 감추었다.

23) 최민섭(崔敏燮)과 동일인임.

그리고 중국자위단이 각지에서 학살, 강간, 무고를 계속하여, 1월 6일 도목구에서 동포 2명을 총살, 동 7일 명월구에서 4명을 총살 하는 등 민심이 흉흉함이 극에 달하고 오지에서는 재주(在住)동포는 계속 안전지대로 보이는 도회지에 옮겨와서 오지는 사람의 그림자가 희박한 상태가 되었다.

각지에서 날을 쫓아 속출하는 참사는 일일이 들 틈이 없으며, 우선 앞에 말한 한 건을 적시(摘示)하여 내지 동포에게 보고한다.

1931년 2월 일  
간도조선인민회장 문봉조(文鳳朝)  
이경재(李庚在)  
박경주(朴京周)  
최윤주(崔允周)  
최명집(崔明集)

〈출전 : 「昭和六年 一月 現在 間島琿春在住四十萬同胞ノ倒懸ヲ救ヘ」,  
『齊藤實文書』 11, 서울:高麗書林, 1999년, 288~297쪽〉

## 2) 야마지 세이시(山地誠士), 수화(綏化) 안전농촌 건설 상황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농업기수 야마지 세이시

### 1. 수화 안전 농촌 사업 개황

#### (1) 농장의 위치

본 지구는 흑룡강성(黑龍江省) 수화현 내 빈북선(濱北線) 진가참(秦家站)에서 동북쪽으로 약 2리(일본식 단위의 리(里)) 내외 지점에 있어, 동경 127도 10부, 북위 46도 50부 내외 쌍하진(雙河鎮) 부락의 북쪽에 위치하며, 니니하재안(泥泥河在岸) 일대의 평야이다.

즉, 북쪽은 니니하를 사이에 두고 구릉대지와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서쪽·남쪽 등 삼면은 경작에 접해 있다.

#### (2) 농장 개설의 연혁

만주사변 이후, 비교적 안전 지대이며, 수화현 현성(縣城) 안에 집단으로 있는 피난작인(避難作人) 혹은 종식(從食)하거나 부정업(不正業)에 종사하는 자 등을 낳아, 영사관 및 현공서(縣公署) 당국은 매우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따금 현(現) 수화조선인민회 회장(會長) 황의명(黃義明) 씨는 이를 개탄하며 농장을 경형하며 이들을 정업(正業)에 종사하게 하려고 물색 중, 현 농장의 존재를 알고 그 정부(正否)를

하얼빈 총영사관을 통해 그 답사 방법을 신청하여, 1933년 11월 상순, 하얼빈 통영사관의 응원 아래, 답사를 하고 상당히 유리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번에 기공을 하게 되었다.

### (3) 면적 및 입촌 예정 호수

니니하는 유역 면적이 본 농장 취입구(取入口) 부근에 약 420리(일본식 단위의 리(里))를 차지하고, 그 갈수량(渴水量)도 200초 입방척(立方尺) 이상을 차지할 만큼 넉넉히 2,000정보(町步) 이상을 관개(灌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산·그 밖의 관계를 고려하여, 올해는 1,000정보의 실경 면적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입촌 예정 선농 호수는 1호(戶) 1 정보(町步) 당으로 하고 500호(戶)로 한정하였다.

면적 지목(地目)	실측 면적	기사(記事)
밭(畑)	652,8109	
황무지	533,5004	
연못	47,8120	
묘지(墓地) 및 묘(廟)	2,6913	
계(計)	1,237 · 8226	지구(地區) 밖 용수(用水) 알선 부지를 가산하지 않았다.
밭, 황무지 합계	1,187 · 3113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밭(畑) 1 □지(□地)에 대해 국폐(國幣) 25원(圓), 황무지 1 □지 10원으로 하였다. 대체로 지구(地區)로서 매수하려고 하는 면적은 위의 표와 같지만, 실제 매수를 하거나 지권(地券)의 담보도 있어, 이로 인해 인접한 토지도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다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류 용수 간선 부지 면적을 더해 실제 매수 면적은 1,213.16정(町), 가격은 31,346,89원(국폐)이다. 올해 입촌자의 호수 및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올해 입촌자				기사
입촌 호수	당시 인구	분가 호수	정리 후 인구	
246	865	292	947	

입촌 인구와 관련해 분가·정리 후의 인구가 서로 다른 것은 입촌 후 별도로 가족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 (4) 사업 계획의 개요

본 농장은 그 용수선(用水線)을 니니하(노민하(努敏河))에서 끌어 오기로 하였다. 왕가반구(王家般口) 부근에 취입구를 설치하고 수로 경사도(勾配) 만분의 1, 바닥폭(底巾) 6.0미터, 수심 1.2미터, 양측법(兩側法) 1.5비율로 하고, 약 1.5리로 하여 지구에 도달하며, 여기에서 바닥 폭을 8.0미터, 수심 1.1미터로서

흘려보내, 이무림둔(李茂林屯) 부근에서 수로 경사도를 2,000분의 1로 하여, 바닥 폭 6.0미터, 수심 0.6미터로서 대방신(大房伸)까지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였다.

농장 내의 실제 경작 면적은 1,000정보로 하고, 이를 10조(條)의 용수 지선에 따라 나누어 관개의 편의를 꾀하였다.

각 용수 지선은 이를 600미터 간격으로 대체로 평행 배치하며, 각 용수로의 중간에는 경수로 및 농로(폭 5미터)를 배치하여 이를 배수 및 교통에 편의를 꾀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금 35만 원이다.

〈내역〉

일금	66,000원	토지 매수비
일금	140,000원	공사비 및 감독비
일금	9,000원	경비비
일금	20,000원	사무비
일금	80,000원	대부금
일금	10,000원	지불금 이자
일금	25,000원	예비비

##### (5) 공사의 개황

본 사업은 아주 급속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올해 경작 시기를 맞출 수 없을 것이다.

주변 사정은 청부를 경쟁 입찰로 하는 것을 허가받은 상태에 있으면 설계를 완료 입찰에 부치고, 착수할 때에는 올해 개전(開田)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협의 결과, 작년 하동(河東) 농장에서 제2기 공사를 제대로 완성시킨 요시카와 회사(吉川組)를 특명에 따라 청부를 맡기고, 3월 하순부터 고력(苦力)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설계가 완성되는 대로 착공하기로 하였다.

즉, 대체로 지표가 해빙되는 4월 24일에 첫 삽을 뜨고, 먼저 용수 지선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간선수로 및 공작물(工作物) 배수로·도로의 순서로 착공하도록 하며, 요시카와(吉川) 회사의 노력에 따라 상시 고력은 약 1,500명 내외를 고용하고, 순조롭게 시공이 진척을 보였으며, 5월 7, 8, 9일 사흘 동안의 강우(降雨)는 오지 산간부의 해빙을 따라 적지 않은 침수가 있었다.

예상치 못한 출수(出水)로 인해 5월 13일 무렵에 지대가 낮은 부분은 침수하였고, 그 지방 사람에게 들으니, 최근 이와 같은 출수는 1932년의 북만주 수해당시와 비슷하며, 그 이전에는 1922년에 있었던 것 외에 한 번 정도 있었던 듯 한 기억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15년이나 16년 한 번 풀이라고 한다.

이 출수로 인해 약 1주일 동안은 상류 간선의 굴착 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국부적 배수로 및 도로 착공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5월 20일 무렵, 마침내 물이 줄어들어, 다시 간선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그 후 거의 매일 같이 비가 내려 일이 진척되지 않았다.

또한 특명 상시 5월 20일의 통수(通水)하기로 하였던 계약도 사실 불가능해 짐으로써, 월 말까지 연기하게 되었다. 매일 같이 내리는 비로 인해 용수(湧水)가 많았으며, 또한 저지대 부분은 동결하게 한 곳도 있어, 굴관(掘鑿)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월 말 통수도 약속할 수 없게 하여, 요시카와(吉川) 회사에 현상금을 1,000원을 거는 것 외에 각 자 매일 국폐 10전의 장려금을 내걸고 공사를 진척시켰다.

그러나 통수 중의 굴착에는 그 능률이 저하하여 한 사람 하루 양은 겨우 2~3 입방미터 내외를 파들어 가는 정도였으며, 도저히 5월 말까지는 물론 6월 상순에도 공사의 완성과 통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행하천(幸河川)이 불어나는 동안에 통수 시부(時付)를 시도하기 위해 취입수문 공(取入水門工)을 남기고, 취입구에서 약 2,000 미터 사이의 굴착을 0.2~0.7 미터 내외 굴창이 남이 있는 상태에서 6월 4일 취입구의 임시 마감을 열어 통수하였다.

그런데, 6월 8일, 9일 무렵에 노민하(努敏河)의 수위는 저하하여 점차 5, 6 촌이 유입되었을 뿐으로, 관개에 지장이 적지 않음에 비추어, 간선의 바닥을 낮춤과 동시에 6월 11일부터 임시 방죽 공사에 착공하였다.

6월 16일에 대체로 이를 완료하고, 11일 무렵에 노민하의 수심은 약 7척(尺) 정도 여서, 언지(堰止) 공사에는 매우 불편함을 느껴 시공이 용이하지 않았다.

한편, 6월 4일, 통수 후에는 용수 지선의 일부 나머지 공사에 착공하여 완성을 하였고, 배수로 및 도로의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비가 내렸으며 농장에 개수(溉水)를 한 뒤여서, 그 작업도 용이하지 않았다.

더구나 시공 후 시일이 촉박하여 용수로에 다량의 수량을 통수함으로써, 간선·지선에 사고가 많아 이에 응급 수리에 고심하는 일이 많았다.

이리하여 6월 말, 나머지 공사는 취입수문과 아울러 간선 상류 부분의 바닥을 낮추고 또한 배수로 및 도로 공사의 일부 정도의 공사이지만, 이 나머지 공사는 추기낙수(秋期落水) 후에 시공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공사비는 앞에서 기재한 그대로이지만, 수로의 파손 수리, 그 밖의 공작물의 보수 혹은 취입 수문이 미완성인 채로 통수함으로써 인해, 수량 조절을 위해 설치한 마감비 등 다소 증가를 보였으며 정산한 결과가 아니면 자세하지 않지만, 대체로 이 모든 비용은 6,000원 안팎이 될 것이다.

## (6) 입촌 선농 수용 개황

본 농촌 입촌자는 4월 19일부터 수용을 개시하여, 5월 14일에 마쳤다.

이를 지방 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용회수	입촌 날짜	전(前) 거주지	수용		기사
			호수(戶)	동인원(名)	
1	4월 19일	치치하얼	34	150	
"	"	경성현(慶城縣)	3	15	
2	4월 21일	하이랴르	12	72	
"	"	북안현(北安縣)	4	22	
3	4월 24일	하얼빈	54	231	
4	4월 25일	"	48	159	
5	4월 30일	수화(綏化)	4	16	
6	5월 4일	"	1	4	
7	5월 6일	하르빈	36	90	
8	5월 9일	조길밀(烏吉密)	13	45	
9	5월 11일	하르빈	13	35	
10	5월 14일	해운(海倫)	11	42	
계			233	881	
6월 말일 현재 수			284	946	

비고) 호수에서 51호로 늘어난 것은 입촌 후 분가를 시킨데 따른 것이다.

인원에서 65명으로 증가한 것은 그 후 가족들을 각 지에서 불러 들여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입촌자는 농장 부근의 만주인 가옥을 지방 유력자의 호의로 퇴거를 받은 다음에 할당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농무계(農務稷)를 조직하여 경작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농무계 별 호수 및 인구 표〉

계별(稷別)	호수	인구			기사
		남	여	계	
1	38	84	77	161	
2	33	62	51	113	
3	32	55	48	103	
4	33	60	30	90	
5	30	50	33	83	
6	30	59	50	109	
7	40	81	49	130	
8	28	45	40	85	
9	20	45	27	72	
계	284	541	405	946	

(7) 농사 개황

이리하여 4월 19일부터 5월 14일에 이르는 약 1개월에 걸쳐, 입촌한 선농에 대해 위의 표와 같이 농무계를 조직하도록 하여, 1 호 당 2 정보 씩 제1계를 상류부 제1호 용수 지선의 좌우에, 이하 순차적으로 가능한 한 간선 부근의 토지를 할당하였으며, 제1호 용수 지선 부근은 제9계를 할당하여 경작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즉 할당이 정해진 경지에 대해서 즉각 2 정보 구획의 큰 휴반(畦畔)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또는 작은 용수로의 굴착을 시작하여 관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6월 4일에 통수하여, 관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종래 논밭으로 이용되었던 토지는 대체로 평탄하였으나, 다소 높고 낮은 기복이 있어서 2 정보 구역 중에 다시 작은 휴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으로 해서 각 농호(農戶)에 적절하게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본 농촌에 입촌한 선농중에는 처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고, 혹은 수전(水田) 경작에 경험이 없는 자도 있는 등, 관수와 더불어 시부(蒔付) 지도반을 조직하여 오로지 그 분야의 촉진을 도모하였다.

6월 25일까지의 관수 및 시부의 추이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관수 면적	파종 면적	기사
6월 10일	150정보(町步)	55정보	
6월 16일	206정보	175정보	
6월 17일	261정보	212정보	
6월 19일	327정보	279정보	
6월 20일	367정보	347정보	
6월 21일	380정보	354정보	
6월 22일	400정보	387정보	하지(夏至)
6월 23일	410정보	398정보	
6월 24일	410정보	405정보	
6월 25일	410정보	409정보	

비고) 6월 25일 이후 6월 30일까지 다소 시부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완료로 상세불명인 것도 약 430 정보의 시부를 실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 계별 시부 면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계별 파종(播種) 상황 조사표 (1)〉

계별	총 호수	시부 면적		총 면적	1개월 평균 시부 면적	기사
		하지 전 (夏至 前)	하지 후 25일까지			
제1계	38	40.2	3.4	43.6	1.14정(町)	지세(地勢) 관계상 다소 수괘(水掛)가 나쁨.

제2계	33	50.9	0.3	51.2	1.55	
제3계	32	41.1	2.7	43.8	1.37	
제4계	33	41.3	2.5	43.8	1.32	
제5계	30	30.8	4.6	35.4	1.18	용수로에 종종 고장이 발생하였다.
제6계	30	45.6	1.6	47.2	1.57	
제7계	40	64.3	—	64.3	1.61	
제8계	28	37.7	5.0	42.7	1.53	
제9계	20	35.1	2.2	35.3	1.86	
계	284	387정(町)	22.3	409.3	1.44정	
평균		1.36	0.08	1.44		

〈계별 파종 상황 조사표 (1)〉

계별	총 호수	인구			시부 면적						기사
		총 인구	15세 이상	3세~15세 까지	2정 이상	1.5~2.0	1.0~1.5	0.5~1.0	0.5 이하	무경작	
제1계	38	153	88	65	7	8	8	9	5	1	
제2계	33	108	75	33	18	2	12	1	—	—	
제3계	32	100	66	34	11	8	4	2	2	5	
제4계	33	87	64	23	7	9	10	4	3	—	
제5계	30	82	61	21	5	5	9	9	2	—	
제6계	30	98	61	37	13	6	9	1	1	—	
제7계	40	123	92	31	17	12	10	1	—	—	
제8계	28	79	61	18	12	3	11	1	1	—	
제9계	20	66	42	24	18	—	—	2	—	—	
계	284	896	610	286	108	53	73	30	14	6	

즉, 각각 두 표에 나타났듯이, 1호(戶) 당 시부 면적은 6월 25일 이후를 더하여 평균을 낼 때, 1정 5반 보에 이르며, 상당한 성적이라는 점을 믿을 만하나, <표 2>와 같이, 그 면적에 같지 않은 것이 있다.

또한, 무경작자가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보이지만, 이는 강우로 인해 공사 시공이 있는 다음이기 때문에, 통수 6월 4일에 이르면, 시공 후 시일이 촉박해 수로는 각각의 곳에 여러 차례 사고를 낳았으며, 어쩔 수 없이 통수를 일시 중지해야 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하나는 개용(開用) 초년으로 관수 준비가 정비된 것이다. 또는 휴반을 만드는 일이 늦어진 것이다. 그리고 분가자가 본정(本定) 혹은 사람 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자와 공동 시부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그중에는 근로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자도 다소 있는 모양이다.



### (8) 경비 상황

본 지방의 북쪽 사방대(四方臺) 부근 및 경성(慶城)·수릉현(綏楞縣) 지방의 위험 구역을 조심하겠지만, 쌍하진(雙河鎭)에는 만주국의 경찰서가 있고, 또한 농촌의 약 20정 사방에 만주국의 경찰 분서(分署)가 있다.

이 밖에 쌍하진 및 농림(農林) 안에는 만주인의 보갑제(保甲制)가 비교적 실질적인 것이어서, 지방 치안은 상당히 잘 유지되었으나, 수화현공서(綏化縣公署)의 호의에 따라 가까운 시일에 농장 안에 11명의 만주인 경찰대를 배치할 것을 의뢰하여 귀임하였다.

그러나 선농은 각자 자경단 조직을 희망하며, 그 서립을 요망하고 총기 대여를 희망하고 있다.

〈출전 : 山地誠士, 「綏化農村建設狀況」, 『會報』第20號,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4년 10월, 40~48쪽〉

### 3) 조선인 이민의 8대 의의

우리는 이에 대만(對滿) 조선인 이민에 대한 8대 의의를 명확히 할 수 있어서 기쁘기 그지 없다.

반도 백의 대중의 만주 진출은 이 기회에야 말로 크게 환영·장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정책이야말로 현재 일본 제국의 일대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대 의의에 대해 그 근간을 요약하여 열거해 보면,

1) 산둥(山東) 고력(苦力)<sup>24)</sup>의 강력한 진출은 만주가 그들을 위한 왕도낙토이며, 때마침 얻게 된 영구히 확보된 권익을 실질적으로 매우 희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여 우리 국민적(國人的) 세력을 영원히 부식(扶植)하기 위해.

2) 만주국 농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선농은 그 중심이 되어 크게 공헌을 하고 막대한 생산을 새로이 낚는다.

3) 선농의 진출은 조선 내의 인구 과잉으로 인한 경작지 부족을 완화하여 조선 내 동포의 생활까지도 풍요롭게 한다.

4) 조선 민중의 무정견(無定見)한 일본 진출을 전향시킬 수 있어, 일본 노동 문제의 일대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음과 동시에, 현재 일본에 정주하는 백의 대중도 신예 노동자의 이입으로 인한 격심한 경쟁으로부터 해방되어, 극한 궁핍에 이른 생활을 점차 완화시킬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일본의 사회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일 것이다.

5) 만주에서의 선농의 성공은 전 조선 민중에게 사상적으로 매우 밝은 시사를 던져 주고, 또한 그들이 일본 제국의 신민이라는 자각과 감격에 불타는 것이야말로, 진심으로 내선융화의 근간을 배양하고, 다년간에 걸친 대립 의식을 일소할 수 있으며, 조선 통치를 위해 일대 좋은 영향을 안겨 줄 수 있다.

6) 조선 민족을 잘 소화하고 포용하는 것은 대국적 태도의 현현이며, 현재 새로운 일본의 동향이 동

24) 중국인 하급 노동자.

아시아를 제패할 실력을 점차 구비해 오고 있는 경우, 전 아시아 민족의 갈앙(渴仰)과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이유이다.

7) 선농의 진출은 필연적으로 물자의 수요를 부르고, 만주 깊숙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모국의 상품을 유치하며, 한편으로 만주인 농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소비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그 양이 극히 빈약하지만, 그들이 순조로운 영농을 통해 점차 토지를 획득하여 생활의 향상을 가져온다면, 그 액수는 아주 큰 것이 될 것이다.

8) 산동 고령 진출 문제를 논할 경우에, 그들이 노동 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향인 산동으로 철수할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는 설을 논하는 자가 있다.

이는 유통 경제 제1과(課)의 인식조차 없는 것이므로, 이 귀환 고령이야 말로 만주 경제에 두려워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축적한 노은(勞銀)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영토로 돌아가, 이를 소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막대한 자본의 유출이 있고, 그 액수는 매년 약 2,500만 원(圓)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인은 아무리 다수가 유입되고, 또한 조선과 만주 사이를 왕래한다고 해도 결코 그럴 우려는 없다.

이상 위의 각 항에 근거하여, 또한 이를 연역 해부하여, 이를 통해 조선인 이민 선행(先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출전 : 『朝鮮人移民の八大意義』, 『朝鮮人移民問題の重大性』, 京城:朝鮮總督府, 1935년, 16~18쪽〉

#### 4) 반도인 이주의 안전농촌 자립

만주사변 후, 부속지(附屬地)에 쇄도하는 어려움을 피한 ‘반도인(半島人)’<sup>25)</sup>에게 생활의 안정을 안겨 주고, 낙토경(樂土境)을 보여 줄 옛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조선총독부의 협력에 따라 신설된 안전농촌은 철령(鐵嶺)·영구(營口)·수화(綏化)·하동(河東)·삼원포(三源浦) 등 다섯 군데에 설정되었으며, 처음으로 설정된 철령 농촌의 경우에는 이미 5개년, 그 밖에도 3개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수용선농(收容鮮農)의 생활은 점차 안정을 보이고, 농경에 힘쓰며 제1단(段)의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옛 동아권업공사의 안전농촌을 계승한 만선척식회사(滿鮮拓植會社)에서는 당초의 계획을 단축하여 올해부터 각 안전농촌을 일제히 조선인의 자치적 경영에 맡기고, 농사 지도만을 담당하는 보도원을 배치하는데 그리며, 각 출장소는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영구 농촌이 신규 확장 계획 중이기 때문에, 다섯 명의 보도원을 배치하는 것 외에, 각 농촌 모두 한 명으로 줄였다.

25) 조선인.

선농의 중심 기관인 농무계연합회(農務稷聯合會)가 앞으로 경영·지도의 증추가 되며, 또한 대(對) 선척(鮮拓)과의 계약 이행에 대해 책임 있는 지위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치 경영은 자작농 설정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철령 농촌은 7개년 부(賦), 영구·수화·삼원포 각 농촌은 10개년 부(賦), 하동 농촌은 15개년 부(賦)에 따라 이 회사가 지금까지 각 농촌에 투자한 자금, 즉 토지 대금, 그 밖에 제반 시설 비용과 아울러 그 이자를 매년 균등하게 기간 중에 상환하게 하며, 또한 그 이월 상황을 인정하고, 상환 완료와 더불어 완전한 지권(地權)을 주어 자작농으로서 자립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단 이민이라고 하는 안전 농촌 설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환한 다음에 개인은 지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용인하지만, 그 보관은 농무계연합회에서 하도록 하고, 소유권의 이동·양도는 적극적으로 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를 위해, 종전의 농무계연합회를 확대·강화하고, 회장은 종전 대로 선농의 호선을 통하지만, 이사는 선척·만주국 지방 관청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하고 그 회무도 농림의 경영·지도는 물론 가촌제(街村制)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구·비료·종자의 공동 구입금과 아울러 생산물의 공동 판매·교육·토목 등 일체를 관리하며, 또한 선척이 종래 행해 온 농경 자금의 대부에 대해서도 연합회가 선척을 대신하여 행하고, 선척은 단지 농무계연합회에 용자를 하고, 나아가 연부상환대금의 적립도 모두 농무계연합회에 일임하며, 그 책임을 맡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선농은 과거 수년 동안 기울여온 노력이 점차 보답을 받아 자작농의 씨앗으로서 빛나는 희망 속에 살며 올해의 경작에 활기를 얻고 있다.

〈출전 : 「半島人移住の安全農村自立」, 『會報』 第51號, 奉天: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7년 5월, 143쪽〉

## 5) 원용국, 안전농촌과 재만 선농(鮮農)에 관한 소견

반석조선거류민회(磐石朝鮮居留民會) 회장 원용국(元容國)

세월이 화살처럼 흐르듯이, 신흥 만주국은 제2의 봄날을 맞이한다. 우리는 매우 감개무량하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돌아보면, 지난 2년간 매우 다사다난하였으며, 일반 민중의 고난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국가 군대가 지불한 희생 또한 막대하며, 재작년 크고 작은 병비(兵匪)·비적들의 폭학을 돌아보면 전율을 금치 못하겠다. 당(當) 반석(磐石)과 같이, 심혹함이 더욱 극심하여, 일반 주민은 절망한 나머지 살아오던 땅을 버리고, 많은 남녀노소가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파괴보다 건설로 향하는 도정으로서 이어질 여명을 확신하면서도, 너무나도 가혹한 고난에 견디지 못하고 만사 그만두고 싶다는 탄식을 토로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만주사변 직후 이 지역으로 들어온 나에게 과거 2년 동안 공비의 폭력(暴戾), 양민의 피난 및 그 수용

(收容), 크고 작은 적들의 요란, 아울러 그 습격 등 모든 사건을 목격·경험함과 동시에, 갖가지 간난신고와 조우할 때마다 절망한 나머지 방황을 하였다.

당시 아무도 이처럼 빨리 광명으로 가득한 오늘을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오늘날의 치안 상태를 보면, 마치 꿈이 아닌 가 싶어, 새삼 경탄해 마지 않으며, 한편으로 만주국의 관민(官民)이 일체 협력하고 분투·노력한 결과인 것이다. 그렇지만, 치안도 이제 그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제반 사업의 성장 여부는 오로지 앞으로의 노력·분투에 기대해야 할 것이며, “병법(兵法)에도 땅의 이(利)는 사람(人)의 화(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만주국과 같이 만주인을 주체로, 일본 내지, 조선, 몽고인 등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는 서로 혼연용화하여 공존공영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선진자(先進者)는 후진자(後進者)를 보호·유발(誘拔)하고, 후진자는 선진자를 신뢰·경애하여 유종의 미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우리 동포 함 마음으로 새로이 하여 분투·노력하여 백년의 장계(長計)를 수립하기를 바란다.

제만 조선인과 선농(鮮農)에 관한 소견 및 희망으로서, 현재 만주에서의 우리 동포는 거의 대부분 농업을 전업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한, 두 가지의 비견(卑見)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만주 사변 후, 최근 2년은 도처에 횡행하는 크고 작은 비적으로 인해, 동분서주하여 우리 생명을 온전히 하기 위해 바쁘게 지쳐 농업에 전념할 수가 없다.

농산물은 종전의 반 이하로 줄어 의식을 해결할 길도 없어, 길에 방황하는 자가 많으며, 이들 다수의 빈농들이 과연 어디에서 안주할 땅을 찾고, 올해부터 무사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지, 또한 누가 이들 다수를 모두 보호·지도하여 종래의 생활을 개척할 수 있을 지,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고뇌를 금할 수 없을 지경이다.

2. 이곳의 참상은 지금 새삼 두 말할 필요도 없다.

1,000여 호의 농민 모두 흩어졌으며, 간혹 한, 두 특수한 자 및 약간의 공비 분자를 제외하면, 그 밖에 남는 자가 없기 때문에, 농촌은 완전히 황폐해졌다.

현존하는 선농은 겨우 200호 미만으로, 현성(縣城)에 거주하고 그 부근 반(半) 리(里) 내지 1리 이내의 경작지에도 자경단의 보호를 받으며 경작을 하는 상황으로, 작년 봄, 새로운 경작지를 개척할 때, 아주 먼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 오기 위해, 수로 공사에 많은 노력과 날짜를 소비하였다.

실제로 개척한 면적은 1호 당 1천지(天地) 미만이며, 더구나 제반 경비는 상당히 많아, 농민의 소득은 유명무실하여 농무계(農務契)의 차금(借金)을 갚고 월동(越冬)을 위한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의 황폐함이 극도에 달해, 많은 민중은 기근을 견디지 못해 도로 위를 방황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제멋대로 모든 폭학을 자행하고, 군벌시대의 옛날을 그리워하는 지경에 있다.

이는 과도기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낙원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믿고 있어도, 상당한 노력이 없으면 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민회, 영사관 등 담당자 측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이것이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함으로써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각 담당자가 모두 그에 상당하는 각으로 활동을 지속하여 일반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각 지의 치안 유지가 불완전함에 따라, 선농 중 불량분자 또한 적지 않다.

도처에서 금지품 밀매 또는 도박, 그밖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여, 만주인들의 혐오 대상이 되고, 좋은 선농에게 해로운 독을 주는 것 같아 유감스럽기 그지 않는 점이 많다.

우리가 구축해 가려고 하는 농장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들의 단속·제거 방법을 강구하여 점차 정업(正業)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최악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철저히 처분을 하여 양민 양성에 노력을 해야 한다.

5. 앞에서 언급한 불량분자를 단속하여 이상적인 농장을 건설하기 위해, 만주 전역의 각 민회를 통일하여 서로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불량자의 난입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에서 통제적으로 각 민회를 감독·지도하고, 호적을 분명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한 관할 내에서 다른 관할 내로 이주할 때에는 호적 사본, 신분 증명을 소지하도록 하여 통제적 질서를 보지(保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6. 농장 경영에는 반드시 단체로 적어도 50호 이상을 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여 자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자경·교육 등 기관을 설치하여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소작료의 경우는 종래 개인적 경쟁에 따라 이를 점차 인상하고, 거의 오분작(五分作)의 예외까지 출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각 민회 마다 통일되게 알선하여, 종래의 폐해를 제거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회에서 지주와 교섭을 대신 맡아 전 관할 내를 통일하고, 앞의 경제 관계를 제1 조건으로서 차입할 때, 1천지마다에 소작료를 더함에, 앞에서 기술한 제반 경비를 더하며, 또한 오분작(五分作) 이하가 되면, 자경은 각 농촌 단체마다, 교육은 인근 현(縣)의 각 단체가 연합하여 계획하고 실시하면 농민에게 가혹한 부담을 가하지 않아도, 거의 이상에 가까운 시설을 이룰 수 있다.

더구나 각 자의 부담은 옛날 군벌 시대의 지주폭려위정자(地主暴戾爲政者)의 가혹함, 고리대 등으로 고통을 받던 때에 비해, 훨씬 많은 소득을 얻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만 선농과 안전농촌에 대한 소견으로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 반석에는 비적의 횡행이 심각하고, 현성에서 불과 1, 2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비적들은 종종 성 아래 가까이 와서 인질을 납치해 가는 상황이므로, 선농 답작(答作)은 거의 전망이 없다.

성 안 거주자 200호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직업도 없이, 그 대부분은 지난 연도 말까지 수용·구제를 받았을 정도이며, 결국에는 방치된 채로 앓은 채 굶어 죽기를 기다리던가, 혹은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슬픈 지경에 방황하는 모습은 보기에 고통스럽다.

부근의 각 지주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백가장(百家長) 및 현공서의 여러 직원의 알선 방법을 적극

적으로 의뢰한 결과, 현성 부근에서 토지 약 400평을 연(年) 소작료 1천지 3석으로 계약을 하고, 한편으로 종래 사용해 온 자경단을 충분히 개편하여 경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직접 농장 보호에 나서게 하며, 이에 개간을 개척하였으나, 수원지가 멀어 약 40정 이상의 수로를 개착(開窄)하기 위해 2개월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전 개간 면적은 약 100여 평에 지나지 않는다.

1호 당 1평 내외인 상황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많은 노동력을 소비한 것에 비해 소득은 너무 적어서, 각 자는 이번 월동을 할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지만, 농경의 기초와 기준을 마련한 것을 기뻐하는 상황으로, 올해야 말로 대대적으로 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우선 치안을 비교적 쉽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장의 집단적 실시를 해야 하며, 지점을 선정하여 각각 지주와의 교섭도 종결지어, 자경단을 확장하고 각 분단(分團)을 통해 직접 보호함과 동시에 만주국 경찰대의 배치까지도 교섭하여, 앞으로 이주해 오는 농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여러 준비를 완료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실험해 보고, 앞으로 안전 농촌의 경영은 반드시 집단적 농장에 바탕을 두고, 스스로 직접 보호하는 자경단을 설치하여 크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경 자력갱생의 길이다.

이렇게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일을 하며 견고한 기초 아래, 점차 확장시켜 갈 때, 만주에서의 동포들의 낙원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상)

〈출전 : 元容國 「安全農村と在滿鮮農に關する所見」, 『會報』 第12號  
奉天: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4년 2월, 2~6쪽〉

## 6) 히라이 센죠(平井千乘), 만주에 안전농촌의 건설

동아권업주식회사(東亞勸業株式會社)는 1921년 만철(滿鐵)·동척(東拓)·오쿠라(大倉) 등 3대 재력을 가진 자본에 의해 토지 경영 및 만몽(滿蒙)의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후 이 회사는 옛 동북정권(東北政權)의 끊임없는 탄압과 싸우면서 노력한 10여 년 동안, 재만 조선인의 생활 안정, 일본인의 경제적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책 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이다.

### 1. 회사의 조직과 업무

회사의 영업 과목은 (1) 토지의 취득·경영·처분, (2) 농업·목축업·임업, 그 밖에 자원 개발 이용에 관련한 사업, (3) 이민(移民)의 모집 및 부식(扶殖), (4) ……(판독불가)…… (6) 농산물 및 그 밖의 가공·매매 및 위탁 매매, (7) 앞의 제반 사업에 따라오는 부대사업 등으로, 현재 자본금은 천 만 원(圓), 그 주식의 90.6%는 만철의 의 소유이다.

본사는 봉천(奉天)에, 신경(新京)·하얼빈(哈爾濱)·도쿄(東京) 등 각 지에 사무소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농촌 사무소·주재소 등을 만주 전체 15군데에서 운영 중이다.

사장은 무카이보 세이이치로(向坊盛一郎) 씨이고, 사무 대표이사는 하나이 슈지(花井修治), 대표이사 니시고리(錦織足喜代) 등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사는 창업 이래, 토지 취득과 아울러 그 경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민의 이권 회수·선농(鮮農) 탄압으로 인해 예상하였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옛 봉천성(奉天省)·길림성(吉林省)·동부몽고(東部蒙古) 등에서 13만 정보(町步)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관독불가)……우리 특수한 권익은 확인을 받고, 공공연하게 백일 하에 각 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치안이 안정된 지방에서부터 점차 경영을 위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의 농장으로는 봉천 부근에 있는 이른바 봉천 농장은 아주 오래 전부터 경영을 해 오고 있으며, 수리 관개는 물론, 소작인인 조선인의 노력과 아울러 만주 전체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인 수전(水田)이 되었으며, 평균 반(反) 당 벼 2석(石) 5두(斗) 정도의 수확량을 보이고 있고, 일부 다수확전으로부터는 벼 6석을 수확할 정도로 개량되었으며, 또한 만주미(滿洲米)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권업미(勸業米)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이 농장에서는 관현의 보호를 받으면서 학교·병원 등의 사회 시설이 어디보다 공제조합·소비조합 등도 완비하고 있으며, 농경 자금도 매우 저리로 회사에서 직접 융통해 주고 있고, 항상 농사 지도·부업 장려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운 좋게도 봉천을 손짓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다 보이는 지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가장 평온한 이상향이 되고 있다.

## 2. 안전농촌 지정 사업

안전농촌은, 만주사변(滿洲事變)으로 인해, 오랜 동안 구축해 온 재산이나 수확물을 두고 떠나 몸소 겨우 만몽연선(滿蒙沿線)으로 피난을 갔던 비참한 선농을 농경하기에 적합한 땅에 수용하여, 그들이 당장이라도 농경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남만주(南滿洲)에서는 영구(營口)·철령(鐵嶺) 부근에, 북만주(北滿洲)에서는 주하(珠河) 하동(河東)·수하(綏河) 부근에 각각 1,000 정보 내지 2,000 정보 설비를 갖춰 □□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이들 농촌의 각 지구에는 농무계(農務稷)를 조직하여 그 통제 기관으로서 농무계 연합회를 설치하여 자치제를 통해 농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함과 동시에, 회사는 경험 있는 사원을 파견하여 그 운용·조장을 지도하고, 농촌의 수지는 모두 농촌의 자치체의 계산으로 경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2만 3천여 명의 선농은 미래의 자작농으로서 희망을 잉태하고, 어제의 방랑자는 이상향의 주인으로서 영농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안전 농촌의 개황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위	영구	하동	철령	수화
설정(設定) 착수 연월(年月)		1933년 3월	1933년 3월	1932년 3월	1934년 3월
용수원(用水源) 및 시설		요하 기계관개 (遼河 機械灌溉)	□□하 자연관개 (□□河 自然灌溉)	대범하 자연관개 (大汎河 自然灌溉)	노민하 자연관개 (努敏河 自然灌溉)
지구 실행 면적	정보 (町步)	2,956	2,343	730	1,154
수전 면적	정보	2,400	2,000	600	1,000
성숙년도(成熟年度) 수확 예상치	석(石)	72,000	70,000	18,000	30,000
선농(鮮農) 수용 호수(戶數)	호(戶)	1,047	1,000	260	400
선농 수용 인구	명(名)	5,413	5,000	1,300	2,000
1934년도 파종 면적	정보	1,480	1,398	650	412
1934년도 벼 수확량	석	(약) 30,000	32,000	17,000	4,000
반(反) 당 평균량	석	(약) 2	2.3	2.6	1
파 종 벼 품종		대구조(大邱租) · □ □ · 132호(號) · □□	광□아(光□兒) · 천락조(天落租) · 북해(北海)	경조(京租)	찰황적□ (札幌赤□)
현재 □ 수	□	10	20	6	9
주재경관 수	명	12	35	2	8

또한 성숙년도의 수지 예상은 다음과 같다.

수입 550원

□ · □ · 부업 수입을 포함한다.

지출 460원

종□대(種□代) · 경기비(耕起費) · 비료대 · 농구비 · 노역비 · 부과금 · 생계비 · 차입금지불이자 · 연  
부상환 □□을 포함.

순소득 90원

### 3. 토지 매수 및 수탁(受託) 관리

이 회사에서는 재만 통제 기관의 중용에 따라 다년간 만주에서 경험한 □축을 이용하여 그 실행 기관  
의 설립에 이르는 기간의 실행 방책으로서 쇼와기(昭和期)에 들어와, 장래의 이민지(移民地) 획득 · 개  
량 · 관리 및 토지 분양에 관련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빈강(濱江) 및 삼강성(三江省) (옛  
길림성 동북부)에서 밀산(密山) · 호림(虎林) · 의□(依□) · 발리(勃利) · □천(□川) · □청(□淸) 등의 각



현(縣)에 걸친 광대한 면적의 매수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지권면(地券面) 130여 향(局), 즉 93만 여 정보에 걸친 거대한 면적의 상조(商租) 당사자로서 계약을 완료하였다.

이 밖에 이 회사는 만철(滿鐵) 소유와 관련한 길둔연선(吉敦沿線) 토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 외에, 하얼빈(哈爾濱) 특별시의 의뢰에 따라 하얼빈 특별시의 용지(用地) 매수를 담당하였으며, 사원을 시의 촉탁으로서 수 만 정보의 토지 매수의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 4. 금융사업

재만 조선 동포는 약 100만 명을 헤아리며, 그 대부분은 수전 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선농의 이주 역사는 그리 짧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농경 자금의 부족이다.

즉, 이주 선농은 대개 저축을 하지 못한 채 당장의 의식조차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가 많고, 이로 인해 당장 일상 생계비 및 그 밖의 영농 자금의 차입을 필요로 하며, 어쩔 수 없이 탐욕스러운 선주(先住) 지주에게 월리(月利) 8부 내지 1할 5부에 이르는 고리대금을 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경작을 하여도 수확이 있더라도 이를 지주에게 착취당하고, 다시 생활비의 차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의 연속이다.

이처럼 영원히 국민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창업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여 년간, 이들 선농에게 아주 저리의 농경 자금을 융통해 주어 그 생활 안정에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만주사변 후에는 만주 전체 각 지의 선농 집단지에 농무계를 조직하도록 하여 각 주요 지역에 점차 조선인금융회 설립을 촉진하였으며, 이들 농무계원들에게 농경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현재의 금융회 소재지는 봉천·무암(撫巖)·안동(安東)·안산(鞍山)·영구·철령·개원(開源)·신경·길림·하얼빈·정가둔(鄭家屯)·해암(海巖)·통화(通化)·돈화(敦化)·목단강(牡丹江)·간도(間島) (대본부(大本部)·삼지부(三支部))와 아울러 하동·수화·외차구(外岔溝) 등 각 지부(支部)를 더하여, 그 수는 27군데나 되며, 이들 금융 기관을 경유하여 만주 전체의 선농에게 대부한 농경 자금 및 회사 직영 농장 대부의 농경 자금을 합한 1930년도의 대출 총액은 163만 3천 원, 그 회수고는 142만 4천 원으로, 최근 치안 공작과 아울러 그 회수율은 점차 향상되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35년도 신규 대부금은 180만 원 정도로, 산재해 있는 선농의 안정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그 대부금도 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5. 농축산품 판매 사업

이 회사는 생산 벼 판매의 필요에서, 봉천 철서(鐵西)에 정미공장을 경영하면서 약 5만 석(石)의 정백(精白)을 하여 만철소비조합(滿鐵消費組合)을 비롯하여 각 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벼 생산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곳에 또한 2, 3개의 정미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 회사에서는 양모(羊毛)의 시험 수출을 하였으며, 그 밖에 몽고우(蒙古牛)의 일본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손해와 희생을 하면서도 착착 사업을 진척시켜 간 결과, 우리 해군성(海軍省)과 아울러 유력한 선의 지원에 따라 해마다 1만 두(頭) 내외의 대량 납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진전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회사는 만주국 출현과 치안 공작의 진전에 따라,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발전기를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전 : 平井千乘 「新興滿洲國の經濟線(2) - 滿洲に安全農村の建設」, 『朝鮮及滿洲』 第332號  
京城: 朝鮮及滿洲社, 1935년 7월, 31~33쪽〉

## 7) 만주국의 조선인 이민 통제 내용? - 윤상필(만주국 민정부 척정사 제2과장) 씨와 문답

시일 : 1937년 4월 16일

장소 : 신경(新京) 윤씨택

질문자 : 본지편집장 서범석(徐範錫)

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끌던 만주국의 조선농민 이주통제는 지난 4월 6일 그 실시 요항의 세목(細目) 결정으로 대체의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본지(本誌) 4월 15일 발행 26호 제 7항 참고) 그러나 아직도 통제실시의 원칙적 정신에 대한 당국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통제 발설 당초부터 우리의 뇌리에 왕래하던 회의(懷疑)는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즉 '지역적 통제'와 '수의 통제'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얻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그 통제의 정신을 꽤히 수궁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관한 조선, 일본 방면의 힐문적 언론이 점차 대두함에 있어서 본지는 이 통제의 원칙적 정신을 적출(摘出)하여 설명을 가하는 동시에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기초(基調)로 한 특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만주사변 당시부터 조선인 이민관계를 전폭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민정부 척정사(拓政司), 제2과장 윤상필(尹相弼) 씨와 더불어 이에 관한 대담 기사를 발표 하나니 이것으로 만주국의 이민통제의 내용과 정신의 일편(一片)이 세간에 뚜렷이 나타나면 만족하는 바이다.

서 : 조선 이민을 통제한다는 말이 조선이민을 제한한다는 말로 들리는 경향이 있어 흔히 만주건국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 : 조선 이민을 통제하는 것은 조선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요, 또 조선농민의 이주를 국가가 직접 지도하는데 필요한 사무적 방법이올시다. 그러면 조선농민은 국가가 직접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많이 왔으며 만족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나 만주에 뿌리를 박고 살았었으니까 그렇게 간섭적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조선이민은 그대로 방임하여 두면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일본 이민 보다 훨씬 많이 올 수 있다고 반박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만주국이 일개 단일 민족의 국가 아니요, 5족의 국가인 이상 각기 민족에 적응한 정부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올시다. 만주국의 적성민족의 질과 환경과 의식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아니나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아니하면 잘 오지 아

니하는 민족에 대하여는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방임하여도 잘 오는 민족에 대하여도 만주에서 다른 민족과 사이좋게 마찰없이 잘 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관계 즉 만주국 건국 정신과 이민은 스스로 어떠한 방법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 규정된 방법이 즉 이민통제가 되어 일본이민은 이렇게 조선이민은 저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면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건국정신을 잘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 이민통제의 진의와 정신을 아울러 이해하게 될 것이올시다.

서 : 지금 설명으로 만주의 이민을 만주국의 건국정신에 비치어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잘 알 수 있으나 그 통제에 대하여 회의하는 점은 즉 지역적 통제와 수의 통제올시다. 조선민족이 만주국의 당당한 구성 분자이며 또 일본 제국의 신민인 이상 치외법권 철폐와 동시에 일본제국 국민이 향유한 권리, 즉 일본제국신민은 만주국 영토 내에서 만주국민과 동등한 대우로써 주거 영업 여행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조문(條文)에 비치어 볼지라도 조선인의 자유이주를 지역적으로 또 그 수를 제한한 데 대하여 흥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윤 : 그 점에 대하여는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이해하신다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나 만주국의 구성 민족 중 선주(先主) 민족의 이해관계를 전연 무시한 만주국의 정치가 있을 수 없는 동시에 구성 민족 중 신입 민족의 이해관계를 또한 존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올시다. 지금 조선인은 걸핏하면 자신의 힘을 너무 믿는 폐단이 있습니다. 만주이주를 방임하면 넉넉히 선주 민족과 경쟁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나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올시다. 지금까지 조선인은 선주 민족이 방기하였던 저습지를 개간하여 생활의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금일의 생활토대를 열었으나 앞으로 선주 민족이 수전(水田)에 대한 지식과 이해관계에 눈을 뜬다면 조선인의 수전을 근거로 한 생활토대는 반드시 협위(脅威)를 받을 것이올시다. 당장에 예를 들으면 남만(南滿) 지방의 만인(滿人)의 수전경작지가 매년 증가되어가는 사실과 안봉연선(安奉沿線)의 수전(水田)이 거의 만인(滿人)지주의 손으로 경영 되어 있는 사실을 볼지라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또 한편 조선인의 장래생활이 수전과 □사(□死)를 한다면 조선민족을 위하여 크나큰 불행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주국으로서는 구성 민족의 조선인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조선민족의 이해관계를 제일의적(第一義的)으로 취급하는 지도(指導) 원조지역을 설정하였으며 또 그 다음 지정 집결지역(본지 26호 참고)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지역통제라 하여 일반의 오해를 사고 있으나 이 지역통제를 한 근본정신이 조선민족의 만주생활을 뿌리 깊게 박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것이올시다.

또 지역이 조선의 인접지대이며 조선과 산천이 비슷한 곳이라 조선민족의 적지성(適地性)도 적합한 곳이올시다.

서 : 지역을 설정한 정신은 그러하나 수(數)에 대해서는 1년에 1만호 5만 명이라는 수를 제한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윤 : 이 수를 제한한 것은 결코 영구적이 아니며 절대적이 아니올시다. 지역에 있어서도 결코 현재의 지도 원조지역인 간도(間島)·동변도(東邊道) 23현(縣)과 지정 집결지역인 인접 16현이 영구적이 아니요 절대적이 아니올시다. 왜 5만 명 정도로 정하였느냐 하면 이것은 과거 사변 이래 조선으로부터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의 평균수가 매년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만주

국의 이민통제사무의 한도를 정한 것이올시다. 만주국이 이민에 대한 지도 원조를 하려면 그 실정에 있어서 어떠한 규모가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조선에서 올 수 있는 최고 수효를 한도로 하고 이민지도 원조의 규모를 정한 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자체에 변동이 있어 조선에서 매년 10만, 20만이나 만주국에 이주치 아니하면 아니 될 정세가 되면 만주국에서는 이 정세에 순응하여 지역의 확장, 수의 증가를 결정할 것이올시다.

서 : 지금까지의 말씀은 만주국의 견지(見地)로 조선 이주민을 보는 데서 나오는 의견이며 또 주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주국의 조선이민 통제에 대하여 조선인 자신이 그 합리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그 통제를 실천하는데 열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우가키(宇垣) 씨가 자력갱생운동과 농촌진흥운동을 것처럼 열성으로 하였으나 민간이 이에 대하여 냉정하였기 때문에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 같이 만주국의 조선이민통제가 아무리 그 내용이 진선진미(眞善眞美)한 것이라도 조선인 자신이 그것에 대하여 냉정 무이해 하다면 조선의 자력갱생운동같이 되지 않을까요.

윤 : 물론 그렇습니다. 만주국에서 아무리 조선인의 복리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도 조선인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덤비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떡 주는 사람보다 떡 먹을 사람이 서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민통제를 조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로 우리는 만주건국 정신을 실천하는데 가장 효과 있는 방식은 타민족과 접촉하는 면적을 줄여서 민족 대(對) 민족의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이 점은 만주국으로도 긴절(緊切)히 바라는 바이다. 조선인 자신이 이민족과 공동생활을 경영하는데 항상 마찰만하여 민족적 신망과 친선을 해한다면 결국 소수민족이면서 무력한 존재인 조선인은 구박만 받을 것이요, 구박만 받는다면 결국 낙오하고 말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민족과 마찰이 있을 접촉면의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그 대신 친선면(親善面)의 면적 즉 협화면(協和面)의 확대는 도모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이 외에 조선인 자체만으로 보아서 이민통제가 필요한 점은 첫째로 우리들의 교육이올시다. 조선인 교육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인데 현재 조선인이 이 영령쇄쇄(零零碎碎)히 산재하여 산다면 결국 만주인 본위의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올시다. 만주의 민족협화는 잡연(雜然)하게 혼연(混然)하게 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을 각기 단일민족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하여서 각 민족에 적응한 정치를 행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조선 민족의 단계에 필요한 일본제국의 국민화 교육을 시여(施與)하려면 조선인 본위의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조선인이 분산하여 산다면 조선인 본위의 교육기관을 만들 수 없을 것이올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장래인(將來人)을 우리의 의도대로 교육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또 그 다음은 금융이올시다. 이 금융도 교육문제와 같이 조선인이 만주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능히 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니나 도저히 자유경쟁을 해서 승산이 없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조선인의 본질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아무리 본질이 훌륭한 민족이라도 집단력이 없고 또 이것을 부조하는 배경이 없다면 별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조선인의 농촌생활의 필수조건인 농경자본의 유통이 없다면 조선인 이주민의 생활이 만주사변 전의 빈농(貧農)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선인을 위한다 할지라도 산지사방(散之四方)해서 사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우리의 농민이주민에게 금융이 필요하다면

역시 집단해서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올시다.

또 셋째로는 만주의 현하 정세로 보아서도 아직도 10년 20년은 자위력(自衛力)이 필요합니다. 이 자위력이란 분산하여서 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자위력을 결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집단하여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넷째로 조선인에게 적응한 행정을 우리가 바란다면 또한 우리가 집단하여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올시다. 이것도 간단한 이유올시다. 대체로 만주국의 건국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조선족의 민족적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할 것 입니다. 조선족을 이민족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만주건국의 정신이 아닌 이상 조선족의 발전을 위하여 충분한 행정적 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주국이 왕도국가이며 도의세계라 할지라도 조선인 한 개인을 위하여 민족적 개성을 조장하는 행정적 시설은 못할 것이올시다. 불필다언(不必多言)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상 기초를 만주에 박으려면 만주국에서 흩어져 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살아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만주국에서 모여 살라는데 이의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올시다. 이 행정 기관도 우리가 집결하여 산다면 자연히 조선인 관공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올시다. 이 실례는 간도에 수도룩합니다. 간도의 반분(半分) 이상의 촌장과 촌공리(村公吏)는 대개가 조선이올시다.

서 : 현재 결정된 지도 원조 구역과 집결 지정 구역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윤 : 지도 원조 구역에 있어서의 조선인 이민은 절대 우선권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구역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한 땅을 사려고 할 때 그 땅은 조선인이 사게 됩니다. 즉 동변도(東邊道), 가도 23현에 있어서는 조선농민의 자유 발전이 용허(容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결 지정 지역 16현에 있어서는 일본 내지 이민의 지정지도 있는 터이라 일본 내지 이민에게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조선이민의 집결지로 하고 이 지역은 만선척식회사(滿鮮拓植會社)도 필요에 응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 원조 구역에서는 조선이민과 관계가 없는 만선척식회사는 토지 취득을 할 수 없고 다만 조선인 농민 또는 조선농민을 지도원조하는 만선척식회사만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타 집결구역에서는 조선인 이민이 토지취득을 임의로 못하고 그 구역내에서도 특별히 지정하는 곳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 : 지도 원조 구역과 집결 지정 구역이외의 지방에 현재 거주하는 조선농민을 전부 지도 원조 구역과 지정 구역에 옮기면 지금까지의 조선인이 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윤 : 기왕 집단 통제되어 있는 농촌은 현상 그대로 안정시키고 그 대신 결코 신규 입식(入植)을 안 시킬 방침이올시다.

서 : 이민구역내외의 조선이민이 만주인의 토지를 소작 혹은 임대차 관계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그 농민 자신이 매수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윤 : 편지 한 장이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곳에 얼마 얼마한 면적의 토지가 있는데 시가 얼마 가량으로 살 수 있으니 이것을 내 명의로 사주시오 하고 만선척식공사(滿鮮拓植公司)에 편지를 써서 부치면 만선척식에서는 그 토지를 매수 혹은 개량하는 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이자를 부쳐서 10년 혹은 15년 20년으로 그 농민에게 불하(拂下)합니다. 즉 자작농 창작을 실시합니다.

서 : 그런데 간혹 들리는 소리 중에 지방의 현재 조선인이 소작하는 토지를 농민이 사려고 할 때 현공

서(縣公署)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윤 : 그럴 리가 있나요. 조선 내에서 새로 들어온 농사 기업가들이 토지를 사려고 하는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15정보(町步) 이상은 허가를 맡아야 하니깐 자연적으로 현공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현공서가 그 기업가의 경영안(經營案)이 만선척식공사보다 다소간이라도 나오면 허가를 하나 만선척식보다 농민에 대하여 다소라도 불리하면 허가를 아니하는 까닭으로 그러한 잡음(雜音)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서 : 만주국에서는 지주를 만들지 않을 작정이로군요.

윤 : 자작농을 만들고 지주는 만들지 않을 작정이올시다. 조선과 일본 내지의 폐해를 보고 신흥만주국에서 그러한 폐해를 답습할 리가 만무하지요.

서 : 조선에서 만주의 땅을 사가지고 대지주가 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

윤 : 그야 할 수 없지요. 소수 지주의 호화(豪華)로운 생활을 위하여 다수 농민의 질곡(桎梏)을 만들 수가 있소.

서 : 그만하면 조선이민 통제의 근본정신을 알겠습니다. 만주국에서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좀 더 일반이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여간 이민통제 실시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일찍 충분히 하셨더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들렸을 터인데 그 동안 잡음으로 해서 몹시 우울하였더니 내 자신도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좀 상쾌합니다.

〈출전 : 「滿洲國의 朝鮮人移民統制內容? 尹相弼(滿洲國 民政府 拓政司 第二科長)氏와 問答」, 『在滿朝鮮人通信』 27號, 奉天:興亞協會, 1937년 5월, 2~6쪽〉

## 8) 윤상필, 순리화한 조선이민 입식책

산업부 책정사(拓政司) 제2지도과장 윤상필(尹相弼)

### 이주 전에 가질 이민의 상식

이민문제가 민족발전상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고 오늘 세계의 정세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니와 정치적 혼란이 깊지 못한 우리는 이 문제를 무관심하게 넘기어 버리는 때가 많을 뿐 아니라 도리어는 종종 의혹을 가지고 대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식, 재해의 속출은 자연의 형세로 조선농민을 이 만주로 진출시키었으니 말하자면 조선인의 자각을 있는 활동이 있기 전에 세기(世紀)는 조선민족의 대륙으로의 환원(還元)을 촉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이민문제는 얼마의 험난한 길을 밟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것도 근일에 발표된 조선 이민통제방침의 수정(修正)으로 훨씬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된 이민통제 방침은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더구나 이로 말미암아 조선농민에게 어떠한 경향이 미치는가? 여기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신경(新京) 산업부 척정사(拓政司) 제2지도과 윤(尹)과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제2지도과는 윤과장을 수반으로 조선이민지도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는 관청인데 전 직원의 열렬한 연구와 검토의 결과가 오늘의 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 － 왜 1만호를 입식(入植)하는가?

이번 결정된 신 내용에 의하면 입식호(入植戶) 수를 1만호로 하는 것과 지역제한에 완화인데 이것을 종전의 내용에 비교하여 보면 종전에는 1만호 이내이면 된다 하던 소극적 태도였으나 이후로는 1만호는 꼭 한다는 적극적 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1만호를 한정하였는가. 이것은 이민을 1만호 이상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년 연구 검토한 결과 이 수가 현재의 상태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선 이민을 장려도 하지 않고 제한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아직 조선 내에는 이 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진 달식(達識)의 선비(士)가 없고 여기 대하여 연구를 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 이민에 대한 이해는 극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민을 장려하면 도리어 좋지 못한 경향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 매년 자연히 이래(移來) 하는 농민을 먼저 안정시키려는 주지로서 연 1만호를 정한 것이올시다. 결코 제한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 － 이주(移住) 설명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이주 설명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할 사람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이주설명은 이민을 제한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을 보도(輔導)하기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농민으로서 만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뿐 아니라 어디서 차를 타고 어디서 차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든지 어디 토지는 토질이 어떠한가 기후가 어떠한가는 것은 도무지 모르니까 이주설명이 없이 마음대로 만주로 가라하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봉길선(奉吉線) 반석(磐石)에는 지금 조선농민이 예상 이상으로 이래(移來)하여 가실(家室)·농지(農地)의 협일(狹溢)로 관계당국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농민의 대개가 '반석(磐石)이 좋다'하는 풍설(風說)을 듣고 반석으로 가야겠다고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후(今後)로 이래(移來)하는 농민도 이주(移住) 증명이 없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터이니 아무리 당국의 지도가 민활(敏活)하다고 하여도 일일이 일조(一朝)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만주국 정부 측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우리 측에서 있어야 하겠다고 주장할 형편입니다.

보십시오. 규율이 정열한 군대일지라도 5만 명이나 일시에 하차한다면 복잡한 것을 난면(難免)할 터인데 훈련이 부족한 농민 대중이 일시에 모여든다는 것은 생각하여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주(移住)증명은 이주를 제한하는 증명서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는 이주자의 권리서라고 간주합니

다. 즉 이 증명서에는 어느 역에서 내리어 어느 농촌으로 간다는 것이 쓰여 있어서 도정(途程)에 조금이라도 곤란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각 농촌마다 가옥 기타의 준비를 하여 놓았으니까 부락에 도착 되는대로 곧 정착하여 마음을 부치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가진 자에게는 일정한 농지를 주고 영농자금을 대부하여 준다는 책임이 만주국 측에 있으니까 이주하는 농민에게 대하여는 절대 안전부(安全符)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민 수를 지방별로 나누어 미리 결정하여 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래하는 농민을 입식(入植)지도하려는 것과 아래에서 말할 집합(集舍)·분산이민의 지도를 철저하게 하려는 견지에서 일본 내지 이민지와 특수 국경 지대를 제한 외에는 어느 곳이나 무제한으로 입식하게 되었습니다.

### — 조선 농민 어떻게 이래(移來)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조선 내에서 농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입(移入)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종전과 같이 집단이민·집합이민·분산이민의 형식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집단이민은 만선척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종래와 같이 토지와 가옥을 준비하여 놓고 조선총독부와 교섭하여 이래할 농민의 여비(旅費)를 입찬(立贊)하여주고 영농자금을 대부(貸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니까 무자산(無資産)인 자라도 가(可)합니다.

이번 이민 내용의 변경과 함께 지도에 중점이 되는 것은 집합 이민과 분산 이민인데 이 실시에 있어서는 기왕 조선 농민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가 약간 희생은 당할 지라도 동포의 곤경을 돌아보아 주겠다는 우애정신 하에서 한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합 이민의 경우에 있어서는(이것을 연고취부(緣故取付)이민이라고도 함) 이는 부락에 거주하는 조선 농민이 인근에 매수할 수 있거나 혹 차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 때는 곧 이것을 농무계(農務係)나 금융회에 말하여 금융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집합 이민의 입식 가능한 호수(戶數)와 매수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후, 관계 현공서와 협의한 후에 산업부·관계 현공서·만선척식회사와 금융회 연합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접한 척정사(拓政司), 만선척식공사 및 금융회연합회에서는 삼자간에 다음 연도의 집합 이민의 호수(戶數) 및 자금계획 등을 협의 결정하고 토지는 만선척식에서 매수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와 연락하여 거기 적당한 호수를 입식하게 하는 데 당분간은 만선척식의 소작인으로서 1호당 수전(水田)이면 2정보(町步), 전작(畑作)이면 4정보(町步) 정도를 경작하게 하고 소작료는 현지 금융회의 의견을 징(徵)하여 척정사, 만선척식, 금융회 연합회의 협의로 결정을 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토지의 준비는 금융회의 알선(斡旋)으로 선척(鮮拓)에서 매수하고 영농자금은 금융회에서 대부(貸付)하며 가옥의 준비는 금융회와 농무계의 알선에 의합니다. 그리고 이민의 여비는 자기가 조달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일 금융회가 없는 지방으로서 매수할 토지가 있고 입식이 가능한 곳일 것이면 지방행정 기관의 알선으로 선척이 이것을 매수하고 가옥은 선척과 지방행정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영농자금은 선척에서 대부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기를 보아 자작농을 창정(創定)하도록 합니다.



－ 친지를 이래(移來)하게 할 수 있다.

분산 이민이라는 것은 연고(緣故) 이민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만주국외에 재주(在住)하는 연고자나 혹은 선량한 농장 경영자의 알선으로 초치입식(招致入植)<sup>26)</sup>하게 하는 것인데 토지와 가옥은 초치자(招致者)가 책임을 지고 동포애의 정신으로 알선준비하고 농업자금은 초치자나 혹 금융회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초치자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한 후에 분산이민호기신입서(分散移民呼寄申込書)를 작성(3부)하여 일정한 기한(금년(今年) 혹은 11월까지) 이내로 현공서에 신입(申込)<sup>27)</sup>하면 현은 이것을 수합하여 성(省)을 경유하여 산업부로 보내어 신입하는 수속을 밟게 되고 이래하는 농민은 농무계에서 역에까지 대표를 보내어 지도하게 됩니다. 그런고로 여기 있어서는 초치자(招致者)를 즉 기주 농민이 자기에게 약간의 곤란이 있을지라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한 사람의 친지라도 더 초래하겠다는 사상 하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 아니라 금후로는 금융회나 농무계의 활동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업무가 강화되어지게 되니까 여기 당사(當事)한 각원은 종전보다 더욱 정심전력(精心全力)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언하는 것은 민족적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민의 필요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사람의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 일정한 지반(地盤)을 축성하는 것은 없지 못할 일이므로 동포는 이 점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국책(國策) 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8월 30일 오전 11시 12시新京(新京) 산업부 척정사 제2지도과장실 문책재기자(文責在記者))

참고로 분산이민호기 신청서 양식을 게시하면 왼쪽과 같습니다.

분산이민호기 신입서(양식)

입식 (入植) 시기	승차역과 하차역 (下車驛)	입식자(入植者)				신고자(新故者)		희망자 입식(希望者入植)			
		계약건 입정도	면적	지주주 소씨명	소재지명	희망자 와의 관계	주소씨명	휴대 자금	가족	씨명 연령	현주소
					성현촌둔 (省縣村屯)		성현촌둔 (省縣村屯)		대인		
									소인		
									계(計)		

주(註)

1. 가족 또는 신입자를 포함할 것
  2. 13세 이하를 소인으로 간주할 것
  3. 계약건입 정도는 계약□ 혹은 미계약이면 계약할 수 있는 견입 정도를 기록할 것
- 오른쪽 분산이민호기 신청서는 각 금융회에서 배부할 터이나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양식대로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전 : 尹相弼, 『順理化한 朝鮮移民入植策』, 『在滿朝鮮人通信』 59號  
奉天:興亞協會, 1938년 10월, 11~13쪽)

26) 초치(招致) : 불러서 안으로 들임.

27) 신청이라는 뜻.

## 9) 윤상필, 만주에서 조선개척민에 대한 희망

만주국 흥농부(興農部) 개척총국 참서관 이원상필(伊原相弼)<sup>28)</sup> 각하

(박수) 나는 지금 소개 받은 이하라(伊原)입니다. 원래 성은 윤(尹)입니다. 이번에 씨 창정을 해서 이하라라고 합니다. 만주사변 당시는 여러 차례 경성에 가서 윤소좌로서 여러분 앞에 만주의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만주에서 우리 동포 개척민의 상황을 보고하고 다시 희망을 얘기하게 되어 충심으로 기쁩니다.

만주의 동포 상황 및 개척민의 상황을 말하려 생각하면 아주 시간이 걸리므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화 시간에 관계를 주므로 약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개척민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만주에서 우리 동포의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시리라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만주에서 반도 동포의 수는 아직 확실한 것은 통계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130만 내지 150만이라고 봅니다. 그 동포의 약 8할은 농민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래 수전경영이 많고 작년은 조 800만석을 생산하고 금년에는 840만석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또 사변 당시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 동포의 평판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앞서 니노미야(二宮) 총재 각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주사변 전에는 순박한 우리 농민동포는 일부 나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오지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나쁜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연선(沿線)에 있으면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편 혹은 부청수출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평판이 나빴습니다. 지금은 나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지고 따라서 순박한 동포의 모습이 나타나고 순박한 농민으로서 일반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래 만주국의 선계(鮮系) 관리가 상당히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대우에서도 친임관고등관이 될 수 있고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어지고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또 젊고 우수한 청년이 와서 금년의 고등문관시험만 하더라도 35명이 합격했다는 상황으로 일반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또 조선 내의 여러분이 황국신민이라는 열의가 강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그 영향이 만주에 미쳐서 만주국의 우리 동포에 대한 견해도 바뀌었고, 옛날과 같은 나쁜 평판은 없어지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므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조선동포의 개척민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만주에 대한 조선동포 개척민의 이주를 통제해서 들여보내고, 통제하여 집단개척민, 집합개척민, 분산개척민으로 구분하여 매년 1만호, 대체로 5만 명을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집단, 집합개척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서 니노미야 총재각하도 말씀하셨듯이 만선척식이 취급하는 이민이고 토지는 만주국 정부에서 준비하고 그 부락 기타 건설을 만선척식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만주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내어 학교, 위생시설, 도로 기타 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8) 윤상필(尹相弼)의 창씨명.

분산개척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소위 연고(緣故) 이민이고 이미 만주에 살고 농업경영을 하는 조선 농민이 조선 내에 있는 친구나 친척을 부르거나, 혹은 조선내의 동포가 만주에 있는 동포농민을 의지하여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조선 내와 만주국 양쪽에서 모집을 하고 희망자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 이주증명서를 줍니다. 이에 관해서는 철도운임 할인 외에는 정부의 보조는 없습니다만 학교위생 기타 부락공동시설은 기주동포의 시설을 이용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주하는 분산자유개척민에 관해 만주국은 국경에서 판사처(辨事處)를 설치하여 하나씩 조사하고 이주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입만(入滿)에 관해 각각 편의를 봐주지만 이주증명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도록 통제를 합니다. 그것은 만주에 계획 없이 가서는 농민도 곤란하고 만주 측에서도 곤란한 일이 많아서 준비가 있는 사람만을 들여보내고 준비가 없는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는 방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획 없이 도만한 예를 들면 1937년 봄 길림성의 반석(磐石)이라는 곳에 천수백 명의 무계획 도만자가 기약 없이 모였습니다. 그 시기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이고 임시방편으로 한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경작할 토지가 예정되지 않았고 식량 준비도 없이 도만자의 불안은 물론 만주국으로서도 그 처지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백방으로 분주한 끝에 점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조선에서 오는 분산개척민이 각자 여러 지방으로 원활히 들어간다면 좋겠습니다만, 종래의 무계획 도만자라는 것은 의지할만한 사람도 없고 자세한 사정도 조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문만 듣고 어쨌든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1937년 반석에 모인 사람은 어떤 원인을 조사해 보니 만주사변 당시 반석은 반도인 피난민이 겨우 안전을 얻었다고 조선의 소학교 독본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쨌든 반석에 가면 뭐가 될 것이라고 다수가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면 처지가 곤란하므로 현재와 같은 통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에 관해 조선 내에서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결코 반도인을 만주국 정부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하는 조선동포를 위해서도 역시 만주국 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농민만 통제하고 이주증명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는데 상업 혹은 기타사업을 하거나 혹은 보통 여행자는 아무리 가도 그에 대해서는 국경에서 조사도 안하고 저지도 안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농민만 그러한 통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말씀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조선내의 여러분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하면 개척민에 대한 견해입니다.

만주개척민이라는 것은 반도인 개척민도 내지인 개척민과 함께 일본제국의 신동아 건설의 거점의 배양 확립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개척민이라는 것은 전지에 가서 싸우는 전사 뒤에 가는 사업전사입니다. 국가를 위해 신동아 건설을 위해 만주에 가서 싸우는 용사입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또한 조선내의 전반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주개척에 종사하는 명예로운 일이 되고 모두 스스로 지방하는, 따라서 훌륭한 개척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왕왕 일부에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만주에 가는 개척민은 조선에서 밥을 못 먹는 놈이 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가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아주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선 경성의 여러분부터 하나의 개척민은 산업의 용사, 즉 병사에 이은 용사다, 명예

를 위해 가는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시고 전 조선에 이 사상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는 만주개척민은 조선농촌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 내의 인구 증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신 대로이고 만주에 있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목하의 증가율을 갖고 진행된다면 어느 계산에 따르면 35년 뒤에는 2배가 되고 50년 뒤에는 6천만이 된다, 72년 후에는 1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인구문제를 어디서 해결할까, 동, 남, 서에 갈 곳이 없고 오직 만주 하나뿐입니다. 이 만주에 가는 기척민이 질도 좋고 잘 간다면 만주도 조선개척민을 환영해서 자꾸 갈 수 있게 되고 목하의 상황과 같이 질이 나쁜 사람이 가서 만주국에 불편을 주게 되면 조선개척민을 환영하지 않게 되어 결국 조선 내의 인구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농촌문제도 여러분이 아십니까만 남선지방에서는 어느 지방과 같은 곳은 5반보(半歩) 미만의 소작농민이 이미 6할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국 개척민이 만주에 가서 성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과 같은 유식계급이 조선의 수도 경성에 계시니까 국가백년을 위해 이 개척민을 위해 충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선 내의 여러분이 오늘까지의 상황은 어떻든 개척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조용히 전체 조선을 조망하면 매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무관심합니다. (박수)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뭘까 하는 것을 밤에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지 분들이 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내지의 유식자분들은 이 개척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신문잡지 등에 잘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의 훌륭한 분들은 자비를 들여 수십일 혹은 긴 경우에는 수개월, 내지인개척지를 돌아보며 이를 연구하고 이를 위문하고 이를 시찰하여 돌아가서는 팜플렛이나 잡지에 의견을 발표하여 세간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또한 당국을 편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선 내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과연 몇 명일까요. 만주를 시찰하러 와서는 만주의 도회지를 구경하러 오는데 개척지를 시찰, 위문하러 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만주내의 조선동포는 만주에서 개척민을 위해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만주의 어느 가난한 조선동포가 돈을 모아 개척민의 위문품, 또 위문 영화반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경성 부근에서도 영화회 등을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서 이런 운동은 대체로 동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선 경성에 계시는 여러분이 조선개척민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중대관심을 갖고 개척민을 위문하거나 연구하여 전선적(全鮮的)으로 파급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박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영화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웃음) 유감스럽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박수) 지금까지 실례의 말씀이나 과격한 말도 했습니다만 저도 조선 출신으로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열이 오른 나머지 말씀드렸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출전 : 伊原相弼, 「滿洲に於ける朝鮮開拓民に對する希望」,  
『大陸の開拓と半島』, 京城: 鮮滿拓殖, 1941년, 29~34쪽〉

## 10) 홍양명, 대륙진출의 조선민중 - 만주국에서 활약하는 그 현상

신경(新京) 홍양명(洪陽明)<sup>29)</sup>

### 1. 재만조선인의 현세

김동환(金東煥) 형! 형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나로서 형의 귀중한 지면을 비려 판 사람에게 판소리를 하는 것은 확실히 붓을 들 때의 예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리토록 나의 심적 과정을 잘 이해하여 주실 형은 내가 아직도 어떠한 건설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을 인정하여 줄 것은 더욱 이곳에 온지 겨우 두 달. 최근 수년간 전후 3, 4차 이 땅에 밭을 드디었으나 언제 나 신경 합이빈(哈爾濱)의 두 도회(都會) 이외에 농촌에는 한발자국도 못 밟아 본 나로서 농업국 만주국의 농업이민 조선인의 생활을 운운하는 것은 확실히 외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요새 유행하는 2, 3주간 급제(急製)의 지나통(支那通)들이 전선 부근에 가서 대포소리 몇 방쯤 듣고 와서는 '지나'<sup>30)</sup>가 어떻다는 등 사변의 전도가 어떻다는 등 큰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년센쓰를 연(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어한다. 그러나 기왕 잡은 붓이니 이제 삼가 이전 날 나로서도 알아볼 필요 있는 일이오 일반적으로 다 아는 듯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재만 조선인의 약간의 현세를 최근의 통계문헌을 통하여 지상(紙上) 주마간산격으로 집약 일별하여 보기로 한다.

#### A. 재만조선인의 총수

대체 만주에 조선인이 얼마나 사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조선 내에서 백만이라고 하여온 지 이미 오래다. 그렇지만 현재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은 재만조선인의 이동의 빈번 벽지산재 등의 이유 기타로 인한 조사곤란으로 100만 이하의 수자로 추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가 실수와 훨씬 상이한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는 것이니 이 점은 본년 9월 상순 경성에서 개최되었던 시국대책조사회에서 관동군 가타쿠라(片倉) 참모가 재만조선인 수를 120만이라고 발표한 사실로써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록에 남아난 성(省) 별 재만조선인 수를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재만조선인 성별 조사(1938년 6월 현재)

간도성	530,145인
봉천성	99,896
통화성	78,730
길림성	77,791
목단강성	66,214
안동성	44,228
빈강성	36,194

29) 본명은 홍순기(洪淳起).

30) 중국.

삼강성	22,525
금주성	16,822
용강성	6,121
홍안남성	3,881
열하성	870
흑하성	858
홍안서성	805
홍안동성	328
홍안북성	320
신경특별시	7,032
관동주	3,917
총계	996,677

이와 같이 전 16성과 신경특별시와 관동주에 있는 최근의 조선인 총계는 996,677인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간도성이 약 반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간도가 조선의 연장이나 다름없는 조선인 밀집지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간도성의 전 인구의 약 8할은 조선인이다. 이 숫자를 편의상 기준으로 하여 생각할 때에도 전만 총인구 약 3천만에 대하여 조선인은 약 30분의 1을 점유하고 있어 만주국의 곡곡에 조선인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만큼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최근 15년간에 매년 얼마씩이나 조선인이 증가되었는가를 표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이 표에 의하면 15년간에 약 50만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고 1931~1932년 만주사변 전후의 각 3개년 간의 조선인 입만(入滿)의 증가수를 비교하여 보면 실로 사변 후의 입만 조선인 수는 사변 전에 비하여 실로 5배 강(強)의 격증을 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즉 좌기와 같은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 만주사변 전 3년간

1927년 말	558,280인
1930년 말	607,119인
위 3년간의 증가	48,839
1년 평균증가	16,279

#### 만주사변 後 3년간

1933년 말	673,794인
1937년 말	888,181인
위 3년간의 증가	214,387
1년 평균 증가	71,462

이와 같은 최근 년의 급속한 증가를 생각하면 총독부 당국의 이민정책이 변경없이 진행되는 한 만선척식을 통하여 매년의 집단이민 10,000호(인구수 약 50,000) 이에 더하여 매년 3, 4만인을 불하할 자유이민을 합산하고 현주 조선인 급 이래(移來)할 조선인의 자연증가율을 년 1분으로 쳐서 개산(概算)한다면 10년 후에는 2백만 내지 2백 2, 30만의 인구로 증가될 것은 족히 추산할 수 있다. 북지(北支)나 중지(中支) 하지마는 조선인 해외의 대중인 만주국에 있어서의 조선인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될 운명에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1일 치외법권철폐 이래 조선인은 만주국 내에 있어서는 오족협화 중의 중요멤버로서 만주제국신민의 의무를 지는 동시에 이민이라는 관념을 떠난 정착성있는 주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주국정부 급 협화회가 문화습속 다른 타족과의 공존공영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조선의 오족협화를 표방하는 북함민족국가 만주국에 있어서의 일민족적 단위로서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의 한계 및 정책에 대하여서는 필자의 사견도 적어 볼 생각이 있으나 이번에는 략하기로 한다.

## B. 재만조선인의 생업

재만조선인의 생업의 절대 대부분을 점유한 것은 농업으로 1938년 현재 154,10호로써 전 호수 192,897의 약 8할에 해당하며 이것을 지방별로 보면 간도 남만(南滿) 북만(北滿)의 순위이다. 기타는 일용인 약 10,000호 상업 약 7,000호 관공리 2,300호 은행회사원 2,000호 음식점업 1,500호 교원 1,300호 기타직업 약 5,000호 무직 3,000호로 되어 있는데 우중 일용인 약 10,000호중의 대반은 대개 농번기에 농가에 굴용되어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업에 다음 가는 상업의 약 7,000호는 간도 하얼빈 신경안동 봉천 등의 도회에 집중하여 소액자본으로 정미업 기타 소규모의 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리 보잘 것 없는 상태이다. 조선인의 만주국관공리가 상당한 다수에 달한 것은 주목할 점이니 이것은 작년 12월 1일 치외법권 철폐에 따라서 조선총독부관계직원 및 민회직원 등 2,127명이 만주국 관공리로 그대로 인계임명된 것과 또 작년 7월 행정기구개혁 시에 조선인 중견관리 간임(簡任) 칙임(勅任) 천임(薦任) 주임(奏任) 약 25명 임명 또 이어서 8월에 6명의 중견관리가 조선에서 진출된 것 및 이곳에서 만주국 중견관리양성기관인 대동학원출신 기타 현지임용 등을 합하고 만주제국구성의 정신적 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협화회의 직원 되고 있는 조선인증견까지를 가산하면 3,000여 명이상의 조선인이 만주국행정기구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천임(주임)관이 50여 명 간임(칙임)으로는 최남선(건국대학교수) 박석윤(외무국조사처장) 진학문(내무국참사관) 이범익(간도성장) 유흥순(간도성민생청장)의 5씨가 있고 천임으로는 윤상필(척정사제2지도과장) 씨 외 수십 인의 과장급의 중요지위에 있는 이들이 있어 기도를 토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라 할 수 있다. 신경에만 해도 근 10,000명의 조선인이 사는데 관공리 회사원 등 창백한 인테리가 근 1,000명이나 된다.

## C. 조선농민과 그 생산

재만 조선농민은 말할 것도 없이 미작농민임으로 주요 생산물이 '쌀'일 것은 물론이다. 조선인의 미작에 대한 천품을 찬탄한 이곳의 당국자의 소론에 이러한 구절을 볼 수가 있다.

“조선농민의 수리에 대한 인식은 천재적으로 땅의 고저를 보고 물을 어떻게 유도할가 하는 판단의 정확과 도수(導水)의 개묘(巧妙)는 경탄할 만 한 것이다. 피등 자유이민이 토지를 찾아 걸어다니다가 수류를 보기만 하면 그곳에 수전을 개척한다. 쳐다보지도 않는 산간벽지에 만인과는 똑떨어져 2, 3호의 조선농민의 소답을 지키고 살아가는 광경을 접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실로 조선내지에서 살길을 잃고 남부녀재해야 압록강 두만을 건너와서 고심참담 만인지주의 착취하에서 일보일보 답 개발의 대사 등을 수행한 조선농민 동포들의 한숨과 땀을 상상하면 일개의 위대한 세계의 엘레지라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만주사변 전 이미 백만석의 쌀의 산출이 만주평야에서 조선인 손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작농민인 만인들도 점차 답 경작의 유리한 점을 깨닫게되어 근년에는 만농(滿農)들도 이쪽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가 못 된다.

(중략)

즉 조선농민에 대하여 만농은 수전작부면적(水田作付面積)에 있어 1할 2리 약(弱), 정조(正租)수확고에 있어 1할 1분 4리에 불과하며 반당(反當)수확고도 단연 조선농민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음 전만 조선농민의 미작부면적 및 정조수확고를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재만조선농민과의 수전작부면적 및 정조수확고〉(1938년 5월 조사)

성별	수전작부면적	정조수확고
봉천성	27,059	927,787
빈강성	36,001	1,006,077
길림성	23,993	517,441
간도성	21,237	236,151
안동성	9,232	115,943
삼강성	—	266,847
룡강성	2,754	68,070
홍안남성	2,549	57,940
금주성	839	20,195
홍안서성	490	10,560
흑하성	231	3,780
홍안동성	55	860
열하성	38	800
계	144,088	3,344,449

이로써 보면 조선농민의 미 생산고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빈강성이 단연 제1위 다음 봉천성 길림성의 순서가 된다. 전만조선인구의 태반을 점하고 있는 간도의 미 생산고가 겨우 4위가 되는 것은 간도성의 조선농민은 대다수가 전작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D. 조선농민에 대한 만주국정부의 방책

조선인의 모험 도강(渡江)으로부터 개시된 과거 수십 년 전의 자유이민시대를 지나 통제적으로 이민을 지도하는 계획이민단계에 처하여 만주국정부가 1936년에 칙령에 의한 만선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총독부당국과 협력하여 만주이민의 보호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민방침은 조선이민의 분포지역을 간도성 및 구 동변도(東邊道)의 33현으로 제한하고 일방 거주(既住) 조선인에 대하여는 만주 각 성 중의 16현을 통제 집결지로 지정하였던 것인데 이래 2개년간의 이민실적으로 보아 지역적 집결 내지 입식제한을 할 필요없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금년 7월 27일 이래 지역적 제한을 철폐하게 되었다. 조선인에 대한 획기적인 결집 개선이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인의 교육은 작년 12월 1일 치외법권철폐에 따라 구 만철부속지 내의 보통학교 14교만은 그대로 일본 측(대사관교무부관할)이 경영하나 기외의 공사립학교는 전부 만주국에 이양되었는데 이 점이 문화교류상 중대문제라 할 것이다. 현재 만주국에 이양된 조선인교육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서당 포함)	492교	생도수	69,209인
중등학교	8교		1,651인
유치원	27교		1,136인
특수학교	19교		850인

만주국의 조선인문제으로써 여러 가지 표시하고 논의할 문제 있으나 차차 사정을 더 살피면서 써볼가 하고 위선 이만 각필한다. (12월 15일 신경에서)

〈출전 : 洪陽明, 「大陸進出의 朝鮮民衆, 滿洲國에서 活躍하는 그 現象」, 『三千里』 第11卷 第1號, 1939년 1월, 87~92쪽〉

### 11) 홍양명, 재만동포의 결전생활

매일신보사 신경지사장 홍양명(洪陽明)

#### 1. 특설된 조선인보도부

재만 170만의 반도인은 조직에 있어서는 만주국의 유일한 국민조직인 협화회의 기치 하에 도회에 있어서는 인구 5천이상 현기(縣旗)에 있어서는 인구 1만이상의 반도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조선인보도부를 특설하여 결전체제에 호응한 상시 훈련을 받고 있다.

협화회의 지도목표는 만주국의 국시인 민족협화에 의한 도의국가의 창성에 있으므로 일본인, 만인, 몽고인 등 각 민족을 일체로 한 혼연한 지도체계 중에 있어 특히 반도인은 타민족에 대한 지도중점과

는 별개로 완전한 일본인의 소질을 함양케 하는 것이 지도중점이 되어야 할 필요 상 이상과 같은 특수 조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 2. 개척민의 성과와 지도층의 활약

재만조선인은 심성상으로도 조선내의 '반도인'보다도 외지에서 안거낙업(安居樂業)하는 것의 제국의 광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으로 제국신민된 광영을 깊이 느끼고 따라서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자질을 획득하려는 열의는 대단한 것이다. 특히 국어의 상용, 및 그 숙달이란 점에 있어서는 조선내의 반도인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은 일반이 승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결전체제에 상응한 제국신민다운 생활태도는 만주국의 풍토개발에 정진하는 반도출신개척민의 능률한 자태에서 볼 것이다.

또한 지도회의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완전한 일본문화를 위한 각종의 기획, 행사 등은 도처에 성행, 활발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 3. 재만조선인의 불령사업 문제와 기타

그러나 타면(他面) 일부에 있어서는 소위 외지출가근성이라고 할 지 일확천금을 꿈꾸고 국책에 배리된 아편매매 등 부정업에 종사하던 자 적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체면도 불구하고 유곽, 요리점 등 권장할 수 없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도 다수라 타민족의 모멸을 받는 점이 상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대개 도회지에 거주하는 자들로써 이러한 부류의 존재는 일종의 만주사회화의 하나이라고까지 극언하는 사람도 있다. 또 심성상으로도 도회지에 거주하는 혈기 있는 청년의 일부가 아주 과도한 음주유흥에 탐일(耽逸)하고,(이것은 비단 반도인 뿐만 아니라 외지거주자의 통폐와) 또 대언장어한 식의 과장이 조선 내보다 앞선 것 같다. 진지한 생활태도의 결여. 이것이 지도층에서 걱정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류의 인물도 제국신민된 긍지를 보지하기에 노력하려는 열의만은 가진 듯하다.

〈출전 : 洪陽明, 「在滿同胞의 決戰生活」, 『新時代』 4卷 2號, 1944년 2월, 32~33쪽〉

## 12) 한상룡, 농공병진의 발전을 희망

관동군 고문 한상룡(韓相龍)

만주국은 오족협화라는 특수한 국시를 가진 나라이니까 거기 재주하는 조선인은 특히 영주성을 가지고 좀 더 평화를 주장하여 타민족과의 사이에 원만히 나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만주에 가 있는 조선민족에 대하여는 만주사변 이래로 다소간 오해를 받은 일이 적지 않았는데 남이 오해를 한다

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자각자성해야 우리의 결점을 발견하여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1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오해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도 순조로 해결될 것이다. 듣는 바에 의하면 지나사변 이래 만주에 있는 동포도 애국성을 발휘하여 총후의 봉사에 열렬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서 종래의 오해도 일소되고 상당한 관심으로 조선인을 취급하는 것은 동경하여 불□하는 바이다. 그 실제로는 이주구역의 철폐와 완화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즉 당국의 후의가 깊음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각적 활동이 심대하였든 까닭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만주에는 농업이민이 많이 이주하고 있는데 종금으로는 농업이민뿐 아니라 공업이민도 다수 이주하여 농공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만조선인의 경제력은 전에 비하여 상당히 치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재작년, 여행 중 신경(新京)과 봉천을 일별하고 그 현상이 특수한 것을 보고 대단히 경축하는 마음으로 조선으로 돌아왔다. 재만동포 제군이여! 더욱 면려(勉勵)하고 보전에 주의하여 더욱 융창하기를 바라노라.

〈출전 : 韓相龍 「農工並進의 發展을 希望」, 『在滿朝鮮人通信』 63號, 奉天:興亞協會, 1939년 2월, 16~17쪽〉

### 13) 윤상희, 조선농민의 만주 이주 문제

총독부 사무관 윤상희(尹相曦)

#### 1

현재 재만조선인은 130만 인을 돌파하고 그중 약 80퍼센트는 농민이다. 만주와 조선인의 관계는 멀리 부여(扶餘), 고구려(高句麗), 발해(渤海)의 시대에 소급하고 있으나 근세의 청조발흥(淸朝勃興)이후 조선인의 만주이주 연혁에 대하여 고찰하면 16세기 초기 대청제국을 창건한 태종제와 후예의 여러 제왕은 만주를 조선발상지(祖先發祥地)라고 하여 신성시하고 타민족의 입만(入滿)을 금하였으며 또 일방 당시의 한국정부의 쇄국정책은 도만자를 월강죄(越江罪)로서 처치하였기 때문에 조선인의 만주진출은 거의 불가능시되었으나 청조 말에 이르자 만주봉금(滿洲封禁)의 성명이 점차 이완될 뿐 아니라 노령(露嶺) 연해주에서 조선인의 내왕을 환영하고 특별한 보호를 하였기 때문에 국경재주 조선인은 계속하여 압록강(鴨綠江), 두만강(豆滿江)을 건너 영주적(永住的) 생활을 구하여 이주하게 되었다. 그 후 1869년 압록강안 서북선지방(西北鮮地方)에 흉적이 있었으므로 대안지방(對岸地方)에 이주하는 자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월강금지는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 1890년 소위 경오(庚午)의 대□에 즈음하여 북선지방의 재민(災民)은 월강이주를 개시하였을 뿐더러 한국정부도 월강금지정책을 포기한 결과 여기에 조선인의 공연한 대륙진출의 서(緒)를 열게 되었다. 때마침 안봉선의 개통은 조선인의 만주이주증가의 대박차를 가한 것은 물론이나 1907년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의 설치를 계기로 하여 일층 급격한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21년경부터 당시의 소위 만주 구(舊)동북군벌 정권시대의 관현과 지주 등은 이들 조선

인이주농민에 대하여 주구와 횡포를 일삼았으므로 조선인의 이주상태는 다시 역전하여 퇴세를 보였으며 특히 1926년 이후 사변발발 전까지 그 압박은 첨예화하였다. 즉 1927~28년 전만조선인(全滿朝鮮人)에 대한 대압박 사건을 위시하여 배일사상이 농후한 각현 지사 관하의 선농압박를 목적으로 한 불법사건, 혹은 1931년 당시 조선인을 전율케한 소위 만보산사건 조선농민은 인고묵종의 생활을 계속하였다.

1937년 지나사변이 일어나자 각지에 봉기 도량한 병비(兵匪) 토비(土匪) 등은 반일의 여분을 조선농민에 보수하게 되어 오지거주의 농민은 철도연선의 안전지대에 피난하여 일시는 간도 및 남만에 그 수 각 삼만여 명에 달하였다. 본부는 피난농민의 수용에 노력하는 한편 치안회복되는 지방부터 점차 원주지에 귀환 취농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외 남만에서는 귀환불가능자를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장래 자작농 삼천호 창설의 방책을 수립하고 안전농촌을 간도에서는 집단부락 약 삼천호 창정사업에 착수하였다.

다른 한편 만주사변을 계기로 하여 만주건국이 되니 만주국의 치안은 확립되고 국초(國礎)는 수일 견고하여 짐을 따라 신천지를 목표하여 도만하는 조선농민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신규로 이주한 농민은 도처에서 만주 원주민 혹은 기주조선인과의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방임해서는 쌍방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었으므로 기주농민생활의 안정과 신규이주자의 계획적 이주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어 본부는 1936년 제령에 의한 선만척식주식회사를 경성에 설립하는 동시에 만주에는 모사업회사로써 만주척령에 의한 만선척식주식회사를 신성에 설립하여 양지는 일체불가분관계를 보지케하여 개척민사업에 맡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래 본부는 조선인개척민의 만주입식에 관한 구체적 방책에 대하여서는 필요에 응하여 만주국과 타협한 후 매년 1만호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사변을 계기로 하여 개척민의 문제는 종래의 관점에서 다시 비약적인 열도로써 강구하고 실천을 요하게 되었으므로 종래 단지 기왕의 실적을 기회로 하여 입식을 계속할 뿐이며 소위 국책의 대우를 받지 못한 조선인개척민도 1940년을 전기로 일본인 개척민에 준한 일반 쌍방의 국책개척민으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그 사명으로 말하더라도 단순한 산업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국의 동아신질서건설의 초석됨에 있는 것이다.

## 2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인 만주개척민에 대한 본부의 방침은 만주사변 전까지는 방임형태로 두었으나 그 후는 재만 기주산재농민의 집결안정책과 선내에서 신규이주자의 통제를 청구함에 주안을 두었으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광휘한 각광을 띠우고 등장한 것은 내선개척민의 일원화적 취급책이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검토를 거듭한 결과성책을 보게 되어 1935년 12월 소위 「만주개척정책기본요강」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만주개척민은 일만을 일관하는 중요국책으로서 실시케 되었다.

만주개척정책의 근본정신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만주국을 제국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에 기초하여 민족협화, 일만불가분, 도의국의 건설을 목표함에 있으며 실현을 문화적, 역사적 전통, 국민훈련을 받아온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량이식으로써 그 기저로 잡는 것이니 이 점이 전혀 타국의 일선출가이민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일본과 조선에서 다수의 개척민의 입식계획을 진행하고 막대한 국폐를 쏟아 부어 국가적으로 조성원조를 강구하는 까닭이다.

그러면 개척민의 이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느냐하면 이것을 집단, 집합, 분산의 삼형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즉 집단형태는 대개 삼백호 정도를 동일한 개척지에 집단적으로 이주하는 것이며 그 행정권경제기구에 대하여는 부락의 건설기간 중에는 특수지방자치단체인 개척을 결성하고 영농, 경제 모두 협동방식을 채용하여 점차 협영으로부터 자작농을 목표로 하는 개인경영의 확립을 도모하며 겸하여 행정기구는 일반행정기구인 향촌계에 이행케하고 경제기구는 협동조합을 결성케함으로써 원주민과의 혼성촌의 완성을 서희(庶希)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이의 원활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선 측의 단독부담 또는 선만공동부담 하에 개척민의 개인시설 혹은 공동시설을 진행시켜 개척민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문화적수준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바이다.

집합형태는 대개 50호정도 동일한 개척지에 집합적으로 입식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특수행정기구를 구성치 않으나 당해 지방관계기구에 흡수케 하고 이 개척민에 대한 선만보조조성은 대략 집단형태에 준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분산 형태는 자기 혹은 재만 연고자에서 입식지를 물색하여 개개로 이주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자립하여 원주민과 융합케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만주개척민에 부가된 이와 같은 중대 사명을 수행키 위하여 가급적 필요한 조성과 지도를 농후히 가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달성의 성공 여부는 전혀 개척민 자체의 소질여하에 따르는 것에 비추어 본부는 개척민 전체에 대하여 가급적으로 단기 훈련을 실시하는 외에 1936년 강원도 평강군 세포리에 조선총독부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를 설치하고 특히 만주개척민의 (1) 지도자 될 자, (2) 중견분자 될 자 (3) 청년의용대에 대하여 엄격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정의 훈련을 받은 자는 목하 개척지에 활약하고 있다.

만주개척민의 지도자(연령 25년 이상 중등학교졸업이상자) 될 자는 전선각지의 희망자에서 약 60명을 엄선하여 선내에서 2개월간, 만주국에서 약 10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각 개척지의 단장 혹은 지도로써 설치되는 것이다.

훈련중에 요하는 일체의 경비 외에 단장에는 매월 60원, 지도원에는 3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훈련 후 현지지도에 당하게 되면 단장에는 매 160내지 180원정도, 지도원에는 60원내지 80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중견분자 될 자 소학졸업정도에 대하여는 매년 900명을 남선각도에서 모집하여 약 2개월간, 훈련을 실시한 후 만주에 입식시키는 것이다. 청년의용대원은 소학졸업자로 남선 각 도에서 특히 자질 우수한 자 100명을 선발하여 선내1개월간, 일본 우치하라(内原) 훈련소에서 일본인 청소년의용군과 같이 2개월간, 만주에서 1개 년간 기본적 국민훈련과 군사훈련을 마친 후 조선인 청용대만의 실무훈련소에 옮겨 농사경영, 농촌건설이 실제훈련을 2개년간만은 다음 훈련소제지에 그대로 정착하여 개척농촌에 이행케 하는 것이다. 이들 의용대원중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래지도원으로서 발굴할 방침이다. 본부는 장래의용대에 대하여 특히 주력할 예정이며 개척정책의 일익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 개척민의 기저로서 민족협화의 달성에 공헌케하는 데 있으나 이 제도는 내지에 있어서는 일찌기 만

몽개척 청소년의용군을 편성하여 실시한 이래 예의 그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여 만몽에 불발(不拔)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1940년부터 이 제도를 채용하여 100명의 의용대는 코-스의 훈련을 경유하여 목하 만주 하얼빈 대훈련에서 일본인과 같이 훈련중이나 그 성적은 예상 이상으로 양호하여 그들의 전도는 매우 촉망되고 있다. 다시 되풀어 말씀하면 만주개척민이식계획은 그 중국의 목적은 만주건국의 대이상인 민족협화, 도의국가, 천도낙토의 실현에 기여함에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만주국의 국토개발 즉 산업진흥과 과잉인구로 곤각(困却)하고 있는 국내농촌문제의 해결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이다. 1호 당의 경지면적이 축년(逐年) 약축(縮減)하면서 보내는 것보다는 일모천리의 광막한 만주 대옥야에서 의기에 불타는 개척전사로서 특히 장래 분가할 차남 이하의 청년은 궤기개척에 분가하여 신토지에 신운명을 개척하여 서광에 충만한 생애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북진출은 의용대에 참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사과하는 바이다.

#### 4

전술한 만주이주자 외에 조선인은 중화민국을 필두로 하여 노령(露嶺), 미국 본토, 하와이, 모스크바 등지에도 다수 진출하였으나 특히 재지조선인의 증가는 만주사변 후에 속하고 지리적 관계로 만주국제주자의 전주한 자가 대다수를 점령하여 금차 지나사변 직전인 1937년에는 그 약 1만명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5만명을 훨씬 돌파하였다. 소련령 및 구미제국에 재류하는 자 지금까지 30년 내지 20년 전에 이주자가 그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이주자라고 칭할 만한 자는 모두 없는 상태이다.

재지조선인은 북지 방면 특히 천진, 북경, 청도, 제남, 태원, 석가장과 중지, 상해, 남경, 한구에 그 대다수가 집결하고 있는 상태이나 사변초기에서는 전화를 피하여 귀선하는 자 혹은 안전지대의 만주국, 대만등지로 피하는 자 불감하여 일시에는 퇴세를 보였으나 황군의 연전연승에 의한 오지진출과 후방지대의 치안 확립에 수반하여 다시 이주하는 자 격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이주자의 태반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전각지를 유랑하고 밀수, 금지제품의 취급 등 열국(列國)환시(環視)<sup>31)</sup>중에 제국신민의 체면을 더럽게 함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하면 조선통치상 자미(滋味)롭지 못한 문제를 온양(醜穢)<sup>32)</sup>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본부는 1938년 외무성과 협력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하여금 하북성(河北省) 영하현(寧河縣) 노대(蘆台) 부근의 토지 3천여정보를 기동정부로부터 영조권을 취득케 하여 부정업 조선인 1천호를 수용하였다. 그 외 정부는 재지 각 영사관과 긴밀한 연락 하에 조선인의 생업을 조장하는 일편 기타 교육문화적 시설에도 보호책을 강구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체면을 유지케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조선통치방침은 재외조선인에 대하여도 하등의 차별없이 통용하는 것이나 재만, 재지, 조선인의 일부를 제(除)한 대다수의 조선인은 약진조선의 현정(現情)을 잘 알지 못하고 인식은 극히 천박함으로 본부는 조선의 현상을 충분히 인식시켜 황국신민됨의 본질에 투철키 위하여 만주, 중국, 몽강은 물론 기타 제외국에 재류한 조선인에 대하여도 내선일체의 취지하에 보호지도를 가하며 외무성과 협의의 결과, 1938년 고노에(近衛) 외무대신으로부터 재외 각 공사관에 대하여 발한 통첩은 상술의 취지에 기

31)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봄. 사방을 둘러봄.

32) 남을 모함하기 위하여 없는 죄를 꾸며 냄.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은근히 품고 있음.

초한 것인데 재외조선인의 보호지도에 일기를 획한 것이다. 이래 다시 적극적으로 해외제국에 대하여 잡지, 기타도서를 반포할 뿐더러 각종의 기회 등을 이용하여 조선사정의 소개에 노력하고 있다.

〈출전 : 尹相穢 「朝鮮農民의 滿洲移住問題」, 『春秋』 第2卷 第3號, 1941년 4월, 85~90쪽〉

#### 14) 윤상희, 재만조선인의 취적문제

재만반도동포와 관계가 있는 중요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곤란한 문제는 교육문제이고 밖으로 개척, 금융, 선계관리 등등의 제문제가 해결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해결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말하려 하는 취적문제만이 점차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제문제는 결코 개별의 것이 아니라 재만조선인문제라는 큰 명제 하에 포함되고 서로 관련하여 고려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재만조선인문제가 논의되는 경우, 단지 재만자 130만 명만의 문제로 고찰하고 특히 만주국 내지 내지에 있으면서 조선을 알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은 숫자적으로 소수자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130만은 인접한 반도 2천 4백만의 동포와 뗄 수 없는 것이고 만주국의 소위 선계문제는 반도와 일체불가분의 관점에 서서 환언하면 미나미(南) 총독의 만선일여를 최상의 지침으로 고찰함으로써 비로소 적절 타당한 대책이 발견된다는 것을 명기하고자 한다.

각설하고 조선총독부에서는 본년도부터 3개년간 90만 원의 경비를 써서 그 수 약 6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만 미취적조선인의 취적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본문제는 실로 20수년간의 현안이며 이 해결은 재만동포로 하여금 황국신민이라는 긍지를 높이고 제국신민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시키며 일본인이라는 본질 속에서 만주국 구성분자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층 노력하도록 하는 데 있다.

문제 해결의 순서로 왜 미취적자가 60만 이상이나 생겼는가, 그 원인을 탐구해 보자. 유래, 조선과 만주는 압록, 두만 양강을 사이에 두었을 뿐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특히 옛날에는 지나와 한국과의 경계는 극히……(판독불가)……만주 땅은 넓고 비옥하므로 우리 동포의 만주에 대한 관념은 선내의 토지에 대한 것과 전적으로 동일하고 외국의 토지라는 관념은 거의 없었으며 자유로이 이주, 왕래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월강죄’라는 무거운 형벌도 이 자연의 추세 앞에서는 큰 장애가 아니었다. 조선에 민적법이 시행된 것은 실로 겨우 30년 전의 일에 지나지 않고 1909년 4월 1일의 일이었다. 그 이전의 이주자들은 예외 없이 민적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2년의 통계에 따르면 재만동포는 23만 여가 되었고 실수는 아마 이 이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미취적자라고 추정된다. 또 이후의 이주자 중에도 상당한 미적자가 있었던 것은 민적의 정비에 십 수 년이 필요했던 사실과 현재 조선 내에도 다수의 누적자가 있는 사실과 아울러 생각하면 상당수의 취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0만 이상의 미취적이 있다는 추정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다수의 미취적자가 현재까지 왜 방치되고 있는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종래의 경위를 기술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다.

종래의 경위는 이를 만주건국의 전후로 나누어 기술해야 한다. 만주건국 이전에 주로 구(舊)동북정권-장(蔣)정권하에서는 취적문제도 다른 제문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재에도 거의……(판독불가)……재만동포는 대부분 농민이었다. 당시의 조선농민들이 어떤 환경하에서 생활했는가는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장정권의 극심한 착취하에서 겨우 그 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매우 유감스런 것은 당시의 미황화(未皇化) 조선인은 적로(赤露)의 마수에 휘말리고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수가 적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무장도 갖는 집단을 이루어 선량한 동포도 때때로 이러한 영향 하에서 위장 반일적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량한 치안상태 하에서는 만사가 잘 될 리가 없다. 더욱이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기관이 불비되고 일반 동포는 무학자가 많았으므로 취적 촉진과 같은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동아의 여명이 찾아왔다. 만주국의 빛나는 탄생이 그것이다. 무적자는 자기의 공사(公私) 실생활에도 불리하고 불편한 것은 물론 본부로서도 그 보호지도상 지장이 많았으므로 외무성과 협력하여 극력 취적을 진행하고 종래의 수속도 상당히 간이화하는 한편 1935년 5월에는 비용면에서

- 영사의 거주증명요금 2원 면제
- 부, 읍, 면의 무적증명료 전액 면제
- 대서료 1가(家) 1건 50전 정도로 할 것

등 이제까지 5월 내지 10월이나 그 이상이 필요했던 것을 1월 10전 이내로 끝나도록 했고 또 취적사무는 재만 각지의 조선인민회에서 통일 처리하게 했다. 동년 10월 중에 봉천, 신경, 하얼빈 등 주요도시에서 ‘재만무적조선인취적사무강습회’를 개최하고 전만 각지의 민회직원에게 취적수속을 강습하도록 한 결과 전도는 상당히 낙관적인 상태이다.

만약 민회의 활동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본 문제는 일단 완결될 것이다. 그런데 1937년 12월 1일에는 만주국에서 치외법권 및 만철부속지 행정권의 이양이 이루어져 문제는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조선인민회가 해소되고 본부파견원이 거의 없어져서 수속 이행을 알선하고 직접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거주증명서의 발급기관이 과소하고 취적에 필요한 일본제국의 수입인지, 우표 입수가 아주 곤란하며 무적자 자체의 무지무학과 계몽선전의 불철저에 의한 무관심, 부정대서업자의 횡행, 호적사무취급직원의 절대적 부족 기타 원인으로 필요하고 절박한 사람 이외에는 그다지 수속을 하지 않게 되었다.

곧 만주국은 민적법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국병법(國兵法) 시행도 사실이 되었다. 조선인은 적(籍)의 유무 및 거주국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해도,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가 호적등본이라면 무적자는 이 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는 만주국의 민적법, 국병법 정비상에도 큰 지장이 되고 무적조선인수가 많아서 당연히 긍정하면 안 된다. 그밖에 취적하는 경우에도 자체 입학의 경우에도 주소 변경의 경우에도 여러 경우에 미취적자라는 것이 불리하고 불편한 것은 만주국의 진전과 함께 분명해진다. 한편 본부 및 재만대사관으로서도 치외법권 철폐로 인해 일시 중지한 채로 그대로 방치해 둘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1937년 7월에 발발한



지나사변은 반도동포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애국의 적성을 미증유의 높이로 발로시키고 일본인이라는 것을 한층 강하게 자각하게 했으므로 자연히 취적문제도 시기가 성숙되었다.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시행, 교육령을 개정에 의한 교육열의 양양이 박차를 가한 것도 물론이다.

현재까지 취적사무는 신경의 대사관 외에 봉천(奉天), 목단강(牡丹江), 제제합이(齊齊哈爾), 금주(錦州) 및 하얼빈 등 대사관분주소에서 취급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사무는 대사관병사원(兵事員)이 담당한다. 그러나 시국 때문에 제반사무가 바쁘기 때문에 호적사무에 몰두하는 것이 물론 불가능하다. 이것이 본부가 예산을 계상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현지에서 취적을 촉해야만 했던 원인이다. 이 사전공작으로 이미 1939년 중 '취적사무편람' 1만2천부를 작성하여 관계 각 방면에 보이고 현지 당사자들의 요망을 듣고……(판독불가)……거주증명서를 병사원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규정하고 1940년 2월, 3월 경 씨제도에 관한 전만 각지에서 취지 보급강연회를 할 때에도 취적의 필요를 아울러 역설하고 관계관청과 협의하거나 재만조선인 중 각지의 유력자를 간담하거나 현지사정을 조사해 왔다. 이 후에도 여러 차례 직원을 파견하고 신경파견사무관에게도 특히 명령하여 기획을 하게 하고 총독이 직접 재만대사와 공문을 주고받는 등 일을 진행해 왔다.

한편 대사관으로서도 병사원에 대한 호적사무의 강습회나 연구회의 개최를 한다든지 시험적으로 1지방의 미취적자를 취적시킨다든지 만주국 관계 방면과 교섭하는 등 해결에 몰두했다. 만주국으로서도 지방적으로는 안동성과 같이 술선하여 무적자 해소 사무를 개시하여 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타 봉천성, 통화성, 길림성, 간도성 내의 각 현에서도 자발적인 실행에 나섰으므로 본문제의 해결은 금반의 본부의 계획 실시에 의해 대체적으로 중지부를 찍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럼 본부의 계획이란 어떤 것일까. 3개년 간 90만 원의 경비로 실시하는 것은 전도한 대로이지만 이하 다소 상설하자.

본부의 본 사무에 관계있는 것은 법무, 내무 양국과 외사부이다. 이 3성의 협의 결과 선내의 태세는 대체로 정비되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판독불가)……이다. 이후 도만자의 대거 귀선하는 일은 없다. 만주국과 가장 근접한 도(道)에 취적시키는 것이 편리하므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를 위주로 취적시키는 경향이다. 그러나 만주에서 성공하여 금의환향하여 선내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분명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경성에 낙착하기 때문에 앞의 2개도에 경기도를 추가하고 이상 3도를 취적지, 즉 취적자의 본적지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만주국에 파견된 직원인데 취적관계사무에 전문적으로 지식, 경험 있는 본관 4명 이외에 현지에 들어가 직접 본사무의 촉진을 담당할 '현지직원'을 약 30명 파견할 예정인데 이 30명을 전 만주에 산재하도록 하므로 사냥감이 많은 광막한 임야에 한 마리의 수렵견을 보내는 식이어서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소위 중점주의를 취하여 재주자가 압도적 다수인 간도성과 중심인물과 주직을 가져서 비교적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빈강성(濱江省), 북안성(北安省) 및 무적자의 해소가 코앞에 닥쳐서 현지에서 취적사무가 진행중인 안동성(安東省)을 특히 선정하여 연길, 하얼빈, 안동을 중심으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본관은 관제의 공포와 함께 즉각 배치하고 현지 직원은 이미 채용자도 내정하고 있으므로 곧 본부촉탁 또는 고원(雇員)으로서 정식 채용되어 최대한 조속히 신경에서 취적사무를 취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약 20일간의 강습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전기한 각성에 배

치하는 것이다. 이들 직원은 집무하는 데 최대의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재만일본대사관 촉탁 및 만주국의 성 또는 현의 직원의 신분도 아울러 갖게 될 것이다.

만주국내는 이상의 파견원 외에 종래의 대사관 호적관계자와 만주국 관계 방면의 협력이 있으므로 예상외의 촉진을 본다고 생각된다. 물론 재만 반도동포가 자기들의 문제로서 이 해결에 협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선내 기구도 확충 정비되어야 한다. 이 점에는 당국자들이 철저히 할 것이고 법원관계자도 상당수 증원되어 관계부읍면에도 필요한 경비 보조가 예정되고 있다. 따라서 당소 계획으로 하면 예산도 인원도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일단 체형은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종래 너무 번잡하다는 평이 있고 그 때문에 취적을 현저히 누락시켰다고 할 수 있는 수속문제인데 전술한 만주국에 파견되는 취적사무에서 특히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진 본관들의 역할을 설명하면 관계자 모두가 기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4명의 사람들은 '현지직원'에 의해 작성된 필요서류를 잘 검토하고 서류로서 한 점의 불비도 없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람들의 손을 떠난 서류는 재판소도 문제없이 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부당국자는 말한다. 이들이 파견됨으로써 종래와 같이 재판소에서 반려된 서류는 거의 없어질 것이므로 취적에 필요한 시일은 현저히 단축될 것이다. 물론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하지만 무적증명서, 거주증명서, 인우(麟羽)증명서 등 종래 재판상 불가결한 필요서류의 제출도 면제되도록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취적허가신청서 1통의 제출로 본안이 처리된다. 취적신청자 - 미취적자에 있어서는 수속도 비용도 시간도 생략되어 이렇게 고마울 수 없다. 이 기회에 모든 사람의 취적이 실현될 것을 바란다.

이상 종래의 경위, 장래의 계획, 본부의 의도를 대체로 설명했다. 독자는 이 논설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아마 일이 다 끝난 듯, 앞으로는 술술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재는 겨우 출발점에 선 데 지나지 않고 예상되는 곤란은 많이 있다.

미취적자라 해도 2종류가 있는데 아버지 쪽 아무도 선내에 호적을 갖지 않은 순전한 무적자와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하지 않아서 호적에서 빠지거나 말소되지 않고 있는 자 등이다. 장래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전자, 즉 순전한 무적자가 해소되어도 후자, 즉 호적에 관한 신고를 안한 자가……(판독불가)……않을까 하는 것이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기타 양자(養子)신고 등도 법정기간 내에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사망신고가 없는 자의 경우 300세의 가짜 장수자가 속출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고, 출생신고를 안 하고 그 사람의 혼인신고나 사망신고만 낸 종래의 비상식도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요컨대 호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식을 일반이 가져야 하므로 이번 취적사무의 촉진에 즈음하여 당국자는 선전계몽에 노력할 것이지만 재만동포 일반도 모두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상호 계고(戒告)해야 한다.

또 미취적자의 분포는 전만에 걸쳐 있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주 오래 전에 도만한 자의 자손이 있고 현재 통화성(通化省)에는 150년 전부터 거주해 온 일가도 있을 정도이며 그밖에……(판독불가)…… 거주하고 다시 도만하여 국어는 물론 조선어도 잊어버려서 아는 것은 러시아어와 만어뿐이라는 사람도 수천 내지 만 명을 헤아린다고 하며 무지하여 호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호적등본을 품속 깊이 감추고는 취적수속을 탄원하는 자도 있을 정도이다. 치안이 양호해졌으나 비적의 그림자도 못 볼 정도는 아니며 교통이 발달했다고 하나 아직 오지까지 수십 리 길을 걸어야 하는 지방도 상당히 있고, 통신문관도 마찬가지다. 선농의 유동성 등도 아울러 생각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제일선에 총

을 든 병사의 마음으로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 성패의 분기점인지도 모른다.

〈출전 : 尹相羲, 「在滿朝鮮人の就籍問題」, 『春秋』第2卷 第8號, 1941년 9월, 106~111쪽〉

## 15) 윤상희, 조선인 만주개척민의 보호와 지도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외사무국 이사관 윤상희

### 1

현재 조선인의 만주 이주자는 120만을 훨씬 넘었다. 이 숫자를 보는 사람은 조선인의 만주 이주가 아주 깊게 될 것 같이 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선인의 만주 이주사(移住史)를 상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악전고투(惡戰苦鬪)의 열렬한 역사이었다.

조선인이 만주에 이주하기 시작 된 것은 멀리 부여(夫餘), 고구려(高句麗), 발해(渤海)의 옛적에 올라 가지만 그것을 여기서 상술할 지면이 없으므로 근세의 청조발흥(淸朝勃興) 이후의 연혁(沿革)에 대하여 극히 간단히 살펴보겠다. 즉 청조이후 만주사변(滿洲事變)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을 연대로 고찰하면 이것은 금지시대, 묵인시대, 방임시대, 긴박시대의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 서기 16세기 무렵 청조는 만주를 봉금(封禁)의 나라로 삼고, 당시의 한국과 강도회맹(江都會盟)을 맺고 조선인의 내주(來住)를 금지하였는데 이 정책은 19세기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그 동안 몰래 봉금(封禁)을 엿보는 자도 적지 않았으나 대체로 조선인의 만주 진출은 거의 불가능시 되었다.

제2기. 청조 말에 이르자 만주(滿洲) 봉금(封禁)의 성령(成令)은 겨우 힘이 없게 되는 한편 노령 연해 주에서 조선인의 내임(來任)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인은 대안(對岸)지방에 이입하는 자가 많아졌으나, 월강(越江) 금지는 해소되지 않았었다.

제3기. 1900년 소위 경오년의 대환(大歡)을 맞이하여 북선(北鮮) 지방의 이재민이 접□(接□)하여 월경 이주하게 되고, 1903년 만주 봉금의 정책이 해소되니 여기서 조선인은 공연한 만주진출의 단초를 열게 되어 이주자는 점점 증가하였다.

제4기. 그러나 1921년 경부터 조선인 이주자의 입장은 다시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만주의 소위 동북군 군벌은 조선농민에 대하여 제한압박을 가하여 이주자도 점점 적게 되었다. 더욱이 1930년 배일(排日)사상을 가진 현(縣) 지사 관하에 조선농민 압박을 목적으로 한 불법사건 혹은 1931년 만보산 사건 등 조선농민은 인고묵종(忍苦默從)생활을 계속하여 마침내 만주사변(滿洲事變)은 발발되고 말았다.

### 2

이상과 같이 조선인의 만주이주는 눈물의 역사다. 그러나 일·조(日朝)합병 후 조선인의 만주이주는 조선의 통치상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통감시대 이미 간도에 임시파출소를 두고 재만조선인의 보호지도, 취체(取締)에 당하게 하였다. 이래 1937년 치외법권 철폐에 이르기까지 재만 각 영사관에 필요한

교육, 의료, 금융, 수역(黠疫), 기타 문화, 산업시설을 베풀어 왔다. 더욱이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각지에 봉기 도량한 병비(兵匪) 토비(土匪) 때문에 오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몸만 가지고 철도연선(鐵道沿線)의 안전지대로 그 봉변을 피하였다. 이 피난자의 수는 간도(間島)지방 3만 여인, 남만주 역시 3만여 인에 달하였으므로 조선총독부는 이들의 긴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치안이 회복(恢復)되는 대로 점차 살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에게는 이를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장래 자작농이 되도록 하는 방침 하에 남만주에서는 요지 요지에 안전농촌(營口)·삼원포(三原浦)·주하(珠河)·수화(綏化)을 설치하고 간도에서도 집단부락 설치와 자작농 창정사업에 착수하고 이들 수용자의 항구적 안정을 꾀함으로써 탐욕한 만주지주의 기반(羈絆<sup>33)</sup>을 벗어나 자주독립의 길을 열게 하였다.

### 3

만주사변을 거쳐 만주국이 민족협화를 표방하고 건국이 되니 신천지를 목표로 하여 건너가는 조선인은 날로 불어가는 형편이었고 그 가운데는 아무런 준비도 확실한 목적지도 없이 소위 만연(漫然)히 도만(渡滿)하여 여기저기를 유랑하는 자가 많고 만주 원주민과의 사이에 걸핏하면 말썽꺼리를 만들어 분쟁하므로 이대로 두었다가는 쌍방이 불행에 빠지게 되겠으므로 총독부에서는 급속히 만주이주자의 안정을 꾀할 강력한 총괄적 기관의 설치를 절실히 느끼고 1936년 제령(制令)에 의하여 경성(京城)에 선만척식회사(鮮滿拓植會社)를 설립하고 동시에 이 회사의 사업회사로서 만주국 칙령에 의하여 만선척식주식회사(滿鮮拓植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양 회사는 완전히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관계를 가지고 이민사업에 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래 총독부는 조선이민의 만주입식에 관한 구체적 방책에 대하여는 필요에 응하여 때에 따라 만주국과 상담한 후 실시해 왔으나 지나사변을 계기로 하여 이민문제는 종래의 관점에서 다시 비약적으로 열도(熱度)로써 강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39년 12월 만주개척정책이 일·만(日滿)을 일관하는 중요국책으로 확인되어 그 기본 요강(要綱)이 각의(閣議) 결정을 보게 되니 조선인은 일본인에 준하여 취급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은 단지 경제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제국의 동아 신질서 건설의 초석 됨에 있어 명칭도 종래 이민이라고 칭하고 왔던 것을 개척민(開拓民)이라고 개칭하게 되었으며 장래 소질의 향상과 아울러 수적 확장을 계획하는 동시에 1940년도부터 이를 개척민에 대하여 선·만(鮮滿) 쌍방에서 개척민의 보호지도조성, 훈련 및 기타에 대하여 적극적 지도를 강구하여 그 만전을 기하기로 된 것이다.

여기서 부언해 둘 것은 일본 개척민의 일원적 취급에 따라 종래 조선인 개척민을 총괄 취급해오던 만선척식회사(함(含) 선만척식회사)를 발전 해소하여 일본인 개척민 취급회사인 만주척식회사에도 금년 5, 6월경 통합 예정으로 목하 착착 준비 중에 있다.

### 4

만주척식정책 기본요강에 천명한 근본정신은 제국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에 기초하여 만주

33) 굴레, 속박을 뜻함.

국에 문화적 역사적 전통, 국민훈련을 받아온 내선인을 다량 입식함으로써 의하여 이민족의 중핵(中核)적 존재로 하고 동아 신질서 건설의 거점을 목표로 하여 아울러 일·만(日滿) 불가분의 관계의 공고화, 민족협화의 달성, 국민력의 증가 및 산업의 진흥을 기대함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촉진실현하게 할 구체적 방침으로서 개척관계의 행정기구의 정비강화, 지도와 조성방법, 훈련강화 등에 대하여 그 목적 달성에 유감이 없도록 내·선·만(內鮮滿) 각 당국은 조치하고 있다.

## 5

개척민에 대한 지도와 조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1, 개척민의 그 이주형태에 따라 그 지도방침이 다르다. 즉 이주형태에 의하여 집단, 집합과 분산의 3종으로 나누어 집단형태는 대개 3백호 가량 동일한 개척지에 집단이주하는 것인데 그 행정 경제기구에 대하여는 부락의 건설 기간 중 특수지방 자치단체인 개척단을 결성하게 하여 영농, 경제 함께 협동의 방식에 의거하고 점차 협동경영에서 자작농을 목표로 하는 개인 경제의 확립을 도모케 하며 아울러 행정기구를 일반 행정기구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하여 원주민과의 혼성촌을 이루게 유도한다.

집합형태는 대략 50호정도 동일한 개척지에 집합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인데, 원칙으로 특수행정기구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당 지방관계행정기구에 흡수하게 한다.

분산형태는 자기나 혹은 재만 연고자가 있어서 입식지를 물색하고, 개개로 이주하는 것인데 당초부터 자립하여 원주민과 융합하도록 지도한다.

제2, 선만 양 당국은 개척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교부하여 그들의 건강·교육·경비 등 시설에 조금도 유감이 없도록 하여 그 원활한 발전을 기하고 있다.

〈만주개척민 1호당에 대한 본부(本府) 및 만주국의 보조액〉(도표 생략)

집단, 집합 개척민의 공동시설 지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기하고자 하나 지면관계로 할애하여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단 분산개척민에 대하여는 아직 보조액은 없다.

이상과 같이 만주 개척민에 부하된 중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필요한 조성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중이나 그 소기의 목적달성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개척민 자신의 책임 여하에 달려 있음에 감안하여 본부는 개척민 전체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단기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외에 1940년 강원도 평강군 고삼면 세포리에 본부 만주국 개척지원자훈련소를 설치하고 특히 만주개척민의 (1)지도자 될 자(단장지도원) (2)중견자 될 자 (3)청년의용대(靑年義勇隊)에 대하여 엄격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인 개척민 전체적 수준 향상에 노력중이다. 개척민 훈련 중의 경비 보조액을 게시하면 별지와 같다. (별지는 25항에 계속)

〈출전 : 尹相曦, 「朝鮮人 滿洲開拓民의 保護와 指導에 對하여」, 『半島之光』 44號, 1941년 6월, 10~11쪽〉

## 16) 윤상희, 조선인 만주개척 청년의용대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사무관 윤상희

### 만몽(滿蒙)개척 청소년의용대의 강령

1. 우리는 천조(天祖)의 광모(宏謀)를 받들어 한 마음으로 추진하여 몸을 만주건국의 성업(聖業)에 바치며神明(神明)에 맹서하여 천황폐하의 대어심(大御心)에 어김없이 받을 것을 기함
2. 우리는 몸으로 일덕일심(一德一心), 민족협화(民族協和)의 이상을 실천하고 도의세계 건설의 초석이 됨을 기함.

#### 1

만주개척 청년의용대의 사명은 만주의 별관을 심신연마의 대도장으로 삼고 일·만(日滿)을 일관하는 웅대한 황도정신을 연성 도야하고 농도(農道)를 수련하여 민족협화의 중핵으로서 만주국의 생성발전에 기여할 각종 개척민 특히 개척농민의 기저(基底)될 자질을 육성 훈련함으로서 일만 불가분 관계의 공교회를 도모하고 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도의적 대륙정책의 거점을 배양 확립함에 있다.

의용대의 훈련 형태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으나 의용대는 훈련소에서 대개 3개년 간 씩씩하게 훈련하면 혹은 훈련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혹은 다른 지방으로 옮기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활내용이 풍부한 이상적, 문화적, 지도적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 2

의용대의 연혁(沿革)을 살펴보면 만주건설 직후 일본에서는 대륙개척의 성부(成否) 양론이 상치하여 조야(朝野)의 논란이 되어 있을 1933, 4년경에 이미 만주개척사업의 선각자 사이에는 재향군인을 주체로 한 농촌청소년을 현지에 입식시켜 만주농민의 기저적 분자를 육성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934년 가을부터 익년 봄에 걸쳐 고(故) 동궁대신, 현 우치하라(內原)훈련소장 가등완치(加藤完治) 씨 등의 지도하에 17, 8세의 일본 청소년 14명이 만주국 동부국경 소리하(蘇里河) 연안 효하현(曉河縣) 효하에 입식하고 신명을 걸고 사명관철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것이 즉 금일의 만주 개척청소년의용대의 □□이 되었다.

재래, 일본인의 만주 개척은 단지 성년자 개척민에 그치지 않고 소위 청소년 개척훈련의 방식에 중대한 의의가 있고 또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일본·만주 각 방면으로부터 창도 강조되자 1937년 7월新京(新京)에서 관동군(關東軍), 척무성(拓務省), 기타 관계 방면의 관계자와 회합 협의한 결과 '가칭 청년농민훈련소창설에 관한 방침과 요령(要領)'에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개척훈련이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래 청년의용대는 만주척식회사(滿洲拓植會社)와 만철(滿鐵)의 손으로 예의 그 규모(規模)의 확대를 도모하여 만몽(滿蒙)의 땅에 불발(不拔)의 기초를 세우게 되며 그 창설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독

보(古今獨步)의 원활한 발전을 보고 왔다.

지나사변을 계기로 동아의 시국은 더욱 더 중대하여 짐을 따라 의용대의 사명도 점차 중요성을 띄게 되었으므로 일만 양국은 그 신속한 발전을 서희(庶希)하고 국방국가완성의 신체제 강화의 꺾긴사(喫緊事)<sup>34)</sup>임을 인정하여 1939년 12월 '만주개척정책 기본요강'의 결정의 호기에 의용대에 대한 지도와 경영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와 훈련양태를 결정하였다.

### 3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청년의용대의 일부에 조선인의 참가를 용인하고 일본인 청년의용대와 공동 훈련에 결의된 것이다. 이는 홀로 조선인만주개척민의 향상 발전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커다란 이상을 구체화에 한층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4

말할 것도 없이 의용대의 훈련방침은 황도정신의 대의를 체(體)하여 모두(冒頭)에 게시한 '의용대강령'을 실천함으로써 만주국의 개척 협화의 성업을 달성할 중견개척농민을 육성함에 있으나 훈련은 어디까지든지 종합적 훈련이며 정신도야, 지식함양의 교학훈련, 심신단련의 무도, 교련, 체육과 농사, 특기와 실지훈련과 규율 있는 일상생활 훈련 등 광범 다기(多岐)에 걸쳐 있으나 이것은 물심일여(物心一如)를 도모하고 집단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혹은 항구적으로 유효 적절한 훈련을 실시함을 제 1의(義)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의용대 제도 전체에 대한 훈련형태를 간략히 소개하면

1. 만주국법령에 기초한 청년의용대 훈련소 본부를新京(新京)에 두고
2. 훈련본부는 일·만(日滿)양국 개척관계기관의 협력합작기관으로 하는 의용대의 지도훈련의 일체적 통할에 당하게 하며
3. 훈련방법은 종래와 같이 일본에서 2개월, 현지에서 약 3개월 실시하기로 되었다. 훈련소는 그 기능에 의하여 기본 훈련소와 실무훈련소로 나누어
  - ① 기본훈련소에서는 훈련기간을 1개년으로 하고 기본적 국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만주의 기후, 풍토, 의식주에 친하게 하는 동시에 만주국 일반 사정에 통曉(通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훈련본부에서 직접 경영한다.
  - ② 실무훈련소는 훈련기간은 2개년으로 하고 기본 훈련 수료생에 대하여 기본훈련과 일관하여 농사 경영, 농촌건설의 실제훈련을 철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실무훈련소는 이주지의 실정을 충분 고려하고 갑종(甲種)·을종(乙種) 양종으로 나누어
    - (가) 갑종실무훈련소는 훈련 수료 후 집단 개척민으로서 해당훈련지에 그대로 정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나) 을종 실무훈련소는 훈련 수료 후 개척민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에 이주하여 새로이 농촌 건설을 목표로 하며

34) 매우 중요한 일.

(다) 병종 실무훈련소는 훈련생의 적성, 특질에 따라 개척농민 이외의 자를 훈련하여 개척단 지도원, 의사, 교원 등을 양성하는 것과 전문적 기술훈련을 베풀어 중요광공업부문의 기간 기술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5

그러면 조선인 청년의용대는 어떠한 훈련 형태에 의하느냐 하면 이 역시 기본훈련과 실무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나 조선인 청년의용대에 있어서는 그 민도(民度)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내에서 별도로 예비적 훈련을 받고 일본에서 일본인 청년 의용대와 합류하여 동일한 훈련을 밟은 후 다시 만주로 가서 기본훈련을 경유하여 실무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전술한 실무훈련 갑종, 을종, 병종의 3양태 중 조선인은 갑종만으로 국한하여 훈련을 베풀게 되었다. 환언하면 내지인 의용대는 장래 개척농민으로서 정착할 자에 대한 훈련(갑종, 을종)과 개척농민□ 외의 소위 특수기능자 양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선인 의용대는 원칙으로 개척농민(갑종)에 국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 다시 조선인 청년의용대의 훈련 과정을 보면

- ① 선내(鮮內)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고삽면(高插面) 세포리(洗浦里) 훈련소에서 약 1개월간 예비 훈련
- ② 일본 자성현(茨城縣) 우치하라(內原) 훈련소에서 일본인과 합류하여 약 3개월간 훈련
- ③ 만주국 기본훈련소에서 일본인과 같이 1개년간 훈련
- ④ 이상의 훈련과정을 마치면 조선인의용대만으로 된 실무훈련소에 옮겨 농업경영, 농촌건설의 실재를 2개년간 받은 후 훈련소 소재지에 그대로 정착하여 개척농촌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이 의용대 중에서도 자질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장래 개척농촌의 지도원으로서 발탁(拔擢) 또는 특수기술로서 양성한 것을 고려중이다.

작년 본부에서 모집한 약 백 명의 의용대는 전기(前期) 세포(洗浦)·우치하라(內原) 양 훈련소를 마치고 현재 하얼빈(哈爾濱) 대훈련소에 수련중이나 그 성적은 예상 이상으로 양호하여 관계 방면의 절찬(絶讚)을 넓히고 있는 중이며 조선인의 개척민의 진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오인의 혼열(欣悅)을 금지 못하는 바이다. 누설할 바와 같이 개척민의 사명은 일언(一言)으로 말하면 개척을 통하여 민족 협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함에는 성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이미 자리가 잡힌 성년 개척민보다도 감격성(感激性)과 도야성이 풍부한 청소년을 다량 입식하여 각 민족간의 정신적으로 융합을 도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의미에서 본부는 앞으로 의용대의 발전 조성책에 주력할뿐더러 그 수적 확장을 꾀할 방침이다.

6

그러나 현시국하에 있어서는 산업의 은진(殷賑)<sup>35)</sup>에 따라 인적자원을 다량으로 수요하고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만주 개척민은 물론 의용대의 계획적 입식을 다소 무리 있는 한이 있더라도 기

35) 번창. 번화하고 흥청댐.



어코 수행하겠다는 것은 모두에서 말한 개척민의 사명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며 또한 개척민 입식이 국가의 백년대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후의 조선인 개척민은 주로 북만(北滿)에 입식시키는 관계상 그 영농방식은 선내의 판연(判然)히 다르게 되는 것이다. 즉 북만은 옥야(沃野)천리에 걸친 대평야를 경작하는 관계로 현재 북해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력(畜力), 기계력에 의거하는 대농장경영방식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 의미에서 보더라도 약 3년간 만주국 현지에서 현지 모든 조건에 즉응(卽應)하는 영농방법, 농촌건설 등 맹훈련을 받고 있는 의용대를 입식하는 것이 얼마나 장래성이 있고 유리하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인은 원기발랄하고 진취적 기상에 불타는 농촌청년 특히 농가 차남(次男) 이하로 장차 분가할 청소년이 웅약, 대륙에 진출하여 만주건국의 성업에 힘을 합하는 동시에 옥야천리에 걸친 대륙에 신농촌, 신생활을 건설하여 감격과 광휘에 넘치는 생애를 보내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부(附) 의용대의 자격, 수속과 훈련 중의 대우

(1) 응모자격

- ① 사상 : 장래 만주개척민이 되고자 희망에 불타는 사상 건전한 자
- ② 연령 : 만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남자  
전염성 질환이 없는 건강자.
- ③ 학력 : 소학교 혹은 간이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업에 취미를 가진 자

(2) 응모수속

매년 2월 내지 3월 희망자는 소할(所轄) 부(府)·군(郡) 또는 도(島)에 문의하여 원서에 이력서, 건강 진단서,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하면 도지사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세포(洗浦)훈련소장에게 추천함

(3) 전형

도에서는 지시한 일시에 소정 장소에서 인물 고사(考査)와 엄중한 신체검사를 행함

(4) 훈련중의 대우

훈련중 식비, 의복비, 약간의 수당을 지급함.

<출전 : 尹相巖, 「朝鮮人 滿洲開拓青年義勇隊에 對하여」, 『半島之光』 45號, 1941년 7월, 14~16쪽>

## 17) 김연수, 만주개척민의 동아신건설 참여(라디오 방송요지)

만주국 명예총영사 김연수(金季洙) 씨

만주의 개척사업을 사명으로 하는 선만척식회사가 본일 경성에서 '만주개척민의 밤'을 개최하고 경성부민관에서 오노(大野) 정무총감 각하의 고별사에 이어 니노미야(二宮) 선만척식총재 및 가타타자와

이치로(鎌田澤一郎) 씨의 강연과 개척지관계의 영화를 갖고 널리 일반에게 만주개척에 관한 사정을 소개하는 기회에 내가 약간 만주국에 관계하는 연구로 본방송을 통해 전성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반도와 만주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하고 만주 개척의 중요사명에 관해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조선반도와 만주의 역사적 관계는 아주 오래며 실제로 선만일체로 보루 수 있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후 많은 변천을 거쳐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양자는 국제적으로 구획이 이루어졌으나 상호 교통은 빈번하고 특히 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척지개간 산업은 오로지 반도 동포의 공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주사변 직전까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불행히도 빈발하는 것을 보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우려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만주사변을 큰 전기로 삼아 완전히 면목을 일신하고 미래에는 빛나는 광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궁하면 통한다'는 천고의 명언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년간 면려(勉勵)의 개척자들에게는 물론 반도 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함께 한줄기 햇볕이 찾아왔다는 느낌이 든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주(安住)의 천지, 대만주에서 동포의 활동은 한층 활발해지고 땅이 연결되어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그 총수는 백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자의 생활의 실정에서는 일부분은 일찌감치 왕도낙토의 실현에 환희하며 매일 생업에 힘쓰고 있는 반면, 열심히 영농을 했지만 수확의 태반을 타인의 손에 허무하게 넘겨서 향상의 실을 잃은 자도 있고 또한 부정부당한 영리에 미혹되어 산업을 파괴하거나 정신적으로 타락하여 내외의 불평을 초래하여 동포의 발전상 다시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만주국은 일만(日滿)일덕일심의 근본적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협화에 의한 왕도낙토를 건설하고 도의로 세계에 선다는 큰 이상을 확립하고 착착 제반 제도 시설을 덧붙이며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만 반도 동포도 역시 이러한 만주건국의 큰 이상에 대해 스스로 협력하는 실을 거두고 불량분자를 숙청하여 힘찬 걸음을 것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개척민에 관해서는 일만양국 정부에 의해 시설을 확충하여 1936년 9월에는 조선 경성에 선만척식주식회사, 만주 신경에 만선척식주식회사가 창설되고 오로지 반도 동포의 활동 발전 조성의 대사명을 띠고 신규 이주자의 통제제도, 기주 재만동포의 집결 조성, 재만 기주농가의 자작농 창정, 이주 및 영농에 대한 자금의 융통 등의 사업을 개시하고 건전한 농업개척민, 우량한 만주국 구성분자의 발전에 늘 노력하는 기운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의 지나사변이 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변 이래 황군의 다수 장병은 북지, 중지 또는 남지에서 험악한 무훈을 세우고 총후의 국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하여 동양 평화의 확립을 목표로 함께 매진하고 있는데 각종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동원의 태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의 목소리가 높아져 조선 내에 있어서 노임도 올라가게 되고 피차 논의가 있는데 이 노동력 부족의 이유로 만주개척민의 진출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내에서 노동력 부족에 관해서는 총후국민의 노동능률 증진에 관해 널리 일반의 자각을 환기하고 특히 농촌에서는 청년 및 부인의 근로정신을 종래 이상으로 고취함과 동시에 가축 및 농구의 충실에 의해 부족한 노동력을 완화하는 것은 농촌 자체의 경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성전 목적의 완수상 반드시 함께 개척계획 달성의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개척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면서 작년 말 일만

양국 정부는 만주개척정책 기본요강을 확립했습니다. 반도 동포의 만주농업개척민의 장래는 이로써 한층 향상되는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주개척지의 실상에 관해서는 일부에서 낙관적인 견해가 있고 한편에서는 비관적 재료가 선전되기도 합니다. 낙관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남만지방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적에 의한 것이며 이주 후의 연수도 비교적 오래고 수전(水田) 개척이 이루어진 곳은 곡가(穀價)의 양등과 함께 채산상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비관적 재료라는 것은 전작을 주체로 하는 지방에 이주한 사람들의 현지통신에 의한 것입니다. 무릇 인간의 심정으로 일이 잘 풀리면 혼자 좋아하지만 뭔가 불행하고 불만인 것은 곧바로 타인에게 토로하고 싶은 것입니다만 불평불만, 고통만을 원주지에 통신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이주 이후 노력분투해야만 하는 개척의 결심이 좌절되어 귀향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부족을 감추고 현지에 대한 불평만을 선전하여 일반에게 오해를 주었습니다. 혹은 과거 여러 차례의 수해, 한해이재민이 만주로 이주한 것으로 보아 만주는 비참한 사람이 가는 장소라는 식의 인식을 자연히 일반에게 주었기 때문에 밝은 희망을 갖고 만주에 한다는 높은 이상이 잊혀진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만지방에 수전이 없는 것 때문에 이주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북만이라 해도 교포는 그리 높지 않고 여름에는 고온이므로 수리시설이 계획되면 어느 정도의 개답(開畝)도 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북만국경의 흑하(黑河)지방에서도 훌륭한 미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만에서는 극히 비옥한 토양과 목축에 적합한 초원이 있으므로 진보한 농업경영법을 채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은 비적과 같은 것도 만주사변 직후에는 그 수가 30만이라고 얘기되었지만 현재 불과 1,500에 지나지 않고,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극히 일부분 이외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기왕 총독부의 방침에 기초하여 이주한 개척민 제군은 남만에 동만에 혹은 북만이라는 식으로 각 지방에 걸쳐 그 수도 다수에 달하기 때문에 이주지의 기후풍토는 꼭 똑같지는 않고 따라서 이주 후의 성적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소위 '왕도낙토'는 이주개척이라는 노력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거하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무턱대고 낙토 만주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주 목적을 단지 '안거일락'에 둔다면 큰 잘못입니다. 이주 후 반년이 되지 않아 불안이 찾아와 반도 출발 때의 결심이 좌절되는 자도 있는데 이렇게 신념이 박약하면 가령 진짜 '낙토'에 가도 편안한 생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주에서 개척지를 반도 농촌의 연장으로 수년간의 노력 분투를 경과한 후에 자손들의 번영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특히 개척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깊은 성찰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 이 기회에 개척민을 보내는 지방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개척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출발 때 및 출발 후의 성원의 구체적 방법입니다. 앞으로 개척정신에 불타는 사람들이 출발할 때 오래 살아왔던 산하와 헤어지는 데에는 누구라도 깊은 감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때 지나치게 이별을 슬퍼하여 용기를 꺾거나 격려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조선 내에 이주협회가 설립되어 각종사업의 계획중이라고 들었는데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보내는 자, 보내지는 자, 마음은 같은 만주개척의 한 가지로 결합되어 도만 후에도 끊임없이 양자의 연락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절절히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주 개척의 제일선에서 반도동포와 협력하고 있는 내지인 개척촌에서는 내지원주 마을의 반을 그대로 만주에 옮기는 소위 '반촌이주(半

村移住)나 지방적인 '분향계획(分鄕計劃)'이 실시되어 '개척지'와 '원주지'의 연락이 긴밀이 이루어지고 내지원주 현(縣)과 이주지 만주의 현을 연계하는 '현링크제' 등의 연구가 구체화되는 상황은 이러한 소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반도에서도 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릇 개척이라는 것은 농업 뿐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생을 받은 가치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며 '안거일락'은 정신적 타락일 뿐입니다. 개척의 고심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념은 자손에게 전하고 강건한 사상은 비로소 성공의 맹아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개척민을 선정하여 이렇게 훈련된 개척민이라면 절대로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공의 목표만 세워지면 평화로운 노력생활이 이루어져 친지를 부모로 받들어 여기서 일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진정한 민족협화가 성립하고 만주건국의 정신인 일만일덕일심, 왕도낙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흥아대업의 제일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일본과 독일, 이태리 3국간에 체결된 조약은 실로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표면적인 기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깊어지게 된 우리 일본의 세계진질서 건설상의 책무를 생각할 때 가장 비근하고 가장 실질적인 만주개척계획에 대해 우리 반도의 동포가 내선일체를 구현하며 기꺼이 협력하는 것은 이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약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깊은 이해를 해 주시는 반도의 청년제군, 유식자제현과 함께 다시 만주개척의 추진적 노력을 하고자 함을 맹세합니다.

(김연수 씨는 경성방직주식회사 사장)

〈출전 : 金季洙 「滿洲開拓民の東亞新建設への參加(ラヂオ放送要旨)」, 『大陸の開拓と半島』, 京城: 鮮滿石殖 1941년, 65~70쪽〉

## 18) 신기석, 눈강지구(嫩江地區)의 조선개척민 선견대(先遣隊)

개척월국(開拓越局) 신기석(申基碩)

북변(北邊) 진흥공작(振興工作) 국책의 선(線)에 순응하여 북변 북안성(北安省) 하에 조선개척민을 입식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모범 개척부락을 만들어 개척민 진출의 거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2천호의 집단 개척민을 이주시키게 되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거나 3천호 중 북안성 용진지구(龍津)에 1천호, 눈강지구에 2천호를 이주시키되 미리 개척지의 건설을 하기 위하여 용진지구(龍津)에 219명, 눈강지구(嫩江)에 369명에 선견대가 입식하여 부락의 건축에 매진하고 있다. 나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일주간 눈강지구 선견대의 건설상황 시찰하고 왔는데 그 개황을 적어 실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선내와 만주의 동포가 이 곤란한 임무에 종사하는 선견대에 대하여 후원과 위문을 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눈강지구 개척지는 제제합이(齊齊哈爾)에서 북안을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영년(寧年)이라 하는

역에서 묵이근행(墨爾根行) 기차를 갈아탄다. 묵이근은 눈강현 현공서(縣公署) 소재지로서 최근 발달된 소도시인데 이곳에서 다시 북행하는 건설열차를 타고 두 시간 가량 가면 백근리(柏根里)역에 내리게 된다. 백근리의 동편언덕 위에는 청년 의용대의 갑종 훈련소가 있어 약 300명의 훈련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역에서 서편으로 미슬변한 구릉이 있는데 그 구릉을 넘어서면 금년 선견대의 손으로써 건설한 개척부락이 보인다. 역에서 제1부락까지 약 6킬로미터가 되며 장차 백호단위의 부락을 20개소 건설할 예정이다. 지구 내의 면적은 약 십일만 정보로써 대개 광막한 평원지대이나 경사 완만한 구릉이 기복하고 있으며 중심부는 습지대가 되어 있다. 거주민으로는 만인(滿人)이 여러 개소에 3, 4호씩 산재하여 합계 20여 호가 있으며 러시아인 2개소에 50호 233인 거주하고 있고 독일인도 일호 있다고 한다.

선견대는 금년 9월에 이주한 것으로서 제1차는 9월 17일에 강원도 세포(洗浦) 이민훈련소를 수료한 청년 30명, 동 29일에 전라남도 경북 충남의 네 도에서 선출된 339명이다. 선견대라는 것은 글자의 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지구에 이주할 개척민 중에서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입식 전년에 들어와서 건설과 제설준비를 하여 본대입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조선인 개척민으로써 이러한 의미의 선견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조선인이 이주한 곳은 간도 동변도나 그 외라도 조선인이나 만주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그 곳을 거점으로 하여 건설을 진행할 수 있지만은 북안성의 용진 눈강지구는 조선인뿐 만이라 원주민도 거의 없는 무주지대로서 거점으로 할 곳이 없는 고로 선견대를 미리 이주시켜 자력으로 건설함이 필요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지구는 선견대로서 효시일 뿐만 아니라 북변 진흥공작의 선에 순응하여 북안성에 입식하게 된 것도 처음이요 개척단을 조직하여 단이 중심이 되어 개척지의 운영을 하게 된 개척국책 기본요강에 의한 집단 개척민으로서도 첫 시험인 만큼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이다.

선견대는 이주 후 무한한 고난과 싸워 가면서 건설에 종사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차 선견대가 현지에 도착한 것은 9월 말이어서 백근리 앞 언덕에 올랐을 때 살을 에이는 쌀쌀한 바람이 벌써 북만의 겨울을 충분히 느꼈다고 한다. 즉시 움집(가소옥(假小屋))에 수용되어 부락건설의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부락은 종횡200미터, 175미터의 장방형으로서 주위에 기저 2미터 반, 높이 약 이미터의 방벽을 구축하고 내부에 2호 1동의 가옥 50동을 건축하였다. 가옥의 구조는 장길이 11미터, 넓이 5미터가 1동인데 2호가 수용하게 되며, 결국 1호를 볼 것 같으면 3.5평방미터방 한칸과 3.5미터×2.5미터의 □방으로 되어있다. 벽은 양초(洋草)라는 풀을 흙물에 적시어 벽에 틀어 붙이고 그 위에 양편으로 흙칠을 한 것으로서 방한에 충분치 못한 점은 이하 설명하려니와 하여간 1개월 반 동안에 75미터의 토벽을 쌓고 50동 100호의 가옥을 건축하고 백 수십 필의 말을 사육하며 일부분 땀감의 별채에까지 종사하게 된 것은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괄적으로 볼 때는 선견대의 손으로 물론 대목 목장이라던지 약간의 만주인 고력(苦力)을 사용하였지만 그만한 건설이 되었다는 것은 경이의 사실이나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가 적지 않다. 즉 집은 되었지만 단기일의 공사를 한 까닭과 설계자체에 문제가 없지 않은 관계로 바람벽에서는 바람이 새어서 들어오고 건조하기 전에 얼어서 온기가 채이며 토벽자 루피로 온돌을 놓았으나 이 역시 마르기 전에 얼어서 불을 때면 녹아 무너져서 연기가 올라오고 또 분구가 실내에 있는 까닭에 연기가 끼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리하여 문을 열어 환기를 하게 되니 결국 얼마를 때어도

실내의 공기는 덥지 않고 방안에서 물이 얼며 귀가 따가운 형편이다.

북만(北滿)의 광야 영하 3~40도의 추위에 처자를 데리고 와서 안정을 하자면 제일 겨울의 대부분을 칩거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택을 완전히 하여 방한의 준비가 되어야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번에 건설된 부락은 유감이나마 도저히 안주의 주택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내년이 가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수리를 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해 1900호의 가옥건축에는 설계를 다시 하여 적어도 방한이 완전히 되도록 할 것을 현지 사무소 주임에게 부탁하였다. 선견대 369명 중 병고(病故), 가정의 사정,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선(歸鮮)한 자가 69명이나 되어 현재 301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300명도 아직 정신이 안전되지 못하고 현재 생활과 전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장래의 참고로 그 원인을 고찰하여 볼 것 같으면

1. 선견대의 소질 문제로서 만주 측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질이 좋은 개척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질이 좋은 개척민이라는 것은 물론 신체가 건전하고 만주개척에 확호한 신념을 가질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농업이민인 만큼 농업에 경험이 있는 노동능력자라야만 양질의 개척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묵묵히 모든 고난을 돌파하여가며 만주의 개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반 선견대의 전□을 볼 것 같으면 자기 손으로 팽이를 들고 농사일 하던 사람이 3, 40퍼센트에 지나지 못하며 상업관공직이 20퍼센트 가량이 된다. 조선 총독부에서 선견대 전형을 할 때에 보통학교 졸업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월 60원의 봉급을 준다고 한 까닭에 전부 만주에 취직하는 기분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 고로 만주의 땅에서 정착하여 개척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각오는 적고 될 수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 북안성의 선견대를 식입하여 건설을 하는 계획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 즉 무주지대에 10월이라는 초겨울부터 시작하여 방벽(防壁)을 건축하고 샘을 파고 가옥을 건축하고 부락을 자위한다는 것이 무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선견대가 입식하여 무리하나마 근거점을 만들어 놓아야 내년 봄에 본대 이주하여 건설에 봉사할 수 있으며 가을까지 2,000호의 가옥을 전부 건축하여 가을에는 가족을 불러 올 수 있는 계획이 진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초부터 무리할 줄은 알고 시작한 것이며 따라서 건설의 장애도 어느 정도 부득이한 일이며 국책수행 상에 희생이 된 선견대에 대하여는 동정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3. 다음은 잔류가족의 생활문제로서 일부분을 제한 외는 거의 부양의 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일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주한 이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평균 2원정도의 보수를 지불하고 있어 매일 10원 정도의 의무저금을 하는 외 25원 가량의 송금을 하게 된다고 하나 그것으로는 잔류가족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그것이 걱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을 잔류하고 왔기 때문에 성(性)의 해결이 절실한 문제가 되어서 여자의 낮이라도 보았으면 하고 원한……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절기에 들어 단기일에 건설을 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희생이 있으며 선견대의 소질이 확호한 개척의 신념이 없고 지도원으로 취직하는 기분으로 온 까닭에 사실 와서 보고는 기대와 어그러져서 노동능률이 좋지 못하고 60명에 가까운 낙오자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자동차 운전수 경험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어 트럭을 운전하고 있으며 군축산계(郡畜産係)의 근무하며, 수의(獸醫)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마필의 관리를 맡아보고 있으며, 병원에 있던 사람은 배속의의 조수

로, 기타 면서기 이발업, 순사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장차 부락이 건설되고 생활이 안정되면 모두  
 중요한 인물들이로되 당장의 고통에 견디며 건설함에는 반드시 근육노동을 하던 사람이 필요한 것이며  
 조선 측에서도 특별히 주의할 점이라고 하겠다. 현재는 부락의 건설도 끝나고 내년도 건축의 목재를  
 준비할 필요도 있어 현재 원(員) 300명 중 100명은 부락에 잔류하여 운반 기타사무에 종사하고 200명은  
 2개 대(隊)로 나누어 산에 들어가서 목재벌채를 시작하고 있다. 도착하던 날 오후에 영하20여도에 좀처럼  
 오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용기를 내어 회사원 맹씨와 같이 말을 타고 일본 리수(里數)로 5리쯤  
 되는 벌채 현장을 시찰하러 떠났다. 도중은 내년도 입식할 예정지역의 거의 전부를 볼 수가 있어 부락  
 예정지 등을 보아가면서 벌채 소옥이 있는 러시아인 부락에 도착한 때는 오후 4시경이었다. 벌채 소옥  
 은 벌채에 종사하는 선견대원 100명이 숙식하는 곳으로서 땅을 2미터나 파고 기둥을 세우고 유조(柳條)  
 양초와 흙으로 지붕을 얹었으며 내부는 중간에 복도를 내고 양편에 풀을 깔고 암배라(삿자리)를 깔았으  
 며 양철로 만든 스토부를 10여개 설비한 움집으로서 춥지는 않으며 연기도 부락보다는 훨씬 덜하여 모  
 두 이곳을 낙천지(樂天地)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속반(粟飯)과 무 썰은 것(간절 :干切)과 미역을 띄운  
 국물의 석반(夕飯)을 같이하고 6시부터 좌담회를 시작하였다. 먼저 조선인 개척민의 만주진출의 필연  
 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집단 개척민의 선견대로서의 사명, 건설의 기쁨을 말하였다. 매년 4~50만씩 자  
 연 증가의 인구를 가진 조선은 막대 과잉인구를 국외로 이출(移出)하지 않으면 안되며 극도로 피폐한  
 조선의 농촌은 자력갱생의 구호쯤으로는 소생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민족발전의 대계를 생각할  
 것 같으면 일부의 희생과 일시의 고통은 참아야 할 것이다. 만주의 옥토가 개간되고 문물이 발전되는  
 그날에는 자력(資力)이 없는 조선 사람으로서 무엇으로 참가할 것인가 아직 어수룩한 구석이 있는 만주  
 의 땅에 굳세게 발을 붙이고 흙과 친하여 나가는데 만주에서의 조선 사람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장래  
 의 발전을 위해서는 목전의 곤란을 극복하라. 황군이 중국의 전선에서 혹은 북만의 광야에서 총을 들고  
 싸우고 국경을 지키는 것도 국가민족을 위함이고 흥안의 청년의용대가 팽이를 휘둘러 개척을 하고 총  
 을 메고 훈련을 받는 것도 신대륙정책의 선각자 되려함이 아닌가. 우리는 병역의 의무가 없어 직접 총  
 을 잡고 전선에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길이 없더라도 정신만은 제일선에선 용사와 같이 굳은  
 신념과 성의로서 개척의 선각자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성공의 광명이 있을 것이니 23년 동안은 입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분으로 일하며 쫓겨온 자의 비애를 극복하고 대륙개척의 희망과 열의를 가질 것을 누  
 누히 부탁하였다. 그 뒤를 이어 대원과의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평과 의문이 속출(續出)하  
 였다. 일일이 적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현재의 곤란한 환경에 이기지 못하고 또 자래의 생활에 신  
 념을 가지지 못한 것에 의한 불안과 불평이 많았으나 장래 가옥건축 부락건설 개간영농 자작농 창정에  
 대한 건설적 의기도 적지 않아 긴긴 겨울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11시가 되도록 간담하였다.

아침에는 7시경 기상하여 옥외에 집합하여 동방을 향하여 요배하고 체조술(천회 지운동)을 한 후 간  
 단한 작업을 하고 조반(朝飯)을 먹게 되는데 마침 그날은 1개월 두 번씩 있는 공휴일이어서 옥내외의  
 정돈 등을 하고 휴식한다고 한다.

내부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부락장 밑에 요장(寮長) 반장이 있으며 간부급은 전부 세포  
 (洗浦) 훈련소의 수료생들이다. 그 외 사원 2명이 현지에 주재하면서 지도도 하고 작업도 시키고 한다.  
 벌채는 아직까지 땀감재의 채취에 지나지 못하나 근근 건축용재와 유조채취에 착수하리라 하며 제반

준비는 되어 있었다.

이 읍집은 러시아인 부락의 한 귀퉁이에 있는데 이곳의 러시아인 부락은 모두 11호로 연해주(沿海洲) 방면으로부터 망명한 백계 러시아인으로서 찰란둔(札蘭屯) 부근에 산재하여 농경에 종사하던 것이 1938년 7월에 이곳에 내왕하였다고 하며 생활에 내용은 빈약한 것이었으나 가옥건축의 양식, 경종과 탈곡에 기계를 사전(使田)하는 점, 유축농업(有畜農業)으로서 말과 유우(乳牛) 등을 사육하여 자급자족 경제를 위하는 점 등은 조선인 개척민의 호개(好個)의 모범이 되며 참고가 될 줄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불충분하나마 선전대의 일면을 기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국책수행의 선각자로서 불완전한 가옥에서 추위와 불편을 감내하여 가면서 건설에 별채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을 따뜻한 위문과 격려를 바라고 있다. 위문문 격려문 등의 글이나 위문대(慰問袋) 위문대(慰問隊) 등으로서 위로하여 주기를 바라고 줄필 한다.

〈출전 : 申基碩 「嫩江地區의 朝鮮開拓民先遣隊」,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滿鮮學海社, 1943년, 677~680쪽〉

### 3.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 1) 『만선일보』의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뉴스’ 연재 기사

1-1)

##### 150만 선계(鮮系)동포여! 오등(吾等)의 사업을 지원하라

국가의 치안담보에 정려하고 동족간의 비극은 청산하자는 비장한 전 만선계 국민의 궤기는 각 방면에 다대한 감동과 감격을 주고 150만 선계(鮮系) 국민은 모두 □□ □□ 속에서 아직 미몽(迷夢)을 깨우치지 못하고 헤매이는 공산비(共産匪)들이라도 속히 귀순하여 다 힘써 왕도낙토(王道樂土)의 은혜를 입을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에서는 전 만선계 국민의 한층 더 일면만 임의를 가지게 하고 의식의 명징화를 꾀하는 동시에 물심양면에 걸친 후원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 만선계 국민에게 고하는 격문을 산포하기로 되어 다음과 같은 격문 수 만매를 인쇄하여 인근 내에 각지에 발송하기로 되었다.

##### 격(檄)!

전국의 조선인 동포 제군!

제군은 현재 만주국 동남지구에 망동하고 있는 역도(逆徒)에 의하여 □□한 양민이 얼마나 막대한 고통을 받으며 또 그 숙정공작에 □□□□하고 있는 □□□□ 및 특별공작위원회가 얼마나 크나큰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는가?



더욱이 그들 비적 중에는 우리와 피를 나눈 조선인 동포도 있다 한다. 조선계 국민으로서 우리 또 국가에 있어서 이처럼 불□□한 일이 또다시 있겠는가?

우리만이 왕도국가의 혜택을 받으면 그만이란 수는 없다.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

그들 역도라 할지라도 □□□□만 한다면 우리와 다른없는 국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그들을 귀순케 하여 □□의 나라의 충량한 인민이 되게 함은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만 그리 할 것이 아니라 이는 실로 우리 □□□□을 위하여 또는 민족융화 도덕세계의 창□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까닭 없는 고통 받는 타지의 민중을 생각하고 또 다시 그들의 □정(□正)을 위하여 □□□□ 일□□□하는 □□□□□ 150만의 동포를 대표하여 제일선에서 생명을 바치고 활약하는 공작원들의 신고(辛苦)를 생각하여 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히 있으며 이들 범□히 □□할 수 있겠는가?

전국의 동포여! 쫓겨하여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를 지원(支援)하라! 그리하여 우리들의 열의로써 그들을 □□케 하며 □□의 신고(辛苦)를 □□하여 □□□□□□민의 □□을 □□하여 □□우리들의 □□□□□□을 □□하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나라를 더욱 더욱 빛나는 낙토(樂土)가 되게 할 것이다!

전국의 동지여! □□하여 우리를 지지(支持)하라!

1940년 10월 30일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백(白)

(출전 : 「百五十萬鮮系同胞여! 吾等の 事業을 支援하라」, 『滿鮮日報』, 1940년 11월 3일)

1-2)

### 전만(全滿)에 솔선하여서 신경(新京)의 운동(運動) 드디어 발족(發足), 4일 밤 엄숙 진지(眞摯)하게 지부결성식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에 대한 신경에 있어서의 운동은 극도로써 부끄럽지 않은 성격을 넘어 각 지방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의미로 전 시민이 다대한 열의를 가지고 일제히 후원을 보내고 있는 데 이러한 □정 가운데 4일 오후 7시 반부터 작보한 바와 같이 영락소학교강당(永樂小學校講堂)에서 전시 선계관민유지계 외의 수명 출석 아래 특별공작후원회 신경지부 결성식을 거행하였다. 우선 신경상무의원 박준□(朴準□)씨의 개회사에 이어 동 상무위원 최창현(崔昌鉉)씨 좌장 아래 의사를 진행하여 신기석(申基碩)씨의 경과보고, 총무 박석운(朴錫胤)씨의 총무로서의 지시, 역원 추가가 있는 다음 신경지부장으로선정된 최창현씨의 인사와 사업계획 설명이 있고 계속하여 금후운동에 대한 간담을 한 다음 등야 9시 반경 진지한 지부결성식을 마쳤다. 결정된 신경지부의 역원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최창현(崔昌鉉)
- 상무위원 김도근(金道根) 김태□(金泰□), 이홍주(李鴻周), 김병억(金秉億), □□진(□□珍), 최학준(崔學俊), 이기순(李基淳), 이상주(李常柱), 이갑룡(李甲龍), 김창덕(金昌德), 이병재(李炳在), 김동철(金東喆), 강윤구(姜允求), 유시□(劉時□), 박□식(朴□植), 박용해(朴容海), 윤영호(尹永皓), 방□□(方□□)

더욱 결성된 지부 역원들은 5일 오후 3시부터 협화회 수도 계림분회(鷄林分會)에서 역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의 협의를 하기로 되었다.

〈출전 : 「全滿에 率先하여서 新京의 運動 遂 發足」, 『滿鮮日報』, 1940년 11월 6일〉

1-3)

### 지방 선계(鮮系)의 협력 구체화, 소학생도 함께 참가, 넘치는 열의로 영구(營口)의 지부결성식

(영구(營口)지국전화)

동남지구특별공작에 대한 전만선계 국민의 열기가 전하여지고 현지의 치안상태의 진상이 맡기어짐에 따라 영구 지방에 있는 선계민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동포애의 발로로서 유형무형(有形無形)으로 이 공작에 대하여 힘닿는 데까지 협력과 후원을 하리라 하여 벌써부터 충분한 기운을 일으키고 있는바 중앙으로부터 특별공작후원회 총무 이원상필(伊原相弼) 씨의 □명을 맞이하여 5일 정오부터 영구시 공회당에서 후원회 영구(營口)지부 결성식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대원 영구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각 기관대표의 내빈자 외에 요하 연안에 있는 선계 지주, 선계 소작인, 영구시내 거주 선계 시민, 소학교 생도 등 2, 3백 명 □사는,

1. 개회사
2. 일만(日滿) 국기에 대하여 경례
3. 영령에 대하여 1 분간 묵도
4. 경과보고
5. 지부위원선출
6. 지부결성선언문 낭독
7. □□강연
8. 축사
9. 의연금 각출

의 순서로 진행되어 회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히 진지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하고 특히 격려 강연에는 다대한 감격을 받고 의연금 거둠에 당하여서는 참석하였던 70여 명의 소학교 생도 일동이 학용품대의

일부를 절약하여서라도 일인 앞 30전 씩을 각출하겠다고 신청하여 일동으로 크게 감동시켰다. 한편 일반 민중으로서는 소작인 1호당 1원 이상, 지주 1상당 2원 이상씩으로 하여 영구지부로부터 2만 원 이상을 각출하겠다고 일치하여 언명하였으나 이원 총무로부터 ‘그러면 전만의 표준으로 되므로 그 열의는 고마우나 소작인 1호당 1원 이상 지주 1상당 1원 50전 이상씩으로 감역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이 있어 일동은 이에 찬동하여 오는 11월 말까지 지부 관내의 전거출금을 집계하여 중앙으로 보내기로 하고 오후 7시경 극히 성황리에 폐회되었다.

〈출전 : 「小學生도 함께 參與, 넘치는 熱意로 營口의 支部結成式」, 『滿鮮日報』, 1940년 11월 7일〉

1-4)

### 지부결성식 성대 거행, 봉천(奉天)지부의 힘찬 후원공작

(봉천지사발)

만주국 건국 이때 일반군경의 필사적 노력에 의하여 만주 국경내의 치안과 아울러 각 방면의 안정 공작은 착착 진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변도 지방에는 사상적 색채를 띤 비적이 남아 있어 수많은 현지 민중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들 비적 가운데는 우리 조선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음은 우리들로서 한갓 부끄러운 일인 동시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라 하여 지난 번 신경에서 각 지방 대표들이 모여서 현재 이들을 일면으로 귀순을 시키는 동시에 일면 모범을 하고 있는 각 부대에 대하여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를 조직해서 전 만선계 국민은 일치 협력해서 하루라도 바빠 깨닫지 못하고 반동 정신에 지배되고 있는 그들을 교도시켜 명망한 만주국을 만들겠다는 즉 우리 선계 국민으로서의 최급무의 숙청공작을 전개하기로 되었는데 지난 6일 오후 4시 반부터 봉천시 대화구 대광장 회의실에서 봉천시 하다(多田) 부시장, 중정(中正) 현병대장, 스미다(住田) 경무청특고장, 구야(龜野) 경찰청 특무과장외의 각 관계 기관 일반 시민 측 약 백여 명 출석 하에서 봉천지부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정각 주최자 측에서 개식에 선언되자 일만 국기에 향해 경례가 있는 후 만주 건국에 피흘리고 돌아간 영령의 앞에 1분간 묵도가 있었고 지부장 서범석 씨의 인사가 있어 뒤이어 이원(伊原) 총무의 의미 심장한 일반의 가슴에 피를 뒤끓게 하는 훈사와 공작방침설명이 끝나자 하다(多田) 부시장, 중정(中井) 현병대장 각각 이 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완전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만주국 구성세포 국민인 선계 국민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좀 더 뜻있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달라는 기원을 토하는 축사가 있었고, 동 6시에 폐식 되었는데 폐식을 선언하기 전 ‘이번 지부를 설치하는데 좀 더 우리 의지를 중외에 굳게 천명하기 위해서 지부로서의 선서문을 작성해서 굳게 뜻있게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는 긴급 의견있어 만장일치로서 선서문 제작 위원을 즉석에서 선정하여 작성 상정 시키게 하였다. 그리고 봉천 시내에서 조선의 건아를 엮어길러주고 있는 공업학원 학생 일동은 이 영웅적 사업을 전적으로 찬동하는 의미와 동시에 물질적 후원을 한다는 물질적 표현으로서 이 사업에 헌금하였다. 그리하여 더욱 일반의 가슴은

한 번 더 뛰게 하였는데 식순과 선서문은 다음과 같으며 식이 끝난 뒤 약 한 시간 반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다.

(하략)

〈출전 : 「支部結成式 盛大舉行, 奉天支部의 힘찬 後援工作」, 『滿鮮日報』, 1940년 11월 9일〉

1-5)

### 흥년을 극복코 협력, 유하현(柳河縣)하 동포들의 의기(意氣)

(삼원포(三源浦) 지국발)

유하현에 산재하여 있는 선계 국민들은 목하 전반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에 대하여 함께 힘써 그 목적달성에 협력할 것이라 하여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삼원포 가공소 회의실에 현하 각 부락 대표자 기타 30여 명이 회합하여 본론 앞에 있어서 후원공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였다.

우선 특별공작후원회 상무위원 백원문일(白□文一)(안전농촌 농무계연합회주사) 씨의 개회사에 이어 지난번 특별공작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한 고근구원(高根久元)(국민□□□□) 씨로부터 동후원회에 대한 취지성명과 회의의 경과보고가 있는 다음 유하현에 배당된 현금 20원을 모집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 점과 본 현 주민으로서 공산비(共產匪) 숙청에 대하여 직접 협력할 수는 없는 현상에 있어서 금년은 비록 내년에 보지 못하는 흉작일 망정 각자의 생활을 절약하여서라도 당 현에 배당된 금액 이상을 각 출하도록 힘쓰기를 전원이 서약하고 내일부터 현금 모집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현의 현금 모집은 다시 현하 각 부락별로 최저 담당액을 배정하고 수금한 기한은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로 하여 그 이 내로 현내의 현금을 모아 상무위원 백원문일씨에게 납부하기로 하고 동 오후 4시에 폐회 하였다.

〈출전 : 「凶年을 克服코 協力, 柳河縣下 同胞들의 意氣」, 『滿鮮日報』, 1940년 11월 10일〉

1-6)

### 충천하는 선계(鮮系)의 열의, 관현 각 기관의 절대한 협력원조하에 이 운동의 유종미를 예기(豫期) — 유세반(遊說班) 제4반장 이원(伊原)총무 담(談)

지난 10월 30일 국도 신경에서 결성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를 계기로 하여 전만 각지 150만 선계가 그에 보여준 불타는 보국진심은 필설에 전한 바 있어 황기 2천 6백년의 성기 조선 인사의 대서특서한 바로 각계의 심대한 감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 5일 영구를 비롯하여 봉천, 무순 등 각지에 유세행각(遊說行脚)을 하여 이 불타는 감격을 직접 목도 체험하고 11일부터 개최되는 선지개척단장회의에 출석하고자 급거 귀경한 동 후원회 총무 이원상필(伊原相弼) 씨=개척총국 제2과장=은 10일 아침 동조양호 등 자택으로 방문한 기자에 아래와 같은 직접 목도 체험한 감격을 말하였다. (사진은 이원총무)

나는 11월 5일 영구, 7일 봉천, 8일 무순에서의 후원회지부 결성식에 참석하고 예정지역의 일부 산성현(山城縣)과 흥경(興京) 양지를 금자(金子) 서(徐) 당상무리사와 봉천성 국본(國本) 사무관에 의뢰하고서 11,12당일에 개최되는 선계 개척단장회의를 마치고 다시 13일 사평가 개원 홍령을 향하여 출발할 예정인데 내가 각 현지에서 느꼈던 감격은 도저히 필설을 다할 바 아니다.

일찍이 보지 못한 동원에선 즉! 이 후원회를 통하여 보여준 재만 선계 국민의 불타는 열사봉공! 각 기관, 즉 군부, 헌병대, 경무기관, 협화회, 지방관청에 우리 150만 선계의 운동에 보내준 업적에 오히려 성스러운 감격을 능히 필설로 표현할 수 있으리만은 그렇다고 감추어 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어제 각지 관현과 선계 동포가 보여준 열성을 간단히 피력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번 유세에 스타트를 끊은 영구(營口)에 있어서는 때마침 여름 장마를 능가하는 무서운 호우가 내렸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병대장 경무기관의 각 과장, 협화회, 시의 대표 등을 비롯하여 무려 수십 명의 다수의 참석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성의와 열정 있는 □□는 만장 청중으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할 바 있었으며 또 한편 선계주민의 협의□의도□ 대한 바 있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호우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촌으로부터 농무계장 이하 대표 유지자가 의복을 흠뻑 적시며 전부 출석한 것은 또 그렇다 하거니와 이미 신문 보도와 같이 당초의 중앙에서는 2만 1천 원 정도에 현금을 모집하기로 예정하였던바 당지 주민으로부터 ‘아니올시다 남만은 북만에 비하여 모든 조건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민에 있어서는 각 호의 2원, 지주는 한 상당 2원 이상의 현금을 하겠습니까.’라고 강경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로 생각 하였으나 그것이 전만의 최초이니 만큼 비록 그것이 불타는 보국열에 우리나라의 것이라 하더라도 무리를 하여서는 하는 의견을 가졌으므로 그 취지를 잘 설명해야 그야말로 간신히 그들의 현금열을 억지로 억제하고 예정액 2만 1천 원의 현금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보다도 더욱 감격한 것은 당시 보통학교의 교직원들이 우리가 몇 해의 수신교육보다도 이런 산 교재를 이용함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으로 5-6학년 생도를 방청시키겠다고 하여 부탁을 하였는바 중시를 열심히 듣는 그들은 어린 가슴에 감지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자진하여 학용품대를 절약 현금하겠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에는 당시 장내의 있던 사람은 모두 마음 속으로 울었습니다. 다음 봉천(奉天)에 있어서도 하다(多田) 신장을 비롯하여 헌병대장 동 특무과장, 동 분대장, 경무기관, 협화회 대표 등 다수 참석하여 결성식이 종료하는 오후 7시 경까지 남아 있으며 혹은 축사 혹은 격려사를 주어 이 회합을 의의 있게 하였었고 또 한편 주민에 있어서는 5만 원 이상이라는 현금을 하기로 당장에서 만장일치 가결을 보았을 뿐 아니라 결성식이 종료하자 사무비라고 1백 원 혹은 2백 원의 기부를 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당지 공업학원 생도 직원 일동이 운동 상황을 기보를 통하여 이미 알고서 어려운 학비를 절약하여 실로 360여 원이라는 금액을 지부 결성식장에 지참하였습니다. 전기 영구에서, 또 이곳 봉천에서 보여준 이들 학동의 이 운동에 대한 절대한 협력들이야말로 우리 선계국민의 질적 향상을 말하는 단적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최후로 무순(撫順)에 상황인데, 이곳에서도 전기 당처와 한 가지로 당지 수비대 헌병대장, 시의 경무과장, 협화회 사무장, 시의 서무과장 등등 다수의 참석을 모아 최후까지 축사와 격려사를 주어 관중의 각오를 일층 견고하게 한 바 있었다.

사실은 이곳 무순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지령이 없고 우리도 오후 4시가 지나 문자 그대로 돌연 습

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한 것이 그 주위가 □□□ 드는 밤중에 각 부락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참석하였고 또 미처 이 공지를 받지 못한 유지 대표들이 자진 출석을 하였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간 서류가 거의 없어져서 걱정하는 것을 들은 당지 유지들은 자진하여서 타이피스트를 동원하고 또 당지 청년을 동원하여 긴 밤을 한 잠 자지 않고 그 준비를 하여 익일 □시까지에 갖추는 등 참으로 무서운 힘이였다.

또 하나 끝으로 소개하려는 바는 당초에 중앙지부에서는 3천 원을 예정하고 있었던바 '이런 것을 중앙에서 마음대로 예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무순 주민의 불타는 집중열을 모르는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거의 항의하다시피 하여 찾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여러 번이나 '무리들 하지 말라' 부탁하였으나 그들의 의견이 한 층 더 강경하여 드디어 5천 원 이상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는데 그 방법은 당지 학교 조합의 조합비 부과를 □□□ 각오에서 기부하는 한편 극빈자에 있어서도 1호당 1원씩의 거□을 □하기로 되었다.

이상 그 대략을 말하였으나 이는 나의 느낌과 감격의 십분의 일도 못되는 것인데, 요컨대 나는 끝으로 이 운동은 각 □□□에 이와 같다. 절대한 □□ 지지와 150만 선계국민의 불타는 열의로 반드시 □□□를 뺏고야 마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출전 : 「冲天하는 鮮系の 熱意, 官憲各機關의 絶대한 協力援助下에 이 運動의 有終美를 豫期, 『滿鮮日報』, 1940년 11월 11일〉

1-7)

### 열성에 넘치는 격려문 비래(飛來), 각지로부터 공작에 찬동

150만 선계 국민이 그 명예를 위해서도 악몽(惡夢)에 잠자는 조선출신 공산비(共產匪)를 귀순시키겠다고 꺾기한 선계 국민의 동남지구특별공작에 대한 후원운동은 전만은 물론 조선 내에까지도 대대한 관심과 열성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요사이는 동 특별공작후원회에 대하여 각지로부터 열성 넘치는 격려문(激勵文)이 보내어지고 그 중에는 조선 내로 무리의 격려문도 있어 어린 청년은 직접 본 공작에 참가하고 싶다는 희망까지 말하고 있다.

제5반 유세제래해(遊說際來海)

(해림(海林)지국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 제5반 유세대반장 장기원(張□□) 씨를 비롯하여 단원 김삼열(金三悅)·목촌해운(木村海潤)·최상영(崔尙英) 제씨 등 일행은 동 후원의 취지를 널리 일반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13일 재래하여 동 지역 유지 다수를 복해반점(福海飯店)에 초대하여 동일 오전 일시부터 간담회를 열고 공작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해림(海林)지부는 김정환(金□桓) 씨를 중심으로 결성될 터인데 동후원회 공작기금연을 해림 환당 금액은 2천 원으로 결정 되었다고 한다.

〈출전 : 「熱誠에 넘치는 激勵文 飛來, 『滿鮮日報』, 1940년 11월 17일〉

1-8)

**오상현(五常縣) 하 각 지구에 간사(幹事)를 두고 활동 개시, 활발해지는 각지 후원 공작**

(오상 지구 발) 동남지구밀림지대에 번거하며 치안을 문란하게 하는 공산비 중에 조선인이 있음을 통탄하여 재만 150만 선계 국민이 동포애에서 우리나라의 정의로 그들에게 귀순을 권고하여 정치를 보도하는 한편 특별에 노력중인 일반 군경을 위문 격려하고 숙청지구 주민의 안정을 목적하는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국도 신경(新京)에서 전만대표 참집하여 성립되자 즉시로 각 지방 선계 국민들은 이 후원회의 취지에 열광적인 찬의를 표하여 지부 조직을 □고 이미 적극적 활동에 들어가 있음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같은데 빈강성(濱江省) 오상현(五常縣)에 있어서도 지난 6일 빈강성지부가 결성된 이래 이에 호응하여 빈강성 지부 오상현위원(五常縣委員) 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오던 중 좀 더 이 운동을 조직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지난 12, 3 양일간 두 지구별로 오상현 선계 유지 간담회를 오상현 위원 양정현(楊正鉉)·손경호(孫景鎬)·이나영(李羅英) 3씨의 알선으로 12일 오후 1시부터 오상지구회의 동 협화회 오상현 본부회의실에서 오상가 부근 각 농장대표 10여 명 참석하여 개최하였고 다시 13일 오후 1시부터는 산하둔(山河屯) 지구 회의를 협화회 산하가 분회사무실(協和會山河街分會事務室)에서 역시 산하둔 부근 각 농장 대표 10여 명 참석 하에 개최하여 본현 내에 있어서의 본 운동과 적극적인 전개 방법을 토의한 결과 이 현에서는 금년 여름 이래로 제1선 오지 부락에는 수차의 비습(匪襲)을 직접 당하였고 장차로도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이 운동이 박진성(迫眞性)을 띠게 되어 모두 흡족한 이 운동의 성공을 확보하고 노력할 것을 맹세하고 현금에 있어서는 본부에서 지시한 표준액 이상을 오는 20일까지 모으기로 하고 이 운동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오상현간사(五常縣幹事)를 각 지구별로 선출결정하고 다시 오는 16일 신경본부에서 박석운(朴錫胤) 총무(總務)가 대오하게 되었으므로 당일 오후 1시부터 오상협화회청년훈련소강당(五常協和會青年訓練所講堂)에서 박총무 중심으로 전현간사회(全縣幹事會)와 일반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하략)

〈출전 : 「五常縣下 各地區에 幹事두고 活動開始, 活潑해지는 各地後援工作」,  
『滿鮮日報』, 1940년 11월 19일〉

1-9)

**오상현(五常縣) 위원회 개최,  
공작 의연금 3천 원 각출(釀出) 결의, 신기석(申基碩) 씨 출장 유세**

(오상 지구 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가 결성된 후로 각지에서 열렬한 지원이 봉화와 같이 일어나 기 □와 빈강성(濱江省) 오상현(五常縣)에서도 벌써부터 이에 대한 준비 공작을 착착 진척 중에 있는데 지난 11월 16일 당지 협화회청년훈련소강당(協和會青年訓練所講堂)에서 각지 대표자 50여 명이 모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이날 중앙으로부터 참석하기로 예정하였던 중부 박석운(朴錫胤) 씨는 의외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개척총국 사무관 신기석(申基碩) 씨가 참석하여 금번 특별공작에 대한 취지 설명과 격려의 말을 주어 일반의 감명을 깊게 하였는데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환당 현금 2천 원에 대하여 좀 더 사업 성취에 전력을 다할 것을 부르짖고 3천 원을 목표로 하여 동포의 성의를 표시할 것을 결의한 후 화기애애한 중에서 오후 5시경 폐회하였다.

(하략)

〈출전 : 「五常縣委員會開催 工作義捐金三千圓釀出決意 申基碩氏出張遊説」, 『滿鮮日報』, 1940년 11월 20일〉

1-10)

### 각지 상무위원에 현금모집 독려, 모집기한은 금월 말일까지

동남지구특별공작(東南地區特別工作)에 대한 전만선계 국민의 일사불란의 후원공작은 우선 후원체제의 □□으로서 발족하여 동 특별공작후원회의 지방유세반의 파견과 □□□□의 □□□□ 활동으로 동 후원회의 전만 주요 지방의 지부(支部)가 거의 그 결성을 마치고 각지에서 본 지부를 중심으로 우선 당면의 후원 방법인 현금(獻金)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 후원회본부에서는 최초의 목표 기한인 11월 말일 이내로 예정액의 온 현금 모집을 끝내기로 되어 19일 전만 각지의 상무위원(常務委員)에 대하여 오는 25일까지 각지 배당액을 모집하여 금일 안으로 본부에 도착하도록 본 공작을 진행하도록 의뢰와 격려의 전보를 발송하였다.

김형룡(金亨龍)·이성재(李性在) 양씨(兩氏) 사무경비 50원씩

공주령(公主嶺) □□의 김형룡 씨와 본사 대표 취체역 이성재 씨는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에 대하여 사무경비로 각각 50원씩을 기부하였다.

〈출전 : 「各地常務委員에 獻金募集督勵 募集期限은 今月末日까지」, 『滿鮮日報』, 1940년 11월 21일〉

1-11)

### 교하(蛟河)지부 결성, 공작에 협력할 것을 서약

(교하(蛟河)지국발) 지난 16일 오후 6시 교하공회당에서 교하 현내 거주 조선인 500여 명이 결성하여 현민대회를 개최하고 앞서 만주 동남지구에 산거하는 비적 그 가운데 약간 섞여 있는 조선 동포 그들을 귀순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함께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에서 특파된 □□□□한 □□이며 신경협화회 계림본회장 김응두(金應斗) 씨의 간곡한 동회의 취지 설명의 강연을 듣고 그 취지를 찬동하는 동시에 동회 교하지부를 결성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역원을 임명한 후 길림림노조에 부대에 이 위원을 전보하였다.

선서(宣誓)

우리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교하지구위원회원 반도인<sup>36)</sup> 일동은 전만 회원과 일치협력하여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공작에 협공하여 후원회의 초지□□을 기함을 실행함

1940년 11월 16일

동남지구특별공작위원회 교하지구특별공작위원회

교하지구위원회원 일동

(중략)

간사회(幹事會)개최

공작방침을 협의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에서는 21일 오후 0시부터 계림회관(鷄林會館)에서 윤명선(尹明□)·홍양명(洪陽明) 제씨 외에 간사 제씨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였다.

1. 금번 공작방침에 관한 건
2. 각지와 연락긴밀화에 관한 건
3. 기타

합이빈(哈爾濱) 김여백(金汝伯) 500원 기부

합이빈(哈爾濱)의 전북 만산업주식회사 사장 김여백씨는 금번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에 대하여 금 500원을 사무경비로 기부하였다.

(하략)

<출전 : 「蛟河支部締結, 工作에 協力할 것을 誓約」, 『滿鮮日報』, 1940년 11월 22일>

1-12)

### 지방공작실적등 제(諸) 사항(事項)을 협의! 23일 총무 간사회의(幹事會議) 개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에서는 그 당초의 예정한 공작원□□□도 드디어 순일에 박두하였으므로 그에 대처하는 확고한 방침과 만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최후적 타협을 하고자 23일 오후 3시부터 동 □□□와 간사(幹事) □□□를 계림회관에서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의 하였다.

36) 반도인은 조선인을 뜻함.

1. 지방건설상황의 개진
2. 지방공작실태상황의 파악
3. 본부사무실행상황의 보고회
4. 후원회사□완위원회의 타합(打合)
5. 기타

〈출전 : 「地方工作實績等 諸事項을 協議」, 『滿鮮日報』, 1940년 11월 24일〉

1-13)

### 박석윤(朴錫胤) 래제(來濟)를 기해 용강(龍江)지구위원 결성, 위원활동 방침에 대해 협의

(제제합이(齊齊哈爾)지국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유세대 제1반 반장 □□□□사 박석윤(朴錫胤) 씨는 본월 21일 오전 7시 제씨 인사들의 다수 출영리에 병후의 피곤한 빛도 보이지 않고 원기 왕성하게 도착하였다. 준비하였던 자동차로 곧 '히노마루 호텔'에 안내되어 1시 휴식하고 동일 오후 1시부터 당지 협화회 지구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용강지부 결성식에 참석하였다.

정각이 되자 일반 재재 동포는 물론 일반 군관민, 각 기관대표자 다수 참석 하에 류여광(柳如光) 씨의 개회 선언으로써 식은 열리었다.

먼저 일반 양 국기에 향하여 경례가 있은 후 뒤이어 일만군순직영령(日滿軍殉職英靈)의 명복을 비는 1분간의 묵도가 있은 후 본회 준비위원을 대표하여 신영우(申榮雨) 씨의 인사가 있은 후 중앙으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띠고 파견되어 나온 박석윤 씨가 등단하여 후원회의 취지 설명을 한 뒤, '이번 동남지구 특별공작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하 복잡다단한 시국에 처하여 우리 민족에 자흥운동(自興運動)을 일으켜 지금까지에 더럽혀진 전민족적 불명예를 회복하여 신체제(新體制)에 순응하여 자숙자흥(自肅自興)의 새로운 생활로 재출발을 하여야 하겠다. 이 운동이야말로 일종의 정신운동이요 사상보국운동(思想報國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모름지기 우리들은 편리한 것은 잠깐에 저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성과 열을 다한 책임과 의무만을 수행함으로써 복된 앞날을 기다리자!'는 피 끓는 눈물겨운 어조로써 격려의 말이 있어 일반 청중은 무한한 감격을 맘 가득 느끼었다. 박씨의 열렬한 말이 끝난 뒤에 흥분된 동포들은 일사천리로 지부 결성에 들어 우선 임시 의장으로서는 한웅길(韓□吉) 씨를 추대하여 지부규약(支部規約) □의 결정 지부역원 선임을 순순히 끝내고 지부장으로 선임된 김성학(金聲鶴) 씨가 단에 올라서 지부장으로서의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내빈 중에서 요시다마(吉屋) 헌병분대장(憲兵分隊長), 와타나베(道邊) 경무청장, 협화회 히라야마(平山) 사무장, 각 시장의 축사와 격려의 말이 있은 후 화기애애한 가운데 식은 그치고 5분간 휴게 후에 즉석에서 다시 계속하여 간담(懇談)으로 옮겨 후원회 경과보고와 지부활동방침에 대하여 간담 협의한 결과, 즉석에서 분담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독지가가 속출하는 열성에 의해 장내는 감격이 가득 찬 순간이다. 중앙으로부터의 분담된 금액은 너무 적은감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 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구적 운동이라 무리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나 배당된 금액 이상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배당금의 1천 원은 현지에 있어서 특별공작에 노력하고

있는 군정 위문금으로 보내기로 만장일치의 가결을 보아 재만 150만 동포의 열의 있는 충의를 여지없이 발휘하여 예년에 없던 대성황을 이루었다. 동 3시 반 대회 당일 피선된 용강지구 지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하략)

〈출전: 「朴錫胤氏 來齊를 期해 龍江地區 委會 結成 委會活動 方針에 對해 協議」, 『滿鮮日報』, 1940년 11월 27일〉

1-14)

### 빈강성(濱江省)의 2만 원을 필두, 각지에서 헌금 답지(逕至), 동포의 이 열성과 이 감격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의 결성을 계기로 한, 재만 150만 선계 국민의 불타는 애국열은 바야흐로 백일화한 바 있어 그 관계 당국은 물론이고 각계에 절대한 기대와 감격을 주고 있는 어제 동 후원회의 공작의 제 1단계라고도 할 헌금(獻金)의 예정기일도 불과 하루만을 남기고 전국 방방곡곡(坊坊曲曲)으로 부대 이 운동을 협력 지지하는 열과 성을 표시한 헌금이 육군본부에 도착하고 있어 작금 □□은 문자 그대로의 최고조에 달한 감이 있다.

즉 기보한 바와 같이 지난 27일에 용강성(龍江省) 지구 위원회로부터 신(申) 한(韓) 양씨를 전임 특파하여 1천 원을 본부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서 철령(鐵嶺) 지구에서 2천 5백 원 □□ 1천 1백 원 오상(五常) 지구□부대 2천 원 외에 당시 신경(新京) 지구는 부대의 관청으로 불과 □어밖에 아니 되는 단 시일 간에 실로 놀랄 정도의 헌금을 보고 있는데 다시금 20□□□□에는 빈강성 지구□□ 금 2만 원이 동안성(東安省) 지구로부터 1천 4백 원이 도달하여 일반에 큰 감격을 주었다.

〈출전: 「濱江省의 二萬圓을 筆頭 各地에서 獻金 逕至, 同胞의 이 熱誠과 이 感激」, 『滿鮮日報』, 1940년 11월 30일〉

## 2) 선계(鮮係) 보도(輔導)의 행진보(行進譜), 강연과 영화의 밤, 동남지구공작후원회 지부도 조직(기사)

재길림 일만의 선계 보도기관의 하나로 조직된 협화회제일구락부(協和會第一俱樂部)에서는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시내 기독교청년회관(基督教青年會館)에서 강연과 영화의 밤을 개최하려는데 입장은 무료이며 연사(演士)와 연제(演題) 및 영화는 다음과 같으며 당일 다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의 조직과 신경 김응두(金應斗) 씨의 강연도 있으리라고 한다.

연사 및 연제

- 협화회에 대하여 도해(島海)사무장
- 재길(在吉) 선계(鮮係)의 진로 이용조(李龍祚) 씨

- 연제 미정 이용택(李瑢澤) 씨
- 동남지구공작후원회 신경(新京) 김응두(金應斗) 씨
- 농산물 통계에 대하여 □희남(□熙男) 씨

〈출전 : 「鮮系輔導의 行進譜 講演과 映畵의 밤 東南地區工作後援會支部도 組織(吉林)」,  
『滿鮮日報』, 1940년 11월 6일〉

### 3) 김일성 등 반국가자에게 권고문, 재만동포 150만의 총의로

동만일대(東滿一帶)에 김일성을 위시하여 상당한 수의 반국가 무장군이 횡재하여서, 국내의 치안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므로, 그네들에게 일만군경에 의한 “금동(今冬)의 최종적인 대섬멸전”에 전기(前期)하여 반성 귀순하도록, 재만동포 150만은 동포의 애정으로 꺾기하여, 이제 그네에게 권고문뻘라를 비행기로써 다수히 뿌리었다. 이것은 그 권고문의 전문이다.

황량한 산야를 정처없이 회배(徊徘徊)하며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 제군! 밀림의 원시경에서 현대문화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불행한 맹신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초개(草芥)같이 걸고 있는 가엾은 제군! 제군의 저주된 운명을 깨끗이 청산하여야 될 최후의 날이 왔다! 사느냐! 죽느냐? 150만 백의동포의 총의를 합하여 구성된 본위원회는 이번 겨울의 전개될 경군(警軍)에 최종적인 대섬멸전의 준엄한 현실 앞에 직면한 제군들에게 마지막으로 반성 귀순할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에 꺾기한 것이다. 제군의 무의의한 낭사(浪死)를 저지하고 제군을 신생의 길로 구출하는 것은 우리 150만에 부여된 동포애의 지상명령으로 사유하여 전만 방방곡곡에 산재한 조선동포 150만을 대표한 각지 위원은 10월 30일 국도 신경(新京)에 회합하여 엄숙하게 제군의 귀순하기를 권고하기로 선언하고 이에 그 총의의 집행을 본위원회에 명한 것이다. 민족협화의 실현과 도의세계창성의 대이상을 파지(把持)하여 찬연히 약진하고 있는 우리 만주국에 있어서 150만의 동포가 충실한 구성분자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광휘있는 번영의 길을 전진하고 있는데 일부에 문명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가공적인 맹신 때문에 국가시설의 혜택과 법률보호에서 전연 이탈된 불행한 제군들이 상존하는 것은 민족적인 일대 오점일 뿐만 아니라 피를 함께 한 제군으로 하여금 이 세상 참담한 생활을 계속케 한다는 것은 인도상 좌시할 수 없는 중대문제로서 생각하여 이에 본위원회는 150만이 총의를 대표하여 제군이 한사람도 남김없이 양민이 되도록 즉시 귀순하여 동포애 속에 돌아오기를 엄숙히 권고하는 바이다. 제군은 이 권고문이 150만의 심혈을 기울인 지정과 제군의 신상을 연민하는 따뜻한 150만의 애정의 발로임을 깨닫고 동포애를 이반함이 없이 이 기회에 대오하여 과거의 악몽에서 깨어 신생의 대로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제군이 우리들의 따뜻한 온정 속에 돌아오는 날은 본위원회는 제군의 생명을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제군을 안정한 생활로 인도하여 우리들과 함께 남경부직(男耕婦織)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도록 할 생활안정책이 또한 제군의 신상을 걱정하는 150만의 자애의 결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의 손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무비판적인 정치적 맹신 때문에 인생의 꽃다운 시절을 살벌한 험난 속에서 보내고 현세 모든 편익에서 격절하여 날마다 생과 사의 분기로에서 방황하는 제군!

황야의 표박에 피로한 걸음을 잠깐 멈추고 허심탄회하여 우리 150만의 지정을 다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라. 눈을 감아 고요히 군들의 과거를 회상하여 보라. 또 다시 상념을 멀리 양류(楊柳) 늘어선 그대들의 그리운 고향산천으로 또한 몽매간에도 잊을 수 없는 그대들의 그리운 부모형제처자에게 미쳐보라. 풍로상설(風露霜雪)이 뼈를 에이는 듯한 이 만주의 흑한에 정처없이 방황하는 군들의 신상을 생각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대들의 부모의 비탄을 군들은 무엇으로써 보위하려 하는가? 이 불행과 비극을 군들과 피를 함께 한 우리 150만은 타인의 일로 알고 무관심하게 좌시할 수 있도록 몰인정하고 무자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절멸시키기 위하여 또한 이 비극을 초월하여 광명의 피안으로 군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꺾기한 것이다. 인생 불과 60에 순조로운 생애를 보낸다 하여도 본래가 행로난인 인세의 부절한 곡절은 자연 인생의 무상을 회탄케 하거든 하물며 필요없는 파란을 일으켜 맹랑무의(孟浪無意)한 험난의 생애를 자취(自取)하고 총검시랑(銃劍豺狼)의 협위 하에 귀중한 군들의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은 이 얼마나 무모한 우거(愚擧)이요. 물론 이렇게 군들을 금일의 불행에 유도한 동인이 군들의 소박한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적 공명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안다. 그러나 금일의 공산주의란 제군의 금일까지의 전인생의 희생과 제군의 미망된 행동으로 인한 모든 참화를 걸고서까지 이를 고수할 만큼 가치 있는 사상이 아님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세계대세가 일변하고 극동의 현실이 제군의 과거 공산주의에 대한 유행적 맹목적 추종을 할 때 보다 전연 판이한 현재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식자의 견해도 스스로 다르게 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끝으로 공산주의 소련 및 극동의 현세에 대하여 정확한 소식을 제군에게 전달하여 무비판적으로 일종의 정신상 고질이 되고 있는 군들의 불행의 원인인 사상상 미망에서 즉시 깨어 나오기를 150만의 총의에서 다시 권고하는 바이다.

### 적화(赤禍)의 절멸과 동아의 신형세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균등으로 충족시키는 것만을 인생목적의 제1의(義)로 하는 유물적인 기기적(器機的)인 사상이므로 인하여 인간정신의 미덕을 말살시키고 더욱이 정권탈취를 위한 그 단계독재론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파괴적 방법론에 의하여 무용한 국내 상극을 양성하고 민족적 평화를 교란하여 잔인한 현대 지옥상을 세계도처에서 연출한 죄악은 정상적인 인류문화의 일대 오점이다. 그 본존인 소련에 있어서는 당의 전제를 강화하는 것을 사회질서유대의 최고 목적임과 같이 강악하는 살벌한 유물강권사상에 의하여 현재의 독재자 스탈린은 네로 이상의 강력한 금일의 소련정권을 획득하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는 □동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소위 레닌 재세(在世)시 12거두라는 인물 중 칼리닌을 내놓고는 트로츠키,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등 원훈(元勳)을 모두 순차 도살하였고 이 외에도 수만의 생명이 비인도적인 적색폭군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현재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의 원칙에 기하여 트로츠키의 적극적 세계적화론을 단념하고 오직 적색국가로서의 생존에 여념이 없다. 오직 외국의 공산세력을 교묘하게 그 국방외

곱으로써 이용하기 위하여서만 각국의 공산파에 원조를 줄 듯한 악랄한 태도를 표시하여 폭력에 의한 국내 질서파괴운동을 조장하여 놓고는 한번 형세가 불리해지면 문득 불문부지에 붙이기를 예사로 하여 무모한 공산주의 맹종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처참한 피살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스페인의 인민전선파가 소련의 선동으로 국가주의자와 항쟁하다가 희생된 수는 37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소련은 이에 대하여 거리상 관계로 원조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무모한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묵묵 좌시할 뿐이었다. 그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이른바 코민테른의 보장 없는 선동에 의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원귀는 수천 수만으로써 지하명중에서 스탈린을 저주하고 있다. 적색왕좌를 누르기 위해서는 타의 희생을 불고하는 선동자의 감언에 취하여 귀중한 인생을 무가치하게 내던지는 군맹(群盲)중에 가엾은 제군들의 영상을 발견하는 것은 실로 상상만 하여도 전율할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련은 그 국가주의적 정책에 즉하여 상호국내질서불간섭을 조건으로 하여 일본에 대하여는 그 위무(威武)에 따라 착착 국교를 조정하고 양보를 하고 있는 현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150만 동포에서 완전히 격절된 제군이 빈약한 수백정의 소총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걸친 근대적 장비를 가진 세계에 비할 데 없는 정예한 수백만의 일만군(日滿軍)에 저항을 시도한다는 것은 실로 당랑거철(螳螂拒撤)도 분수가 있는 일이라고 제군의 우열극함을 우리 150만은 개탄치 아니치 못하는 바이다.

일본제국은 동아 제민족을 이러한 살벌적인 공산주의화 뿐 아니라 일체의 개인주의적인 본능적인 유물적인 서구적 미망에서 경성(警醒)시켜 동아 제민족의 아름다운 윤리의 본연한 자태에 돌아가 정신적인 도의적인 국가의 이익을 본위로 한 동양적인 이상사회의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에 협동치 않고 구미백인의 괴뢰가 되어 저항하는 장개석(蔣介石) 정권을 서촉(西蜀)에까지 구축하여 그 위무를 세계에 선양하고 있다. 만주국은 실로 이러한 동아 제민족의 공존공영을 실현하는 신질서의 표본으로써 이미 국내오족의 일사불란한 협력에 의하여 세계에 자랑할 도의세계의 창건을 국시로 하여 착착 국초(國礎)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제군이 문맹에서 벗어지고 밀림에서 뛰어나와 백일하 만주국 발전의 경이할 진자(眞姿)를 접하고 이에 명량한 기분으로 건국이상을 실천하는 한 분자으로써 타민족과 병행하여 전진하고 있는 동포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면 현재의 군들의 생활이 얼마나 극동의 현실과 괴리된 무모하기 짝이 없는 미론망상(迷論妄想)임을 응당 깨달을 것이다. 조선 내에 있어서는 2,300만의 동포는 일본제국의 위광하에서 과거의 편파한 민족주의적 관념을 최후의 1인까지 완전히 청산하여 일본제국의 신민된 광영 하에서 격세의 감이 있는 번영의 길을 걷고 있다. 이리하여 제군과 같은 시대착오의 이단자가 아직도 만주의 밀림에서 현실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괴이한 일로 알만큼 되어 있는 것이다. 일만 군경이 종래 제군을 총괄적으로 집중 토벌치 않는 것을 기화로 하여 겨우 산간밀림지대로 횡행하다가 조선에서 살 길을 찾아 벽지로 이래한 가엾은 빈농동포를 노려 그 가지고 있는 가엾은 최후 남루(襤褸)까지를 뺏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궁경에 빠진 제군은 대체 누구를 위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불쌍한 빈농동포까지를 울게 하는가? 제군의 금일의 정상과 제군의 약탈로 인한 이주동포의 애절한 참경은 실로 조선인의 역사에 남길 골육상잔의 일대비극이라 할 것이다. 제군과 피를 함께 하여 제군의 불행을 아들의 불행으로 알고 피해동포의 슬픈 눈물을 함께 슬퍼하지 아니치 못하는 150만 재만동포는 이 사태를 그대로 좌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오호(嗚呼)!! 밀림에 방황하는 제군!!

이 권고문을 보고 즉시 최후의 단안을 내려 갱생의 길로 뛰어 나오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참회할 것도 참회하고 이제까지의 군들의 세계에 유례없는 불안정한 생활에서 즉각 벗어나서 동포애의 따뜻한 온정 속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군들의 무용과 의기를 신동아건설의 성업으로 전환 봉사하라! 때는 늦지 않다! 지금 곧 우리 150만 동포의 최후의 호소에 응하라. 최선을 다하여 제군을 평화로운 생활로 인도할 본위원회의 만반준비가 제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본부(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本部)

(신경특별시 한일통 계림회 내(新京特別市 韓日通 鷄林會 內))

△고문 청원범익(淸原範益),<sup>37)</sup> 최남선(崔南善), 증원홍순(中原鴻洵)<sup>38)</sup>

△총무 박석윤(朴錫胤), 이원상필(伊原相弼),<sup>39)</sup> 김응두(金應斗)

△상무위원 최창현(崔昌鉉, 新京), 박준병(朴準秉, 신경), 이성재(李性在, 신경), 김동호(金東昊, 安東), 금자창삼랑(金子昌三郎, 營口), 서범석(徐範錫, 奉天), 김교형(金矯衡, 撫順), 김중삼(金仲三, 鐵嶺) 외 60명

〈출전 : 「金日成等 反國家者에게 勸告文, 在滿同胞 百五十萬의 總意로」,  
『三千里』 第13卷 第1號, 1941년 1월, 206~209쪽〉

## 4. 언론출판물 게재 주요 친일논설

### 1) 『만선일보』

#### (1) 본보(本報) 사명의 재인식 -창간 7주년을 맞이하여(사설)

만주국의 이상과 시책을 선계(鮮系) 국민에게 하달하는 전달자로서 또는 선계 국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보도자로서 중요한 지도적 임무를 본보는 금일로써 창간 7주년을 맞이한다. 세계대세는 각각으로 미묘 복잡화하고 동아 천지에는 팔굉일우의 대 이상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격전이 아직 계속 중에 있어서 생각건대 환경의 모든 조건이 일층 보도보국(報道報國)의 사명을 십이분(十二分)으로 발휘하여야 할 이때에 있어 본보의 존재의의는 객관적으로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본보의 사명은 신문일반이 가지는 봉사 이외에 특수적인 임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다. 본보가 선계 국민의 일상 가정 용어인 동시에 이들의 생활의 모든 전통과 습속과 □정이 표백(表白)되어 있

37) 이범익(李範益)의 창씨명.

38) 유홍순(俞鴻洵)의 창씨명.

39) 윤상필(尹相弼)의 창씨명.

는 조선말 곧 언문(諺文)으로 발행되고 있는 사실은 선계 국민에 대한 국가목적의 침투 및 지도정신의 집중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면(一面)이 있는 동시에 타면(他面) '국어'<sup>40)</sup>의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약 8할 8분 이상이 국어를 해독치 못하는 선계 국민의 현재의 실정에서 볼 때에는 과도적이거나 절대적인 교화계몽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도적인 임무는 시국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일층 그 임무수행의 필요는 절실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만주국 내에 있어서 본보는 선계 국민의 유일한 지도기관이라는 점은 선계 국민을 만주국의 충실한 국민으로써 육성하여 나가는 접합□□으로써 일층 특수한 문화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창졸(倉卒)히 보더라도 본보의 수행할 임무는 크고도 광범하다. 이에 가(加)하여 우리 만주국 내의 선계 국민의 고향이며 생활상 연락 기타로 불가불리(不可不離)의 관계에 있는 조선 내의 언문신문 사정을 보건대 총독부의 지도하에 있는 매일신보를 강화하고 물자절약 및 여론의 통일지도를 할 필요 상 당국의 의도에 □□하여 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지난 10일으로써 자진 속간하였음에 따라서 아보(我報)는 조선 내의 매일신보와 병행하여 우리 만주국 내의 150만 선계 국민에 대한<sup>41)</sup> 보도보국의 임무를 더욱 확대하게 되는 지위에 서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매일신보 외 전기(前記) 양 민간지가 조선 내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선계 국민의 일부에 상당히 퍼져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자명할 것이다. 또한 만선일여(滿鮮一如)의 정신에 칙(則)하여 민주국의 동향 및 선계 국민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조선 내의 독자에 대하여도 응분의 보도 봉사를 한다는 것은 이 또한 본보의 부차적인 임무이다. 만주사변 직후 동아의 새 여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주국 내의 150만 선계 동포를 지면을 통하여 지도하기 위한 보도국책에 연(沿)하여 탄생한 본보는 우리 만주국의 흥융(興隆)과 보조를 함께 하여 또한 각계 국민의 제(諸) 신문과 상호 협력하여 오늘에 있어서는 선계 국민의 일상생활에 재(在)한 불가결의 정신적 영양이 되고 있는 것은 사(社) 자신의 긍지일 뿐 아니라 선계 국민 전체의 따라서 150만의 선계 국민을 그 가슴 속에 안아서 고이 □□하고 있는 오죽협화의 왕도낙토 만주국의 자랑이며 특색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本報使命의 再認識 - 創刊七周年 마저(社說)」, 『滿鮮日報』, 1940년 8월 25일〉

## (2) 신체제의 이념과 국민의 협력(사설)

신체제의 근본이념을 천명하는 신체제의 기본요강은 마침내 28일 중외(中外)에 발표되었다. 우선 진통(陣痛) 오래던 신체제가 역사적 대전환기에 제회(際會)하여 있는 황국(皇國) 일본의 새로운 국운(國運)을 개척하는 역사적 발족으로서 대망한 바, 오랜 1억 국민의 다대한 감격과 기대 가운데 이에 제1보를 내딛어 놓은데 대하여 기쁨의 환성(歡聲)을 올리는 바이다.

40) 일본어.

41) 원문에는 '조선 내의 매일신보와 五行하여 우리 만주국 내의 百併十萬 선계 국민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五'와 '併'의 위치가, 바뀌어 식자(植字)된 것으로 보인다.



◇

시대는 바야흐로 내외를 통하여 일대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제 부문의 궁하여 검토할 때 그 모든 것이 다분히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 우리 일본 국체와 용납되지 않는 사조의 침윤을 보아 그것이 일정한 시기의 국력발전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 금일에 와서 이것이 한 질□가 되어 세계 신질서 건설의 추진력으로서 동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는 현하의 일본으로서 그의 근본을 흐르는 사조와 아울러 그 모든 기구에 대하여 현하에 적응한 시대적인 지양을 단행할 필요의 절실한 것과 대외적으로는 금차(今次) 구주 대전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세계적 대동란의 와중에서 이에 대처하는 것으로서 신체제 확립의 필요는 이미 □□할 여지가 없다.

◇

신체제는 이상과 같은 황국 일본이 당면한 미증유의 일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으로서 이에 그 역사적인 발족을 본 것인데, 지금 발표된 신체제의 기본 요강을 보건데 우선 국가 부면(富面)의 제 난관을 극복하는데 강력한 국민 조직의 신체제가 필요하며 그러는 데는 국민 전체가 일체로 되어 대정익찬(大政翼贊)의 신도(臣道)를 다할 것이라 하여 종래의 대정익찬 방식이 전 국민에게 상시 그 기회를 여(與)하지 않고 분파적 항쟁의 함입(陷入)하기 쉬웠던 것을 청산하고 국민이 종과 횡으로 조직되어 적극적으로 대정익찬을 할 것이라 하고 그 근본정신으로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민 총력을 집결, 일원화하고 일대 국민운동으로서 시간(時艱)을 극복할 것이라 하고 다시 신체제가 일국일당이 아닌 것을 천명하여 어디까지 우리 일본 제국의 본연의 국체에 입각하여 있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만민익찬 체제로서 우리 일본의 새로운 전도를 소소호(昭昭乎)하게 명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실로 일본의 신체제는 동아 그리고 세계 신체제 확립의 지표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제시된 신체제의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일로 매진할 각오를 다시 견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는 것이 현하의 난국을 돌파하는 유일의 방도인 것을 깨닫고 제1보를 내딛어 놓은 신체제가 하루라도 속히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진행될 것을 기념하고 전 국민이 일치하여 이에 협력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출전 : 『新體制의 理念과 國民의 協力(社說)』, 『滿鮮日報』, 1940년 8월 30일〉

## 2) 『재만조선인통신』

### (1) 김대우, 평화의 전사로 사명을 다하라

조선총독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

현하(現下) 만주국이 왕도낙토(王道樂土) 민족협화의 이상국가로서 모든 시설을 정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만일휴(日滿一休)의 정신으로 정치, 경제, 사상 등은 각 부문에서 일체의 결실을 완성하면서 있으며 이 왕도락토 민족협화국가의 하나의 구성분자(構成分子)로서의 재만(在滿) 조선인(朝鮮人)은 조

선 내에 있는 동포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대륙에 진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만주인(滿洲人)과는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임에 무엇보다도 재만동포는 만주인과의 협화(協和)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만(日滿) 일체의 완성과 극히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즉 원래 만주국의 일 구성 분자로서의 조선인은 일본인으로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이루고 있으며 또 이것의 완성을 향하여 매진하면서 있는 것이니까 재만 조선인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지(□持)를 보전하고 또한 이것을 높이면서 이 궁지로서 만주국의 이상의 달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지나사변(支那事變) 이후로 동아에는 신정세가 배태되어 일만중(日滿中) 일체라는 한 개의 블록이 촉진되고 일만중 일체의 필요가 각각요망되어 현대 이것이 실현되면서 있으나 그 결성도 선만일여(鮮滿一如), 일만일체의 결실이 한 걸음 앞서서 성취되는 데서 비롯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 이 커다란 동아의 건설에 당하여 이것은 선만일여 일만일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만주에서 민족의 협화(協和) 이상 하에 개척의 노고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책임이 중대함을 알 수가 있으니 재만동포의 열렬한 노력과 근로에 의한 땀 한 방울이 이 선만일여 일만일체 나아가서는 신동아 건설에 자하는 바가 큰 것이라고 봅니다.

재만동포가 일찍 낮익은 고향을 떠나 산 설고 물 설은 이국에 가서 평화의 전사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고고(孤孤)영영(營營) 분투를 하면서 있는 노고에 대하여서는 멀리 심심(甚深)의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재만 조선인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이상 제국의 이상이 하루라도 속히 달성되기를 향심으로 바라지 마지않는 바입니다.

요컨대 이제 조선 내에는 내선일체의 완성을 향하여 작년의 개정 신교육제도와 지원병제 실시를 위시하여 초등학교의 배가계획 연한의 단축, 기타 정신(精神) 방면, 산업, 경제 방면에서 내선일체를 기하고 있음으로 이 내선일체의 정신으로써 선만일여에 이것을 옮기고 선만일여의 주지의 철저로 신동아 건설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재만 조선동포의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만 조선인은 이때에 시국(時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전 : 朝鮮總督府 社會教育科長 金大羽, 「平和의 戰士로 使命을 다하라」,  
『在滿朝鮮人通信』, 奉天:興亞協會, 1939년 2월, 17~18쪽〉

## (2) 박석윤, 동아민족 결성에 신기운

외무부 조사처장 박석윤

우리 만주제국은 건국 이래 여기에 5개 성상(星霜)<sup>42)</sup>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국민 전체의 통제있는 추진력에 의해서 밖으로는 우방 일본제국의 일심일덕에 의한 끊임없는 어원조에 의해서 평평 탄탄한 발전의 한길을 걸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42) 1년을 뜻함.

그런데 우리들과 운명적 공존관계에 있어야 할 인방(隣邦) 중국의 지배자들은 동아민족결성의 중대한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구미자본의 노예가 되고 더욱 적색제국주의 공산당의 사족에 배일, 모일의 착오에 빠져 마침내 금일에 이르러 일본에 저항으로써 상대하게 된 것은 우리를 평소 만주의 제국의 건국정신을 통하여 동아평화를 염원으로 하고 동가는 동아민족의 동가라는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 대하여 이 이상의 불행은 없습니다. 금일 지나사변의 원인을 자세히 검토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구미자본의 대변자인 남경정부 즉 국민당과 서안사건 이후에 있어서의 제3인터내셔널 즉 중국 공산당과의 합작에 의하여 동아민족결성공작의 파괴행위인 것은 촌호(寸毫)도 의심할 것을 허락지 않는 현전의 사실이올시다.

중국의 민중은 유사 이래 오천년 묵묵히 선량한 사회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인고, 압박, 착취에 참아 온 자연민이올시다. 이러한 선량한 하늘의 백성은 금일같이 착취하고 금일과 같이 괴롭게 하며 또한 그래도 부족해서 구미자본의 노예가 되어 소련 적색제국주의를 고취하고 남경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자의 일군이 자기의 세력을 보지하기 위하여 민족통일이라는 미명하에 동가의 중축인 일본에 저항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사실은 허락되지 못할 지배자들의 죄악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방일본제국의 근위수상은 금번의 지나사변은 중국의 민중을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소위 중국 위정자의 철저적인 반성을 구함에 있는 것을 중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원래 일만지(日滿支) 삼국은 운명적 공존관계에 있는 동아민족결성의 중추입니다.

운명적 공존관계이기 때문에 선택을 허락지 않는다.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일만지 삼국은 공동방위 공동경제의 실현을 공통이상으로 하는 바의 결성체가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일 불행히 중국의 일부 지배자들이 민족통일의 미명하에 일본과 피로써 상대하게 된 것은 거듭거듭 생각해도 유감스러운 사실인데 사건이 여기까지 이르게 됨에 있어서는 이 눈앞의 불행을 초월하여 이 눈앞의 불행을 극복하여 좀 더 좋은 내일의 건설을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파악 및 실천은 무엇인가

첫째는 동가에 있어서의 공산당 및 공산주의를 철저히 격멸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일 중국에서 소련이 제3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그 상세한 내용을 말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략만을 말하면 그들은 상해에서 본부를 두고 다수의 인원을 특채하여 이것이 중국공산당에 지령을 날려 중국의 주요 도시에는 사변 이전에 있어서 이미 제3국의 국족 및 유태계의 자본을 이용하여 모든 기관을 설치하고 중국 민족에 향하여 사상공작 및 후방교란공작을 하여 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양본래의 도덕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공동의 적이올시다. 그것이 서안사건 후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되어 마침내 사변 후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과의 불가침조약에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소련은 중국을 적화하여 자기의 적화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를 완전히 파악하려고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적화한다는 것은 동가의 큰 일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미의 자본적 노예로부터 소련의 적색권력의 노예로 고쳐 공작하려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될 때 어디에 동가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동아인의 동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및 그 박테리아의 근원 절멸하는 외에는 결단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최근 우리 만주제국과 국경을 접하여 가지고 있는 연해주에서 행하여지며 있는 조선인 강제이주문제에 관하여 소련의 극악비도한 행동을 검토합니다.

소련은 이를 작년래 암암리에 실행하여 왔는데 지난 달 경 돌연히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20만의 조선인을 타쉬켄트 지방에 강제이주 할 뜻을 발표하고 즉시 단행할 뜻을 선언하여 일대 공포의 폭풍우를 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 소련은 혁명 이래 그 국내의 50여 개의 이민족 통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성공하였다함은 금일까지 세계에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내부적 동요가 극심하게 됨을 따라서 모든 실패를 폭로한 것을 보면 소위 이민족통치도 금일까지 극단의 압박으로 겨우 미봉하여 왔다는 진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왜 이십만의 조선인을 국경지방으로부터 불모한 원경에 강제이주를 하고 그 도중에서 철도폭발을 하여서 학살을 마음대로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공산주의의 패배를 증명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패배에 의하여 조선인이 사상적으로 동요하고 압박에 참지 못하여 반항하게 되고 따라서 만주국의 왕도정치에 대하여 진정한 경우(境遇)의 염원을 파지(把持)하게 된 까닭입니다. 소련의 관현은 이에 경오하여 □시는 우우책(優遇策)도 써보았으나 이리(狼)는 어떠한 가면을 쓰더라도 결국은 이리입니다. 드디어 당황한 결과 원방 강제이주를 시키게 된 것인데 이는 분명히 공산주의의 전면적 패배를 세계에 폭로한 것입니다.

(2) 다음에 강제적으로 불모의 땅으로 끌려간 조선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은 철쇄에 매달려 원방불모지에서 소, 말과 같이 노역을 당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도상 도저히 용허치 못할 것으로 그들의 감언은 독약보다도 무섭습니다. 우리의 동족의 20수만의 동포가 이와 같이 소, 말 이하의 운명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방관하여야 될 것인가 감히 여러분의 염두에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3) 다음에 소련관현은 이 강제이주의 즉시단행을 명령하고서도 그 실행은 펍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선인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소련의 수단으로 보아 생각할 때에 소련의 내부적 무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금일의 제3인터내셔널 및 배후의 힘은 중국에서 동아민족결성을 방해하면서 동아민족재래의 도덕의 본원을 파양하여 적색제국건설 때문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 동아민족의 공동의 적입니다. 더욱 중국 현재의 지배자 계급은 자기 지위를 보지하기 위해 제3인터내셔널의 조종을 받는 인형이 되어서 당돌히 일본에 저항하는 것 같은 착오에 빠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기까지는 역시 우리들 동아민족의 공동의 적입니다. 레닌은 일찍이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에는 자유가 없다고 방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소련내부에서 타민족에 대한 압박은 더할 것도 없고 우리 동포 20만에 대하여 강제이주를 감행하고 그 동포의 이주열차를 폭파하여 학살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래도 뻔뻔하게 자유를 논위하는 국가 내지 정권이 소연방 이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공동의 적에 대하여 최후까지 전투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금일 불행히 운명적 공존관계에 있는 중국과 피로써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지배지들과 공산당의 사

주로 인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번의 사변으로써 중국의 그릇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 이에 일만지 삼국결성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방위 공동경제의 철칙을 확립함이 없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지나사변은 피로써 혼을 정화케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불행을 초월하여 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오게 하고 이 불행을 극복하여 최후적 결성에까지 도달치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싸움은 일중(日中)간의 최후의 싸움일 것입니다. 중국동포의 그릇된 혼을 동아적으로 정화할 것인 동시에 또 지도일본의 혼을 보다 더 대승적으로 정화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비로소 일만지 삼국은 운명적 공존관계의 영구적 결성이 되고 동포의식에 입각한 영원한 평화를 향유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최후에 우리 만주제국내의 조선민족은 오족의 일원으로써 그 받은 바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최후까지 이 공산주의 배격민족결성의 성전에 충성을 다하고자 다시금 맹세하는 바이다.

〈출전 : 朴錫胤, 「東亞民族結成에 新機運」, 『在滿朝鮮人通信』 39호 奉天:興亞協會, 1937년 11월, 4~8쪽〉

### (3) 박석윤 외 14인, 재만조선인의 당면문제

제정 러시아(露西亞)가 그 극동 병참(兵站)인 하얼빈(哈爾濱)에서 남만(南滿)을 일기(一氣)에 삼킬 듯한 형세로 남하하다가 그 음험한 추파를 동부 반도에 던지노라고 일식(一息)을 하게 된 장춘(長春)은 국제도시로서 뒤늦지 않은 발전을 하여 왔으나, 그러나 조선인의 발전에 새로운 약속을 하여주기는 만주국의 건국으로부터였습니다.

지금은 사변 당시에 피난하여 왔던 동포들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조선계 지도자들의 열렬한 지도하에 진지(眞摯)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근 일대의 옥야(沃野)에는 동포 선구자들의 개척의 혈한(血汗)이 묻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동포가 존재하지 못하나 그 대부분이 각 방면의 지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임은 이 도시의 특징이며 이 도시 중앙에서 전국에 외치고 있는 제씨(諸氏)의 포부는 어떠한가를 들음도 일년지계(一年之計)가 재춘(在春)인 이 신년을 당하여 유익한 일입니다.

여기 신경(新京)과 자매의 위치에 있는 길림(吉林) 동포의 이상(理想)을 같이 싣기로 합니다. 〈문책재 기자(文責在記者)〉

#### ‘스스로 실천자 되라’

외무국 조사처장 박석윤(朴錫胤)

재만(在滿)조선인 문제는 조선인 스스로가 힘쓰는 일도 해결될 것이올시다.

정신적 방면으로는 시국을 잘 인식하여 동아 대세에 순응하며 자숙자계하여 이 인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물자적 방면에 있어서는 타력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곤란을 당하며 어려움을 맞보면서라도 스스로 하여 나아가겠다는 결심 하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물론, 이렇게 스스로 하여 나아가려 함에는 그 성과가 단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장구한 시일을 요

하는 것이나 이런 철저한 자각과 실천이 있으면 자연히 원조가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타력만 의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아무 성과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호(富豪)의 자식(子息)이 언제나 자기 부모의 덕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만주국에 와서 누가 먹여주던가 일으켜주는 것을 바라는 것은 스스로 떨어지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가난할지라도 참고 고생이 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만주국은 민족협화(民族協和)의 나라(國)이니까 종래와 같이 배타적 관념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건설자로서 필요한 협화정신을 가지고 아무쪼록 협화회(協和會)에 통합이 되어 일덕일심(一德一心)의 대정신에 혼신(渾身)하는 외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여 나아가자느냐?

먼저 현시(現時) 문제로는 협화회조선인분회(協和會朝鮮人分會)를 통하여 이 방면으로 매진할 것인데 이 협화회조선인분회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나 여하튼 무(無)를 불구하고 협화회(協和會)에 순응하여 조선인분회가 있는 곳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길을 강구(講求)하여 한 사람이라도 민족협화선상에서 자기 자신을 이 정신에 투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회가 업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협화회를 떠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통합하여 이 정신하에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신경(新京)분회에서는 이 선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결과, 후생 방면으로 승입(繩引)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의 기술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며 분회 자체로서도 경제적 자립을 하려고 회비를 징수하는데 자진하여 납입하는 회원이 많은 것은 기뻐할 현상입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반(巡廻診療班)을 두고 빈민에게 선료(旋療)를 하는데 이것은 만선인의 구별이 없이 행하고 있고 실무(實務)학교를 두어 야간 수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회비징수를 같은 것은 민족별 분회이기 때문에 회원이 이중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민족별 분회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이러한 각오로서 실천생활에 옮기어야 할 것이며 만선일보(滿鮮日報) 같은 것도 만주국내의 유일한 기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애호하고 후원하여야 하겠다는 정신으로 이렇게 적은 부문에서부터 실천 방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민지도 같은 것도 이민이 봉천(奉天)이나 흑 도문(圖們)이니 안동 같은 데를 통과할 때이라도 그냥 내어 버리는 것보다 역(驛)에 나아가서 이들에게 편의를 주어 친절히 안내하여 주는 것 같은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라 것이겠지요.

어떻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만 □□ 같은 것을 이제부터는 전휴(全休)적인 실천적으로 나아가는데 제일 가운데서 하나하나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갓트는 신경 방송국)

## 확호(確乎)한 신념을 가지라

척정사(拓政司) 제2지도과장 윤상필(尹相弼)

일본병서(日本兵書)에 “필승의 자신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겠다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싸움에 패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전병사(非戰兵士)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이올시다. 즉 “이기겠다”든지 혹은 “할 수 있다”는 확호한 정신이 있는 사람은 이기고 또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것은 우리가 늘 목격하는 사실이올시다. 지금

만주(滿洲)에서 조선농민 문제와 이민문제가 점차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때에 농민의 생활안정 문제와 농촌을(이하 3줄 판독불가) 금융기관을 건립하여 자작농 창정을 하는 것과 이민훈련소를 설치하여 □□와 □□에 농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와 중견분자를 □□하여 여기서 훈련을 받은 청년은 각기 농촌에 들어가서 친히 그 농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열렬한 정신으로 분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요컨대 이러한 일의 성과는 농민 각자의 확호한 신념에서가 아니면 불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문제를 말하고 사상문제를 끄집어낸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모두 안정되고 교육의 보급으로 우리의 수준이 향상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자연이 해결될 것을(이하 3줄 판독불가) 이 과증할지라도 열렬한 정신으로 이것을 당하여 나아가며 또는 농한기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라도 강습 같은 것을 부지런히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것도 살 희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우리는 나라(奈良)의 대불(大佛)을 본다든지 경성의 종각을 볼 때에도 늘 느끼는 일이지만 물질문명이 비상이 발달된 금일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주조(鑄造)하려면 매우 곤란할 것인데 교통이 불편하고 물자가 풍부하지 못한 옛날에 어떻게 그런 것이 되었을까는 일고(一考)할만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신에 대한 신앙심이 열렬한 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술어(術語)에 신탁(信託)이라 혹은 계시(啓示)라 하는 말이 있어서 이 나라의 대불도 신탁을 받아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정신이 신을 앙모(仰慕)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을 때 확실한 신념, 즉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이 나타나서 “내가 도와주니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는 할 수 있다. 신이 도와준다”하는 불발(不拔)의 신앙이 생긴 다음에야 수화사지(水火死地), 무서운 (이하 2줄 판독불가) 이올시다.

이제 만주에 건너온 우리 동포를 돌아보면 넓은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신적 위안이 없고 마음에 신념이 없이 “아무리 고생을 해봐야 별 수가 있나!”하는 격으로 마음이 타락하여져 버리고 말았으니, 필경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우리를 도와 줄 터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살 수 있다”든지 “금년에는 신이 잘 되게 하리라”는 신념이 있다고 할 것이면 거기서 힘이 생기고 활동력이 나서 자연히 앞길을 개척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발발(潑潑)한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산 정신이 있어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고 괴롭든지 어렵든지(이하 3줄 판독불가)서야 나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훈련소에서는 이 신의 대한 신앙심을 작흥(作興)하게 하려고 하는데 신이라면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연상되나 여기의 신은 지상 만물을 주관한다는 국혼대신(國魂大神)을 봉존하고자 합니다.

여하간, 신앙심이 있어서 “신이 나를 보호하니까 비적도 무섭지 않고 질병도 생기지 않고 재해도 안 온다”하는 정신이 있으면 남이야 미신이라고 무엇이라고 하든지 용진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불발의 정신과 이런 확호한 신념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민(移民)과 민족협화(民族協和)

산업부 척정사(拓政司) 사무관 진양근(陳洋根)

우리의 이민 사업은 각 방면의 주의를 끌기하면서라도 착착 진전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이민 들도 만주에 들어온 후로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깊은 일이올시다. 그러나 아직 이 새로 온 이민과 원주민(原住民)의 협화문제로 각 방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생각건대 진정한 민족협화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민 자체가 원주민보다도 진보하여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족협화라는 것은 일방을 타 일방에 복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각자가 서로 존경하는 데야만 될 수 있는 것인데 만일 지금의 상태와 같이 원주민이 조선계 이민의 대한 경멸이 심한 처지에 있어서는 선농(鮮農)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를 선입견을 조정하여 주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현재 실례를 들어보면 영구(營口) 안전 농촌은 건설 당시부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많던 곳이지만 지금은 촌의 시설과 경영이 정비되어 감을 따라서 부근 원주민들의 선농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갈 뿐 아니라 부근 만인(滿人)들도 이 농촌을 시찰한 사람은 모두 경복(敬服)하게 되어 이 때문에 같은 농촌에 대하여 존경하게 되고 심지어 만인은 즐겨 이 농촌에 고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농촌 자체에 있어서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점이 많으나 건설비 180만 원을 요한 이 농촌이 이제 연 □□백만 원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니 금후 이민문제에 있어서는 □□ 방면에 주력하여 모범 부락을 만들도록 하는 것과 또 이민의 엄선 등으로 이 민족간의 협화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즉, 부락이 우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대한 경복(敬服)과 신뢰가 생기게 되고 또한 이민 자체의 자각으로 상호 신뢰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결 될 것이올시다.

## 희생적 지도자가 필요

이홍주(李鴻周)

재만조선인문제는 다 같은 걱정이므로 저의 생각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으나 제가 스스로 내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는 남의 사회보다 달라서 이론가보다도 실천적 인물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물이 없는 일이올시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론도 필요하고 또 없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그러나 민중의 실지(實地)에 서서 민중과 같이 괴담을 흘리는 자가 있으면 안 될 것이며 더구나 우리의 전도(前途)를 개척하려면 이런 희생자가 많이 진출하여야 될 터인데 지금의 현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니 답답한 일이올시다.

더구나 그렇다고 그러한 자가 되라고도 할 수 없는 사정이니 어떻게 합니까? 대개, 도만(渡滿)한 조선인을 보면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오든가 또는 가족을 대동하고 오기 때문에 도만하는 날부터 호구(糊口)를 하여야 하고 또 처자 권속(眷屬)<sup>43)</sup>을 돌아보아야 할 형편이므로 이들을 보고 무보수로 그나마

43) 집에 딸린 식구.



현신적으로 민중의 공복(公僕)이 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선 안 같으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어 권속을 보양(保養)할 실지 책임자가 아닌 자를 이 방면으로 지도 양성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모두 자기의 생활, 자기의 가족을 끌고 나아가기에 여념이 없게 되며 이들에게 이리저리 말라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필경, 이 민중을 지도한다는 것은 입과 붓대로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들 민중 속에 들어가서 이들의 손을 잡고 이들의 팔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농촌을 볼지라도 그들이 우망(愚妄)하다고는 할지라도 노력을 하여 벌기는 하나 그들이 수지에 대해 예산도 모르고 또 내년에는 이런 정도까지면 생활하겠다는 예산도 모르니깐 추수(秋收)를 하여 벼를 팔게 되면 도박을 한다든지 술집에서 낭비를 하며 격에 맞지 않게 □□점에 가서 필요하지 않은 고급□□동이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일분(一分)이 남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런 우□(愚□)□□를 친히 다니며 앞길을 열어 주□□□재(裁)할 자를 제재하여 간절하□ □□□당할 인물이 우리 사회에 있는 □□ 후 신문이나 잡지에서 지상□□(誌上□□)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농민은 □□도 못하고 또한 일일이 농촌에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별 이익이 없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지식계급뿐이요, 그 외의 다수의 도시 노동자층이나 농부들은 여전히 길을 걷고 있게 될 뿐입니다.

생각건대 이 현신적 지도라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수고입니다. (이하 3줄 판독불가)□와 보수가 없는 수고를 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없고 지상(誌上)으로의 지도는 철저하게 되지 못하니 □□□이 민중의 전도를 □□ 기가 막힌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 재내(在內) 조선인과 분리하지 말라

박준병(朴準秉)

만주에 있는 조선인을 조선 내에 있는 조선인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이지만 조선 내에서의 조선인 지도는 수 3년래, 장족(長足)의 진보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통일이라든가 지원병제도의 실시 같은 것으로 내선인의 차별이 종래보다 없어졌다고 할 만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진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주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타에서 관계하는 것이 전혀 선내(鮮內)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의 예를 보면 교육문제를 볼지라도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등이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학제 같은 것이 불일(不一)하여 여러 가지 지장이 많으며 민족 간에도 보면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하는 것이 마치 외국인을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특수성, 다시 말하면 조선인은 제국의 신민이라는 사실과는 배치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 아리타(有田) 외상의 '재외 조선인 지도에 관한 공문'이 만주국 일본 대사관에도 온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이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할 바이나 여하튼 만주국 정부 내와 기타의 우수한 관리가 조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즉 재만조선인의 지도문제는 당국한 일본관

헌이나 만주국 관헌이 조선인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조선인 자체로서는 당국 의존만 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자체가 자숙자계하여 나아가면 어느 장래에 인식될 때가 있을 터이니까 스스로 이점에 노력하여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현상대로 발전할 길을

이종원(李鍾元)

재만조선인의 실업계(實業界)를 보면 약간의 특수상(特殊商)은 제하고는 대개가 농촌과 농민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정미업(精米業), 혹은 소자본의 상업을 하고 있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발전은 농촌의 발전에 커다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농촌의 발전은 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들로 하여금 이 농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어 즉 농촌의 생산품이 저들에게로 들어 가지 못하게 되어 이 판매권이 없게 된다면 저들의 생활은 자연히 위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습니다. 지금 양곡(糧穀)사회가 되어 곡물을 통제하게 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좋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 지정 판매인제를 채용하게 된다면 대자본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나 소자본가는 모두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곡(米穀)생산품에 한한 것이 아니고 목재업 같은 것도 같은 결과를 가져 오겠지요. 그러면 결국 조선인은 농업에만 종사하여야 될 것이 아닌 이상, 실업 방면으로의 진출은 곤란하게 되지 않을 지요. 물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왈가왈부를 말할 것이 아니나 요컨대 종금(從今) 법문(法文)의 운용에 있어서 더 실제적 정세에 착안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올시다. 이렇게 말하면 소수의 조선인을 위하여 전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해석하기 쉬우나 사실, 지금껏 조선인의 경제는 조선인 상호간의 협력으로 발전을 꾀하여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금의 융통이라든가 곡물의 무역 등도 만인(滿人)의 생산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전혀 조선의 생산품을 판매, 혹은 가공하여 왔으니까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현상대로 발전할 길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구사상(舊思想)을 청산하자

협화회(協和會) 수도본부 김경재(金璟載)

### 1. 지도자의 양성

어느 단체이나 사회에서든지 다수한 대중이 이끌고 나아가는 것은 철저한 지도이론보다도 이 지도이론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진실한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발전하는 것이요, 참된 지도자를 받든 사회는 향상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단체와 사회는 암야(暗夜)에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쳐서 볼 때 현하에 있어서 우리의 당면한 제 1의 문제는 열렬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 2. 구관념(舊觀念)의 청산

이것은 물론 지도자에 있어서 해결될 문제이나 현재의 사정으로는 속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라고 봅니다. 즉 우리는 일본제국 국민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우월감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 당연한 사상이요, 신념이라고 할 것이나 대개 이것을 주장하는 대의 우리를 보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라는 것보다 권리를 찾겠다는 심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경, 내지인에게는 권리주장으로 보이게 되고 만주인에게는 우월감으로 보이어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의국가(道義國家)의 건국이상을 잘 체득하여 스스로 겸손한 태도로 국책에 순응하여 나아가며 권리를 말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3. 비열한 출세술의 수정(修正)

우리의 좋지 못한 근성 가운데 혹 외인(外人)을 상중할 때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써 파벌을 도의적으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야 물론 어떤 지방의 정황에 따라 서로 의사가 일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이 추한 형태를 남에게 보이며 자기만이 잘난 척하려는 것은 실로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을 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파벌을 이제 새삼스럽게 끄집어 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낡은 형식의 출세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수정하여 정당한 길에 서서 나아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촌시설과 지도자

김도근(金道根)

만주에 있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일일이 들어 말하기에 장황하리만큼 그 수가 많고 또한 이것을 다 말한다가 별로 시원할 바가 없으나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한 발전상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든다면 농민지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의 대다수가 농민들이며 이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향상되는 일은 도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직접 □□하는 것은 여기서 재삼 논할 여□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민을 지도하여오는 일을 보면 너무 소극적인 감이 있습니다. 첫째 농촌건설을 볼지라도 학교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농지 매수 등이 불충분하고 농민에 대한 보조라는 것은 다른 내지인에 비하여 전무한 형편인데 그 위에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인물이 철저하지 못하(이하 2줄 판독불가)□할 바에는 정신적으로라도 □□하여야 처세하여 나아감에 그리 □□지이나 않을 터인데 이것도 저것도 모두 없으니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비상시국을 당하여 물가는 등귀(騰貴)하고 우리의 생산품이라고는 인(粃)<sup>44</sup>밖에 없는데 이런 때를 당하여 생산 방면은 다각적으로 넓히어 초입(草叀)<sup>45</sup>이든가 초승(草繩)<sup>46</sup>의 장려를 행하여 농가 수입의 증가를 꾀하여야 할 터인데 인가(粃價)가 고등(高騰)하여져서 작년보다 수입이 많아졌다는 목전(目前)의 일만 생각하고 반면에 다른 일용품이 등귀(騰貴)하여졌다든가 또는 이 시국 뒤에 올 장래의 경제적 황(荒)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낭비하여 버리고 마니 실로 답답한 일이올시다.

44) 벼, 나락.

45) 가마니.

46) 새끼줄.

요컨대 농촌에 있어서 교육 기관의 실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이민단 내의 지도자가 철저한 정신을 가진 자여서 시국을 인식시키며 산업(이하 2줄 판독불가)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생활 진작(振作)이 필요

산업부 건설사(建設司) 사무관 김태호(金泰昊)

재만조선인을 어떻게 지도할까 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논의하여 오는 문제로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언(一言)으로 논단(論斷)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늘 느끼고 있는바 얕은 소견을 말한다면 먼저 자립자활(自立自活)의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즉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력으로 산다는 것이니 근일(近日)의 통용어(通用語)로 말한다면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정치며 경제며 또는 광휘 있는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과학이거나 문명이거나 기술이거나 내지 건전한 사회를 막론하고 다 이 자립자활의 생활을 행사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민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만 동포의 내일의 생활이 가장 가치 있고 활기 있는 생활이 되려면 이것은 금일, 자립자활의 생활을 가진 자의 분투의 결과이며 수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 가치 있는 생활을 동경(憧憬)하고 욕구한다는 것은 우자(愚者)의 우언(愚言)이 아니면 약자의 비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만동포는 과연 우리의 잘 살길을 우리의 힘으로 개척한다는 철저한 자립자활적 정신을 분발하여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분투하고 있는가 하면 놀랍건대 유감이나마 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논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성(古聖)이 소위 “물구인이(勿求人而), 반구제이(反求諸而)”란 말과 같이 우리는 어제든지 이 불운의 곤경에서 ‘원대우인(怨大尤人)’할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살길은 내 손으로야만 개척한다는 자립성을 환기하여야 할 줄 압니다.

나는 모든 조선인의 지도대책의 기저는 자립자활적 생활의 진작(振作)에서 연원(淵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이제 근간의 우리 동포의 생활을 시찰하여 보면 확호한 이상과 진실한 의식이 서지 못하여 종풍(從風)의 격으로 아침에는 이것을 진리라 주장하고 저녁에는 저것을 진리라고 추종하는 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요행(僥倖)과 의뢰심(依賴心)이 배태(胚胎)되게 되며 투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일 추수기에 도박(賭博)과 음주의 악습이 성행함은 이 진리를 소홀히 함에 유인(由因)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밖으로는 민족적 체면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패가망신(敗家亡身)을 자초하고 맙니다.

현하의 객관적 모든 정세는 우리의 자립자활의 생활을 기하는 것이니 내 살길은 내 손으로 개척한다는 확호한 신념과 투철한 신념으로서 과거의 의뢰성을 단호히 청산하고 명일의 광명 있는 생활을 향하여 용왕매진(勇往邁進)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모름지기 이 자립자활의 생활은 모든 발전과 번영을 약속하여주는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 지도방침의 통일

길림성(吉林省) 사무관 이용택(李瑢澤)

생각하면 재만조선인을 지도함에 있어 각 지도기관의 종(縱)으로의 연락이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각 지방에 지도방침이 불통일(不統一)한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각 성(省)과 성(省) 사이의 연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에서 조선인을 지도하는 방침과 저 성에서 조선인을 지도하는 방침이 각기 달라서 이 성에서 이렇게 하나 저 성에서는 그 반대로 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협화회(協和會) 족별분회조직(族別分會組織)같은 것도 보면 어떤 성(省) 관내에는 조선인분회의 존속을 허하고 있으나 어떤 성에서는 단연 조직(組織)을 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선계(鮮系) 지도에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각 성의 방침이 상이한 모양이옵니다. 이것은 물론, 각 성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다소의 변동은 있을 것이라도 할 것이나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과도기이니까 잠정적으로라도 민족별 지도를 하여야겠다고 할 것이면 혹은 신경(新京)이나 하얼빈(哈爾濱)같이 조선이 분회를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동(安東)과 같이 조선인보도부(朝鮮人輔道部)를 두어서라도 각각 민족별로 지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하의 정세에 있어서는 이 민족별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혹은 분회나 혹은 보도부를 설치하게 되었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는 곳의 선계지도는 불철저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근일(近日),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의 상태를 보면 모두 건국정신이나 협화(協和)정신을 찬양하고 이것을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없이 이 정신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니 이 민족별로 지도한다고 하여 무슨 불온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지도방침하에서 민중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은 이해가 깊지 못한 대중을 지도하는 가운데 유익한 길이며 공연한 의혹을 가지지 않게 하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 지도기관이 필요

길림의원장 이용조(李龍祚)

재만 오인(吾人)의 당연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정치·경제·문화·보건 기타 모든 방면에 한 가지나 자족할 만한 부문이 없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여 지도 실천할 만한 기관이 있어야 무엇이든 한 가지 두 가지 개선하여 나아가겠는데 그 기관이 없고 보니 이 소위 무장지졸(無將之卒)이 되어서 몇몇한 선각자(先覺者)들이 좋은 지도 이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실효를 얻을 수 없고 탁상공론(卓上空論)이 되고 맙니다.

협화(協和)운동은 근본정신이 우리 만주국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구나 시인하는 바이지만 근래의 실적을 보면 ‘협화(協和)’를 ‘혼합(混合)’으로 오인하고 무엇이든지 섞기만 하면 협화가 자연히 되는 줄로 해석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1곤란 받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협화는 각 민족이 각자의 특징 장발(長拔)을 발휘하면서 사이 좋게 건국 이상을 향하여 매진하는데 있는 것이며 결코 취미·□성·□□·□정 등이 전연 다른 각 민족을 한 곳으로만 놓는 것으로 협화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더구나 정도의 미급(未及)과 과도기적 특징 사정이 있는 이때에도 불

구하고 협화라고 각 단체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사이도 없이 모두 해산하여 버리는 결과는 도리어 잘 하자고 한 일이 그릇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극단의 예를 들면 길림에서 조선인 사원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떤 유력한 신문은 “한 민족의 신앙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기관의 신설은 협화정신에 배치된다.”고 논하였으니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만주국의 건국의 이상대로 민족협화가 실현되어 각 민족에 공통한 신문화가 생기(生起)되고 각 민족 공유의 예술이 나타나며 각계 민족이 같은 신념으로 나아갈 종교가 나왔다고 할 것이면 이러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의 신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신설함은 그야말로 협화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나 아직 이러한 우리들이 이상(理想)하는 바 문화가 생기지 못한 현재에 있어서 단일 민족의 신앙 대상이라고 종교기관을 없이 한다면 그 민족의 정신력은 어디서 구하여야 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민족 협화의 신문화의 건설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될 것이 아니고 각계 민족이 각자의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장구한 시일을 지나서 아직 못하는 가운데 이 우수한 것은 서로 결합도 되고 도야(陶冶)도 되어 한 개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덮어놓고 없애만 버리고 말면 필경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협화를 오용하다가가는 결국 어떠한 데까지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우리의 당면 문제는 협화분회나 혹은 보도부 같은 과도기적 단일 지도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意(民意)의 소통과 창달(暢達)

길림산업회사장 이기행(李基荇)

사람이라는 것은 조선이나 일본이나 만주인을 막론하고 서로 사귀고 또한 피차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서로 배우게 되고 가르침도 받으며 깨닫기도 하여 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버리어 여기에서 그 사람의 생활이 향상되며 그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웅이요, 아무리 천재 일지라도 골방 속에 갇혀서 있으면 협태산(挾泰山)의 기개도 소용이 없고 혼신을 울릴 재주도 쓸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재만조선인의 동태를 본다면 대부분이 이런 우울 속에 있지 않는가 하고 느끼게 됩니다. 즉, 치폐(治廢) 이전에는 조선인 민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각 방면으로 조선인 지도에 노력한 결과 이 분회를 통하여 조선인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의무라든지 시대에 대한 인식은 철저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서로 모이어 의사를 소통하는 가운데 생활문제를 같은 것도 타개하여 나아갈 수 있었는데 치폐(治廢) 후로는 조선인 지도도 협화회에 통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각 특수한 주지(主旨)를 가지고 각 부문의 지도를 맡고 있는 단체도 다 해산하여 놓고 보니 협화회에서의 지도는 그렇게 조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한다는 것도 각 민족 상호에 관한 문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언어불통으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소수의 지식계급 이외, 대다수의 민중을 움직이는 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모임을 가지자니 협화회가 있는데 나서서 할 수도 없고 또 다시 하게도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협화회에서 하기를 기다리니 어느 때에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결과로 상의가 충분히 민중에게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하의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수십 인의 만인(滿人)에 대하여 불과 한 두 명의 비(比)로써

조선인이 나서게 되니 이 한 두 명이 민중 지도의 전업자가 아닌 이상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불문불가의 사실입니다. 그 뿐 아니라 농촌문제, 혹은 경제문제 같은 상당히 검토(檢討)하고 연마하여야 할 것도 행하지 못하니 이 방면의 향상발달을 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간의 협화로 이해가 없는 무식한 대중 등을 섞어 놓는 것보다 피차 스스로 자숙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중 이해가 있는 각 지도자들이 서로 마주잡고 나아가는 것이 첩경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 자작농 창정과 이민문제

길림금융회 이사 김상태(金相泰)

저는 농민을 상대로 하고 일하는 이 만큼 늘 어떻게 하여야 농민의 생활안정을 줄까 또 이민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순조로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재만선농(在滿鮮農)은 선척(鮮拓)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각 금융회나 농무계가 활동하여 지도에 당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사정으로 보면 농무계는 이 이상 더 활동을 하려야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농무계라는 것은 그 계원인 농민으로 조직된 단체인데 그 농민들이 모두 만주지주에서 토지를 조차(租借)하여 소작하고 있는 소작인들이니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고이민(□故移民)을 부른다든가 집단이민을 데려 올 수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물론 지도방침이야 토지를 선척(鮮拓)에서 매수한다고 하나 이것은 임의(任意) 매수이니까 만인(滿人)지주가 팔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이 기주(既住) 농민들에게 그들이 소작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주어 자작농을 창정하게 된다면 그 때에는 그 농장이 농무계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깐 수리권(水利權)도 자기들의 것이 됨으로 각 농무계는 완전히 근거가 잡히고 기초가 서게 되어 몇 십호의 집합이민을 배당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들을 소화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즉, 노력할만한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현재의 형편은 자기의 뒤도 치르지 못하니 어떻게 남의 뒤를 보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농(鮮農)이 기간(既墾)한 수전을 어떻게 매수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종래 방침을 변경하여 좀 강력한 행정권의 발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의 사정을 보면 수전(水田) 1상(一晌)에 대한 소작료가 4석(石)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시가 60원입니다. 그런데 수전(水田)의 일상가(一晌價)가 350원인데 이것을 방매(放賣)하여 가지고 또 다른 방면에 이용한다고 하면 금리를 매월 2퍼센트로 한다고 하여도 1년의 수입이 80원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20원의 이익이 생기는 편이며 또한 수전을 판다고 하여도 실제상으로는 만주인은 대개 소용치 않던 곳이거나 또 소용하지 않을 곳이니까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미묘한 내용이지는 모르나 “팔면 안 된다”하는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기주민 지도라든지 이민 지도가 문제입니다.

생각건대 조선에서 농민을 연 1만호(戶) 만주국으로 보내고 만주국에서는 또한 1만호를 받겠다는 협약은 표면은 소질이 양호한 자를 선정한다거나 혹은 집단이민, 집합이민으로 한다거나 그 이면(裏面)의 내용은 조선농민을 만주국내에서 안정하게 하는 것일 것인데 이것은 자작농의 창정으로야 가능할 것이

며 또한 이 거주민(既住民)의 안정으로 자연히 신규 이민의 입식(入植)성적이라든지 영농성적은 좋은 결과를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필요한 토지매수의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 구체적 방침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 이올시다. 이렇게 말하면 혹 일□에서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 있을까”라고 하던지 또는 ‘□□정권의 발동으로 한다면 □□□□ 으  
로가 아니냐고도 할 것□□□□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색□□□□끼고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같이  
만주국의 구성분자로서 우리 만주의 발전-개발-을 위한다는 공동한 견지(見地)에서 생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해는 일조(一朝)에 될 수 없고 먼 장래에 해결될 것이니 현재에 있어서는 어느 정  
도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예회와 아동극

(길림 소감(所感) 김생(金生))

길림에서 우리의 자량은 4천여의 동포들이 온건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누거만(累巨萬)의  
부자가 많지 못하나 생활의 골몰한 자 없고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나 일확천금을 꿈꾸어 부정업(不正業)  
에 손을 대이지 않고 있다. 있으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땀과 노력을 섞어서 가문의 토대를 쌓고  
후손의 지반(地盤)을 만들려고 하여 이제는 십여 상씩의 농지를 마련한 자도 적지 않고 시내의 주택도  
자기의 것을 장만한 것은 실로 눈물겨운 일이다.

이러한 노력과 고심은 각 방면에 나타나고 있으니 그 중에 현저한 자를 들라면 길림산업주식회사가  
그 하나요, 동포자제의 교육기관인 동영단(同榮團) 우급(優級)학교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 산업  
회사가 건립된 것이 무엇이 그리 기특할 것이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일찍이 그 설비의 방  
대(彪大)와 기구의 웅대로 길림을 말하는 자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 없던 동포들의 산업조합이 4천  
여만의 적자로 인하여 경도될 운명에 직면하였을 때 이로 말미암아 수천 농민이 파산당할 것을 방관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자도 동포였으며 이것을 붙들여 일으키려한 자도 동포이었다. 그  
리하여 불과 □□□에 5만금의 이익을 계상(計上)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포들의 열정은 교육 방면에도 힘 있게 뻗치어 15만 원의 보교교사(普校校舍)를 신축한다  
하거니와 이 곤선 배경 앞에서 용진하고 있는 젊은 교육자들의 활동은 더욱 불만하다. 그리하여 설비가  
완전하지 못하고 자비가 넉넉하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일지라도 이러한 것 때문에 쪼들리어 구구하게 살  
지 않겠다는 산 혼(魂)은 그대로 어린 학동(學童)들의 살이 되며 피가 되고 있다.

이것이 국민우급학교의 덕분으로 오는 12월로서 학년 말을 맞게 된 동교(同校)가 거행하는 학예회에  
서 학예회라면 의례히 극장이나 공회당을 차용하여 행할 줄 아는 시설이 충분한 대도시의 그것에 비하  
여 손색이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소감이었다.

극(劇)이라는 것은 민성(民性)의 표징이다. 그 민족 특유의 성격 그 민족 주요한 전통을 우리에게 보  
여주는 것이 극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에 감춰 있는 우리들의 것인 성격은 이 커다란 예술을 대할  
때에 공명(共鳴)하는 것이요 환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극을 보면 반드시 꿩과리에 맞추어 시조를 읊는 것 같고 일본인의 가부키극(歌舞伎劇)을 보면 어구가 무거우며 말끝이 반드시 힘차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알아듣기 어렵고 실증이 나게 한다. 그러나 중국극은 몇 마디에 시조를 읊고 꿩과리에 맞추어 팔을 놀리며 몇 바퀴씩 돌아가는데 그 특성이 있어 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요, 무사의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천근에 무게가 있는 것 같은 곳에 그 혼이 당기어 있는 것이다. 또 우리는 □□□시대를 만난 금일에라도 머리 판 어린 처녀를 극 속에서 보게 될 때 이상한 정서(情緒)를 맛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아동에게 무사극을 시키는 것은 앵무새의 “□□□□”와 같아서 일종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는 유효할 런지 모르나 그 극을 살리려고 함에는 너무 무리한 것이고 또한 극으로서의 경직을 드러내이고 함에는 너무 무모한 것이다. 우리 사람이라고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속에도 감정이 흐르고 선율이 얽혀 있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두르려 주고 훌륭한 소리를 내이게 하여 주지는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건대 이것을 두드리는 자가 이것을 바로 맞히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까닭이 아닐까!

그리하여 이들은 천치(天痴)와 같이 무표정하게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극뿐만 아니다. 회화도 그러하고 음악도 그러하고 무용도 그러하다. 우리가 최승희(崔承喜)의 무용을 자랑하거나 그의 무용에서 우리에게 깊은 감격을 주고 있는 것은 무어라 하여도 승무(僧舞)이다. 거기에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남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아동자체도 쿠노스키(楠木正行)나 근왕지사(勤王志士)의 흥내를 내는 것보다 암행어사(暗行御史)나 감사(監司)의 놀이를 더 쉽게 더 잘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재 기타 연구 자료가 불충분한 금일에 있어서 너무 무리한 주문(注文)같으나 그렇다고 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좁은 머리라도 쥐어 잡고 웅키어 내이면 반드시 훌륭한 무엇이 나오고 말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민족 교환(交驩)의 무대 앞에서 우리는 이렇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게 되고 밤낮 남의 흥내를 내기에 급급하여 결국은 자기의 좋은 것까지라도 잃어버리어 신문화 건설에 참획(參劃)하는 자 되지 못하고 또 그 문화는 우수한 것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 지도자와 체면 문제

김영삼(金永三)

재만조선인의 당면 문제는 두 가지 중점이 있다. 그 하나는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십사!”하는 관계 방면에 대한 탄원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서도록 공부하여 남과 같은 수준에 달하도록 힘써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자면 뒤떨어진 대중의 손을 이끌고 달음질 칠 힘 있는 일꾼이 나와야겠다.”는 스스로의 염원이다. 즉, “민족별 지도를 하게 하여 주시오”, “지도자를 양성 해야겠다”, “희생적 지도자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후자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탁상의 공론이 아니고 실제에서 보고 듣고 당한 사실이었고 또한 이러한 요망(要望)을 색다른 무엇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전체의 보다 더 큰 발전, 건국 이상에의 진정한 실현은 위하여서이며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필연한 단계임은 알 수가 있다. 그 길은 요원하고 그 도정은 단조롭지 않다. 그러나 이 험로(險路)를 돌파할 만한 각오가 있어야

하고 준비가 있어야 하고 결속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용이하게 목적지에 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자에 관하여는 관계당국이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거니와 후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라면 장래에 살려고 하는 자로서 일고(一顧)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지도자를 찾아야 하며 또한 어떻게 많은 지도자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은 물론 일조일석(一朝一夕)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오. 또 이런 좋은 지면에서 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어 버릴 수도 없는 일이니 오늘이 민중의 방황(彷徨)함이 참된 지도자를 맞지 못함에서 힘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 때문이다.

고래(古來)로 전란에 깊은 경험을 쌓아온 중국인은 이런 대중을 가리켜 “무장지졸(無將之卒)”이라 하였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박애를 말한 기독교(基督)는 그런 군중을 가르쳐 “목자 없는 양(洋)이라”고 하였거니와 이것은 어느 것이나 모두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장군을 잃은 병졸”, “목자를 잃은 양의 무리” 이처럼 그 장래가 불행한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면 “무장지졸(無將之卒)”이나 “목자 없는 양”보다도 “무졸지장(無卒之將)”이나 “양 없는 목자”가 더 많은 것 같다. 다 신사연(紳士然) 대가연(大家然)이야 그 모습 체면을 보전하려고 애쓰고 명예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니 그들의 생활 그들의 활동은 도리어 민중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란 명예를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고야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체면은 잃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도 민중을 위한다는 열정에 못 이겨 달려들면 알지 못하는 사이 그는 지도자로서의 움직일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장군은 이것이 없고 점잖게 걸어오니 양의 무리는 이상하여 달아나 드디어 무졸지장이 된다.

〈출전 : 朴錫胤 · 尹相弼 · 陳洋根 · 李鴻周 · 朴準秉 · 李鍾元 · 金璟載 · 金道根 · 金泰昊 · 李瑢澤 · 李龍祚 · 李基荇 · 金相泰 · 金生 · 金永三, 『在滿朝鮮人の 當面問題』, 『在滿朝鮮人通信』 62號, 奉天:興亞協會, 1939년 1월, 38~49쪽〉

#### (4) 송찬도, 시국을 인식하라

총독부 사무관 송찬도(宋燦道)

나 개인으로서 재만조선인과 재외조선인에게 희망하는 것은 현하(現下) 시국을 보면 아시아에는 신 질서를 건설하려고 하는 동아협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 재만동포가 좀 더 자각과 분투를 노력할 것을 통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것은 재외조선인 중에는 비상이 선량한 사람도 있으나 이주한지 3~40년의 역사를 가진 사람 중에는 조선내의 통치라든가 일본제국의 동화에 대한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국민된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신산(辛酸)할 뿐 아니라 원주민과의 인식이 좋지 못하고 신이민과의 융화도 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좀더 동아의 정세를 살피어 일본제국의 동화에 대한 진심을 인식하고 도의적 의무를 다하기를 최근 더욱 통감하였습니다. 물론 마

찰을 피함에는 민족협화가 필요한데 거기가 있는 이상은 협화를 하도록 노력하여 저편에서 감격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출전 : 宋燦道, 「時局을 認識하라」, 『在滿朝鮮人通信』 63號, 奉天:興亞協會, 1939년 2월, 21쪽〉

## (5) 윤상필, 미가(米價)와 재만동포에의 요망, 재만동포는 정부를 신뢰하고 국책에 협력하라

개척총국 제2지도과장 윤상필(尹相弼)

미곡 잠정(暫定) 가격에 대한 생산비 염출(揀出)문제는 만주에서 미곡생산자인 조선농민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안을 준다고 하여 각 방면에서 여론이 불소(不少)하였었는데 그 뒤 관계 당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행한 결과, 종래 발표하였던 잠정가(暫定價) 상 가격에서 기분(幾分) 인상한 신 공정가격을 발표하는 동시에 잡곡류에도 공정가격을 결정하여 일반 곡물 가격에 대한 균형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미가(米價)문제는 다른 물가의 조절과 함께 일단락을 짓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개척총국 제2지도과장 윤상필(尹相弼) 씨는 ‘미곡공정가격에 대한 관견(管見)’이라는 일문(一文)을 만선일보(滿鮮日報)지상에 발표하여 재만동포의 신중한 조치를 촉진하였으므로 독자 제위(諸位)의 참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씨(氏)의 윤희를 얻어 이에 보재(補載)하는 바이다.

근일 미곡 공정가격에 대하여 생산자인 선계(鮮系) 동포들 사이에 상당히 여론이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한 비견(卑見)을 약술하여 보려고 한다.

첫째로 이번 공정발표한 정가가 정부에서 저물가 정책을 모방하고 각종 농산물 및 일반 생활 필수품에까지 공정가격을 정하여 물가의 통제를 하려는 견지(見地)로 보아서는 상당히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한 적정 가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제되지 않은 비싼 생산비를 지출하여 생산한 것이라는 점과 또 저물가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농산물의 가격과 균형을 얻지 못한 점에 있어서 농민 측으로 보아 불평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는 개인으로서 동정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미곡관리법을 제정하여 미곡의 생산과 배급을 통제하고 따라서 미곡의 증산을 도모하고 배급의 원활을 기하려는 정책에 대하여 유일한 미곡생산자인 재만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미곡 관리법의 운용 여하가 개척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같은 법안의 제정시에 있어서 농민의 영향을 반영시키려고 부족하나마 노력하였으며 또 같은 법안이 실시된 후에는 그 원활한 운용을 하여 특히 농민과 제일 이해가 밀접하고 자칫하면 농민의 사활(死活)문제를 결과하는 미곡가격의 공정에 대하여는 소관 사무 당국과 또는 당국 수뇌부와의 사이에 수십 차례의 절충을 하고 미력이나마 농민의 실정을 전하는 동시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이 공정되도록 힘써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공정가격이 발표되기까지의 잠행(潛行) 매상 가격에 대하여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만이 있어서 전만적(全滿的)으로 여론화 하였던 것이다. 첫째로 수매가격이 생산비에도 부족함이 적지 않으며

만약 공정 가격의 결정을 생산비에 의거하였다고 하면 생산 필수품 특히 식료품 피복대(被服代) 등이 작년보다 2~3배가 고등(高騰)한데 불구하고 인가(米價)는 작년 선태세가(先賦稅價) 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는 점에 있어 오류가 있다는 것이며 그 의거한 생산비를 공포하여 여론의 비판에 소(訴)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는 다른 물가 특히 잡곡류의 가격과 균형을 얻지 못한 점 즉 전자에는 정조(正租) 1석 팔면 고량(高粱)이나 포미(包米) 2석을 사던 것이 지금은 잡곡가는 정조 가격의 저락(低落)과 반대로 점차 고등(高騰)하여 현 시가 소미(小米, 정속(精粟)) 1석에 44원 고등 1석에 80원을 하여 자가생산인 정조를 판매하여 소미, 고량, 포미 등의 잡곡을 사먹는 조선 사람으로서는 설상가상의 타격이라는 것이며, 셋째로는 정조가와 미가와와의 차이가 과대하다는 점, 정조 100천(斤)(일본 근(斤)으로는 166~7근, 만주 신형(新衡)으로 200근)의 매수가격을 14원 43전이라고 하면 1석(일근(日斤) 200근, 만근(滿斤) 250근을 표준함)에 18원 3전이 되는데 1석의 정조를 작미(作米)하면 백미 5두 8되를 얻는다고 하고 백미 1두 4원 80전 치고 27원 84전이 되니 정조와 백미와의 간에 1석에 대하여 9원 81전이라는 차이가 있게 되어 중간 이익이 많다는 점이다.

그 외에 마대(麻袋) 문제, 격부(格付) 문제, 정미업자에 대한 배급문제, 수전경영수속의 간이화 문제 등의 실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고사하고 다만 이상에 약속한 문제에 대하여 이번 발표한 공정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약간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한 공정가격은 잠행 가격보다 표준품 백천(百斤)에서 66전의 인상을 보았을 뿐이라 잡곡의 공정가격을 발표하여 미곡과 잡곡과의 균형을 도모한 곳에 정부 당국의 고충을 양찰(諒察)할 수 있는 동시에 농민의 포회(包懷)한 불평의 중요한 일부분은 해소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속(소미) 60격(格) 대련(大連) 표준가격이 8원 80전이니 일근(日斤) 1근당 8전 5미(尾)가 된다. 따라서 잡곡류의 가격과의 균형은 어느 정도까지 얻게 되었으며 일반 생활필수품의 가격과 노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 방침을 가구하고 있다고 하며 농산물의 가격통제에 즉응(卽應) 하여 농가의 생활상 또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면사포(綿絲布) 농기구 등의 가격을 통제하여 생산품과 공업제품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배급의 합리화를 도모하리라고 하니 오인은 이들 정부의 방침이 속히 구체화 하여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재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농민에게 참지 못할 딱한 사정이 적지 않은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며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정조를 파느니보다 작미해서 자가용으로 하겠다는 호소가 딱한 사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만주에서 미곡생산자의 거의 전부가 조선 동포이라는 점에 있어 정부 미곡 정책을 검토할 때에 신중한 태도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시정을 신임하고 들어야 될 것이며 혹시 그 정책에 상예(相洩)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책(國策)에 배반한다는 누명(陋名)을 듣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문제로 보더라도 농민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선찰(善察)하고 시정에 힘쓰는 바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는 의의에 있어서 참고 보조금이 있는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출회(出廻)를 촉진하여 국가의 발전에 협력하며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尹相弼, 「米價와 在滿同胞에의 要望, 政府를 信賴하고 國策에 協力하라, 『在滿朝鮮人通信』 72號, 奉天:興亞協會, 1939년 11월, 13~14쪽〉

## (6) 이성환,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라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에게 보낼 말이라고 하면 첫째 신동아건설에 있어서 동양인 전부가 구성분자의 하나이나, 개중에는 재만 동포의 역할이 조선 내에 있는 조선인보다도 이중으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만주 내에 있는 각 민족 중 조선인은 일본(內地)에서는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만주에서는 만주국의 구성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일본 조선인은 그 역할이 단순하나 만주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국민이면서 만주국인이니까 다른 민족의 지도적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방(隣邦) 중국에 대하여 더욱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동아건설에 참여하는 조선인의 역할은 이와 같이 이중의 사명을 가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으로 보면 이때까지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당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정부당국이라든가 그 외 다른 민족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어왔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진출한 사람의 소질에도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일편에서 보면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기관이 투철하지 못하였다고도 할 수 있어 그 책임은 쌍방이 반분(半分)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상업, 공업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고 더구나 기술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현하의 정세 하에 있어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자체의 책임은 해소되고 또 지도층의 인상이 시정되어 자연스러운 세(勢)로 조선인의 입장은 공고(鞏固)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만주에 간다는 관념을 시정하고 낙토(樂土)를 건설하겠다는 정신으로 인리친척(隣理親戚)을 끌어다가 여기에 뿌리를 박고 이 땅에 혼이 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민정책의 힘을 기다리지 않고라도 조선인의 진출은 배가 더해지고 세배가 더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사실이니 이렇게 조선인의 다수가 이거(移去)하게 되면 거기에는 지반(地盤)이 생기고 토태(土台)가 서서 여러 가지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사상적으로는 과거의 역사상 또는 지리적 관계로 적로(赤露)와 인방(隣邦)이 되어 있었으니까 조선인의 생각 행동이 잘못하면 의혹을 받기 쉽고 이 한사람의 선수는 곧 여러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니까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하여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솔선하여 공산주의 같은 것을 배격하도록 방공사상(防共思想)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던 만큼 이제는 솔선하여 중인(衆人)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까닭입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만주에 낙토를 건설하려는 생각으로 많이 이주하되 지도적 입장에 있음을 알고 사상적으로는 방공(防共)운동에 선구가 되며 경제적으로는 정당한 사업에 열중하여 신동아건설의 중임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것이올시다.

〈출전 : 李晟煥 「重大한 使命을 自覺하라」, 『在滿朝鮮人通信』 63號 奉天:興亞協會, 1939년 2월, 23~24쪽〉

## (7) 조원환, 자족(自族)의 돈목(敦睦) 없이 타족(他族)과의 협화는 무망(無望)

나는 심히 당돌한 말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조선의 발전향상은 실로 시각이 급하다는 성의(誠意)에서 나오는 말이다. 즉 나는 언제까지든지 흥풍흥풍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고로 피차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충성에서 나오는 말이다. 내가 잘났다는 말도 아니요 동포 제씨(諸氏)를 비난하고자 함도 아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박식(博識)이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혼자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인보상우(隣保相佑)가 없으면 처세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사회는 파멸하는 것이다. 자고이래 영웅호걸이 모두 '인화(人和)'를 근본정신으로 한 것이 이 까닭이다. 그러므로 각색 민족이 모여사는 만주에서는 더욱 인화의 필요를 느끼어 민족협화로써 국치(國治)의 정신을 삼은 것이다. 만주국을 정치본위로 보는 때는 일본인은 단연코 주인민족이다. 그러므로 이 주인민족을 중심으로 기타민족은 모두 융화 결속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조선인은 주인민족과 기타 세 민족의 중간에서 교칠(膠漆)<sup>47)</sup>의 공작을 맡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가(隣家)와 화목하려면 먼저 가족의 화목을 도모할 것이다. 가족이 불목하고야 어찌 인가와 화목할 수가 있으랴. 가족과 불목하고도 인가와 친밀한 자 없지 아니하나 이 친밀은 진실한 화목이 아니다. 주붕(酒朋)이나 모리(謀利)의 당(黨)이 아니면 소인의 간당(姦黨)일 것이다. 이 의미에 있어서 민족협화를 함에는 먼저 자기 동포의 화목을 완성할 것이라 단언하는 바이다.

그러면 우리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은 동포 간에 과연 애당(愛黨)의 마음이 간절하냐 어떠한냐 좀 말하기가 부끄럽지마는 부끄러운데서 반성이 나오고 반성에서 자각이 나오는 것이니 아니 말할 수가 없다. 종래에는 조선인이 조선의 단점을 말하면 역적(逆賊)같이 알았다. 신문잡지까지 칭찬주의(稱讚主義)를 지켜왔고 결점을 들어 경성(警省)하는 일은 아무쪼록 피하여왔다. 그리하여 민족의 각성이 지후(遲後)하였고 자부(自負) 과장(誇張)을 증장(增長)하여 왔다. 이것이 조선인의 지위향상을 더디게 한 큰 원인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조선인의 결점은 말 안해도 다른 민족이 모두 잘 알고 있다. 다른 민족이 모두 알고 있는 결점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는 데서 다른 민족의 조소를 받고 있었다. '서양이언(西洋俚諺)<sup>48)</sup>' 에 '허물을 말하여주는 자에게는 절하여라' 하였고 동양현철(東洋賢哲)은 '일삼 성오신(日三省吾身)'을 가르쳐 왔다. 우리 재만조선민족이여, 다른 민족에게 대하여 자랑할 만한 장점은 어디까지든지 보존하는 동시에 단처(短處)와 결점은 피차 충고 경성(警省)하여 하루라도 조속히 자랑할 만한 민족의 지위를 얻을 것이다.

재만선인동포여, 우리에게는 애당지심(愛黨之心)이 부족하다고 본다. 사회연대의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에 성공한 자는 있으나 단체적으로 성공한 자는 적다. 개인주의가 발달하여 민족전체의 신용을 추락시켜왔다. 나는 모 요로대관(要路大官)에게 들은 말이 있다. 즉 '조선인의 중대 문제에 대하여 조선인 제군에게 의견을 물으면 개개인이 답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 하였다. 이것이 사회연대의 책임감이 없이 개인의 형편을 따라 태도가 각이한 까닭이다. 어찌 민족적 멸시를 면할 수가 있으랴. 타인의 멸망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아편(鴉片) 매매를 태연히 하고 있으며 자기의 처세를 보존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예와 공로를 훼손하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동포 유지 중에 좋은 사업을 경급(經急)하고자 하여도 저해하는 자가 있음으로 불성공에 끝나는 일이 많다.

47) 아교와 옷칠이라는 뜻으로, 사귀는 사이가 매우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르는 말.

48) 향간에 퍼져있는 속단 가운데에서 주로 사물의 형용과 비유에 쓰이는 형상적인 말.

연령이나 지위의 질서가 어지러우면서도 재만년수의 우취감(優趣感)은 상당히 팽배하여 있다. 이 무슨 기현상일까.

재만선인의 결점이 이와 같음으로 요로요직(要路要職)에 있는 동포도 역시 자포자기(自暴自棄)하여 동포의 복리증진에 노력할 생각이 없어왔다 하여, 소위 조선인을 위하여 노력하다는 일본인 기관에서도 조선인을 가지고 밥을 삼아 개인의 사리명리(私利名利)의 기기(器機)로 쓴 일이 허다하다. 그러하고 보니 조선인의 복리증진의 길이 어디 있으며 지위향상의 길이 어디 있으랴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선 내에서는 일년 농사에 수 석(石)이던 농민이 만주에 와서 수십 석 수백 석의 추수를 얻고 있다. 그러나 매년 부채를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해마다 부채를 줄여가지고 자력자활할 계획을 세우는 자가 극히 적다. 농장을 경급하는 자도 농민의 자작자급(自作自給)을 계획하지 않고 고리자금으로써 소작인이야 어찌 되었던지 농장의 이익만 도모하려 한다. 이리하고야 어느 해가(奚暇)<sup>49)</sup>에 조선농민의 민력이 충실하여 질 수 있으랴 실로 한심한 일이다.

이와 같이 스스로 지위를 타락하고도 일본인과 동등대우를 요구하고 기타민족을 멸시하는 조선인이 개(介)적지 않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일시동인(一視同仁) 하에 있는 형제다. 그러나 일본민족은 형이오 조선민족은 아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이 '합병'되고 만주가 건국된 것은 물론 일본이 자국을 위하여 한 일이지마는 조선과 만주의 민족에 끼친 은덕이 많다. 이 은덕을 끼침에는 물론 많은 국민을 희생하였고 많은 물질을 소비하였다. 그 뿐 아니라 국가유사한 때는 우리 조선인은 아직 총검을 메고 전장에 나가지 못한다. 이리하고 어찌 일본인과 동등대우를 요구할 수가 있으랴. 우리는 아우로서 아우 된 본분을 극진히 하여 가지고 형으로서 형된 자애와 동정을 끼쳐주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재만조선인을 항상 발전시키는 근본책이라 있는 바이다. 상을 받으려면 먼저 공로를 쌓으라.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점잖은 체통을 보존하라. 재만동포 제씨여, 피차 반성 자각합시다.

〈출전 : 曹元煥 「自族의 敦睦없이 他族과의 協和는 無望」, 『在滿朝鮮人通信』 9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8월, 18~19쪽〉

## (8) 조원환, 복지사변과 총후의 임무(강연)

협화회 봉천민회분회 상무원(常務員) 조원환(曹元煥)

우리 조선인은 이미 일본화하여 일본정신에 살고 있습니다. 금회의 복지사변에 당하여서 우리 조선인은 불언불어 모든 방면에 국민으로서의 적성이 나타나 있는 형편인 만큼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일본국민으로서의 의식을 심각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존의 정신 등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건국이 이미 2천 5백여 년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인은 지금 국체명징(國體明徵)과 황국정신(皇國精神)의 발양(發揚)을 절규하고 있는 형요(形要)이

49) 어느 겨를.

니 황차(況次) '일한병합' 겨우 27년에 밖에 안 되는 우리 신부(新附) 국민은 충일층 일본정신의 고취에 주력치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국민으로 된 영광을 생각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일본국민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으로서의 임무, 의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 가장 긴요한 의무는 '일단 완급(緩急)할 때에 의용공(義勇公)에 봉(奉)할 것' 이것입니다.

그리하나 우리 조선사람은 훌륭한 일본국민이면서 병역의무를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합' 이전은 별문제로 하고 대전 당시의 일독(日獨)전쟁에도 만주사변에도 또한 최근의 북지사변(北地事變)에도 병역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국민으로서 가장 명예 있는 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한 것은 교육, 훈련 기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 당분간 부득이한 일이나 군인으로서 제일선에 서지 않는 대신으로 충후의 임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 되어 요 백색인종이 모조리 유색인종을 유린하고 나중(那終)에는 만주를 무대로 하여 동양을 집어삼키려고 한 것이었으나 천행만행으로 일본이 동양 아니 유색인종의 호신(護神)으로 되어서 조선을 행복하게 하고 만주를 행복하게 하여서 동양은 점차 광휘를 방사(放射)하고 있으며 또한 유색인종의 명예도 세계에다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색인종 이외에는 인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오만 극심한 나라는 아직까지 그의 꿈을 깨지 못하고 일본을 시키고 만주국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더욱 가증한 것은 인접한 중국이 동양의 대동단결을 자호(自好)치 않고 어리석게도 백색인종에게 의존하여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면서 자멸의 길을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 양이 목자를 떠나서 '이리'의 군중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일본의 동양수호공작에 일대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북지사변도 중국이 야기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은 이러한 시국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각오로써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것일까? 이는 심혈을 경주(傾注)하여 충후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금번 사변이 발발되자 조선인 청년들은 의용병을 지원하고 제발 제일선에서 활동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도(靑島)에도 2백 명, 경북 문명기(文明琦) 씨의 문인(門人)에도 2백 명, 이와 같이 단체적 훈련을 계속하면서 허가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도 있으며 그 외로 개인으로서 의용병을 지원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상태인데 요새 협화회(協和會) 봉천민회분회(奉天民會分會)에 그의 알선(斡旋)을 출원한 의용병지원자만 해도 십 수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들의 말하는 바는 성실 진검(眞劍)하여 '나는 군사교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군수품의 운반이라도 시켜주시오', '나는 자동차운전을 할 줄 아니까 군수품의 화물자동차라도 운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함과 같이 비장한 기상으로 국민으로서의 명예있는 출정을 간원(懇願)하는 것입니다. 국방헌금을 말하더라도 최창학(崔昌學) 씨의 4만 원을 필두로 김연수(金季洙), 임종상(林宗相) 씨 등이 각 2만 원, 기타에도 하여튼 그의 재력으로 보아 과분한 금전을 헌납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수십 원, 수백 원을 익명으로서 헌납하고 그리고 계관(係關)에게도 성명을 알리지 않고 도망하듯이 돌아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금회의 조선 사람의 적성은 참으로 진심에서 우려져 나온 적성입니다. 광주(光州)의 여자고등보통학교 4년생 40여 명은 급우 상모(相謀)하고 새끼손가락을 잘라 그의 피로써 일장기를 만들어 제일선의 용사에게 보냈으며, 통천(通川)보통학교생도는 귀가도중 기차 중에서 서양인이 영흥만의 요새지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곧 그 국제스파이를 체포하게 하였으며 맹인 안마의 여인들과 고녀(雇女)들이 자발적으로 국방헌금을 함과 같이 불언불어로서 조선인 전체가 상하일거(上下一擧)하여 적



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야요. ‘일한병합’의 위업을 결행케 된 메이지대제와 고종태황제의 어사소(御思召)가 실현된 것으로서 우리는 흔히(欣喜) 용약(踊躍)함과 동시에 메이지대제와 고종태황제의 어영전(御靈前)에 정좌 합장하여 이 기쁨을 어봉고(御奉告)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인은 정벌에 의하여 일본국민으로 된 것이 아니라 메이지대제와 고종태황제와의 간에 어상담 후 병합되게 된 것으로서 즉 일본 건국 본래의 홍모(洪謨)에 심(甚)하여 동양평화확립의 대위업의 단서로서 ‘일한병합’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재만 조선인은 혹은 20년 혹은 30년의 장구한 동안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 만주개척의 선구자로서 고로를 당하여 온 것으로 만주건국까지는 적지 않은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한병합’에 의하여 명예 있는 일본국민의 지위를 얻고 또한 만주건국에도 공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인은 옛날의 박해 불유쾌를 일체 청산하고 명량한 기분으로써 일본의 국위발양(國威發揚)과 아울러 만주국 발전에 헌신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요. 이것이 일본국민으로 된 보은일 것이며 또 일본국민으로 된 명예인 것입니다. 금회의 시국에 당하여는 어떠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말하면 우리는 병역을 지지 않은 대신으로 총후의 국민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요. 의용병을 지원한다던가 무리(無理)로 다액의 현금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도 하여튼 자기 힘이 미치는 한의 일을 하면 좋습니다. 봉천시(奉天市) 외에 판교자(板橋子)라고 하는 조선인 부락에서는 ‘우리들의 황군을 운송하는 철로를 우리들이 수호하자’라고 하며 낮이나 밤이나 순번을 정하여 경비하고 있습니다. 의용병을 지원치 않더라도 돈을 내지 않더라도 자기의 힘이 자라는 대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시국에 화재, 도난, 분쟁 등의 사건을 일으켜 분주한 군경을 번거롭게 하지 않게 한다던가, 괴상한 외인을 발견할 때에는 곧 군경에게 알린다던가, 타민족 간에 서라도 유언비어의 유행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무마케 하며 방호(防護), 자경(自警) 등의 봉공을 충분히 하고, 음식점이라면 군경들에게 음식물을 내놓을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 그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한다던가, 소비를 절약하여 국방현금을 바친다던가 하여튼 애국성의만 있다면 아무렇게 하여서라도 총후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선인까지가 의용병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총후의 임무에 현명(懸命)치 않더라도 황군의 실력은 염려없이 중국군을 섬멸할 수 가 있는 것이나 병역을 지지 않은 우리는 군, 국을 위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진력(盡力)치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인이 상하일거(上下一擧), 분기(奮起)하여 온 것도 전연 이 진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국민의 명예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일본국민으로서의 본분을 지킵시다. 불만불평을 하지 말고 일본국민으로서 또한 만주국의 구성분자로서 훌륭히 체면을 보지(保持)토록 힘써시다. 일만(日滿) 양국된 흥륭발전(興隆發展)이 실로 이에 있고 우리 조선인의 발전도 실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출전 : 曹元煥 「北支事變과 銃後の 任務」, 『在滿朝鮮人通信』 34·35號  
奉天:興亞協會, 1937년 9월, 34~37쪽〉

## (9) 조원환, 총후 우리의 임무

협화회봉천선계공작간사회(協和會奉天鮮係工作幹事會) 주최인 '강연과 영화의 밤'은 11월 26일 가무정공회당(加茂町公會堂)에서 개최되어 간사회장 김병갑(金秉甲) 씨의 "모이면 흥하고 헤어지면 망한다"는 의미깊은 개회사를 뒤이어 회무당국대표로 김학원(金學元) 씨의 선계공작간사회 성립 사정의 설명이 있는 후 조원환(曹元煥) 씨, 서범석(徐範錫) 씨, 김태덕(金泰德) 씨의 강연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회자(來會者) 200여 명으로 대개가 청년층이어서 재봉동포사회(在奉同胞社會)에 희유(稀有)하였던 회합인 만큼 의의가 깊었고 또한 동 간사회의 장래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였는데 좌에 기재(記載)하는 것은 동일(同日) 밤의 강연기입니다. 다만 여기 말씀드려두는 것은 동일 밤 연사의 한 명인 김태덕 씨의 '전련(全聯)의 감상'은 이미 본지(本誌) 12월호 「전련 선계(鮮係) 대표 이동좌담회」 상에 기재되었기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생략하며 서범석의 강연은 별도로써 후일 게재하려고 합니다. (문책재(文責在) 기자)

오늘 선배 여러분 앞에 나서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당돌한 것으로 외람한 생각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재봉(在奉) 우리 동포가 일찍 이만한 회합을 가져본 적이 적은데 금반(今般) 선계공작간사회(鮮係工作幹事會)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유쾌하여 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계공작간사회가 금후 더욱 발전하도록 활동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대개 세상에서 사람이 살고 일하는 모든 일을 보면 모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하면 행복된 생활을 하자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유쾌한 생활을 하며 물질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선계공작간사회의 결성도 재봉 우리 동포로 하여금 협화회를 통하여 의논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타계민족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한 걸음 앞서 나아가도록 하자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동양의 대세, 내지 세계의 동향을 보면 일찍 선진자본주의국 즉 항해술의 발달로 세계침략의 선구가 된 백색인종이 그 나머지의 유색인종을 삼키려고 수백 년 동안 애써오다가 동양의 아시아인종을 최후로 삼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착착 진보하여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이것을 그대로 두고 만일 시기를 놓쳤으면 아시아민족의 앞길은 실로 참담하였을 것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서치 못할 천리(天理)를 받아가지고 일본제국이 단연 이것을 항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양에서 역사상에 일획기를 지으며 만주건국을 계기로 신질서가 건설되고 있는 사실은 아시아인을 백인의 손에서 해방하는 성업(聖業)인 동시에 이 집요한 해양세력을 동양에서 배격하는 절대적인 것이올시다.

돌아보면 지나사변(支那事變)<sup>50)</sup>이 1일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허비하며 또 다수한 인명을 희생하면서 2년 3개월을 계속하였으나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으면 사변을 목적을 관철하고 신질서를 완전히 건설함에는 아직도 수년, 수십 년 걸릴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국이 건설 후, 착착 그 국가적 준비를 충실히 하여 가고 중국에 신질서 건설이 진보되자 그동안 갖은 농락을 다하던 백인종은

50) 중일전쟁.

부득이 굴복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독일·이탈리아가 일본과 악수하여 특별한 친분을 보이게 되고 소련이 ‘노몬한사건’에서 집요하게 항거하다가 손을 떼이게 되었으며 중국을 삼키려고 하는 영국(英國) 역시 근일에 와서는 겸양의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은 실로 동양의 맹주가 되어 동양 전체를 보호하고 생장케 할 뿐 아니라 백인을 견제하여 그 세력을 방어하는 일대 장벽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국민이 된 우리는 이 장기건설을 앞에 놓고 금후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까?

이래, 조선인의 동향을 일별하면 조선인이 황막한 광야인 이 만주에 이주한 지 30년의 노고는 연간 백만 석의 벼를 생산하여 이것은 오늘 만주국 건설에 중국 신질서 건설에 없지 못한 중요한 식량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이 아니었으면 이 공작을 누가 하였겠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여도 조선인은 만철(滿鐵)이나 기타 만주개척자 이상의 공적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금차 지나사변 발발에 제(際)하여서도 조선의 많은 청년은 의용군으로 종군하려고 혈서의 지원을 하게까지 되었고 아직 국내 제도의 미비로 이렇게까지는 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드디어 통역이나 운전수로 종군하여 모두 열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역의 대부분이 조선인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 조선인이 없었으면 지나사변 처리는 어떻게 하였을까 라는 것이 군부(軍部)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선인의 공로라면 공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조선인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공로로서 국가에 바칠 실무는 다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편, 재만 조선인의 기운(氣運)을 타진하여 보면 불유쾌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학량(張學良)에게, 기타 군벌정치아래서 박해를 당하면서 오던 조선인이 기다리던 건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유쾌한 일을 당하게 되어 드디어는 ‘건국정신(建國精神)과 협화정신(協和精神)’을 의심하는 자가 없지 않은 것도 숨기지 못할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만주건국의 일천(日淺)과 또한 독창적 제국이라는 만주국의 특별성이 완전무결을 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현상아래 있는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상(理想)하는 국가는 먼 장래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불쾌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 국가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할 일을 충분히 다하는 가운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반드시 모든 일이 완전하게 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근일에 개선되는 조선인개척정책에서도 엿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만주에서 취급하여오던 조선이민취체규칙(朝鮮移民取締規則)은 소위 수적제한, 지역제한이 있어 지역에 있어서는 자유이민은 동변도(東邊道) 23선(線)외에는 제한하던 것을 이것은 신동아 건설에 당하여 동아협동체를 구현함에 있어 타당치 않은 것이라고 철폐하는 동시에 조선인도 국책개척민(國策開拓民)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각오와 노력 여하가 우리의 진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가정책, 소비통제에 있어 식량, 석탄 등 물가고(物價高)로 생활의 위협을 느끼나 이것도 비상시한 각오로 이러한 고난은 금후 수개 년이 계속할지라도 극복할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각오로 나아감에 철저한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정신은 산다”는 근본신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이런 근본신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일본국민으로서

의 각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비국민의 행위를 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우리는 비국민의 행위를 하지 않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아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최근의 지원병령이 실시된 후로 천여 명의 지원병이 종군을 한 것이라든지 그밖에 통역이 종군을 하여 공헌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우리는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바치는 힘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국민으로서의 신념이 부족한 때문이 아닐까? 즉 만주건국 전후까지의 우리는 그 사상이 회색적으로 되어온 것이 숨기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를 당하면 저렇게 태도를 도호(塗糊)하기에 급급하였고 국가적 제의식에 있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받을 보호도 시설도 소격(疏隔)하여진 세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로 먼저 일본제국의 신민이란 철저한 신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나 협화운동뿐만 아니라 공사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앞길을 열고 이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의 이상적 발전은 일본제국의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각오아래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적 노력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바는 오늘 다행이 선계공작간사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재봉 조선인은 일심일체가 되어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본 국민성의 자랑은 각당, 각파가 애국이라는 데에서는 일치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재봉 동포도 업이야 다르든지 하는 일은 어떻든지 일심일의가 되어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간극(間隙)이 없이 일치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지위는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인의 발전하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동아신건설에 참된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전 : 曹元煥 「銃後 吾等の 任務」, 『在滿朝鮮人通信』 73號 奉天:興亞協會, 1939년 12월〉

## (10) 최남선, 조선문화 당면의 문제

조선사람들은 지금 문화부문에서 세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하나는 근대화, 하나는 일본화이며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과 전통생활과의 마찰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첫째 근대화 문제는 인류생활의 보편적인 귀추라고 하는 점에서 천천히 그다지 무리를 느끼지 않게 진행할 것이며, 한편 그것은 시대에 순응하는 자기발전의 당연과정이라고 의식함으로써 낡은 전통과의 갈등도 매우 원만하게 풀려 나갈 것이다.



둘째인 일본화 문제는 당장에 절실한 것으로, 강렬한 지도력에 다그쳐져 있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성을 띤 전체 문제의 핵심인 것과 동시에 이른바 전통력과의 마찰도, 이 부분에 심각한 것으로, 실은

제2·제3의 문제는 일체이며 양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사연으로 오늘날 조선의 문화관계는 그 독자성인 것, 본질상의 것, 내부 생명력에 있다고 하기도 오�히려 일본문화와의 상관적인 의미에서 고려하고 변석(辨析)<sup>51)</sup>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당면한 현실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하여 조선은 '일본문화'가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을 일단은 수긍하기로 하고, 그 일본문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것은 시간·공간이나 질과 양 등에 걸쳐서 수많은 요철(凹凸)면을 갖고 있는 조선 전통을 흡수하고 융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최근에 있어서는 서양, 옛날에는 중국 등으로부터 빌린 옷이나 받은 물건은 물론 일본문화라고 말할 수 없다. 불교의 살아 있는(活) 정신이나 유학(儒學)의 올바른(正) 이상(理想)이 일본에야 말로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니치렌(日蓮)·안사이(闇齋) 등을 억지로 가져온다고 해서 그 교학(敎學)이 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양복·철도·라디오·빌딩이 일본 독자의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

그렇다고 해서 타타미가 온돌을 쫓아내고, 키모노가 조선옷을 대신하며, 타쿠야이 김치와 교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간 국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것은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팽창하는 일본의 점진(漸進)에 따라 보통이상의 풍부하고 정확한 표음기호를 요구할 때 운이라도 좋으면 조선언문이 이로하<sup>52)</sup>를 대신해 나갈 것이 아닌가 하고 상상하는 것이 여간 단 맛이 있을 것 같다.

◇

일본은 물론 문화국이다. 오래되기도 하고 고도(高度)이기도 한 문화의 소유자임이 틀림없다. 조선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문화적인 위력은 물론 남아돌아간다. 단 보통의 의미에 있어서 문화재에 일본 독자적인 것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그리스에 철학이 없고, 인도에 종교가 없으며, 중국에 예악(禮樂) 문물이 없으며, 서양에 과학이 없었다고 할 뿐이다. 그러나 문화란 반드시 심미구진(審美求真)이라거나 이용후생이거나에 한정해서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이나 국민생활을 바르게 이끌며 또 강하게 유지시키는 세력이나 사물은 똑같이 그 민족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에 참으로 빛나는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국민도 많으나 건국 이래 일관된 정신을 지켜서 지금에 이른 자는 우선 일본 밖에 없다.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웅대하며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넓혀 나가도 또 어디에 가져가도 훌륭한 의식을 가진 끝을 찾을 수 없는 고마움의 극치인 것이다.

◇

천칙(天勅)을 받든 천손(天孫)이 천국을 인간에게 연장하여 천도(天道)를 세계에 홍통(弘通)할 수 있

51) 시비를 갈라 정하는 것.

52) 일본 '가나' 문자.

도록 만들고 굳히는 작용을 한다는 말은, 도의적 대(大)정신은 사상으로서는도 존귀한 것이다. 단순히 사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를 꿰뚫는 사실인 것에 일본 국체(國體)의 자랑이 있다.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이러한 대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민적인 자각에는 영원불멸한 빛이 있는 것이다.



종족의 출신과 국가생활의 인연을 신성화한 유형(類型) 사실은 물론 모자라지 않으나, 그 대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한 편의 신화로 바뀌어 조상숭배의 잔재라고 보여지고, 또 종교적 환상으로 승화되어 버린 것이 천업회홍(天業恢弘)의 신국(神國)의 실현은, 일본에서는 고금(古今)을 통해서 역사진행의 궤도이며, 지금도 아직 민족의 심장에 고동하고 있는 실제적인 힘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국체의 정화(精華)를 이루고 문화의 진수를 이루며, 그리하여 일본을 신의 나라, 도(道)의 세계로서 세계에 추앙받아야 할 빛과 열의 원체(原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확실히 세계 문명사회에서 유일한 제정일치(祭政一致) 국가이다. 세상의 공식적인 학자는, 혹은 원시체제의 잔류로서, 이것을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완고하고 고루한 보수주의자에 의하여, 이러한 것이 굳이 시대역행의 성새(城塞)가 된다는 것에서, 근거 없는 모함의 표적도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불후의 가치의식에 기초해 국민의 최고 목적으로서의 신국 실현으로의 마음의 날 땀이나 그것을 방불케 하는 결합형태의 유지와 발전, 이 이상 찬미되어야 할 문화, 동경받는 생활 사실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일본의 건국정신과 그 역사적인 행진 모습은,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하나의 문화계통이다. 세계의 문화원류가 아무리 많아도 일본의 황도(皇道) 이상의 것이 또 있을 것인가.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신에 의하여 “평안한 나라와 평정되어가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다.” 이외에는 인류의 요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 및 일본인은 모든 일과 기회가 함께 항상 이 정신에 의한 반성을 찾고 있다. 정사(正邪)와 득실(得失) 모두가 다만 이러한 문화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병합도 그것을 고치고 굳히는 것도 첫째 이 원리에 비추어서만 정의가 되며, 또 성패와 공과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문화의 기본정신 즉 제사지내는 일(政事)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할 것을 조선인들은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굳이 조선만이라고 하지 않는다. 왕도가 비추는 범위는 무한이라고 할 만큼, 이제는 만주국을 통하여 이른바 50의 혼구(欣求)를 향하고 있다. “육합(六合)을 겸하고 이로써 도읍을 열고, 팔굉(八紘)을 합침으로써 우주를 이루”는 것이 조칙(詔勅)에 나와 있는 것이 일본인 것이다. “시키시마(敷島)의 야마토(大和)<sup>53)</sup> 비단이 짜임으로써 붉은 색의 꽃도 빛을 낸다.” 고 하는 세계이며, 인류인 것이다. 그리하여 천업

회홍의 정신, 신이면서 청명심의 발양에 광명을 주고, 힘을 주며 기쁨을 주는 정사(政事)만이 이러한 대사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일본의 문화정신은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월감이나 정복욕은 아니다. 복종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것으로 영유하는 것도 아니며, 알리며 불러들이는 것이다. 황조(皇祖)·황종(皇宗)의 마음의 거울로 유현(幽顯)·제상(諸相)에게만 신의(神意)를 알리는 것이 일본의 정도(政道)인 것이다. 이 원리야말로 “이것을 고금을 통하여 줄거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것을 안과 밖에 실시해서 뒤틀리지 않는다”. 천지의 공도(公道)와 우주의 진리는 그리하여 문화의 권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원리 상에서 말하면, 정책이라거나 통치라는 관념은 당연히 사양해야 할 것이다. 많게는 사람들의 처분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만 알리게 하는 할 줄거리의 도(道)가 송양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문화로써 임하며, 조선은 이것에 대한 동경(憧憬)으로써 다가가야 할 뿐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화도 융화도 말할 필요가 없다. 신에게 귀일(歸一)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조선은 일본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이 줄거리에 의해서만 조선 문화의 진실이 충분히 일본화 되는 기대가 되는 것이다. 조선인을 이러한 원리에 잠을 깨우고 가까이 오게 하여 이것에 철저하는 것, 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일본화인 것이다.

◇

감륙(敬勸)은 낚시미끼가 아니다, 억압은 미끼가 아닌 것이다. 경비나 보호관찰은 미끼에의 입구가 되지 않는다. 미끼인가 미끼가 아닐까, 공도의 정리(正理)인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정신이란, 이것을 신칙(神勅)으로서 가슴에 품고, 천업(天業)으로서 회홍(恢弘)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사실적인 현증(顯證)으로서 일본역사에 비상한 빛을 볼 수 있지 않는가.

◇

그렇다면 각도를 바꿔 피화도체(被化導體)인 조선인의 본바탕, 그 소질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도깨비불(燐火)에 타오르는 태워지는 나무인가 어떤가, 물에 섞인 기름이 아니며, 자석에 붙은 쇠인가 어떤가, 효과로 보아서 이러한 것도 일단 걱정을 해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역사상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선의 전통적 정신이라는 것은 역시 천업회홍의 이상을 시초로 정사(政事)에 육성되어 온 것이었다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다.

조선에 끊어진 것을 잇게 하고 파문힌 것을 파내고 조선인의 잠자는 혼을 흔들어 일으키려면, 오랫동안 잇고 있었던 천업(天業)정신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본 신전(神典) 그대로인 건국고전이 일반적으로 또한 조선인마저도 잇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다. 조선인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게 한다면 거기에는 조상인 천황(天皇)의 나라를 찾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찰도 반발도 저항도 어긋남도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

53) 시키시마·야마토는 모두 일본을 가르키는 말이다.

◇

이렇게 보면 조선은 그 원리적·본질적으로 이미 일본화 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 일본과 조선과는 원래 같은 문화원천의 두 지파(支派)로서, 일본에는 원류(源流)가 유장(悠長)하여 연면(連綿)한 하신(河身)이 만세에 걸쳐 똑 같았고, 조선은 불행하게도 그것이 끊기고 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농락되어서, 그 의식도 몽롱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마침 때가 와서 이제야 분류(分流)가 재합(再合)하여, 같은 바다의 물결에서 뛰는 것이 약속된 것뿐이다.

◇

천업회흥의 신념은 일본·조선만의 낡은 길이 아니며, 살로 동북아시아 일대를 포괄하는 꽤 넓은 범위에 있게 하는 신앙체계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몽고의 건국 신전(神傳)은 그것이 교저창명(較著彰明)한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즉 동방세계에서 대동(大同)생활의 원리인 이러한 대(大) 사실이 일본에서 가장 완전한 전통으로 남아서 뿌리 강한 생활력으로써 무궁한 방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대원리를 떨치게 하여 동방의 대중에게 호소하고, 또 상처 입은 혼을 위로하고 고칠 때 「광택천하(光宅天下)의 경륜은 뻗어나갈 것이다. 일본에는 사실로써 현현(顯現)되어야 한다. 어찌하여 다만 조선의 일본화뿐이겠는가. 걱정할 것은 일그러진 자기 마음대로인 일본정신이라는 것이 황도 본연의 빛을 가리고 또 거부하는 일도 있을까 하는 것뿐인 것이다.

◇

문화란 결국은 인류의 진실하고 완전한 생활의 추진력과 성취과정에 지나지 않으나, 원리로서의 문화는 일본 본래에 충족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구현(具現)하는 데는 일본인이 얼마만큼 총명하며, 진면목일 것인가는 이미 그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눈앞에 엄숙한 큰 시련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출전 : 崔南善, 「朝鮮文化當面の問題」, 『在滿朝鮮人通信』 22·23號  
奉天:興亞協會, 1937년 3월, 48~51쪽〉

### (11) 최병협, 반도문화의 장래에 대하여(1~6, 終)

#### 반도문화의 장래에 대하여(1)

〈서언〉

문화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도 약간 논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문화란 주어진 자연을 재료로 삼아 인간이 진·선·미·성(聖)(그 외에 문화가치를 넣는 설도 있지만) 등의 문화가치를 실현하려는 과정의 총칭이라는 간단한 견해를 바탕으로, 제목 「반도 문화의 장래에 대하여」란 앞으로 반도에서의 과학(진)·도덕(선)·예술(미)·종교(성) 등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목표와 이끌어내야 할 방책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옛 조선의 문화가 상아탑 속에 숨어서 일종의 개념적 유희에 몰두하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깊고 깊



은 수면상태에 빠져 있음을 나는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게다가 이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새로운 창조와 건설을 하는 데 필요한 조선을 구비한 여명기는 아주 오래 전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디 자기평가에 불민한 민중들의 문화의식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있는 것은 더욱 한심스러운 일이다.

나는 종종 일본 내지를 방문해 도시와 시골 각지를 돌아다니며 오래 전부터 놀랄 정도로 찬연(燦然)한 문물에 감격과 동경과 애착과 선망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지난해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부터는 우리가 자기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통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의 출현이라는 경사스러운 새로운 사건은 그야말로 동아문화의 황금시대의 재현을 약속하는 서조(瑞兆)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사업의 수행에서 보건대, 일본 내지와 만주국을 잇는 교량 같은 지역에 있는 반도로서는 문화적으로 새로운 큰 역할을 떠맡은 것으로, 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행여 자기예찬이나 자기 구가에만 도취되어 공평한 자기평가를 소홀히 해서 창조와 건설에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러한 실감과 실상(實想)을 품고 있는 나는 이 논문을 집필하면서 가장 진지하게 발밑을 비추고 되 돌아보면서 반도 문화가 나아가야 할 목표도 이끌어내야 할 방책도 모두 발밑에서 찾고자 노력했고, 그 어떤 것에도 일체 구애받지 않고 또 꾸밈없이 말할 작정이다. 저 포우의 노래에 나오는 엘도라도(남 아프리카에 있다고 전해지는 황금나라)를 찾는 청년 기사와 같은 전진 방식은 절대 금물이다. 오히려 우리는 발밑에서 파랑새를 붙잡아 그 파랑새에 안전하게 올라타서 높이높이 비상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다.

## 1. 나아가야 할 목표

### A. 4대 문화가치

(1) 예술……가령 전 인류의 문화전람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반도의 문화로서 당당하게 출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예술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조 후반기에는 급속하게 쇠퇴했지만 고구려 중엽 이후 불교가 널리 전파됨에 따라 발흥한 이른바 불교사상을 기조로 한 예술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전성기를 맞이해 더욱 찬란해지면서 고려에 전해졌다. 불교의 수난시대인 이조에서조차 예술의 맹아는 시들지 않았고 특히 동굴벽화에서는 새로운 기축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이니, 어쨌거나 예술만은 있다면 출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도의 예술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消長)의 역사를 언급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이 논문의 사명이 아니고 또 쓸데없이 길을 둘러서 가는 모양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술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점과 그 요인을 살펴본 뒤 장래에 나아가야 할 목표를 언급하고자 한다.

반도 예술의 특질은 무엇일까? 하나의 예술의 구성에는 잡다한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조를 이루는 것은 형태·색·선이라는 세 가지이다. 이 3요소의 결합으로 하나의 작품이 구성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독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려는 미의 성질에 따라 하나의 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가령 형태를 중시한 예술인가, 아니면 색과 선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가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도의 예술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을 중시했는가 하면 형태나 색보다는 선을 중시했다. 길고 가느다란 버드나무가지를 찾아서 날아오는 작은 제비를 그리거나,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흐르는 강변에 목이 길고 다리가 기늘고 긴 물새가 머물고 있는 것을 그리거나, 흘러가는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학을 그리는 것을 예부터 널리 유행한 것은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선을 중시한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선의 극치가 곡선이라는 것은 물론인데, 반도의 예술은 곡선을 참으로 풍부하게 선택하고 있다. 저 고구려 시대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선녀의 그림 등은 어떻게 그렇게도 큰 끈기를 갖고 세심하고 아름답게 그리도 많은 곡선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단지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이나 도자기나 건축물 등에서도, 다른 일반 공예품 모양에서도 곡선을 살린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각 시대별 작품을 일일이 거론하는 번잡함은 피하도록 하고, 민중의 일상생활에 가장 인연이 깊은 것 등에 나타난 곡선에 대해 약간 논하도록 하자.

먼저 가옥에 대해 살펴보면, 거꾸로 뒤집어놓은 기와지붕을 비롯해 초가지붕은 거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둥까지 둥근 것이 유행하고 있다. 나는 조선신궁(朝鮮神宮)의 참배 길을 지나갈 때마다 직선으로 시작해 직선으로 끝난다는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의 집들과 곡선으로 시작해 곡선으로 끝난다는 초가지붕, 거꾸로 뒤집어놓은 기와지붕의 집들을 비교하면서 참으로 재미있는 콘트라스트라고 생각하곤 한다.

조선의 주방에서 곡선 이외의 선으로 만들어진 그릇 종류는 거의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최고를 자부하는 경성부의 모 요리점에서조차도 식탁 위에 나오는 그릇은 모두 곡선으로 만들어진 것들뿐이라는 사실에 의문이 들 정도다.

양말이나 신발 우산 종류에 이르기까지 곡선을 그리는 데 참으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형태에서 살펴보는 반도의 예술은 호대(浩大)라든가 튼튼하다는 표현은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중국의 예술품과 대조해 보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베이징(北平)의 자금성이나 천단(天壇)에서 볼 수 있는 소상(塑像)·조각물·향로, □사찰·불상 등과 비교해서 반도의 그러한 것들은 기막힐 정도로 작고 약하게 보인다.

건물에 대해 보더라도 중국의 건물들은 크고 공간이 넓으며 일견 튼튼해 보이고 대지에 딱 달라붙은 것 같은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반도의 건물들은 작고 좁아서 답답하고 조잡한 공간 분배로 웬지 모르게 토대가 튼튼하지 않은 것 같은 불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색조에서 살펴보는 반도의 예술은 즐거움이나 온화함과 따뜻함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선명한 원색을 좋아하는가 하면 색바랜 듯한 잡색이나 줄음이 올 것 같은 회색, 차가운 연한 청색을 좋아한다. 안료라고 하면 쪽에 철사(鐵砂)·진사(辰砂) 색이 대표하는 데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색의 표현은 일본 내지와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내지의 의상이나 그릇 등에서

보는 눈부신 화려함과 투명하고 즐거운 색조나 친숙하고 따뜻한, 온화한 색조를 반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시대의 추이와 함께 작년 반도에서는 흰옷의 수난을 받아 조선 전체에 흰옷을 구축하려는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 전혀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중이 흰옷에 대해 지닌 강렬한 애착이나 집착 등을 생각할 때, 얼마나 색채와는 거리가 먼가를 수궁할 수 있다. 무색은 순수하다거나 정결하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운다 한들 결국에는 쓸데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색채미에 눈뜨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중국 명나라 때의 도자기가 색채가 가장 발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은 나는 지난해 난징(南京)에 여행을 가서 유물진열소나 골동품 가게를 방문했을 때, “중국을 받들고 중국에서 예술을 배운 반도가 이처럼 찬란한 색채미를 어찌서 옮겨오지 못했을까?” 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신 적이 있다. 베이징을 여행했을 때도 그런 감격과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 없었다.

다음으로는 형태·색·선 등의 예술상의 의미를 바탕으로 반도 예술의 특질을 고찰하도록 하자.

형태미란 안정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형태는 심정을 불안하게 하고 미감을 빼앗아 미의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태가 미의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안정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안정은 공중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법, 대지 위가 아니라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태미는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엄연하고 확고부동한 미이다. 강인함이나 힘이 표현된 미이다.

색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색이라 하면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색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색채는 어떠한 심정의 표현일까? 그것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즐거움·기쁨·유쾌함·온화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은 어떠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일까? 선의 아름다움이란 필연적으로 가느다란 선을 의미한다. 굵은 선일수록 형태에 가깝고 선의 의미와 멀어진다. 그래서 가는 선은 길고 가느다란 선이라는 의미이고 선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곡선이다.

곡선은 대지에 안정된 형태와는 반대로 지상을 떠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다. 즉 다른 힘에 자극을 받고 강제되어 불안정한 동요를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의 심벌이다. 땅을 벗어나려는 것은 이 세상의 무상함을 한탄한 결과 나오는 행위다. 무언가 호소하고 싶은, 버릴 수 없는 미련과도 같은 슬픈 심리의 표현이다.

이러한 고찰에서 보건대 반도 예술의 특질은 곡선을 주로 선택했다는 점에 귀착된다. 그래서 강인함(형태)과 즐거움(색)으로부터 버림받고 슬픔(선)을 추구했다는 셈이 된다.

한편, 음악의 미의 특질에 대하여 한마디 하도록 하자.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일본 내지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한 친구가 말하길 “경성의 모 극장에서 처음 들은 조선 노래는 울거나 무언가 호소하는 등 웬지 한심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과거 K라는 일본 내지인 평론가는 경성의 광무대에서 당대의 일류 배우 박 모씨의 노래를 듣고 위와 비슷한 의미의 감상을 말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직접 감상해도 참으로 울적하고 나약한, 가련하고 눈물어린 정서를 자극하는 구절이 많다. 쾌활하게 약동하고 싶다는 감정

보다는 묵묵히 가라앉는 단조롭고 긴 선율이다.

대체로 비애미(悲哀美)의 말이다. 가요도 그러하고 취주악도 그러하다.

종합예술인 연극을 살펴보면 특히 이조시대의 연극 확대와 배우 무시로 인해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수입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천재들이 없지는 않지만, 상처 입은 관극(觀劇)의 맹아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게다가 경제적 사정 등은 특필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늘날에는 신극(新舊)를 불문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처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광무대(황금정에 있다) 하나가 겨우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니, 구극(舊劇)은 말할 것까지도 없지만, 이른바 신극(新劇)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극장 하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구극의 표현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련하고 슬픈, 가라앉은 음악이나 무기력한 단조로운 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신극이라 해도 저급한 모방이나 재탕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예술적 특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덧붙이자면, 간신히 여향(餘香)을 유지해가는 신라시대의 칼춤, 고려시대 이후의 무용, 농민오락으로서 조선 중부이남 지방에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농악, 농민춤 등에서도 앞서 언급한 슬프고 가라앉기 쉬운 비애미의 표현을 다분히 확인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대개 감정적 표현을 시종일관 유지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고려 말까지는 불교정신에 기초를 둔 여성적이고 성자적(聖者的)이고 탈속적(脫俗的)인 감정미(感情美)가 중심이었고, 이조 시대에 들어서 이후부터는 점차 지상에 왕도(王道)를 베풀려는 불교정신에서 축진된, 현세적이고 패자적(霸者的)인 의지미(意志美)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출전 : 崔秉協, 「半島文化の將來に就いて」, 『在滿朝鮮人通信』 2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4월, 33~36쪽〉

## 반도문화의 장래에 대하여(2)

이상으로 반도 예술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점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그 주된 원인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자.

자연이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 경향에 깊이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심정의 표현인 예술의 특질을 발생시키고, 민족의 역사가 또한 예술의 특질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는데, 반도의 예술 역시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반도에만 있으면 반도의 자연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알 수 없겠지만, 불과 7시간 정도의 항해로 일단 일본 내지의 풍물을 접한 자라면 누구라도 반도의 황량하고 삭막한 자연에 애처로운 감정을 느낄 것이다.

맥맥이 이어지는 좁고 평평한 봉우리들에는 소나무가 드문드문 자라고 있고 강바닥은 얇고 물은 항상 흐리고, 땅은 메말라서 윤기가 없으며, 기후는 춥고(대개) 꽃과 녹색이 없는 겨울이 길다. 이런 자연을 배경으로 나타난 미가 즐거움을 결여하고 적막한 미가 되고 애상의 미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늘 대륙으로부터 호시(虎視)와 위협을 받고 도망갈 길이 없어서 수세기 동안 불안정한 생활로 고통을 받았다. 게다가 오랜 세월의 비정(秕政)은 끊임없이 민중의 생활을 위협하고 도탄에 빠져 평안한 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눈물의 역사를 겪어온 민중의 예술이 안정을 결여하고 강인함을 잃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령 곡선이 미의 극치이고 적막이 고전적이고 가련함을 이끌어내는 미라고 내세운다 한들, 언제까지 땅을 떠나서 불안정한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는 나약한 형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는 색만을 나타내고 맛보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다.

따라서 장래에 나아가야 할 예술의 목표는 안정되고 또 즐거운 특질을 끌어들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나아가야 할 목표의

첫 번째는 특질의 전환(안정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은 이미 구비되고 있다.

본디 자연적 환경은 인력으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온통 황량했던 산을 푸르른 봉우리로, 흐린 강을 맑은 물로 바꾸고, 땅에는 윤기를 주고, 기후도 점차 온화하게 하여, 풍치도 좋아지게 하는 것 등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실로 삭막하고 무료한, 그저 한스럽고 애절한 기분만 들게 하던 반도의 산하는 불과 20여 년의 신정(新政)의 혜택을 받아 이제는 면목을 일신하여 더 이상 옛날의 아몽(阿蒙)이 아님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역사적 상황의 변전은 물론 인위적인 것이고, 반도의 민중은 탐관오리가 발호하고 있던 비정의 고통에서 구원된 이후 불과 20여 년 만에 각자 안정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쾌하게도 저 류타오거우(柳條溝)의 어둠을 깬 폭음은 만주국을 출현시켜 그동안 위협이었던 인접 대륙은 친절하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맞이하여 빛나는 앞날을 약속해주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아름다운 자연과 안정된 역사를 바탕으로 성장해 즐겁고 기쁘게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고 우아함이 넘치는 예술, 동서고금의 정수를 받아들여 찬란 그 자체의 예술이 반도 전체에 군림하고 “사람들이여, 사양 말고 마음껏 음미하고 감상하고 흡수 모방하여 더 큰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작하라.”고 외치고 있는 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의 반도 예술이 특질 전환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능성을 약속 받은 사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두 번째는 민중생활로서의 예술의 발달을 기하는 일이다.

그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의 예술도 귀족과 부호 등 특권계급이 독점해서 민중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반도에서는 이것이 유독 심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술이 발흥한 시대는 있어도 민중이 예술을 생활한 적은 없다. 이 점은 일본 내지와는 완전히 반대이다.

여기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겠으나 일본 내지인 생활의 의식주는 물론 화로에 탄을 넣어 차를 끓이는 경우에도, 기타 일상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예술미가 녹아들어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깨닫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불교예술이 가람(伽藍) 내부에서만 떠돌아다니기 십상이었고 좀처럼 전당 안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점은 일반적 경향이긴 했지만 반도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불상이나 불교 관련 물건들을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데 반해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저 어설픈 곡선에 둘러싸여 낮은 기둥과 작은 창문, 음침한 집안에서 대체 어떤 예술적 작품이나 장식품, 예술미가 들어간 일용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 지역에 들어가 어떤 멜로디를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민요는 또 어떤가. 아주 메마른 윤기가 없는, 모래를 씹는 듯한 무미건조한 생활이 아닌가. 삼국시대의 예술이 어땠든가, 경주의 석굴암을 만든 재주가 어땠든가, 어느 시대 작품의 필치가 어떻다며 자랑하던 일반 민중이 그 미를 맛보고 그 미에 취하고 깊은 맛을 맛볼 수 없으며, 이처럼 메말라버린 삭막하고 무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명예이자 비애이다.

이러한 삭막한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감정이 황폐해지고 인심은 피폐해진다. 순화되지 않고 균형 잃기 쉬운 감정은 현실에 대한 독단이나 편견과 착각에 빠지게 마련이고 결국에는 자포자기, 세상을 저주하고 사회를 저주하게 된다. 난폭·야비·살벌·잔학·뒤틀린 근성 등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저해가 되는 성정의 순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폐하고 중독적이면서 불건전한 사상 경향의 온양(醞釀)에는 황량한 생활에 기초한 황량하고 균형 감각을 잃은 감정이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무시할 수 없다.

삼간두옥(三間斗屋)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부자유를 잘 견디고 부족에 선처하면서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평안하고 온화하게 삶을 누리며 즐기는 건전한 국민생활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는 만든 사람 자신의 감상 향락과 더불어, 나아가서는 전 인류에 호 흡시키고 향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과거의 반도 예술처럼 만든 사람과 민중이 아무런 교섭이 없어서는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슬픔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반도 예술의 모습이 초라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민중생활과 아무런 교섭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의 고급 작품이나 소수의 위대한 작가를 세계에 자랑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저급하더라도 다소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널리 민중들의 심금과 맞닿고 생활로서의 예술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목전에 다가온 급선무에 속하는 사안이라 믿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나 또한 대작가나 대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국민적 세계적 공헌을 했으면 하는 희구나 요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중화하는 예술, 민중생활로서의 예술은 결국에는 대작가를 낳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대작품을 낳게 된다.

요컨대 질적으로는 예술 요소의 정비에 따른 완미(完美)를 기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중생활을 대상으로 한 보편화에 노력함으로써 장래에 나아가야 할 목표로 삼고 싶은 것이다.

## (2) 도덕

도덕은 본질상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각 □□·각 민족에 따라 사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특유의 도덕을 낳는다. 가령 부모를 소중히 한다는 것은 모든 □·모든 민족사회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모를 모시는 방법에서는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모를 모시는 방식이 일본 내지인들 사이에서는 부모 생존중의 봉양을 중시하는 데 반해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굳이 말하자면 부모 사후의 공양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점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실천 방법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반도의 도덕을 운운하는 이상 그 기원을 먼저 설명하고 현 상황에 대해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너무 번잡하므로 실천 방면에 관해서만 개관한 다음 장래 목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 효도

예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거나 충신도 효자문에서 나온다는 것은 글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하나의 도덕적 신조였다. 아니, 글자를 모르는 자들도 부모에게는 효성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능히 실천한 것이다. 실로 효는 도덕의 근간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에 위안·기호·오락 등의 심양(心養)이나 체양(體養)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오히려 사후의 제사를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 부모 생전에 되도록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늙은 부모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효양(孝養)의 모습은 드물다.

참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 생전에는 불효자라며 손가락질 받은 자라도 부모 사후에는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해서 공양에 큰 노력을 기울인다. 만약 가난한 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남들 하는 만큼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고심한다. 부모의 명복을 빌고 지성을 다하기보다 이웃의 눈, 의례적 형식 내지는 손님 대접 등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부터 효자라 불리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부모 묘 앞에서 3년간 기거했다거나 3년간 독거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부모를 그리워했다는 부류가 많다.

또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와신상담 몇 년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드물다.

하지만 어쨌거나 『심정전』이라는 만고불후의 효자이야기를 낳은 사회이므로 효도가 가장 앞선 도덕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충효

충신은 효자문에서 나온다는 사상에서 보면 충효가 하나의 같은 도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분명히 효를 주된 것으로 보는 의미이다. 부모에게는 어찌면 불효일지도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주군을 위해서라면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덕관념은 아마 발달되지 않고 (적어도 보편화되지 않았다) 오늘날에 이르렀을 것이다.

### 가족제도

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부모 중심의 가족제도가 발달한 것은 당연하다.

가정에서 가족은 호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부모자식 간의 질서는 지나치게 엄격할 정도로 정연

한 것이다.

그리고 종합 가족제도라기보다는 개별 가족제도이다. 물론 각 일가의 가족생활은 상당히 굳게 결속되어 영위되고 있지만, 각 가정을 종합한 것이 임금을 부모로 받드는 국가라는 도덕관념이 수반되지 않은 가족제도였다.

〈출전 : 崔秉協 「半島文化の將來に就いて 2」, 『在滿朝鮮人通信』 3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5월, 31~34쪽〉

### 반도문화의 장래에 대하여(3)

#### 조상숭배

이는 효도나 가족제도 등과 인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발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부터 조상의 영혼의 불멸을 믿고 죽은 조상 대하기를 살아 있는 사람을 접하는 것처럼 하고, 묘지를 고르고 분묘를 소중히 여기고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한다. 단 '효도'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이고 외면적으로 기우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

#### 혈통 존중

혈통을 극단적으로 중시하여 성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가독(家督)을 상속시키기를 매우 꺼려한다. 이는 치열한 씨족관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상숭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반도의 어느 유력한 기관에서 양자 채용의 가부를 논의했을 때, 이른바 원로 유식자들 대부분이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는 물론 혈통을 지나치게 중시한 탓이다. 그러나 남자아이만 혈통을 이어야 할 자격이 있고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당착이나 혼돈 따위는 실소를 자아내는 혈통 존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남녀의 구별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중국사상의 영향을 받아 남녀를 구별하는 도덕은 참으로 엄격하다.

그러나 여자는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든가, 딸에게는 부모의 상속을 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남녀 구별은 구별이라기보다 여성 구속 또는 여성의 인격 무시라 할 수 있다.

#### 경애의 마음

대략적인 견해로 보자면 존경(敬)은 주로 위에 대해, 사랑(愛)은 주로 아래에 대해서라고 구별할 수 있다면 아래를 사랑하기보다 위를 존경하는 쪽이 농후했다. 동생이나 유년이나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부모와 형, 장년이나 권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강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충실했다.

이러한 존경의 마음은 효도관념에서 발전한 것이다. "내 집 노인을 대하듯 남의 집 노인을 대하라(老吾老以及人之老)"는 것을 충실히 실천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부모(노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노인)를 소중히 여긴다는 관념이 확대되어 발달한 것이다.



예부터 연장자(노인)를 존경하는 계나 단체도 지방에 따라서는 상당히 발달했고, 아무튼 경장상치(敬長尙齒)는 가장 보편화된 도덕 경향이다.

그러나 노인이나 연장자를 존경하는 반면 어린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한 것은 '장유유서'의 극단(極端)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감동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린 사람·아랫사람의 학대다. 이는 일상적인 장유간의 용어나 태도 등에서도 현저하게 엿볼 수 있다.

대체로 예부터 노인이나 연장자는 즐겁게 해도 젊은이나 어린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회였다. 아동들의 장남감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것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다.

말하자면 우두머리(親方) 기분, 우두머리 정미(情味)가 발달하지 않은 도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인보상조(隣保相助)

인보상조의 도덕은 예부터 상당히 발달해서 이웃들 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하고 환난상구(患難相救)하는 관념이 강하고 또 능히 실천했다.

이는 한 부락에 같은 성씨가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상 씨족끼리 상호부조하는 관념에서 확장 발달된 도덕이다.

### 사회적 관념

사회의 유기체이자 사람과 사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도덕관념은 발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다는 관념은 아직 유지한 수준이다.

공덕(公德) 같은 방면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다. 그 실제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가정과 이웃집까지는 알고 있지만 먼·군·도가 우리 집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보편적으로 각성하지 못했다.

하물며 국사·사회 등의 관념은 생각지도 못한다.

### 국가적 관념

민족의 역사는 길지만 병합 전까지는 거의 완전한 국가적 통일을 기한 시대는 매우 짧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도덕관념이 보편화하지 않은 것은 무리도 아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반도 역사의 제1대 군주는 '신인(神人)'이긴 하지만 인민이 모여 추거했다는 역사 관념이다.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점은 장래에 큰 주의를 요하는 일이 아닐까.

### 인생관

숙명적 인생관을 지닌 민족이다.

생사·건강·빈부·귀천·길흉화복 등 모든 것을 숙명으로 돌리고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인간만사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무슨 일이든 자아의 가치나 노력을 거의 무시하는 퇴영적이고 쇠멸적인 편협·왜곡된 인생관이다.

## 의례

반도의 의례는 기자동천(箕子東遷) 후 팔교(八敎)를 시행하고 예의로서 동방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자에 의해 의례의 심연이 정해지고 그것이 동방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면 반도보다 몇 걸음 앞서 동방의 예의의 나라로 알려진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기자 시대의 의례란 이름만 전해지고 있을 뿐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래도 어쨌거나 의례의 심연이 깊다고 볼 수는 있다.

그리고 관혼상장제(冠婚喪葬祭)라는 오례(五禮)가 전장(典章)으로서 전해진 것도 신라시대 이후의 일인데, 그것은 주로 왕실 중심이었고 한편으로는 서민의 의례생활과는 관련이 희박한 시대가 비교적 길었다.

이조에 들어서 유학의 보급·향약의 발달 등에 의해 오례는 널리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인 것이라기보다 가정적인 것이고 또 예의 본질 그 자체는 등한시하고 그저 형식의 구비에 몰두한 감이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의례적 필요라는 점은 완전히 망각하고 마치 일종의 오락화한 행사, 유희적 행사 같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점조차 많이 있다. 이웃의 눈앞, 또는 의례를 위한 의례라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형식이나 허세적 경쟁을 위해 가산을 기울이는 정도라면 그래도 나은 편인데, 소나 토지를 저당 잡히거나 심지어는 상환할 전망도 없는 빚을 내서까지 고생을 하고 이를테면 남들만큼 하기 위해 흉내를 내는 데까지 저하했다. 이를 의례타락이라 할까.

민중들 간에 ‘동방예의지국’이라며 서로 자임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의례의 번잡함에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엔 위정당국의 영단으로 혼장제(婚葬祭)의 의례준칙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육례(六禮)에 대한 획기적 일대 쇄신책으로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

## 계급도덕

이는 매우 극단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신정(新政) 이후 크게 완화되었다.

## 민족성

민족성과 도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명동질(異名同質)의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자.

**유순성(柔順性)** : 유순함은 언어나 태도·보행 등에 잘 나타난다. 부화뇌동하는 민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원래 부화뇌동은 무지와 사상적 공허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유순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유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어 종종 맹신 추종하는 것이다. 집에서는 부모와 형제에게, 사회에서는 연장자와 치자(治者)에게 유유낙낙 순순히 복종해온 유순성의 소유자이다.

**관용성(寬容性)** : 예부터 두들겨 맞은 자는 다리를 뺀고 편안히 쉴 수 있다고 했는데, 비굴하게 보이기

도 하지만 잘 참아내는 성정의 증거이다. 도량이 커서 무엇이든 받아들인다는 평화적인 관용을 갖고 있다.

**비진취성(非進取性)** :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 않고 옛 것을 고치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다. 이러한 속담이 있는 만큼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사물의 장점을 진취한다는 기상이 부족하다. 진취성의 부족은 다양한 방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주택을 예로 들어 보자면 고금을 통틀어 설계의 근본정신이 거의 동일하고 진보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조선의 집만큼 심한 경우가 우선 동양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만인·미개인은 차치하고, 최근에는 경성 등지에도 이른바 신주택 경영이라는 것이 제법 유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종래의 그것과 비교해 아무런 궁리나 개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비진취적인 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쉽게 만족한다. 쉽게 만족하는 자에게 진취와 향상이 없음은 당연하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조상에 비해 과연 진보된 문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선 자체의 진보 발달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조상보다 진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염노력성(厭努力性)** : 원래 불요불굴(不撓不屈)의 노력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자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다른 것과 비교해서) 노력(근로)을 싫어하는 민중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상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의뢰성(依賴性)** : 유감스럽게도 자력·자활을 인생의 본의(本義)로 삼는 신조가 부족하다.

천부의 능력과 체력을 전부 바쳐 몸을 일으켜 세우고 사회에 공헌하려는 존귀한 정신이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부모와 자식에게, 친척과 지인에게 기대는 일을 인상의 생존상 당위의 규범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정을 갖고 있다.

역사가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사회 전체로서도 이 의뢰성을 잘 발현하고 있었다. 과거 신라는 당나라에, 고려는 몽고에, 구한국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하고, 병합 직전까지 청국에 웃음을 보내는 듯싶더니 러시아에 추파를 던지고 미국에 의뢰할 정도로 완전히 기동서방 찾기에 혈안이 된 꼴이었다. 사대성이란 의뢰성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분립성(分立性)** : 조선인으로만 조직된 단체는 좌우지간 결속이 약하다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회원이나 사원·단원 대부분을 임원으로 하지 않으면 좀처럼 결속되지 않는다. 조직된 분자 대부분이 임원이 되어서조차도 내홍을 일으키고 끝내는 분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얼마나 분립을 일삼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부터 반도 전체의 통일은 결여되어 있었는데, 가까운 이조의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노장파와 소장파의 적대시, 남쪽 당과 북쪽 당의 알력 혹은 친러파·반청파라는 식으로 오직 분립을 일삼아 왔다는 느낌이 있다.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따르는, 대를 위해 소를 버리는 등의 고귀한 협동심·단결심이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허영성(虛榮性)** :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늘 실질 이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 급급한 성정을 갖고 있다. 그저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형식을 중시하는 성정이 매우 강하다.

하루 30전의 수입밖에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도 10원의 신발을 산다고 하는 허영도 곳

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런 허영성은 과분한 소비를 저지르게 하고 경제적으로 건실함을 결여한 생활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불결성(不潔性)** : 비록 흰옷을 입지만 세탁을 좋아하고 결벽의 민중인 것처럼 단정을 내리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 아니면 착각이다. 의식주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 자세히 관찰하면 불결함을 개의치 않는 사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 사례를 들고 싶지만 여기서는 피하기로 한다.

**현재성(現在性)** :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장래를 고려하지 않는 공통성이 있다. 개인을 보더라도 자손대대의 장래를 걱정하는 경향이 희박하다. 특히 교양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로지 그날 일만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날 번 수입을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일하지 않는다는 경향마저 있다. 일하고 번 돈이 바닥날 때까지 향락을 즐기는 것은 그래도 좋다고 보고, 일하지 않으면서 향락에 빠지는 성정이므로 안타깝지 않은가.

이처럼 현재 향락적·근시안적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산도 헐벗고 오늘날의 가난에 빠졌다고도 할 수 있다. 민중으로부터 종교를 빼앗은 어느 시대의 위정자도 역시 현재성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장래에 상당한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종교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현재성 때문일 수도 있다.

설령 우리 한 세대에 완성되지는 않아도 자식이나 손자에게 물려받도록 해서라도 완성을 기해야 한다는 미래를 보는 방식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도덕의 풍속 습관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하고 싶지만 생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으로 매우 잠박하긴 하지만 실천 도덕의 일반에 대하여 개술했으므로 그 생성 원인도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도덕 전체를 통한 공통적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점을 들고, 나아가 오늘날의 실천 도덕의 현저한 신경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공통적 특질로서는,

첫째로, 편협하고 한쪽으로 기운, 그리고 형식이나 외면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극단으로 치닫기 쉬운 경향이 있으며, 윤리적 자각과 비판이 수반되지 않은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도덕이었다.

도덕의 근간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는 효도가 형식적·외면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조상 숭배나 각종 의례들도 형식 편중, 외면 호도의 폐해에 빠져 있다.

가족제도·혈통 존중·남녀 구별·경애의 마음·계급관념 등은 때로는 관용과 엄격함을 잃고 정미·인간미를 결여하고, 때로는 상대관계에 있어서 한쪽에만 후하고 다른 한쪽에는 냉담하게, 심한 경우에는 한쪽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기 쉬운, 너무나 제각각이다.

둘째로, 개인과 이웃에까지 발전했을 뿐, 사회적·국가적으로까지의 발전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사회적·국민적 도덕관념으로의 발전은 여전히 보편화되지 않았고 겨우 인보상조(隣保相助)의 관념으로까지 발전했을 뿐이다.

인생관에 있어서는 오로지 자신이나 자신의 집의 이익과 행복을 바랄 뿐이고 개인관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저급한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셋째로, 민족성이 대개 퇴영적이고 결합이 많다.

유순·관용 등 좋은 면도 있지만 전체를 통틀어 바라볼 경우 결합이 많은 편이다. 현대 혹은 장래의 사회생활·국민생활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나 퇴영적이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처해서 약진을 이룬다는 기상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특질을 순치한 주된 요인으로서 자연적 환경이나 정치적 처지, 유교사상의 영향, 불교의 영향, 이조 중엽 이후 발달한 향약사상의 침윤 및 구교육 등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고 싶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실천 도덕의 신경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장래에 걸어가야 할 목표를 서술하기로 하자.

도덕의 근간인 효도도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지난 해 어느 지방에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부회(父會), △부회라는 모임을 조직하려고 해서 위정자의 빈축을 불러일으켰고 식자들을 개탄케 한 사례도 있었다. 세상에는 늙은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신문의 3면에는 ×부(父) △부라는 미치광이 범죄 기사도 있다. 하지만 ×부회 △부회를 조직하다니, 세계가 비록 넓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기괴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가정에 들어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응석받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장에게 절대복종이라는 것이 자취를 감출 날이 머지않다.

하물며 이웃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따위는 일부 젊은이들 머리에서 이미 사라진 구시대의 것이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도덕 따위는 알 바 아니고, 심지어 사부에게 반항하는 악덕하고 거친 자도 있다.

남녀의 구별 또한 도리어 역전된 기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신여성이라는 자들의 일부는 남성이나 남편, 시부모의 개방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개방하고 있다. 이처럼 교묘한 자동적 개방에 남편은 망연자실, 일반사회 사람들은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자동적 개방에 몰두한 그녀들의 뇌리에서 유부녀라든가 자식을 가진 어머니라는 부덕(婦德) 따위는 이미 도망간 상태다. 아니 여성으로서의 정숙함·친근함을 빼앗긴 일종의 매미허물 같은 느낌조차 있다. 여성의 생명조차 망각한 말괄량이나 양키 기질을 갖고 있는 무리들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는 경향은 나날이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씨족관념이라거나 혈통 존중이라고 한들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법리를 방패로 형이든 ×부(父)든 간에 소송을 걸 정도로 개방된(?) 용감(?)한 그들 앞에는 인보상조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형식으로 가득 찬 복잡한 의례들도 그 내실은 핵심에 다가서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옛날 의례 따위가 뭐냐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치부하는 경향마저 있다.

유순성도 관용성도 다 소용없다. 함부로 남을 배제하고 타인을 비하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오직 자아에만 몰두하고 천하유아독존이라는 식으로 안하무인격 행동도 대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민중도덕의 피폐는 지금 급속도로 착종·분규의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은 완전히 사라지려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전 : 崔秉協 「半島文化の將來に就いて 3」, 『在滿朝鮮人通信』 4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5월, 30~35쪽〉

#### 반도 문화의 장래에 대하여(4)

새삼 로마인의 도덕적 피폐와 로마의 산하를 인용하거나 도덕적 쇠퇴와 그 민중의 장래를 거론하는 나약하고 감상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세기말적 도덕 경향의 일단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내 착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공통적 특질을 지닌 도덕이기 때문에 사회의 진운(進運)에 따라 순차적인 진보·변전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과 같은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찌면 필연적인 일이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 자체가 지닌 특질이 이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형성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조정이나 균형과 통일 등과 같은 어떤 욕구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급격히 현대문화의 현란한 스테이지에 이끌려 나오면 외래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의 보소는 순식간에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하나의 반동적 사상(事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에 걸어가야 할 목표는,

도덕 전체의 조정을 유지하는 일, 민족성의 개선에 유의하고 국민도덕으로의 합류·확립을 기하는 일이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적 특질에 비추어 가장 당연한 일이고,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도덕의 확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자.

저편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반도 문화의 향기가 상근일가(桑椹一家)인 대단권(大團圈)에서 되살아나고 장래에는 뽕나무 향기인지 무궁화 향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세계에서 독특한 향인 기품 있고 맑은 향기를 전 세계에 내뿜을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반도의 장래의 문화 발달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혼성문화라는 일대 원리적 이상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이르러 반도의 민중도덕은 조만간 일본 내지인들 사이의 실천 도덕과 합류하고 혼용(混融)함으로써 국민도덕으로서 확립해야 함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양자의 도덕적 경향을 비교하고 대조하면 일본 내지인들 사이의 도덕의 장점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 반도 민주의 도덕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를 들자면, 일본 내지인을 모방해 ‘효도’에서는 생전의 봉양을 더욱 중시한다든가, ‘경애의 마음’에서는 어린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더욱 사랑하거나, 민족성에서도 더욱 진취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일치단결·결벽 등의 장점을 가져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효일본, 종합가족제의 진수를 체득하고 국민관념의 심화와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양자가 도덕적으로 합류·혼용하는 것이 바로 국민도덕 확립으로 가는 도정이다.

### (3) 종교

나는 반도 민중의 존재와 시종일관 떨어지지 않고 오늘날에 이른 문화는 종교라고 단언한다. 때로는 성쇠소장(盛衰消長)의 파도가 있었지만 아무튼 태고 적부터 신사(神事) 중심의 생활, 배천적(拜天的)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고대의 반도 민중은 부족의 거주지가 정해지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높고 큰, 이를테면 영기(靈氣)가 충만한 산악을 골라 신산으로 삼고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서 숭배하면서 중대한 일이 있으면 알리고 혹은 재앙이 떠나고 복이 찾아오기를 기원했다. 또 취락 부근의 하천 중에서 성수(聖水)를 선정해 하백(河伯) 또는 용왕을 섬긴 일이나 높은 산과 깨끗한 땅에 신읍(神邑)·신시(神市)를 설치해 기원을 올린 것은 모두 신사 중심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저 상고시대에는 매년 10월 제천행사를 지냈고 삼국시대에는 상하 모두 하늘을 숭배한다는 종교사상이 팽배했고, 국선(國仙)이라는 종교관까지 두어 종교 및 제사에 관한 정무를 통괄케 한 것은 배천적 생활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그 종교적 생활이 발달한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천신지기(天神地祇)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생활은 민족의 유사 이래로 계속 이어졌다.

반도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1500여 년 전인데, 그 교의는 전파된 이후 약 1000년간 고려, 즉 말기까지 상하의 인심에 깊이 침윤했다. 유교가 전파된 이후 특히 이조의 중세 이후에는 극단적인 유교 편중의 정치적 압박이 너무나 강해 사원은 산으로 내몰렸고 승려는 인격을 무시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중들의 뇌리에서 불교의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저 외래교가 전래된 당초와 같이 그리도 엄중하던 국금(國禁)을 범하면서까지 신명을 바쳐 신앙생활에 매진한 점 등에서 보더라도 종교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예부터 반도의 종교는 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성쇠가 일정치 않고 각종 혼돈과 착종된 상태를 반복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신앙심이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초인을 경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 정조의 맹이는 점차 쇠퇴한 것이다. 특히 근세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났다.

따라서 오늘날에 민중의 영적 생활을 바라보면 좋게 말하면 현재낙천주의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찰나주의·현재향락주의적이며 대체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쇠퇴하기 직전인 종교적 맹아에 청수(淸水)를 뿌려 양분을 주어 이를 강화하고 또 보편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부흥되어야 할 반도의 종교는 어떤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반도의 종교를 논하는 데 있어서 유교사상으로 곧바로 민중의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다든가, 혹은 유교사상은 널리 침윤되어 있으니 이를 신앙화하는 것이 타당한 방책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단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교사상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을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또 유교사상이 널리 침윤되어 있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남긴 폐해(물론 죄는 정치나 교육 방법이나 민중 자체의 불소화 등에 있지만)가 적지 않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를 신앙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순정한 유교사상, 즉 잘못되지 않은 유교사상 그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반도 민중들의 피와 살이 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임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로 저 거대한 대륙을 배경으로 강하고 크게 살아온, 비만 상태의 거구인 중국민족의 불요(不撓)한 의사의 소산인 사상이 협소한 반도에서 야위고 긴 몸으로 바람을 피하는 나비와 같이 늘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온 감정적인 민중에게 가슴에 파고들지 않는 것이 어찌 이상하겠는가.

유교사상으로 신앙생활을 지도하거나 이를 신앙화하기는커녕 민중이 수많은 중독성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앞으로도 유교사상으로 민중의 윤리 도덕을 어느 정도까지 선도해나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반도의 종교라 하면 곧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경성은 남산 아래 고지대에 하늘 높이 치솟은 첨탑의 교회당이고, 나아가 경성 시내는 물론 반도의 주요 도읍에 현대식이라기보다 구미식의 화려한 미를 자랑하는 교회당의 거대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조금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교와 마찬가지로 다. 다만 유교사상이 반도 민중들의 피가 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는 불소화·부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는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보고 또 현재의 총결산을 시도한다면 쉽게 긍정할 수 있으리라. 물론 미신 타파 등에서는 큰 공적을 남겼지만 말이다.

기타 반도 특유의 종교라며 이름을 내세우는 것들이나 종교 유사단체 등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음을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불교만은 반도의 민중들에게 가장 자연적인 감격과 함께 받아들여져 전래 이후 엄청난 속도와 순조로운 포교가 이루어진 만큼, 민중들의 영혼에 파고들어간 정도도 깊고 넓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과욕을 부리고 사악한 승려들이 발호로 인해 교의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고, 또는 승려들이 학대받는 수난을 겪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교 편중, 불교 압박의 정화(政禍)를 겪고 사원은 산속으로 내몰리는 비운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여향(餘香)은 향기를 뿜으며 2000만 민중들의 영혼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는 마을에 모셔진 공자나 선전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노파라 할지라도 산간으로 내쫓긴 부처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아울러 반도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들 대부분이 불교사상을 그 모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민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생각건대 심산유곡을 배경으로 큰 욕망도 품지 않고 조용히 사색하면서 소박한 삶을 살아온 민족의 사상은 반도 민중들을 움직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원래 신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고 선택의 가부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도의 과거의 각 종교가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면, 또 오늘날 남아 있는 족적이거나 민중들의 뇌리에 각인된 관념, 민중의 풍습과 기타 일반 생활양식에 스며든 정도 등을 고려하면 모름지기 동양으로 돌아가는 종교로의 매진이야말로 앞으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불교의 부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동양에서 문화 발달이 고조된 시대이자 황금시대였다고 봐도 무방한 1000년 전의 수백 년 동안 일본 내지의 스이코(推古)·덴표(天平)<sup>54)</sup> 문화와 서로 호응하고 제휴하여 종교상 위대한 작품을 창작한 것 등을 상기하면서 장래의 반도에서 불교 부흥 시대를 목표로 삼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게다가 오늘날의 반도 민중의 환경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본 내지에 건너가 여러 단계의 연마와 심화의 공을 쌓은 대승불교가 가장 친절하게 2,000만 민중들에게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 호소는 산악을 넘고 대륙을 거쳐 들어온 것과는 달리 손을 끌고 귀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진정 든든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한마디 하자. 종종 오늘날의 민중생활만을 바라보고 반도에는 원래 종교가 자라지 못하고 반도의 민중들은 종교를 희구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하고 심지어는 무당 따위를 긍정하면서 이를테면 귀신이라는 허무한 것을 대상으로 준(準)신앙 또는 유사 신앙을 생활에 도입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는 반도 민중들의 생활에서 무당을 내몰고 귀신을 제거하면 그 영적(?) 생활은 허공에서 더욱 헤맬 우려가 있다고도 한다. 얼핏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설들은 민중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맹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유래하는 것이고 지나친 속단이야 아닐까.

조선의 무당이 우민(愚民)·몽민(蒙民)(최근에는 현민(賢民)·명민(明民)인 척하는 자들까지)을 현혹하고 생명에 상처를 주고 경제생활을 해치는 폐해가 참으로 심각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코도 떨 수 없다고 해도 모자랄 정도다.

불행히도 무당 중심의 준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무당 맹신의 생활이 오늘날 이상으로 진전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주법(呪法) 영험소(靈驗所)나 주법 망험(亡驗)으로 인해 민중들의 영적 생활은 일대 혼란·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1만 1,000으로 추산되는 조선의 무당은 2만·3만·10만으로 급증할 테니 큰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여기서 상세히 논하지는 않겠다.

또 신앙과 위인·현인 숭배와는 원래 별개이긴 하지만 일본 내지인들 사이의 신사(神社) 중심의 중배 생활은 이를 한편에서 보자면 거의 신앙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앙생활과 숭배생활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보는 나는 국민으로서 일본과 조선이 공

54) 스이코(推古)는 아스카(飛鳥) 시대의 스이코 천황(554-628), 덴표(天平)는 나라(奈良) 시대의 쇼무(聖武) 천황(729-749) 시대의 연호로, 불교 미술이 크게 발달한 시기임.

통으로 숭배하는 신 이외에 앞으로 조선에는 지방의 독특한 신(현인·철인·위인·공로자 등)을 모시는 신사의 건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도 민중 고유의 현인·철인 숭배 사상과 합치하고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도입에도 큰 힘이 되리라 본다.

#### (4) 과학

반도에 과학이 있느냐는 물음에 과학이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고 한다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발전이 없었다고 대답해도 무방하다.

특히 자연과학은 거의 발전이 없었다. 정신과학 또한 계통적인 과학으로서 언급할 정도는 아니다.

굳이 자연과학의 단서를 살펴본다면 고구려시대에 위나라의 침략을 받은 이후 고대무기의 발달(?)이 물리적 과학을 향한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즉 위나라의 모구검(母丘儉)이 당시의 동양에서는 가장 진보한 예리하고 정교한 죽창과 활 등을 들고 고구려를 침범한 이후 반도의 천지는 크게 놀라 앞 다투어 중국대륙에서 문화를 수입했고, 특히 생존상의 필요에서 무기의 제작과 연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삼국시대에 들어서 문화가 크게 발전해 기직(機織)·주조·건축 등이 다소 과학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근대사에 나타난 무기과학의 발달의 한 예로서는 이순신의 ‘거북선’이나 여기서 암시를 받아 제작한 전운상의 ‘해골선(海鵬船)’이라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은 선체를 수중에 잠기게 하고 진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니 오늘날의 잠수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과학적 착안을 크게 칭송할 만하다. 석전(石戰)의 일대 진보로서 고려시대부터 화약으로 돌을 던지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방도가 없다. 아무튼 화학적 일대 발명이었다고 할까.

고려시대에는 공조제(工曹制)가 있어서 공관(工官)을 두고 산택공장(山澤工匠)·조영(造營) 등을 관장케 한 모양이지만, 물론 과학지식의 응용은 유치한 수준이었음에 분명하다.

단 의술은 삼국시대에 불교문화와 함께 수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므로 상당히 오랜 전부터 발달했다.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에 이르러서는 이용후생의 길이 크게 열렸고 중국에서 의술도 크게 수입되어 이른바 인술이라며 기꺼이 연구하는 경향도 생겼고, 이조에 이르러서는 독특한 의학서(물론 완전한 독창은 아니지만)도 잇따라 저술되어 당대의 명의로도 출현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한 의술은 중국대륙에까지 널리 전파되었다고 하니 약학으로서의 동식물 연구가 상당히 진보했다. 그렇지만 약석(藥石)을 분석하거나 화합해서 그 성분을 이화학적 연구를 한 것은 아닐 테니 오늘날 말하는 자연과학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의 한방약 처방에 비추어보더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천문지리에 관한 것도 고려시대에는 상당히 발달했고 이조 세종은 직접 천문학을 연구하고 정교한 각종 측량기를 제작하고 측정 시설의 정비를 기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그 이후 상당한 진보를 이룬 시대가 있었던 것 같다.

화폐의 주조는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 고려시대 초기에 시작되었으므로 반도로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기원전 900년경 이미 유통화폐가 주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그것과 비교하면 물론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조시대 말기에는 점차 전원국을 설치해 일본 정부의 원조를 받아 화폐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을 정도이니 병합 전까지의 화폐제조는 저급한 주조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신라시대에는 율령의 발포와 시행 등 상당히 치밀한 법률적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과 학으로서의 법률의 연구는 이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위 이조에 들어서 석학·대유(大儒)에 의해 법률적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하나의 과학으로서 계통적인 것은 없다. 이조에 들어서는 유교사상에 기초한 오류의 연구나 이에 관한 학설 등도 싹트기 시작했고 향약에 의한 윤리사상의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계통적이고 조직적인 학설로 만든다면 정신과학적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은 대체로 중국대륙의 과학 발달의 자극과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반도의 독특한 것으로서 가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독창과 고안, 공리와 발견, 발명이 생명인 과학에서 단지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만드는 것만으로는 적어도 과학적 발달로서는 특기할 만한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하나 유일하게 과학사상의 아름다운 발아이자 또 그 고안이 상당히 정교해서 크게 칭송할 만하기에 충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조 세종 시대에 창안된 ‘훈민정음’이다. 이것은 그 명칭에서부터 과학적 욕구와 이념이 충분히 함축된 것이고, 사실 이에 의해 크게 민중의 과학적 계발을 촉진하려고 노린 것으로 보인다.

즉 이것을 창정(創定)하게 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문명 축진을 위한 것이다. 한문은 매우 난해한 문자이기 때문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진대 보통 인민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명’이란 과학문화의 의미가 매우 농후하고 이는 모든 민중들이 학문을 함으로써 과학적 진보와 발달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게다가 저 한자 만능시대에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을 들여 용케도 이를 창정하는 데 성공한 일이나 자음 발음 등의 변화가 과학적 조직으로서 감탄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문자는 그 뒤 사명을 거의 완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람시대의 모습조차 잃어버린 것이 설령 한자에 중독된 사상 때문이라 할지라도, 민중의 과학적 소질을 점치기에 충분한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에 감격하고 이를 습득해서 과학적 지식을 흡수하려는 불타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멍하니 있으면서 알 듯 모를 듯한 한문에 동경 내지는 도취·중독되었다는 것이 이미 비과학적 소질의 발현이라고 단언해도 무방하다.

(미완)

〈출전 : 崔秉協 「半島文化の將來に就いて 4」, 『在滿朝鮮人通信』 5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6월, 30~35쪽〉

## 반도 문화의 장래에 대하여(5)

병합 전까지의 반도의 과학문화의 발달 상황의 대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독창적인 것이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은 반복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그 모습을 확인할 만한 남아 있는 작품·기록 등은 예술이나 종교가 남긴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북평(北平)<sup>55)</sup> 등의 중국 고대 과학문화의 유물과 비교하면 전혀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이기에 더욱 유감스럽다.

따라서 기탄없이 말하자면 중국대륙에서 탄생한 과학문명의 찌꺼기를 훑으면서 겨우 싹을 틔웠을 뿐이다.

그렇다면 병합 이후의 과학적 진보의 발자취는 어떻게?

아래로는 보통학교에서 최고학부인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할 만한 점이 없는 교육기관에 의해 반도 민중들의 과학지식은 상당히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정(施政) 이후의 국방·교통·통신·의료기관·각종 공장·현대식 건축 등은 찬란한 현대과학의 정수를 민중들의 눈앞에 전시함으로써 도원(桃園)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동포들을 과학적 위력의 고마움을 점차 이해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적 창작 고안 등의 족적은 아직 미미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민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현재 받고 있는 자들의 과학사상(독창적인 공리·고안·흥미 등을 포함)은 과연 어떠한가? 이는 결코 우수하다든가 유망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세인들 중에는 의학박사가 속출(일단 속출이라 해 두자)한다고 해서 곧바로 민중들의 과학적 소질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경향도 있는 모양인데, 신교육이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단지 의학박사(박사라는 것만으로 과학 발달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의 속출만을 축진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보편성이 결여된 과학 소질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공학박사나 이학박사는 어째서 나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 원래부터 좋아한 법학 이수자는 넘치는데 어째서 아직 1명의 법학 논문 통과자(중국에는 물론 대만에도 있는데)도 없을까? 그리고 예부터 농업이 중심이고 지금도 주민의 80%가 농가인 반도에서 겨우 2명의 농학박사를 배출한 까닭은 무엇일까? 곧 나올 것이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무언가를 귀납케 하고 추상케 하는 것은 아닐까?

사소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골에 연교(連翹)가 맺힐 무렵부터 계곡의 단풍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까지 일요일의 야외에서는 채집통을 들고 나비를 쫓거나 이름도 모르는 풀과 들꽃을 따는 일에 몰두하는 귀여운 소학교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는 조선인 아동들은 많지 않다. 이는 작은 제2국민들의 과학적 흥미나 욕구의 차이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신교육이 실시된 이후의 반도 민중들의 과학적 발달 경향도 언급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다음으로 민중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과학은 어떻게? 이는 전혀 문제도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없는 상

55) 베이징(北京).

태이다.

형태로 나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미신에 침윤하는 생활 양상은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말하기에도 한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렇다면 다른 문화 가치에 비해 과학이 유독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주된 이유로서는 쇄국주의 정치의 죄도 있을 것이고 보통교육의 부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민중들이 지닌 과학적 소질이 주된 요인이 아닐까 싶다. 민중의 소질이 치밀함과 정확함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 문화의 발달에 너무나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과거 20여 년간 교육과 눈앞에 드러난 현대 과학적 시설들도 여전히 민중의 과학적 발달을 오늘날과 같은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중들이 지닌 과학적 소질 때문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민중의 과학적 소질이 이리도 신장되지 못했는가 하면 선천적 경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자연적 환경과 중국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원래 반도의 자연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의 필요에서 이른바 자연의 정복이나 자연과학의 연구 등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레 한 마리로 죽이지 않는다는 중국식 법도의 도학적 관념으로 인해 자연물을 포획해 그것을 연구 소재로 삼는다는 과학적 수련이 없었다.

따라서 원래부터 우수하지 않았던(?) 과학적 소질은 끝내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자연이 과학적 소질의 신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류 문화사에서 예를 찾는다면 그리스 같은 작고 척박한 토지밖에 없던 나라에 오래 전부터 과학문명이 발달한 것이 좋은 예이다.

어쨌거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문은 정치(엽관)나 경제(돈벌이)나 도덕(어정쩡한 관념의 이른바 좋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식 사상에 사로잡혀 모든 사물을 그저 종합적·직각적(直覺的)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고, 이를 분석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서 귀납이나 연역·추리를 확실하게 하고 비판 통합한다는 과학적 연구 경향은 충분히 순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장래의 반도에서 과학의 발달은 반드시 민중의 과학적 소질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과학적 소질의 개선에는 민중생활의 과학화가 필요하다.

민중생활의 과학화라고 하면 다소 과장스럽게 들리겠지만 이미 과학문화가 뒤쳐져 있고 또한 과학적 소질이 뛰어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새로 소질을 배양하는 데서 시작해 과학적 대성은 다가올 시대를 기다리기로 하고, 우선 실생활의 각 방면에 걸쳐 널리 과학적 지식의 주입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화가치로서의 과학이라기보다 실생활에 미칠 효과라는 점에서 과학의 진가를 파악함으로써 과학적 연구의 욕구를 왕성하게 만들고 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지구의 직경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일이 과학적 진리로서 필요하다며 흡수하도록 하기보다 추경(秋耕)이 필요한 이유를 과학적 실험에 의해 증명하고, 실린더의 개량에 몰두하도록 만들기 전에 완전연소의 온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과학적 고안과 공리를, 우람하게 하늘을 치솟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의 설계를 연구하는 것도 무용한 일은 아니지만 대지를 향해 파고들려고 하는 초가지붕의 기증 길이나 창을 내는

방식이나 화장실을 만드는 방식……등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이상에 가까운 보은 채광이 가능하게끔 할 것인지에 관한 설계법을, xx이즘에 기초한 서양윤리의 학설보다 불교 영향이나 유교사상이나 향약정신 등을 과학적으로 계통을 세우는 일이 기타 모든 방면에 걸쳐 보다 나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실생활의 과학화를 제창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대기술자·대과학자를 낳은 까닭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래의 반도의 과학문화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민중의 실생활 과학화를 기하는 데 있다.

## B. 중점이 되어야 할 문화가치

진·선·미·성의 원만한 발달과 조화를 이룬 인격이어야 비로소 완전한 인격-전인(全人)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문화도 4대 가치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선미(善美)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가치 상호간에는 원래 경중이나 본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이 있고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각 개인의 소질·개성·환경·처지 등에 따라 어느 한 가지의 가치 충실을 도모하고 각자의 것을 서로 합침으로써 사회의 향상과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문화도 각각 독특한 문화가치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가 사회·인류사회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역사를 살펴볼 것도 없이 오늘날의 인류사회의 기성문화는 과거의 각 민족 각 인종의 독특한 발전을 이룬 문화의 총화이다. 가령 백인이 과학적·물질적 방면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유색인종, 특히 동양인종은 철학적·정신적 방면의 문화 발전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상호교환·흡수·혼용된 것이 오늘날의 세계문화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민족들 간의 각각 다른 방면에서 문화적 기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반도 문화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각 문화가치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는 동시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문화가치의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화가치를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인가? 과학인가 도덕인가 예술인가 종교인가. 그것은 예술이다.

어째서 예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1) 민족적 개성과 인류문화에 대한 공헌에 있어서

문화가치 창조에서 본 반도 민중들의 장점은 어디에 있을까? 과학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이유도, 도덕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도, 기성종교 이상의 종교적 사색을 할 수도 없는 것이나 신앙생활이 쇠퇴한 사실도 모두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진·선·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통해 인류문화에 공헌하는 일은 본디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어려운 일이고 먼 길이다.

그렇지만 예술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불멸의 것을 지닌 시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질이 양호함을 이미 현시했다. 또한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작가나 작품이 탄생했고 장래에 기대

할 만한 것이 많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민족의 소질과 특징을 발휘하여 국가나 사회(광의의)에 공헌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중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다른 문화가치의 촉진 또는 조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반도의 예술이 불교예술이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종교에 의해 예술이 촉진되고 발흥했다. 그렇지만 불교예술은 원래 보편성(민중적으로)·활용성(생활적으로)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대개 종래 이상의 발전은 기하기 어렵다. 또 다른 종교에 의해서도 예술이 촉진되리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는 아마 반도에 한정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소 엉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는 반대로 예술이 종교를 촉진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갖고 싶다. 이는 종교·예술 모두 새로 부흥하는 출발을 해야 한다는 상태에 있는 반도에서 생각하는 가치 있는 문제라고 믿고 있으며, 쇠퇴한 종교적 맹아의 소생을 예술의 발흥에 의해 크게 조장하려고 하는 사견이다.

예술은 자연미의 오묘함과 숭고함을 체득하고 대자연의 생명을 접하고 친숙해지지 않는다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할 수 없다.

따라서 대자연—우주—의 생명을 지배하는 크고 숭고한 어떤 힘—초인—이 있다는 것은 예술의 세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맞보아야 하는 과정이므로 예술은 종교적 맹아·신앙생활의 배태를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과 도덕** : 심정의 순화를 기하는 것이 예술의 효과 중 첫 번째라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데, 예술은 도덕적 행위 발현의 원천을 함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행위는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 모방적·습관적인 것이고 심정만 적절히 순화된다면 각 시대의 추이나 환경·처지·기타 사회 전반의 변전에 기초하는 실천 도덕의 규범에 합치하고 순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가령 심정이 적절히 순화된 반도 출신자가 갑자기 도쿄(東京) 한가운데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는 물론 도쿄인의 도덕 생활에 완전한 백지 상태라고 해도 쉽게 거기에 순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도덕 가치를 촉진하게 된다.

**예술과 과학** : 직관과 전체적 통합과 감정적 발현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이 해부와 분석과 논리적·이지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 과학을 촉진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과학에 지나치게 경도된 문화의 말로를 쉽게 짐칠 수 있는 나는 그 조화제(調和劑)로서의 예술의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고자 한다. 냉철한 과학적 관찰이나 과학적 사상 등에 기초하는, 이치만 따지는 태도나 조치가 낳는 폐해를 예술에 의해 조화롭게 해야 한다.

특히 이(理)와 정(情), 구(舊)와 신(新), 최고와 최저의 제각각에 자칫 혼돈과 착종을 초래해서 중용을 잃기 쉬운 여러 사정에 직면한 반도에서는 그 조화와 조절에 있어서 하나의 주역으로서의 예술의 사명은 크다.

### (3) 가정 공업의 촉진에 있어서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반도에서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이를 진흥하기 위해 관민 총출동·총노력을 집중해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새삼 가정 공업을 운운할 필요도 없겠지만, 농업의 합리적 발달은 당연히 농가 소공업 혹은 가정 소공업이라고 할까(명칭은 아무래도 좋다) 어쨌거나 작은 공업의 발달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농가부업이 한 단계 더 진보·발달하게 되면 농업을 토대와 배경으로 삼아 소공업이 일어나야 한다.

실내 작업밖에 할 수 없고 추운 겨울이 긴,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잉여노동력이 많은 반도에서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가정 공업에 기울이는 일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야말로 공업이라는 이름이 붙는 작업은 규모의 대소, 제품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작자의 심미심의 향상에 의해 건전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즉 예술적 교양 수련을 거친 눈이나 손재주, 시간과 노고를 초월해서 공작에 몰두하는 예술심의 발달과 향상에 의해 그 발흥을 기할 수 있다. 심미의 눈이나 손재주를 갖고 작품을 눈앞에 그리면서 공작에 몰두한다는 교양을 무시하고 가정 공업의 발달은 기할 수 없다.

때때로 작은 불꽃처럼 일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사라진 과거의 가정 공업의 부진의 요인은 제작자의 예술적 교양이 없다는 데 있다. 또 오늘날의 농가의 부업이 새끼 꼬기 등의 거친 작업 외에 거의 지속될 수 없는 것도 그 원인은 같다. 10일이 걸려도 20일이 걸려도……완성해야 하는, 작품의 얼굴을 꼭 보아야 한다는 예술심-작가심리가 발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무리다.

예술적 작가 소질의 도야를 계속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새끼 꼬기 제조마저 부진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공업은 예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 (4) 취미의 향상을 기하고 민풍(民風)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색채를 사모하고 즐겁고 깨끗한 소리를 동경함으로써 저급한 취미(가령 여가와 용돈은 술이나 고기, 아니면 도박과 xx 등에 사용하려는)에 침윤하는 것도 다소간 막을 수 있고 길가에서 조는 게으른 자들도 어느 정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즉 생활 취미의 향상으로 민풍의 개선이 가능하다.

### (5) 동포 화목의 기초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일치단결·협심 착력(戮力)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을 기하는 까닭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상근일가(桑椹一家)의 결실을 맺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과 조선 동포의 상즉적(相卽的) 공영의 사념이 충분히 보편화되지 않은 반도에서는 신문화의 촉진에 있어서 인화(人和)—동포 화목의 결실을 거두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인화의 기초는 감정의 순화에 있고 감정의 순화는 예술이 지닌 일대 사명이다.

유사한 생활 취미, 동일한 기호나 생활 경향을 지닌 사람들 상호간의 친밀함은 각별한 것이다. 그것



은 인종·민족이나 언어·풍습 등의 차이는 일체 초월해서.

사람과 사람의 조화와 화목은 심미심의 깊은 바닥에서 가장 순진하고 강렬하다. 함께 미를 사랑하고 미를 감상하고 맛볼 경우에 있어서 심금과 심금이 딱 들어맞아 교류하는, 혼연과 융합을 이룬다. 이는 결코 일개의 이치가 아니라 실재가 그러하다.

원래 예술은 진심의 깊은 바닥의 전면(全面)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예술적 취미에 의한 부합에서는 진심과 진심이 교류하고 인격과 인격이 딱 들어맞아 결합하기 때문이다.

진정 예술이라는, 맑고 신비로운 대 전당 안에 들어가면 모든 아집은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혼연 일체가 될 수 있다. 논리나 이치·공리타산에 의한 사람과 사람의 결합은 표면이나 형식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별로 신용할 수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본과 조선 동포들의 화목은 그 기초를 예술의 전당 안에서 쌓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자 바람직한 일이다.

#### (6) 진정한 문화생활에 있어서

국민 혹은 민족 문화의 정도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경제 상태나 부는 논외이고 (부를 문화가치로서 보는 설은 대두하고 있지만) 문화 최고의 정도는 역시 예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개인을 예로 든다면, 사람들이 유치한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의 뇌력의 발달 과정에서 논리나 선이나 악이라는 것은 6-7살 무렵부터 이미 발달하지만 진정한 생활 취미 등과 같은 것은 그 뒤 긴 세월을 거쳐 수련을 쌓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이나 민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용후생의 확충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서구 생활보다는 하나의 향아리에 무한한 애착을 품는 다인적(茶人的)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일본 생활이 훨씬 고차원의 문화생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소 가난해도 부자유를 적절히 이용하는 취미적 지혜와 습관을 갖는 자야말로 행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되는, 이미 언급한 삼간두옥에서도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사상적으로 고찰하면 민족이 지닌 과학도 도덕도 모든 것은 적절히 예술화함으로써 최상 최고의 위치에 설 수 있다. 모든 것이 예술로의 도정으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이상적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찰한 진정한 문화생활이란 모든 것을 보다 미화하고 순화해서 그 속에서 안주하고 즐기는 생활하는 것이다. 즉 예술심과 예술미(藝術味)가 녹아든 생활이다.

이러한 견해와 생각을 갖고 문화생활로의 도입을 하는 일은 여러 의미에서 반도에서는 특히 필요하다.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점은 예술을 중점에 둔다는 것은 예술을 만능시하고 다른 문화가치를 경시 내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문화가치도 같은 원 안에서, 같은 권역 내에 두고 각각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예술은 여러 이유에서 중점에 둘 필요가 있음을 서술했을 따름이다.

(미완)

<출전 : 崔秉協 「半島文化の將來に就いて 5」, 『在滿朝鮮人通信』 6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6월, 21~26쪽>

## 반도 문화의 장래에 대하여(6)

### 2.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란 주어진 자연을 소재로 인간이 문화가치를 실현하려는 과정의 총칭이므로 실현하려는 문화의 목표(앞서 언급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방법의 대상은 물론 인간이다. 본디 문화가치의 실현에는 자연과 인간의 양대 요소를 필요로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연을 지도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연 그 자체에도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으므로 그야말로 문화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은 주어진 자연적 환경을 문화 실현에 있어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변화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반도의 자연을 문화 실현에 있어서 좋은 자연으로 만들기 위한 지도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 A. 자연을 순화하기 위한 지도

자연을 순화한다는 것은 산의 높이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기후를 뜻대로 하고 석탄이나 철이 없는 땅속에 탄광이나 철광이 생기도록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여기서는 황량한 반도의 산야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곳곳에 있는 산야가 푸르게 물들고 영험한 기운이 넘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녹화(綠化)의 철저를 기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녹화된 자연은 문화 실현의 재료로서 주된 조건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삼엄(森嚴)·유수(幽邃)·송고(崇高)·신비(神秘)·우미(優美)·청신(清新)·상쾌(爽快)·호장(豪壯)·강의(剛毅)·침착(沈着) 등이 나무가 무성한 산의 아름다움이자 매력인 이상, 초인을 사모하는 신비로운 종교적 감정이나 바르고 선한 행위를 하려는 도덕적 의지, 우미한 표현을 하려는 예술적 정조 등은 삼림이 문화가치 실현에 있어서 미치는 큰 효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숲은 종교를 싹트게 하고 덕성을 기르고 예술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심대한 힘을 갖고 있다. 이는 간접적 효과들인데 삼림과 과학은 밀접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과학은 삼림에서 재료 공급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발달을 할 수 없다.

푸른빛이 무성한 산야가 문화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큰 것이다.

말보다는 증거다. 삼림의 나라에는 찬란한 문화가 있고 마치 숲에서 샘솟는 계곡 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다. 황량한 산의 나라에는 이미 일어난 문화까지 쇠퇴한 예를 전 세계의 역사에서 찾기보다 가까운 동양의 현실을 보면 명백하다.

반도의 삼림은 말할 것도 못되지만, 저 중국도 산이 황량한 나라이다. 적어도 해안에 접한 철도연선에 있는 산들은 모두 황폐하다. 나는 몇 년 전에 평토편(奉天)에서 상하이(上海)까지 기차로 여행을 했을 때 문화는 소장(消長)의 운명을 삼림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일본 내지에 가서 곳곳에 있는 푸른 물결과 맑은 물에 영혼을 씻으면서 조선반도나 중국대륙의 황량

한 산을 떠올리고는 삼림의 기근은 곧 문화의 쇠퇴라고 단언하고 싶어졌다.

물론 삼림의 유무만이 일본·조선·중국의 현저한 문화적 격차를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고야산(高野山)이나 무사시노(武藏野)나 이쓰쿠시마(巖島)에서 볼 수 있는 삼림의 아름다움을 반도의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사람들 마음도 반드시 순화되고 찬란한 문화의 꽃도 피우게 될 것이다.

반도의 기후와 토질은 일본 내지와 똑같은 삼림의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신정(新政) 이후 20여 년간의 식수장려정책은 이미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문화의 촉진을 꾀한다는 견지에서 더욱 민중들의 삼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반도 전체의 녹화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총동원·총노력을 해서 비어 있는 들판이나 황량한 산에는 하루라도 빨리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우도록 부단한 지도를 해야 한다.

진정 문화 촉진의 전주곡으로서 자연의 순화라는 것을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 B. 인심의 지도

주어진 자연이 문화 실현에 있어서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문화 실현을 담당할 인간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면 목적 달성은 어렵다.

인류문명사를 일별하면 풍요로운 자연에 안겨 한때는 문화가 발흥해도 어느 샌가 사라지는 것처럼 겨우 여운을 남기고 있는 민족이 있고, 풍요롭지 않은 자연적 환경을 잘 이용해서 훌륭한 문화를 건설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세계의 무대에서 사라진 민족도 있다. 그 좋은 예로는 동서의 양대 문화 발상국인 그리스와 중국을 들 수 있다.

동양의 문화성쇠의 역사적 사실에서 보더라도 중국대륙이나 조선반도의 문화는 한 번 일어나고는 사라지려고 하는 형태이지만 일본열도의 문화는 한 번 일어나서는 융흥의 길만 걷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체나 차질을 초래한 적이 없고 더욱 찬란해지면서 한편으로 세계에 군림하려는 성운(盛運)을 맞이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제국의 문화가 번영하는 한편 오로지 빛나는 길을 걸어 약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연에 있는가? 아니다. 인간에게 있는가? 그렇다, 인간에게 있고 사람에게 내재하는 정신에 있다고 대답하고 싶다. 본래 일본열도의 자연은 풍요로운 자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에는 일본열도 이상으로 풍요로운 자연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은, 가령 일본민족이 예부터 중국대륙이나 조선반도에 문화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대륙이나 반도의 문화와 같이 수면상태에 빠져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열도 이상의 선미(善美)한 문화의 꽃을 피웠을지도 모른다. 이는 하나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오늘날의 반도나 대륙이 열도 문화의 대이동(이라고 말하고 싶다)으로 점차 문화적 재생기에 접어들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돌이켜 보면 우라카(浦賀)의 해안에 나타난 4척의 흑선(黑船)을 보고 “태평한 잠을 깨우는 조키센(上喜撰)<sup>56)</sup> 단 녀 잔으로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다”란 단순한 노래에 그치지 않았다. 단 녀 잔으로 잠을 잘

56) 조키센(上喜撰)은 녹차의 고급 브랜드 명인데, 이를 마시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는 일본

수 없는 흥분, 아니 감격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문화를 널리 세계에서 흡수하고 창조 건설하여 옥일 승천(旭日昇天) 그대로의 기세로 인류 문화사에 미증유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던가.

이 감격, 이 반응이야말로 문화 실현에 대한 일본정신 발현의 일면이고, 빛나는 정신에서 일어난 문화는 영원히 변영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재건될 반도 문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중정신의 건강 여하에 따라 그 운명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문화의 재건을 기하는 데 있어서 민중의 정신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 감격과 반응은 어떤가?

문화는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늘 유동하는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공기가 희박한 곳에는 다른 데서 새로운 공기가 유동해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날까지 동양에는 고금을 통틀어 전후 두 번의 문화 대이동이 있었다. 하나는 옛날 동양문화가 중국대륙에서 일어나 반도를 거쳐 일본열도로 대이동을 했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열도에서 반도로, 대륙으로 빛나는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문화의 이동에 대해 민중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동서고금의 문화의 정수를 모은 진·선·미·성의 찬란한 결정체를 가득 실은 보물선이 부산 연안에 나타난 지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게다가 이 보물선은 우리가 연안에서 시키시마(敷島)<sup>57)</sup>의 땅을 위협한 4척의 흑선과 달리 선장도 선원도 친절하게 2000만 민중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말하길 “형제들이여, 가져갈 보물을 마음껏 재빨리 가져가 흡수하고 낡은 중독물은 재빨리 내뱉어 새로운 피와 살을 만들어 건강하게 재생하라”고 했다.

이 손짓과 호소는 보물선 안에 있는 물건에 민중들이 진정 감격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예술적 창조도 도덕적 향상도 신앙적 사색도 과학적 발달도 조금은 약진을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점에 관해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민중들이 열렬한 감격을 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크게 지도해야 한다.

## (2) 혼성문화(라고 말하고 싶다)에 대한 자각의 촉진

템스 강물과 스미다가와(隅田川) 강물이 서로 통한다고 해도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북평성(北平城)을 쌓은 방식과 피사탑을 쌓은 방식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자신이 매일 향유하고 있는 문화에 많은 적든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 등의 문화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국민·각 민족·각 인종이 지닌 독특한 문화라는 것들 안에도 엄밀하게 말하면 타국민·타민족·타인종의 문화의 피가 절대적으로 섞여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 대개 동일 국가 내의 문화 건설에서는 설령 역사를 달리한 시대가 있었다 해도,

---

어로 발음이 같은 증기선(흑선)을 빗대어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당시 흑선의 출현은 일본인들에게 밤잠을 잘 수 없게 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음을 말해주고 있음.

57) 일본국의 또 다른 명칭.

또 민족적 개성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 혼성문화라는 일대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상근일가라는 대단권(大團圈)의 일부인 반도의 문화의 재건에 있어서는 혼성문화의 출현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임해야 한다. 가령 예술의 하나의 목표인 특질의 전환이 점차 예상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뽕나무 향기도 무궁화 향기도 밀접하게 서로 섞여 어느 쪽 향기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향기의 예술품이 출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결코 개성적 표현이나 독특한 창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고 혼성문화 그 자체에 이미 반도 민중들의 개성적이고 독특한 표현이나 창조성을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뽕나무 향기가 강하다거나 무궁화 향기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삼지 말고 보다 청신(淸新)하고 향기가 그윽한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각이 있어야만 비로소 빛나는 문화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는다.

일본 내지의 오늘날의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색이 농후하고 일본정신이 선명하게 현현된 일종의 혼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유교사상을 받아들이고 불교문화를 배우고 서양문화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허심·진지하게 임했다. 그래서 유교사상의 왕도는 황도(皇道)로 순화시켰고 퇴영적이고 소극적인 인도 불교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일본적 대승불교로 만들었으며, 기계만능의 과학도 도의(道義)를 가미한 현대과학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반도의 문화 건설에 있어서 특이한 모습의 하나인 혼성문화에 대한 민중들의 자각을 심화시키도록 강하게 지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 광명과 희망을 갖게 하고 싶다

혼성문화에 대한 자각이 심화되면 자연스레 앞날에 광명이 있고 희망 있겠지만, 그리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400~500년 동안은 그야말로 동양의 문화가 고조된 시대였고 대륙에는 수나라·당나라 시대의 성대가 있었으며, 열도에는 스이코·덴표의 문화가 있고, 반도에는 신라의 통일도 있어서 찬란한 문화의 황금시대가 출현했다. 이러한 황금시대를 장래에 재현하고 동양문화의 정화(精華)로 전 세계를 비춘다는 큰 광명과 희망을 민중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 지도해야 한다.

만주국의 출현이라는 경사스러운 새로운 사건은 제국을 리더로 한 동양문화의 황금시대의 재현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 실현에 대해 반도 민중들이 짊어진 책임은 새로 커다란 것을 짊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빛은 동방에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중대한 역할을 갖고 참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앞날에 위대한 광명과 희망을 품어야 비로소 문화 건설에 대한 의욕과 노력이 더욱 열렬해질 것이다.

#### 새로운 문화의식의 함양

문화의 건축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가, △△가라며 가(家)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낡은 인습을 타파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문화의 건설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향유할 수 있을지 하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바의 새로운 문

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의식에 불타고 그 실행에 매진해야 비로소 예기치 못한 대예술가·대과학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미완)

〈출전 : 崔秉協 「半島文化の將來に就いて 6」, 『在滿韓鮮人通信』 7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7월, 25~28쪽〉

## 반도 문화의 장래에 대하여(중)

일체의 망설임을 버리게 하고 왕성한 의지를 갖게 하고 싶다

밖으로는 대륙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안으로는 비정(秕政)·탐관에게 학대받으며 주구(誅求)를 당하고 온정에 굶주려 생활고에 시달려온 민중, 정력도 고갈되었고 기력도 소침해졌다고 할 만한 어두운 일면을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불타는 욕구나 고유의 창조성도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뒤틀린 마음과 회의, 자포자기와 비굴, 음울함과 퇴폐, 부박(浮薄)과 영합……등 모든 무기미(無氣味)와 무기력한 반문화적 경향만 온양(醞釀)되고 있으며, 명랑강의(明朗剛毅)·용왕매진(勇往邁進)의 기상을 점차 잃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런 상태로는 문화의 건설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망설임을 버리고 왕성한 의의를 갖고 오로지 매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상으로 요컨대 문화의 건설에는 건전한 민중정신의 발현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인심의 지도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문화 실현을 기대야 함을 주장했는데, 다음으로는 학교교육에 의한 지도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 C. 학교교육의 지도

학교교육이 문화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사회의 문화 경향과 특색 등은 좋은 나쁜든 학교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그 사회의 문화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문화 건설을 맡을 자의 지도에 관해 확고한 성안(成案)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반도의 신교육은 병합 이래 실로 장족의 진보를 이루었고 제도의 완벽과 내용에 있어서 이의가 없을 정도에까지 도달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60여 년의 고심과 연찬을 거쳐 정련된 일본 내지의 그것과 비교해 거의 손색이 없는 정도에까지 진보했을 뿐만 아니라 중등보통교육의 실업과 설치, 초등보통교육의 직업과 도입 등 일본 내지의 그것보다 한 걸음 앞선 점도 있을 정도이다. 다만 초등학교의 분포는 아직 충분치 않아서 벽지의 적자(赤子)들 중에는 성대(聖代) 교육의 은전을 입지 못한 자도 있지만 최근에는 간이학교가 보급되면서 국민교육의 철저한 보급도 단지 시간문제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새로운 국민의 교육을 본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시킨 것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언급한 반도 문화가 나아가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고찰한다면 교육의 실제에서는 부

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를 품는다. 그것은 어떤 점인가 하면 제도나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용상 또는 실행상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제도나 규정상에는 민도나 실생활의 상태·풍습·개성·환경·처지 등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 교육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자들에게 충분한 여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시행하려는, 이른바 획일주의라는 폐해에 빠지기 십상이다. 다만 직업과(職業科)의 지도만큼은 반도 교육의 특색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타 방법에서는 반도 문화 건설에 있어서 특이성을 고려해 독특한 시설 경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예술교육을 보더라도 반도 예술의 특질을 고려하거나 또는 민중생활의 예술적 방법을 고찰해서 어떠한 특별 지도를 해야 하는지, 또 도덕교육을 보더라도 민중 도덕의 장점이나 민족적 개성의 결함 등을 고려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고쳐 적절히 국민교육으로의 합류와 향상을 도모하려면 어떠한 구체적 지도안을 필요로 하는지, 과학적 학과교육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인미답의 진리 탐구에 흥미를 갖고 부단히 불굴의 연구를 지속하는 태도를 순치해야 할지, 특히 쇠퇴한 신앙적 생활의 맹아·배양에 있어서 종교를 정규과목으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에서는 어떠한 방안과 주의 속에서 어떤 지도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기우를 품는다. 이 소논문에서는 더 이상 상세히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반도 교육에서는 장래에 건설되어야 할 문화의 특이성을 고려해 더욱 절실한 지도를 팔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다수 국민들 중에서 영재·준재들을 뽑아 신문화 건설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도를 한다는 견지에서 보건대 교육의 양적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형식을 좋아하는 일부 여론에 구애받지 말고 반도의 민도, 특히 경제 상태 등 특수사정에서 본 보급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실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선공학(內鮮共學) 문제에 대한 여론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반도 문화의 건설에 있어서 큰 이익이 될 지언정 해가 되지는 않을 테니 신속히 실현하기를 희망하면서 상세한 서술은 보류한다. 물론 초등교육의 공학만큼은 곧바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말이다.

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반도의 과거 문화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또 장래에 건설되어야 할 문화가치 중에서 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자 또 민중들의 소질 발휘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적절한 예술 문화의 표준 지도에서 보건대 미술학교와 음악학교를 각각 하나씩 정도는 가능한 빨리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D. 기타 지도

### 1) 예술

간소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설치와 보급 = 독지가의 기부, 작가와 수집가의 기증 등을 통해 되도록 각 지방에 설치·보급을 도모하고 싶다.

지방에서의 미술품 전람회 개최 = 해당 지방의 작품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방법과 조선 미술품 전람회의 출품작 등을 교통이 편리한 지방에 순회 전람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싶다.

음악회 및 연극 등의 무료 또는 염가 관람 = 사회교화의 목적 달성을 꾀한 시설로서 경비 염출의 방법이나 내용 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면 민지(民智)가 낮고 특히 오락적 시설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에 관한 강연 또는 강습회 등을 개최
- 읽을거리를 통한 예술 사상의 보급
- 경제력에 준한 예술품의 보급과 교환 감상 또는 순회 감상
- 라디오 이용의 예술적 지도

이상은 두세 가지 사례를 거론했을 뿐인데, 방법여하에 따라서는 경비도 별로 들이지 않고 다양한 지도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 2) 도덕

△ 윤리적 비판에 기초한 지도의 필요 = 반도 민중 등의 실천 도덕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만 막연히 경로상치(敬老尙齒)를 운운하거나 친권이나 연장자에 잘 복종하는 민중이라고 운운하는 정도일 뿐, 이를 잘 해부해서 장단점을 밝혀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민중 자체는 물론 자신의 도덕생활에 명확한 판단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동방예의의 사회라는 것을 내세우며 모든 점에서 뛰어나다는 것처럼 자임하고 있을 뿐, 보다 개선하고 향상시키려는 기풍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래에는 도덕 전반에 걸쳐 윤리적 판단의 메스를 종횡으로 가함으로써 민중들이 가장 명확하게 이를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각 방면의 지도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기관과 기타 각종 사회교화사업 단체 등에서 지도상의 착안이나 출발점을 새로이 하고 선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오락적 시설 = 실천 도덕의 지도상 필요한 오락적 시설인 연극이나 일본의 나니와부시(浪花節)·라쿠고(落語)·고단(講談) 등과 같은 것의 발달·보급을 도모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수정해 올바르게 행하려는 지·정·의를 함양하는 일은 반도의 민도를 고려하면 매우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국민도덕의 확립에 있어서 크게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민중문학의 보급 = 실천 도덕을 지도하기에 충분한 민중문학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언문’이 내용을 지닌 문자로서의 문학적 발달을 하지 못한 점과 보통교육이 부진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삼 ‘언문’ 문학의 발달을 기다려 민중 도덕을 지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보통교육이 매년 보급되고 있으니 평이하고 건전한 민중문학의 발달·보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도덕의 지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의 하나이다.

## 3) 종교

△ 정치적 색채의 제거 = 반도의 종교는 어쨌거나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포교와 발전에 있어서 각종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교에서 일체의 정치적 색채를 제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사찰을 마을이나 촌락에 세우고 싶다 = 산간에 있는 사찰을 당장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각 사찰이 갖고 있는 재산을 기금으로 해서 점차 마을이나 촌락으로 옮겨 민중들이 접근하도록 하고 싶다.

△ 승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싶다 = 탁발(托鉢) 외에는 일을 하지 않는 조선인 승려는 거의 무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그들을 포교 방면에 적극적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신불(信佛)생활을 지도하고 싶다.

△ 일본 내지인 승려의 활동 = 일본 내지에서 오는 각 종파가 내지인 상대의 법요불사(法要佛事)에만 안주하지 말고 저 그리스도교 전도법을 배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싶다.

기타 행정상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교 부흥에 있어서 필요한 지도 방책(포교의 조성·포교자의 양성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실 문제로서 불교는 거의 국교적 지위에 있으므로 반도의 종교 부흥책으로서 불교의 포교에 관해 행정상의 특수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불교에 의한 일본 내지와 조선 동포들의 화목과 융합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연적인 일이라 믿는다.

#### 4) 과학

간이 과학관의 보급 = 과학이 나아가야 할 목표에 있어서 이미 언급한 정신에 기초한 간이 과학관을 되도록 각 지방에 설치하고 싶다.

○ 과학 사상 보급에 관한 강연·강습회 등의 개최

○ 읽을거리를 통한 과학적 지도

○ 라디오 이용의 과학 지도

○ 과학적 창조·발명·발견·고안 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반도의 민도에 준한 장려책) 전체적으로 민중의 문화의식을 높이고 문화 실현에 노력하려는 의욕을 키워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에 관해 반도와 같이 민도가 아직 낮은 땅에서는 행정적으로 더 개입하여 적극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민중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반도 문화의 장래에 대한 의견은 끝을 맺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예술에서는 질적으로는 예술 요소의 정비를 기하고, 양적으로는 민중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발달을 도모할 것

○ 도덕에서는 도덕 전체의 조정과 민족성의 개선을 도모해서 국민도덕으로의 합류와 확립을 기할 것

○ 종교에서는 불교의 부흥을 도모할 것

○ 과학에서는 민중의 과학적 소질의 개선을 기하고 실생활의 과학화를 도모할 것

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예술을 중점으로 삼아 나아가야 함을 서술했으며 이에 대한 지도 방안으로서는,

① 자연을 순화시키기 위한 지도

② 인심의 지도

③ 학교교육의 지도

#### ④ 기타 지도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아무리 한정된 시간과 분량에 구속을 받은 논문이라 해도 너무 정리가 되지 않은, 애매한 문장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며 각필하는 바이다.(중)

〈출전 : 崔秉協 「半島文化の將來に就いて 終」, 『在滿朝鮮人通信』 8號 奉天:興亞協會, 1936년 7월 24~27쪽〉

### (12) 최병협, 아세아의 재건시대

조선 청주(淸州) 최병협

돌이켜 보면 일로전쟁에서의 황군(皇軍)의 승리는 근세 아시아—아시아인의 일대 여명기였다. 그것은 백인의 동점(東漸), 이른바 세계패업(世界覇業)이 거의 완성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간발의 차이로 이를 멋지게 좌절시킨 것이 일로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승리를 자랑하던 백인이 세계의 90%까지 지배하고 나머지 10%를 차지하려고 꿈꾸던 야망이 마침내 절망의 나라로 떨어진 것은 일로전쟁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하얀 마수가 태양 가까이 다가서려고 한 최후의 순간, 아시아의 지평선상에 모습을 드러낸 해 뜨는 나라, 신의 나라의 정의의 칼에 나가떨어지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아시아가 이와 같이 암흑에서 여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엄연한 사실은 백인들이 인식한 것만큼도 아시아인 전체는 인식하지 못함을 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러전쟁 후에 백인들 사이에서는 ‘황화론(黃禍論)’이라는 논의가 대두해 일본인이 아시아 지배를 방해한다며 통분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황색인종의 대동단결이야말로 무서운 것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또 우려했기 때문이다. 황화론은 카이저 한 사람의 변덕 따위가 결코 아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시아 인종에 대한 좋은 청량제이자 경구이며 시사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가. 그 이후의 황색인종은 과연 황도(皇道) 일본의 진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했을까? 특히 4억이나 된다고 하는 황인종의 수적 대표자인 중국의 대중은 우리 제국을 알고 있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 이웃나라 중국의 맹렬한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충용한 무리 황군이 바다와 육지에서 선전(善戰)의 강국으로 평판이 난 러시아의 대군을 적으로 고전에 고투를 거듭하며 실로 10만이라는 귀중한 생명(生靈)을 희생할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탠 황인종이 얼마나 있었는가? 저 격렬한 일로전쟁 장면을 담장 너머로 또렷이 목격한 중국의 대중, 아니 중국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제국에 대한 정당한 인식 없이 의심과 질시하며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한 태도로 바라본 결과 오늘날의 사변이 야기하게 되었기에, 중국을 위해 슬퍼하는 동시에 전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유사 이래 전운이 끊이지 않았던 저 유럽에서도 일국이 전 구라파를 위해 분연히 정의의 칼을 잡은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보더라도 아시아 확보를 위해 실로 미증유의 대희생을 기꺼이 치른 우리 제국에 대해 늘 반 신의적(反信義的) 폭거를 반복하고 있는 중국을 진심으로 증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나는 백인과 중국인의 심리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백인은 자기예찬과 우월적 도취에 있어서 천재적인 인종이다. “신은 우리에게 세계 지배의 권리를 주셨다”라고 큰소리치며 스스로 신의 상속자라고 하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아시아인은 본래 노예적이다”라며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던가. 이는 단지 그들 특유의 편협하고 고루한 사상적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침없이 실행해 왔다.

호시탐탐 아시아 석권을 위해 야망의 손을 뻗치려 한 그들은 16세기 말 러시아의 코사크가 우랄산맥 이쪽을 침입한 이래 이른바 백인동점(白人東漸)은 급격히 촉진되어 우리나라 본토를 제외한 극동 각지에서 서로 각축을 벌였다. 심지어 그들은 세계적 국제도시 상하이의 모 공원 입구에 “××인과 개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세웠고 하시(哈市)의 인도(人道)에서는 “그대들 ××인은 차도를 걸어야 한다”라며 밀치고 아무렇지 않게 활보한 시대도 있었다. 누가 그들을 가리켜 한 조각의 정의(正義)나 한 주먹의 인도를 이해하는 인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은 이를 감수하면서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백인들 나라에 의존하고 황국의 우의와 희생적 노력을 무시하면서 난폭하기 그지없는 짓을 이제는 만성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공전의 대지진으로 우리 제국 수도는 귀신소리가 들리는 폐허로 변해 조야가 모두 나서서 부흥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와중에 세계의 서반구를 지배하는 모 백인 나라는 오랜 현안인 아시아인 이민제한안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아시아적 의분을 느낀 것은 오직 우리 제국뿐이었고, 중국 4억 대중들은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가.

베르사유강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연맹위원회에서의 우리나라 전권이 제창한 ‘인종차별철폐안’을 “국제연맹의 범위 밖에 두어야 할 내정문제”라며 기괴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일축한 것도 바로 백인 나라였다. 하지만 그 역사적 중대 장면에서의 유일한 인종적 아군인 중국대표는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백인의 오만하고 안하무인적 심리는 잠시 제쳐두고, 그들의 박자에 맞추어 우리 제국의 정의에 대해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만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가련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가만히 생각건대 앞으로의 인류의 승패는 인종의식의 강약과 인종적 단결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임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들여라, 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 밀려오는 거친 파도도 우랄산맥의 저편에서 덮쳐오는 폭풍도 이미 아시아의 적막을 깨고 있지 않은가. 아시아인이 신속히 아시아의식으로 되돌아가 대동단결하여 아시아의 재건설을 하지 않으면 전도는 어떤 암운에 드리울 것인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려스럽고 전율을 느낀다.

여기에 우리 국민은 이번 ‘북지나사변(北支那事變)<sup>58)</sup>을 계기로 전 중국의 일체의 반일 폭거를 청산하기 위해 진정으로 거국일치·시국타개에 매진함으로써 황도 기치 아래 아시아 재건의 위업 완성을 서둘러야 한다.

경중은 난타되고 있지 않은가. 아시아 재건의 시대는 무르익었다고 말이다.

〈출전 : 崔秉協, 「亞細亞の再建時代」, 『在滿朝鮮人通信』, 奉天:興亞協會, 1937년 9월, 57~58쪽〉

58) 중일전쟁.

### (13) 최탁, 현역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조선인의 각오

재(在)봉천 일본총영사관 최탁(崔卓)

다음은 2월 1일 오후 1시 봉천(奉天)방송국에서 현역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조선청년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한 최탁 씨의 방송 요지이다

이번 우리 조선인에게도 현역 지원병제도를 실시한다는 참으로 고마운 취지를 일전에 각 방면의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만, 너무 갑작스럽고 획기적인 대은전(大恩典)이라서 여기에 저희들의 기쁨을 충분히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없는 성은에 감읍(感泣)할 따름이고 아울러 2300만 동포를 위해, 특히 내일의 중책을 떠맡아야 할 청년제군들을 위해 이 역사적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 감격과 경축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원래 병역의 의무는 일본 국민의 3대 의무 중 가장 주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그 의무에 복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제국의 건국 이래의 국시 및 '일한합병'의 성지(聖旨)에 의해 우리 조선인에게도 언젠가는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기상조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리도 중대한 사안을 매우 단시일에 이처럼 큰 영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조선 동포는 특히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는 민중의 청원운동이 결실을 맺어 갑자기 실시된 것도 아니고, 물론 외국의 식민지에 대한 것처럼 일종의 정책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진짜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지나사변(支那事變)<sup>59)</sup>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딱히 지나사변 그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나사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나사변을 통해 비로소 우리 조선 동포의 국민적 의식 내지 애국의 적성(赤誠)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게 된 결과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만주사변과 지나사변은 자연히 다릅니다. 사변 그 자체의 의의에서 보자면 양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조선 동포의 국민적 의식에 있어서는 만주사변의 경우와는 단연 하늘과 땅 차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번 지원병제도를 실시하게 된 유일한 공로자이며,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만주사변 당시에 우리 조선 동포의 국민적 각성이 상당히 성장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미 8년 뒤에 도래할 오늘을 크게 앞당겼음에 분명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오늘에 있어서 오늘날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그러했다고 인식한다면, 앞으로의 장래는 더욱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지원병제도 그 자체가 명확히 그 이유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완전히 청년들의 각오뿐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청년제군들의 각오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까운 장래에 완전히 병역의 의무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미래를 앞당길 수도 있을

59) 중일전쟁.

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완전한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완전한 권리도 부여받게 될 것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다망하고 늙름한 조선인 청년제군들은 부디 자중·자애하길 바랍니다. 이제 제군들은 생전(生前)에는 국가의 간성(干城)<sup>60)</sup>으로서 일하고 사후(死後)에는 호국의 신으로서 추앙받을 것입니다. 또한 제군들이 지녀야 할 각오가 있고 이를 위한 단련을 한다면 일본 내지의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조선인은 예부터 예를 숭상하고 의를 중히 여기는 민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섬기는 등 모두 이 삼강(三綱)을 수신제가치국의 대본의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삼강의 극치에는 반드시 죽음으로 인(仁)을 이루고 의리를 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례를 일일이 역사적 자료에서 끌어오는 일은 번잡하기 그지없으나 여기에 두세 가지 예를 들자면, 백제의 최후에 신라·당나라의 5만 대군이 백제의 수도를 포위하고 공격하자 당시의 도독이던 계백은 불과 5,000명의 병사로 황산에서 싸웠을 때 이미 국가사직의 최후를 각오하고 자신이 전사한 뒤 가족들이 적의 포로가 되면 백제 국민으로서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출정 직전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부인을 자신의 칼로 죽여서 후환이 없도록 한 뒤 최후의 한 명의 병사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한 일, 또 왕실에서 일한 시녀들 모두 백마강이라는 강에 몸을 던져 충절을 지킨 일도 있습니다. 또한 고려 말의 충신·열사·왕실의 시녀들이 지킨 충렬도 대략 같습니다. 또 이조의 세조시대의 사육신, 즉 성삼문 외의 5명의 의사는 갖가지 봉록을 주어 우대하고 회유했지만 일편단심 전혀 의절을 굽히지 않고 최후에 극형을 받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역시 옛 왕을 기리며 “현릉은 옛 왕의 능이다”라는 한 편의 시를 읊으면서 미소를 짓고 죽음을 맞이한 충렬 무쌍한 지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나사변 발발 이래 조선 동포의 수많은 적성 또한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예를 들자면, 경성역에서 출정황군의 환송식 때 수만 군중들이 모두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국기가 땅 위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과 말 등의 발에 유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송식을 계속한 지 10여 일쯤 뒤 당국이 알아차리고 땅에 떨어진 국기는 앞으로 모두 수습해서 정중하게 다룰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장의 국가도 길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 그래서 그 진상을 다방면으로 조사해보니, 그 부근 시장에 살고 있는 60세 가량의 한 조선인 노동자가, 국기를 함부로 사람과 말 등의 발로 짓밟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이라며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매일 이른 아침 부근 일대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하나 하나 수습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의를 숭상하고 충의를 중히 여기는 국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한말(韓末)의 폐정(弊政) 폐해와 현대의 이기주의의 침륜(沈淪)이 종래의 숭고한 사풍(士風)을 이완시켜 도의적 정신을 둔하게 만든 결과, 오늘날 조선인은 “망언적 인간이다”, “감사·감격하는 마음이 부족한 민중”이라는 등 평가를 받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경향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민중 자체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조선인도 당당한 일본제국 신민이고 위로는 만고무류(萬古無類)의 국체를 봉대(奉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중 자체에 숙명적으로 황도(皇道) 일본정신을 충분히 체득할 만큼의 소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여기에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에 따라 국민적 도야를 가한다면 완전히 일본 국민으로서 동아 건설의 지도민족이 되어 대국민으

60) 국가를 지키는 강과 방패, 즉 군인.

로서의 빛을 세계에 반사할 날을 가까운 장래에 기대하고, 또 그 날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건국 이래의 대국시이자 일본 국민으로서의 대사명입니다. 청년제군들이여, 자신의 단점도 보충하는 대신, 자신의 특질도 깨닫도록 하라. 조선의 부모는 모두 그 자제들을 지원병이 되도록 독려하고 청년들은 분연히 일어나 지원병에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지원병에 40만의 지원자가 있으라. 그렇지 않다면 조선청년으로서의 기골이 없고, 대국민으로서의 도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의 유신의 칙유(勅諭)를 말씀드리며 제군들의 국민적 정신의 환기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중략)

이 칙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하의 만인들 중에 자신의 직분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그것은 전적으로 짐의 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국민들을 적자(赤子)와 같이 애무하셨는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짐 자신(……판독불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천황의 천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간난신고(艱難辛苦)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는 철석과 같은 정신을 충분히 배찰(拜察)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만리의 파도를 초개(招開)하여 국위(國威)를 온 세상에 선포”라고 명확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동아 미래의 오늘에 대해 부동의 황모(皇謨)를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제군들은 이 칙유를 세 번 봉독한 뒤 그 지인지덕(至仁至德)하고 지고지대(至高至大)한 성모(聖謨)를 깊이 감득하고 분연히 일어나 자신을 독려하라고 여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제군들의 각오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청년제군들은 일시적인 환경에 너무 희로애락의 예민함을 갖지 말고 굳건한 희망고 신념 아래 국민 완성의 내일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멀지 않은 완성까지의 도정을 하루라도 발리 훌륭하게 답파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1938년 2월 1일

봉천 방송국에서

〈출전 : 崔卓, 「現役志願兵制度の實施と朝鮮人の覺悟」, 『在滿朝鮮人通信』 44·45號, 奉天:興亞協會, 1938년 2월, 66~68쪽〉

### 3) 기타

(1) 권태산, 『만주제국의 확립과 대동아 건설의 기본문제』(1933)

#### 1. 서론

만주사변이 도화선이 되어 대(大) 아세아주의(亞細亞主義)가 팽배하면서 주창되었으며, 근래 동아시

아 여러 민족 간에는 아시아연맹 결성 규합의 봉화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단지 세계의 정치·경제 블록화의 한 현상 혹은 백색인종에 대한 황색인종의 대항적 규합의 동향으로만 단정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 아시아 해방 문제도 그 일면인데, 나는 그것보다도, 일찍이 우리 아시아 민족에 의해 지지되어 온, 세계를 인류 영원의 낙토로 만들고자하는 평화의 문명, 즉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부활·재건이야말로 그 제일의적(第一義的) 문제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늘날 아시아 지도자인 일본의 국시(國是) 정신이 입증하는 바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아시아 경륜(經綸)은 이 숭고한 정신문명의 발양에 따라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황도주의(皇道主義) 정신을 그 본체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 즉 국시 정신에 입각한 일본이 대 아시아 건설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시 할 필요가 있는 기본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사항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그 첫째는, 돌아보면 멀리는 청일·러일 두 대전, 가까이 만주국 독립 승인과 같이, 본래 아시아의 아들, 일본이 건국한 태고 이래 이미 깊어져 온 숙명적인 책무인 것이다. 일본인의 피는 송화강(松花江)의 물과 흥안령(興安嶺)의 흙에서 형성되었음을 말해 주는 몽고(蒙古) 종족 발상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아시아 민족의 혈연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상호간의 윤리·도의를 천명하여, 한층 친밀한 융화를 양성해 가는 것이다.

그 둘째는, 일본이 생존하는 한, 몸에 익혀야 할 숙명적인 중하(重荷)인 조선 문제이다. 일본과 조선은 인종면에서 가장 혈연적으로 가까운 동(同) 종족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두 민족 간에 상호 결합이 이루어져, 지금은 혈육이 서로 섞여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심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대만(對滿) 국책을 위해서 일본과 조선은 이인삼각의 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보조가 맞지 않으면 함께 전질(顛跌)할 우려가 있다. 특히 대 아시아 건설을 목표로 하여 대두하는 거스를 수 없는 조류, 대 아시아 주의의 시야에서 조선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이를 이끌어 갈 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아시아의 장래를 우려하는 제현(諸賢)의 참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만몽 민족의 사적(史的) 고찰

○ 대 아시아 건설 — ○ 만리장성을 사이에 둔 한족(漢族)·만몽족(滿蒙族)의 각축 — ○ 만몽의 국가와 민족의 변천 — ○ 만몽은 한족의 토지가 아니다 — ○ 만주국은 만몽족의 부흥 — ○ 몽고족 분포의 현상 — ○ 일본·조선 두 민족은 가장 가까운 혈연족 — ○ 일본 민족은 아마토(大和) 민족과 부여족(扶餘族)의 동화체(同化體) — ○ 휴가(日向)·이즈모족(出雲族)은 반도에서 건너왔다 — ○ 히이즈루(日出づる, 해가 뜨는)<sup>61)</sup> 성지를 찾아 동진(東進)하다 — ○ 배달(倍達)과 히노코(日の子)란, 동의(同意) — ○ 신(神)과 한(汗)의 관계 — ○ 김해(金海) 김씨(金氏)는 일본인인가? — ○ 중세기의 일본과 조선의 교환(交驩) 두절(杜絶)의 원인 — ○ 몽고족의 현상 — ○ 동아시아 문명의 행위(行衛) — ○ 동아시아 문화의 재건자는 일본 민족 — ○ 빛은 동방에서 — ○ 눈을 뜨는 아시아

61) 일본을 가리키는 미칭(美稱).

만주제국이 포용하는 민족은 그 국기가 상징하고 있듯이 일본·만주·한족·조선 등 다섯 민족인데, 이 다섯 민족은 인종학상 물론 북방 몽고계 민족이지만, 이 가운데 한족(漢族)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른바 우랄 알타이 민족으로서, 체격·용모가 유사한 것은 물론, 그 언어도 우랄 알타이 특유의 교착어이며, 종교도 모두 샤먼 계통인 점에 비추어, 이들은 모두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동근혈족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주에서 발상한 것이 분명한 이들 민족을 총괄하여 편의상 타타르 계 몽고족이라고 부르고, 그 밖의 몽고 종족과 구별을 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대 아시아 건설은 이들 민족이 주동이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서양의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Blood is thicker than water)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이 오늘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앵글로 색슨 계 민족의 융화·친선의 표어로 자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만몽을 선조의 성지로 생각하는 우리 타타르 계 몽고족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동아시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일본·조선·만몽 각 민족의 인종상 원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들이 같은 뿌리를 가진 혈연족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상호간의 윤리·도의적 교정을 강조하는 일은 만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무엇보다 필요한 일일 것이다.

어쨌든 오늘의 인류 사회에서 모든 정치·경제·종교 내지 사상상의 알력은 필경 민족 대립에서 원천을 발하고 있다. 만몽에서의 군사·정치·경제·그 밖의 모든 문제 역시, 즉 이 민족 문제가 그 근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두 말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1) 만몽 민족의 발상과 분포·변천

“동양사는 한족(漢族) 대 몽고족(蒙古族)의 전쟁·각축의 흔적이다”라고 갈파한 사람이 있는데, 매우 기발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만주는 지리적으로도 중국과는 현격히 떨어져 있고, 특히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만몽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저 부자연스러운 만리장성을 축성한 이후에는 더욱 민족적으로도 현격히 떨어져, 그 경계가 명료하게 구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몽의 땅에 반거(蟠踞)하며 조생모사(朝生暮死)의 생멸(生滅)을 반복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무수한 국가·민족이 중화(中華) 침입의 야심으로 가득하여 중원(中原) 탈취의 웅도(雄圖)를 꿈꾸면서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만리장성을 사이에 둔 살풍경한 동정은 몇 천 년 동안 멈추는 일 없이 반복되어 왔음과 동시에, 동양사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본래 한족은 그 용모·체격 및 문자가 몽고족(타타르 계)과 동일한 것으로, 양자(兩者)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황제(黃帝)(아마 북방에서 온 몽고인일 것이다.)가 황하(黃河) 유역에 나라를 세운 이후, 주로 황하·양자강(揚子江) 유역에서 흥망성쇠를 반복하여, 이 지방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중화”라고 부르고, 주변의 다른 나라는 모두 속국으로 보고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이라고 부르며 경멸하면서, 자아독존 관념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따라서 만몽에 거주하는 다른 몽고족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성질의 존재로 생각된다.

한족이 황하·양자강 유역에서 발상하였듯이, 몽고족은 아무르 강·송화강(松花江) 유역에서 발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4천 여 년 동안, 실로 수많은 국가·민족이 흥망·성쇠와 수많은 변천·곡절을 거쳐 간 것이다.

또한, 만몽 지방에서 고대부터 근대까지 유구한 세월 동안 어떤 민족의 생멸과, 어떠한 국가의 흥망이 있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표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몽고종족의 국가·민족 변천 일람표〉

서력 연대 (西曆年代)	중국시대	국가 또는 민족 명칭	영역(領域)	비고(備考)
BC 2,000~ 1,000	하(夏)·은(殷) ·주(周)	자분(自噴)·숙신(肅慎) ·오이(烏夷)·산융(山戎)	북만(北滿) 일대	숙신(肅慎)은 주대(周代) 이전에 송화강에 반거(蟠踞)한 가장 오래된 국가. 조선(朝鮮)은 연(燕)의 동쪽에 인접하여 백두산(白頭山) 북쪽 기슭에서 발상(發祥)한 고대 단군조선(檀君朝鮮)이다. 동호(東胡)는 본래 북만에서 남하한 민족으로 훗날 흉노와 충돌하여 선비·오환(烏丸)으로 갈라진다.
		조선(朝鮮)·동호(東胡)	남만(南滿) 일대	
		협윤(狹狁)·임호(林胡) ·북적(北狄)·적적(赤狄)	내몽고(內蒙古) 북 중국(北中國)	
BC 900~660	진(秦)	동호(東胡)·조선(朝鮮)	동(東)·남만 일대	
		흉노(匈奴)	북만 일대	
BC 600~350	전국시대 (戰國時代)	북부여(北扶餘)	북만 지방	부여족(扶餘族)은 흑룡강(黑龍江)·송화강 유역, 즉 타타르 계 몽고족 발상지에서 최고(最高)의 문화를 자랑하는 배달족(倍達族)의 직속 후예로 일선족(日鮮族)의 조상 민족이다.
		동부여(東扶餘)·읍루(挹婁)	남만 일대	
		선비(鮮卑)·현토(玄菟) ·오환(烏桓)·흉노	내몽고	
BC 250 ~AD 220	양한시대 (兩漢時代)	선비	서만(西滿) 지방	
		부여(扶餘)·읍루(挹婁)	동·남만 일대	
		고구려(高句麗)	남만·북선(北鮮) 일대	
220~600	부(符) 진(秦)—수(隋)	고구려	남·북만 일대	후에, 중국 본부(本部)를 침략한 요·금·청 등의 강국(強國)을 건국한 거란(契丹)·선비·여진족은 모두 고구려에 속한다.
700~1,900	당(唐) 이후 민국(民國)까지	요(遼)·금(金)·원(元) ·청(淸)	남·북만 및 중국	원은 중앙 아시아·유럽까지 침입한다. 청은 연진의 일족에 의해 세워졌으며 중국을 통일한다. 돌궐은 지금의 터키 지방, 흉노는 북유럽 지방으로 뻗어간다.
		여진(女眞)·말갈(靺鞨)	북만 및 북선으로 이어진다	
		돌궐(突厥)·흉노	중앙 아시아 및 유럽 북부으로 뻗어 간다.	

위의 표를 잠시 살펴보면, 만몽은 한족의 토지가 아니라, 한족 이외의 말갈계(靺鞨系) 몽고족의 본거지이며, 한족이 융성한 시기에는 잠시 만몽의 일부를 점거하는데 머물지만, 일단 고구려(高句麗)의 후신인 금(金)·요(遼)·원(元)과 같이 정한(精悍)한 종족(種族)이 융성하면서 만주는 오히려 중국 본토까지도 병탄(併吞)되고 만다.

그중에서 근고(近古)에 이르러, 백두산 산기슭에서 발흥한 여진(女眞)의 일족(一族), 애신각라(愛親覺羅)는 중화로 침입하여, 대청제국(大清帝國)의 패업을 이루었으며, 한민족(漢民族)은 그 예속 하에 있기를 300년, 마침내 민국혁명(民國革命)에 이르러 청(淸)이 막을 내리고, 중국을 한인(漢人)의 수중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 타타르 계 몽고족의 만몽의 마지막 제국인 청은 결국 패하여 만몽의 성지를 한족에게 농략(籠略)당하는 듯 보였으나, 하늘은 만몽족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만주 주민의 숙원이었던 보향안민(保鄉安民)의 이상은 마침내 만주의 독립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한족과 결탁한 장가(張家) 군권(軍權) 폭정(暴政)의 광란(狂瀾)을 물리쳤고, 이에 왕도인정(王道仁政)의 회천적(回天的) 대업을 이루려는 제국(帝國)이 확립된 것은 만몽족의 화려하였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표에서도 보았듯이, 만몽의 땅에 우승열패(優勝劣敗)의 생존 경쟁을 계속하면서 동방(東方)으로 가거나 서방(西方)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남방으로 가거나 북방으로 흩어진 이들 여러 민족이 어찌면 하나의 근간에서 가지를 치며 확산된 일대 혈연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는 만주족·몽고족·서장족(西藏族)·일본 및 조선족, 그리고 터키·남러시아·핀란드 등의 여러 민족은 대개 언어 계통이 교착어이며, 단어가 다양하다. 혹자는 그 습속도 비슷하며, 종교는 샤머니즘(Shamanism)이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면, 이등 여러 민족은 분명 혈연관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일대 혈연족(血緣族)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태고(太古)의 그 발상지는 만몽(滿蒙)의 나변(那邊)인지를 생각해 보면, 부여족(扶餘族)의 문화 요람 지대인 아무르 강과 송화강 유역 지방이어서, 이들 시족(始族)은 이곳에서 발족(發足)하여, 이미 역사 이전부터 동쪽은 장백산맥(長白山脈)에서부터 서쪽은 흥안산맥(興安山脈), 북쪽은 드넓은 시베리아 초원에서부터 남쪽은 발해(渤海) 연해주(沿海州)까지 광대한 들판에, 전전하면서 수초(水草)를 따라 목축 생활을 해 오는 가운데, 인구 증가·식량 부족·부족 간의 알력 및 반목·이민족의 침입 등과 같이 내적 원인과, 기후의 변화·원정(遠征)의 모험 및 그에 따른 다른 민족과의 동화(同化) 등의 외적 원인에 따라, 점차 선조의 땅을 벗어나 흩어져, 시베리아로 흘러 들어가, 키르기스·통구스·카르모츠크 등의 여러 민족으로 변하였으며, 베링 해를 건너 에스키모·아메리칸 인디언으로 변하거나, 중국 본부로 침입하여 한족에게 동화되거나, 동남쪽으로 가서 조선·일본족으로 변하거나, 서쪽으로 뻗어가서 타타르·투르키스탄·핀란드·에스토니아·헝가리 및 터키 등의 여러 민족으로 변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대부분 북반구 전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몽고의 분포·계통을 간단한 도표화하여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겠다.

〈만몽 민족의 사적 고찰〉 (중략)

## (2) 일본·조선 두 민족의 혈연 및 교환(交驛)

일본과 조선은 그 문화가 일치한다는 점, 두 민족의 용모·체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언어 문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점을 들어 몽고족 중에서도 가장 혈연 관계가 가까운 형제 종족이라는 점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조선은 일본의 감화를 받아 일상 생활 및 언어·동작에까지 눈에 띄는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 자의 성명을 밝히기 이전에는 일본인·조선인의 구별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보아도, 두 민족이 동일 계통의 자손이며, 동형(同型)의 혈액이 체내에 돌고 있는 민족이라는 점을 무조건적으로 믿어도 좋을 듯 하다.

인류학자의 언급에 따르면, 일본 열도에는 역사 이전 태고(太古) 때부터 선주민(先住民)인 오로츠코족·아이누족 등이 수렵·목축에 종사하고 산간 계곡 지대에 살면서, 한편으로 남양(南洋) 방면에서 건너온 왜인(倭人)이 주로 남쪽 해안 지방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무렵, 만몽(滿蒙) 지방의 배달족(倍達族)(히노코족(日子族))의 후예 부여족(扶餘族)의 일부가 조선 반도를 거쳐서, 한편으로는 규슈(九州)의 휴가(日向) 지방에 이르러 천손족(天孫族)을 칭하며, 한편으로는 산인(山陰) 지방에 상륙하여 이즈모족(出雲族)이 되고, 서로 호응하여 아이누·왜인(倭人)을 평정하여 일본의 근간(根幹) 민족인 야마토(大和) 민족이 역시 대륙에서 건너온 민족이라고 한다) 과 동화(同化)하여, 오늘날의 일본 민족의 기반(基幹)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즈모 천손(出雲天孫)의 명칭이 이미 외래인(外來人)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즈모족의 오키니누시노미코토(大國主命)를 비롯하여 그 밖의 여러 신(神)이 조선 반도와 빈번하게 왕래를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천손족인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命)가 “소시모리”(조선의 강원도 춘천 지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로 돌아간다는 등의 역사상의 전설에 비추어 이즈모 천손의 두 민족이 조선 반도에서 건너 왔을 것이라는 점은 거의 분명하다.

또, 고고학(考古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석기시대에 주로 규슈(九州)·주쿠쿠(中國)·호쿠리쿠(北陸) 지방에 사용된 야요이 식(彌生式) 토기(土器)가 이 분야의 권위자의 감정(鑑定)에 의해, 조선·만주·몽고 지방에서 사용된 야요이 식 토기와 완전히 동일한 기술의 제품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이를 보아도, 아이누족 등이 사용하던 토산품(土產品) 조몬 식(縄文式) 토기가 규슈·주쿠쿠·호쿠리쿠 지방의 천손족·이즈모족이 가져온 외래품(外來品) 야요이 식 토기에 압도되어, 조몬 식 토기의 소유주와 함께 도호쿠(東北) 및 홋카이도(北海道) 지방으로 쫓겨 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지질학자가 일본의 조선 반도 육속설(陸續說)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원주(原住) 일본족의 대륙 도래설(大陸渡來說)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또한, 언어학상으로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몽고어·조선어 및 일본어의 단어에는 신기할 정도로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먼저 일본어의 hi(日)와 조선어 해(日)는 분명 유사한 발음이다. 그런데, 일본족은 국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태양(hi, 日)을 숭배하는 종족이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배달족의 일족이 태양을 동경(憧憬)하여 “히이즈루쿠니(日出ずる國, 해가 뜨는 나라)”의 이상향(理想郷)을 찾아 동쪽으로 동쪽으로 건너와 정착한 곳을 “아사아자야카나치(朝鮮かな地, 아침이 멎진 나라)”라고 부르고, 나아가 태양(日)이 향(向)한다는 의미에서 “휴가(日向)의 땅”이라고 칭하였으며,

그들은 스스로 “히노코(日の子, 해의 아들)”, 즉 천손(天孫)이라고 칭한 것이다.

여기서 히노코 즉 배달족인데, 이 배달(倍達)을 조선어로 발음하면 ‘Batal’, 즉 태양(日)의 아들(子)의 의미인 ‘해 아달(Hâ Atal)’의 전와음(轉訛音)이 된다. 해가 탁음화(濁音化)하여 배가 되므로, 배달이 해 아달의 전와(轉訛)라고 해도 결코 억측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히노코 족을 조선에서는 배달족이라고 부르고, 이 둘은 완전히 동일한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히토(人)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해 아달(히노코)의 변화(變訛)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어의 해 놈(Hâ Nom), 즉 태양 놈(히노코(日の子))과 유사하다. 여기에서 일본어의 히토와 몽고어의 휴누무가 조선어의 해 놈을 통해 비로소 그 유서(由緒) 있는 어원(語源)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삼자 간은 먼 과거에 어떠한 연쇄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본 신화 중에 인격을 가진 신(神)과, 조선 삼한시대의 한(汗) (박거세한(朴居世汗), 아도한(我刀汗), 여도한(汝刀汗). 몽고족에는 성길사한(成吉思汗), 흘필래한(忽必來汗) 등)을 비교해 보면, 전자(前者)를 간누시(神主)·간다(神田)라고도 읽는 것에 비추어, 신(神, 칸)과 한(汗, 칸)은 분명 동근동의(同根同意)의 말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신대(神代)에는 야오요로즈노카미(八百神)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전설(傳説)과 삼한 시대의 가야국(伽倻國) 신화(神話) 중에 김수로왕(金首露王) 출현 이전 그 영토(領土)는 대부분 한(汗)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기록 등을 종합하여, 양자(兩者) 간에 분명히 공통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양국(兩國)에는 이미 신대(神代)부터 동일한 정치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320여 년 전인 1711년, 조선 사자(使者)의 대우 개정을 막부(幕府)에 건의하여, 일본과 조선의 교환(交驩)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인물, 당대(當代)의 경세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저서 『동아(東雅)』 속에도 일본어와 조선어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은 일본의 황족인 염승진언명(鹽乘津彦命)이라고 하는 일설(一說)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김수로왕의 후손으로 이어져 온 김해 김 씨 및 김해 허 씨(아마 조선 전체 백 수십 만을 헤아린 것일 것이다)는 모두 일본인의 피를 나눈 존재들이었다.

다음으로, 신라의 제4대 석탈해왕(昔脫解王)이 일본 다파나국(多婆那國) 장자(長者)가 난생아(卵生兒)라는 전설 및 석탈해왕에 중용되어 대대로 신라에서 번성한 표공(瓢公)이 왜인(倭人)이라는 사문(史文), 혹은 아마노히보코(天日槍) 일당(一黨)이 일본에 건너와 오우미(近江)·산인(山陰) 및 주고쿠(中國) 지방에 자손을 번식한 일, 혹은 일본에 귀화하여 그 특수 기능에 따라 조정(朝廷)으로부터 가바네(姓)를 하사받았다고 하는 필(筆)·주염(朱染)·회사(繪師)·악조(樂祖) 등의 여러 우지(氏)는 모두 조선에서 도래한 연(燕)의 후예라는 흥미로운 사전(史傳), 혹은 일본의 황실과 신라·백제의 왕족·귀족과의 혼인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늘날 일본인과 조선인은 피가 섞인 사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석기시대의 야요이 식 토기, 그리고 철기시대 초기에 이미 사용된 옹기·손도끼·팔찌·가래·술·두레박·낫·쟁기·괭이 및 그 밖의 기구 명칭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혹은 일본의 불각사원(佛閣寺院)의 국보(國寶) 대부분이 신라·백제의 명장(名匠)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적(事跡), 불교(佛敎)·한학(漢學)이 조선에서 전해졌다는 사실(史實) 등을 참작하여, 양자 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물질 및 문화의 교환(交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헤이안(平安) 시대 이전까지도 양자 사이에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외교 사절이 교환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민족은 완전히 동일한 근원족(根源族)이며, 더구나 일본족의 중요한 것은 조선을 거쳐 일본에 들어 온 대륙 민족의 후예라는 점을 상상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은 이미 신대(神代)부터 피아(彼我) 사이에 밀접한 결합이 시작되어 대대로 화기에애한 교환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기에 이르러 두 민족 사이에 간격이 생겨, 결국에는 반목·항쟁하는 사이로 변하여, 예로부터 있었던 교의(交誼)를 망각하게 된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일까?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세 가지 사정을 여기에 열거해 보면,

① 봉건제도 출현과 함께 대내적으로 균용할거의 항쟁이 이어졌고, 대외적으로는 쇄국주의로 문을 걸어 닫고, 상호간에는 전혀 교섭을 하지 않아, 각 자가 각각 서로 다른 문화를 양성한 점.

② 지형 관계상 일본은 외족 침입의 예가 드문데 반해, 조선은 만몽과 국경을 접하여 그 지역의 민족과 빈번히 투쟁을 하였으며, 형식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이어져, 결국에는 만몽족(滿蒙族)과 운명을 함께 하기에 이르러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점.

③ 일본은 켄페이쟁패에 이어 센고쿠시대로 들어갔으며, 이 시대가 끝나자 도쿠가와(德川) 무단 천하가 되어, 국민은 끊임없이 환경에 좌우되며 상무강직(尙武剛直)이 되었던 데 반해, 조선은 북방 민족의 중압에 영향을 받아 정치는 사대주의 외에 본원(本願)을 소홀히 하였고 사상은 주자학을 맹신하여 문약에 빠져 당파 항쟁에 중독되었으며 민심은 고집스럽고 편협해졌다는 점.

④ 왜구가 발흥하여 조선 연안의 백성을 위협하여 조선 반도 백성들의 적개심을 부채질하였으며, 게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정벌로 인해 불행하게도 조선인의 반감을 사서 양자 간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의 균열이 생겼다는 점.

이상과 같이, 서, 너 가지의 서로 다른 사정이 질곡이 되어, 거의 관계 두절 상태로서 물환성이(物換星移)하여 시대는 흘렀으며, 조선 말기에 이르자 격동의 풍운이 급박하게 몰아 닥치며 시대 변화에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조선 정부는 느닷없이 일이 벌어지자 당황하였으며, 결국 어쩔 수 없이 한일병합(韓日併合)에 이르게 되어, 과거 수 세기 동안 거의 두절되어 있던 양 민족 간의 교환이 이로써 이전과 다른 형태로 다시 회복된 셈이다.

돌이켜 보면, 상근합체(桑椹合體)하여 이미 20여 년, 그 시간은 짧지만, 과거 수 세기 동안 대부분 다른 길을 걸어 온 두 민족에게 서로 동일 선상에서 보조를 맞출 때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일본과 조선 동포는 그 혈연관계를 한층 깊이 인식하고, 서로는 동근동족(同根同族)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혼연한 융화·친선의 새로운 면을 타개하여야 할 것이다.

### (3) 동아시아 문화(文化)의 재건자 일본 민족

역사 시대 이전에 아무르 강·송화강(松花江) 유역에서 발상하여, 동쪽은 새벽, 서쪽은 석양의 광묘(曠渺)가 끝없는 만몽 시베리아의 광야에 수 천 년 동안 흥망성쇠를 반복해 온 몽고 종족의 그림자는

과연 어디로? 일찍이 녹림(綠林)의 효웅(梟雄) 장작림(張作霖)의 말발굽에 꿈을 위협받은 400백 만의 외로운 만족(滿族)과, 옛 중국 제국의 간사한 종교적 회유 정책에 철굽과 말채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천지를 진동시킨 성길사한(成吉思汗)의 유혈(遺血)도 마비시키고 나마밀교(喇嘛密教)의 가람(伽藍)에 의해 미몽(迷夢)에 빠진 몽고족 등, 만몽의 천지에 타타르 계 몽고족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하고, 향훈의 초원에서 말을 채찍질하는 유목민의 그림자는 옛날의 은성(殷盛)과 서로 비교하여 사뭇 맥수지탄(麥秀之嘆)의 한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화훼(花卉)는 산야(山野)에 피어 분재(盆栽)를 살린다”는 것처럼, 몽고족은 만몽에서 발상(發祥)하여 외지(外地)에서 번영하였다. 돌궐(突厥)·흉노(匈奴)·몽고는 “해가 지는 땅”을 구하여 서진(西進)하였고, 그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서구 문화에 동화되어, 오늘날 중앙아시아 및 북유럽 여러 민족으로 변질되어 세계의 중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가 뜨는 성지(日出ずる聖地)”를 찾아서 동진한 배달(倍達)의 일족은 조선·일본의 문화를 낳고, 오늘날에는 일본처럼 세계 일대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만몽에 살면서 3천 년 동안, 만리장성을 사이에 두고 중화를 즐겨보던 만몽족은 원(元)·청(淸)과 같이 정한(精悍)한 부족의 용기(隆起)로, 한번은 만주·중국을 병탄(併呑)하였으나, 부지불식간에 한족(漢族)에 동화되어 언어·풍속까지 한화(漢化)되고 말아, 오늘날 이를 지켜보면, 이미 과거의 민족이 되어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찍이 문명, 우리 동아시아 민족에 의해 형성된 역사상 찬란한 동아시아 문화는 과연 소멸해 끝이 난 것일까? 아니다. 그 위대한 정신문명은 몽고족의 선택받은 후에 일본 민족에 의해 보존되었고, 일본 민족의 그 위대한 포용력과 동화력을 통해 구미(歐美) 문화까지도 흡수하여 세계에서 고금미답의 동서 두 문화의 □화를 감행하여, 지금 막다른 길에 온 물질문명의 앞날에 서광을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다.

보라! 기독교가 낳은 유태(猶太)는 멸망하고 기독교는 구미에서 번영을 하였고, 석가(釋迦)를 낳은 인도(印度)도, 공맹(孔孟)을 낳은 중국도 모두 거세된 사자에 불과하다. 석가·공맹이 역설한 도는 오로지 일본에서만 그 발전을 보았다. 게다가 구미의 기독교까지 일본에 의해 비로소 그 참된 모습을 인정받게 된 상황이다.

생각건대, 동양·서양에 상관 없이, 인종의 황백(黃白)에 상관 없이, 세계 인류가 미증유의 질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 “빛은 동방에서” 비치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옛날 동아시아 대륙과 존선 반도에 활짝 핀 문화의 꽃은 그 씨앗을 일본에 떨어뜨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수 세기 동안 일본 민족의 부단한 노력과 그 천품(天稟) 속에 배양되어, 지금은 훌륭한 꽃을 피워낸 것이다. 이 꽃이야말로 우리 타타르 계 몽고족의 고향인 만몽 땅에서 더욱 훌륭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청조 멸망 후, 한인(漢人)의 불합리한 폭압 아래에 있던 만주는 지난 해 중일 충돌을 계기로 자주 독립의 봉화를 올렸으며, 마침내 청조 이후 첫 국가를 건설하여 몽고계 민족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또한 내몽고족이 비밀의 문을 열고 한인의 패반을 벗어나야 할 최근에 이르러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그리고 서장족(西藏族)도 독립을 선언하여 중국에 반항하고 있는 등, 모두 우리 타타르 계 몽고족의

각성·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만주국의 고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계를 상대로 고립 분투하고 있는 일본의 선각자적 행동은 즉각 아시아 민족의 피를 들끓게 하여 대 아시아 주의가 힘차게 주창되면서 아시아 연맹의 결성 기운이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은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다.

생각건대, 우리 타타르 계 몽고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후에 일본이 동아시아 문명의 재건자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만몽을 무대로 한 동양극 상연은 그 무대 감독도 연출자도 모두 진심으로 형제동족이기 때문에 100퍼센트의 효과를 가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3. 만주 제국 확립 의의

○ 성길사한(成吉思汗) 이후의 황화(黃禍) — ○ 피라미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 ○ 서양 문명은 동방 일본에 파괴되었다 — ○ 선전(宣傳)이 필요 없는 일본 — ○ 만몽(滿蒙)은 몽고족의 손에 — ○ 아시아 경륜(經綸)의 대도(大道)는 황도주의(皇道主義)가 그 본체(本體) — ○ 왕도(王道)는 동아시아의 정치 사상 — ○ 황도(皇道)와 왕도(王道)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중국 군벌의 폭압 아래에 도탄에 빠져 있던 만주 3천 만 민중이 중국에 대한 반감을 날실로 삼고, 일본 권익침해에 따른 일본 민중의 의분을 씨실로 삼아, 만주의 천지에 충만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폭발하는 사태는 질풍노도의 속도로 추이하여 만주에 새로운 국가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으며, 장가(張家)가 보여준 폭정의 광란을 밀어내고 왕도낙토 건설에 착수한 지 3년, 또한 만주에 인연이 깊은 애신각라(愛親覺羅)의 후손인 부의(傅儀) 집정(執政)이 등극하여 만주제국을 확립한 것은 근세의 쾌거이다. 따라서 그 의의를 물으면 열 손가락도 모자라지만, 특히 윤리·도의 면에서 이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 (1) 황색 인종의 각성·분기

현대 구미를 석권하고 있는 파시즘의 총재 무솔리니는 자주 황화설(黃禍說, Yellow Peril)을 주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아주 빈번하게 이를 환기시키며 일본을 공격하는 말을 내뱉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구미 각 국 정계의 거두연(巨頭連)은 모두 북을 울리며 일본을 깔보며 백색 인종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이 황화라는 말은 이미 13세기에 우리의 동족인 성길사한(成吉思汗)의 일족이 유럽과 아시아 양 대륙을 병탄하려고 서구로 군대를 보냈을 때, 유럽 여러 민족은 이를 두려워하며 황화를 주장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런데, 원이 멸망하고 동아시아에 점차 쇠약의 기미가 나타난 반면에, 서구 제국(諸國)에는 물질 문명이 발흥하여 각 국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서로 경쟁을 하며 동방 침략에 나섰다. 그 중에 러시아 제국(帝國)은 당시 세계 제일을 자랑하던 대륙군(大陸軍)을 시베리아로 진격하도록 하여, 단숨에 만몽 및 조선을 병탄하려고 하였으나, 동방의 일각에서 홀연히 나타난 다크호스인 일본의 분투에 의해 쉽게 그들의 일이 좌절되었지만,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다시 방법을 바꾸어, 발틱 40척의 정예 함대를 잇달아 보내 극동의 바다를 위협하여 위풍당당 무엇이든 당해내겠다는 자세로 습격해 왔으나, 일단 포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자 일본 함대로 인해 30여 척이 츠시마(對馬)의 바다 속에

잠겼으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전멸하였다는 비보가 전 세계로 전해져 열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며, 유럽의 전체는 다시 황화의 예감에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하였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보라! 아프리카의 일각인 나일 강가에 우뚝 솟은 피라미드를. 특권 계급의 무서운 채찍 아래에 수십만 명의 노예들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위대한 금자탑을! 그러나 가혹한 노예 착취의 문명은 옛 이집트와 함께 무너졌으나, 높이 솟은 피라미드, 노예 계급이 몸을 던져 쌓아 올린 눈물의 결정은 영원하고 드높은 향(香)을 담아 “교만한 자, 오래 가지 않으니”라고 세계를 비웃는 듯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의 세계를 움직이는 태서(泰西) 물질문명은 유색 인종착취의 문명이며, 약자 학대의 패도(覇道) 문화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통치, 영국과 프랑스의 패반(覇權)에 신음하는 인도(印度)·안남(安南), 아편 전쟁 이후 생혈(生血)을 착취당하고 있는 중국, 미국의 남미(南美) 간섭과 흑인 학대, 구미 제국(諸國)의 동양 이민 배척 등등을 보라! 유색 인종의 사지에는 모두 굴욕적인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약자를 압박하여 그 위에 세운 문화 권세라는 것은 그 약자의 각성·분기에 의해 붕괴·전복될 운명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흥망이 이어지는 세계에서 인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 문명은 동방의 일본에게 무너졌다”고 구미의 지식인들은 지난번 만주국 문제에서 유머러스한 탄식을 흘렸는데, 이는 오히려 지금부터 30년 전에 40척의 발틱 함대가 츠시마 앞바다에 수장된 당시에 말하였다면 한층 자극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유색 인종의 몸을 속박한 쇠사슬을 끊을 칼을 손에 저 국제연맹에서 30대 1이라는 형세 앞에 의연하게 섰다. 그리고 우이의 메카 만몽 땅을 사수하기 위해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도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건대, 인류 해방의 대이상(大理想)도, 필경 이 황색 인종을 위해 만장의 기함을 토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 서광이 비쳐질 것이다.

## (2) 몽고 종족의 부흥

나는 우리 타타르 계 몽고종족의 두터운 동족애를 고조하는 의미에서, 일본이 만몽에 진출하였다고 보기보다도, 몽고 종족의 조상의 고토(故土)를 회복한 것이라고 윤리적·도의적 시각으로 보기를 시도하며, 일본의 아시아 국책도 이와 같은 견해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견해와 입장에 따라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이상적 입장에서 견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청일·러일 양대 선전도 사실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려고 하는 의지의 발로이며, 가깝게는 만주국 독립 승인도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당면 이상은 사실 동양의 영원한 평화 확립에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일본의 국시 정신이다. 아울러 영국·미국·러시아·중국·그 밖에 만몽과 관련해 일본과 상반된 이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의 이와 같은 국시 정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들이 일본의 만몽 진출을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 듣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만주·몽고, 그 밖에 특히 일본의 지도를 받는 듯한 민족을 향해, 그들이 일본에 대한 중상 모략과 역선전에 힘쓰는 것도 우리가 누차 보고 들어온 것들이다. 유도 선전은 구미 제국(諸國)이 다반사로



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무엇보다 선전이 필요 없는 나라이다. 선전의 우열에 따라 나라의 가치와 강대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해 제네바의 국제회의에서 일본은 교묘한 선전에 능한 중국 때문에 혹독하게 매도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였던 그 괴로운 경험은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바이다. 오늘날처럼 국제 관계가 미묘하고 복잡한 때에는 선전이라는 수단이 외교 술책 상 범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어서, 일본도 천지에 부끄럽지 않은 국시 정신을 대외적으로 또한 한층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일본에 관한 정확한 인식의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시아 민족에게 일본의 진의를 인식시키고, 일본의 국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가장 의심을 받기 쉬운 처지인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이해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은 일본의 “만몽 진출” 문제일 것이다.

진출이라는 말의 의미가 일면 침략의 의미를 상기시키기 쉽다. 그러나 진출이란 어디까지나 진출이다. 일본의 국정이 이미 만몽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아울러 일본은 세계에 둘도 없는 천지 창조 신의 을 국체 정신으로 삼은 황도주의의 나라이다. 가능하다면, 전 세계를 사랑으로 가득한 낙토로 만들고자 움직이기 시작한 민족이다. 그래서 만몽 진출을 영토 확장, 제국주의적 확장 등으로 본다면 국시 정신에 대해 수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황도주의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두터운 윤리적 인도의 입장에서 옛날 우리 타타르 계 몽고족의 고토였던 만몽의 땅을, 동근혈족 일본의 선구에 의해 회복하여, “만몽은 몽고족의 손에”라는 슬로건 아래에, 몽고종족의 공존공영의 낙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

### (3) 황도주의의 선양과 동아시아 문화 건설

일본은 천지창조의 신의 길, 즉, 천지의 대도를 체현한 신으로서의 길인 황(皇)을 국체 정신으로 삼은 세계 비할 바가 없는 국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 국책이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은 황도 본의에 입각한 대창조·대진화의 방침이자, 무사대자(無私大慈)의 외교이며, 도의일관(道義一貫)된 태도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황도란 어떠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개벽(開闢)과 함께 발생하여 3,000년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야마토(大和) 민족의 발전과 함께 발달하여, 일본의 모든 종교·철학·교육의 근원 주체를 이루는 것으로,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도 필경 이와 같은 황도의 삼대 요소인 애(愛)·용(勇)·성(誠)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만몽진출은 시종일관 이와 같은 황도 본의에 입각한 국책 방침이어야 하며, 구미 제국의 패도적 침략을 맞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사해동포 공존공영의 애(愛)와, 국방 유지·동양 평화 고수의 용(勇) 과, 국제 협조·영토 불확장의 성(誠)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대 지역과 여러 종류의 민족 수 천 만 명의 창생(蒼生)을 가진 대만몽을 정조(整調)하여, 백귀주행(百鬼晝行)의 국제 마당을 무난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아시아 경륜의 태도는 오직 황도주의를 본체로 삼아야 한다.

만주제국의 국시 정신은 왕도주의이다. 이러한 왕도주의라는 것은 사실 한족(漢族) 황제(黃帝) 이후의 정치사상이며, 그 시대와 그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되었으나, 그 본원(本源)은 모두 왕도주의를 목표로 삼은 인정(仁政)을 내세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정치 이상을 이룬 왕도주의를 가리고, 중국에 수 십 차례에 걸쳐 이른바 역성혁명(易姓革命)이 반복되었으나, 단 한번도 진정한 왕도 정치가 실현된 적이 없다. 즉, 바라기는 하였으나 이루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왕도 문화가 황도(皇道)의 이름 아래 견실하게 실행되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왕도가 일본의 황도로 정제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황도이든, 왕도이든 그 목적하는 바는 하나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왕도가 지금은 만주에서 비로소 실현되고 있다. 황도와 왕도가 새로운 만주국에서 원만하게 교류하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가 건설될 것이다.

#### 4. 비상시 조선의 동향과 그 중대성

○ 삼대(三代) 9년째에 오는 것 — ○ 금화(金貨) 54억의 불경기 — ○ 폭풍 전야의 극동(極東) — ○ 전쟁 종언을 위한 전쟁 — ○ 조선인의 사상 전향 — ○ 1935년의 위기란? — ○ 우국(憂國)에 일본과 조선의 구별은 없다 — ○ 조선은 만몽 개발의 시험장 — ○ 조선은 대륙의 유두(乳頭)였다 — ○ 비수(匕首)와 열쇠 — ○ 아시아 문제는 조선 문제의 연장·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의 속담에 “삼대(三代) 9년째”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삼대와 9년째에는 어떤 시대에도 반드시 엄청난 위기의 시기가 온다는 속명적인 유언(流言)이지만, 나는 이를 일본의 오늘날, 즉, 쇼와(昭和)의 9년째를 맞이한 제국(帝國)의 현상과 연결 지어 생각하여, 묘하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후 다이쇼(大正) 시대를 거쳐 쇼와 시대 9년째를 맞이한 오늘날, 일본의 주위 흥 둘러싼 극동의 풍운은 역도(逆睹)를 허락하지 않고, 건국 이래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여, 다 믿을 수는 없는 이 속담, 우연이라고는 하여도 너무나 예언적인 부합에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 계급은 물론 주위의 견해에 따라 비상시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지만, 낯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영세민 계급 역시 이 막연한 속담의 흐름에 따라, 일본에 평소와는 다른 위기가 도래하였음을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이 일본에게 미증유의 비상시국이라는 관념은 조선에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으며, 민심에 커다란 충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비상시 조선의 내적 사정이 어떠한 동향을 보이는가 라는 문제는 일본 관민에게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하는 중대성을 가진 문제이므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돌이켜 보지 않은 채, 최근 조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세계의 불안과 조선 민심의 동향

막다른 길목에 들어선 자본주의 문명은 세계의 선진 제국(諸國)을 극단의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는 마치 화재 현장의 이수라장을 연출하고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대판도를 움켜쥐고 지구상에 군림한 대영 제국도, 각 식민지의 자주분해운동에 당면하여 점차 해가 지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 54억의 금화(金貨)를 독점하고 세계의 경제를 독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의 금융 기업 기관은 우르르 한꺼번에 무너지며 천 수 백만 명의 실업자를 낳아 세계 불경기의 원흉이 되고 있다. 나아가 유럽 제국(諸國)의 현상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린 궁지에 몰렸으며,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혼돈 상태이다. 그리고 무대 암전, 눈을 극동으로 돌리면, 만몽을 중심으로, 납덩어리와 같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폭풍 전야의 음울한 정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만주사변의 일대 파문은 세계 정국에 “상처에 소금 뿌리기”와 같은 자극을 주었다. 국제연맹의 무능함, 런던경제회의의 결렬, 군축 회의의 실패 등, 지금 국제협조주의는 근저에서부터 붕괴되어, 각국은 서로 경쟁하며 타살자활(他殺自活)의 자기 본위로 기울어 더욱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즉, 경제에서는 일국독영주의의 경제 블록 구획과 아울러 시장의 독점 경쟁, 군사에서는 국방제일주의(國防第一主義) 아래 군비의 대대적인 확장을 서두르고 있으며, 외교에서는 연형합중식(連衡合從式)의 동맹 결탁에 의한 대치·반목이 첨예화하고 있으며, 세계는 마치 유럽 대전 직전의 불안한 상태를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자제력을 잃고, 인류가 십수 년 전에 이미 경험한 최대의 불상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H. G. 웰스가 갈파하였듯이, “전쟁 종언을 위한 전쟁”을 서두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질식해 가는 가운데, 우리 조선의 장래를 위해, 나아가 일본의 장래를 위해, 흔쾌히 타협을 하지 않는 일은 종래 이런저런 문제시 되었던 조선의 일반적 대일(對日) 관심이 저 만주사변을 일대 전환으로 호전(好轉)한 사건인 만주 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인종외교(忍從外交)의 틀을 벗고 무엇보다 대대적으로 실력을 발휘하여 대외적으로 확실한 신념 아래 반석의 무게를 갖고 “천 만 명이지만 우리는 간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여, 결국 광영스러운 고립으로 나아가, 비로소 일본의 진면목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어, 종래 일본의 대만(對滿) 실력을 의심한 조선의 일반 민심이 이로써 오인을 일소하고, 종래의 방관적 태도에서 친일(親日) 태도로 전향(轉向)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을 입증하는 실례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이전 조선 전체에 만연하였던 공산주의운동 내지는 좌경단체에 가담한 청년들이 과감하게 그 사상을 버리고 전향하였으며, 근로 생활에 종사하는 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계급을 대변하는 민중의 신문·잡지의 논조·태도가 최근 현저하게 온건해졌으며, 발행 정지 혹은 발매 금지 처분이 매우 줄어들어 등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극동의 풍운이 급박함을 알려주는 가을, 제국(帝國)의 대내 문제의 일대 중요한 일로서, 적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조선의 일반 민심이 이처럼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제국에 깊은 우려를 없애주고, 내선융화의 도상에 빛나는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 (2) 조선 동포는 비상시를 어떻게 보는가?

일본은 만몽 생명선 사수를 위한 표면적 이유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심상치 않은 각오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비상 시기임을 알리고, 도처에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국가의 위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여기서 이른바 “위기”에 대한 해설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1935년,

즉 내년은 일본이 국제 연맹을 탈퇴한 지 만 2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국제 연맹에 대한 의무가 완전히 해소된 셈이지만, 이 일로 인해 재연될 위험이 있는 일이 남양제도(南洋諸島) 위임 통치 반환 문제이다. 남양제도는 태평양 작전을 위해 중요한 지점인 만큼 이를 목표로 영국·미국·그 밖의 국가가 예상외로 강경하게 나올 지도 모르며, 또한 제2차 워싱턴 회의에서의 건함(建艦) 제한율의 토의와, 중국의 만주 문제 재제의(再提議)에 따라 회의가 결렬되어, 영국·미국 공동 행동의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르며, 영국의 식민지 경제 블록 결성으로 일본 제품의 판로 봉쇄를 받을 우려도 있으며, 또한 미국의 해군 대확장은 공산 러시아의 제2차 5개년 계획 완성과 아울러, 일본을 협공하여 극동 진출을 시도함과 동시에, 중국은 집요하게 원교근공(遠交近攻)의 망국정책(亡國政策)을 반복하여 일본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책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난관이 잇달아 가로 놓여 있어, 일본은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화구 위에 앉아 있는 양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 존망의 가을에 당면하여, 우리 조선인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를 맞이할 것인가? 비상시의 경종을 울리며 국민의 각성·분기를 촉구하는 것 외에, 조용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다. 극히 소수의 불평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중은 이미 일본 없이는 조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일본과 조선 상호의 안녕·행복을 바라며 비상시 국민의 의무에 따르려는 각오여서, 털 끝 만큼도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과 조선 동포는 작은 이해 감정에 연연하지 말고, 규격화된 잣대를 집어 던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이해하여 내란의 우려가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극히 일부분의 과격 분자를 들어 조선인 전체를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 오히려 국가의 비상시를 불온 행동 계획에 나서게 기회로 삼는 비국민적 일본인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자에게 일본과 조선의 구별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하게 될 일찍이 없었던 폭풍을 맞으려는 백련(百鍊)된 쇠처럼 굳은 결심과 각오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 (3) 대 아시아 건설의 위한 조선의 중대성

조선은 일본에게 대륙으로 가는 비석(飛石)이다. 일본의 대륙 진출은 아무래도 조선을 거쳐 가야 하는 것임과 동시에, 대륙 경영도 조선에서 그 경험을 얻어야 한다. 화산 위에서 길러진 성급하고 직설적인 민족성으로는 무한한 광야에서 양을 쫓으며 생활해 온 대륙 민족과 당장 융화·제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울러 반대륙성(半大陸性)을 가진 조선 민족과 접근함으로써 비로소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단지 조선 민족의 민족성만이 아니라, 기후·풍토·그 밖의 자연적 조건과 풍속·습관 등의 사회적 조건도 조선을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만몽 개발의 시험장이며, 만몽 진출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몽을 생명선으로 보는 일본에게 조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만이 아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조선을 통해 대륙 문명을 흡수하였으므로, 대륙을 어머니로 비유하고 일본을 유아로 비유한다면, 조선은 바로 어머니의 젖인 셈이다. 또한 일본을 호리병으로 본다면 조선은 그 주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조선을 통해 대륙 문명을 흡수하여 점차 성장을 하던 와중에, 대륙의 유두(乳頭)를 물고 있는 것만으로는 결국 영양 부족을 느끼게 되어, 마침내 두 손을 뺀 좌우에서도 서구 문화를 섭취하여 세계 어디와도 비할 데 없는 포용력과 동화력을 가지고 마치 해가 떠오르는 기세로 발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일은 메이지 중반에 이르러, 조선은 일본에게 이미 어머니의 유두가 아니라, 어느 새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일본의 목을 죄려고 하고 있는 비수가 되어 버린 일이다. 즉, 조선은 일본에게 대륙 진출의 비석이 될 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급소를 찌르는 비수가 될 지 갈림길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결과, 위협이던 비수를 만몽 개발의 열쇠로 만들어 냈다.

지금 조선은 만몽 천고(千古)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다. 그리고 조선인은 그 열쇠를 가진 자이며, 만몽의 파일렛이다. 생가건대, 조선인이 일본 제국에게 귀중한 존재라는 것은 이로써 가치를 부여받았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광활한 전(全) 아시아적 입장에서 조선을 보면, 근세에 이르러 소약해지고 부진을 겪는 아시아 민족 중에서 동방의 해가 돋는 기세로 융성한 유일하게 선택받은 일본 민족의 손에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가 뭐래도 조선이다. 그리고 일본은 황도주의의 기치 아래, 대 아시아 건설의 선구자였던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각 민족은 내심 각자 조선을 주목하고, 일본의 조선 통치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입에 틀림 없다.

이른바 조선은 전 아시아 민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대에 올려 졌으며, 일본은 주위의 신용을 걸고 메스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그 치료 결과가 따라 각 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만몽 내지 아시아 문제도 결국 조선 문제의 연장·확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대 아시아 국책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사실 조선 문제라고 하여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만주사변이 직접적인 전기가 되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의 민심도 호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의 위정 방침도 획기적인 비약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대 아시아 건설을 위해 조선의 중대성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상시 조선이 조선 통치의 획기적인 비약을 바라 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정책으로 이에 응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는 다음 장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5. 만몽문제의 기간(基幹)인 조선 문제

○ 대만(對滿) 국책의 초점을 조선에 두어라 — ○ 동양 평화를 위해 희생된 조선 — ○ 한일병합의 참된 정신은 양국 대제(大帝)의 하해(河海)와 같은 마음 — ○ 서로 색안경을 벗자 — ○ 조선 통치를 세 시기로 나눈다 — ○ 제1기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선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 — ○ 제2기는 산업방면의 대약진 — ○ 조선의 어두운 면 — ○ 조선인에게 빵을 주는 신념의 인물 — ○ 제3기는 적극 정책 시대 — ○ 농촌 구제의 근본책 — ○ 조선 산업의 진흥책 — ○ 국민 의무의 균형 — ○ 문맹 퇴치의 길은 의무 교육 제도 실시 — ○ 사상 선도는 청년의 훈련부터.

나는 앞 장에서 만몽 문제는 결국 조선 문제의 확대·연장이라고 단언하였는데, 조선은 그 지형을 보면, 일본에게 만몽으로 가는 다리이며, 북선(北鮮) 지방은 만주와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지질·기후·풍토 등의 자연적 조건이 대략 유사한 관계로, 조선의 주민은 만몽의 자연에 쉽게 적응하는 선천적인 체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만몽 개발의 개척자이다. 게다가 조선의 민족성은 일본인의 섬나라 사람의 기질인 협량(狹量)과 분화산 같은 성급함과, 또한 만몽인의 대륙적 우둔함과 사막 같은 황량함을 절충한 그 중간의 성향이므로, 일본과 만주 융화의 매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섬 나라의 껍질을 벗고 대륙 진출을 시도하여 가장 먼저 손을 댈 곳이 조선이므로, 조선 통치의 성공 여부는 일본이 대륙 국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실력 내지는 자격을 판단하는 시금석이자,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실력을 묻는 시험장이어서, 조선의 정치적 중대성이 부가되는 것이다.

이는 즉, 만몽 내지 아시아 문제 역시 조선 문제의 확대·연장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대만(對滿) 국책의 초점은 조선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조선 통치에 관한 문제를 극히 개념적으로, 더구나 세상에 혼한 편견과 비방, 혹은 아부와 아침은 내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아주 솔직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1) 한일병합이 가진 참된 정신의 재인식

조선은 단군(檀君)의 개국 이래, 약 4200여 년 동안, 동부 아시아의 풍운아로서, 우여곡절의 변천이 많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유수의 민족이라는 점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가 한말(韓末)에 이르러, 추양낙적(秋陽落寂)의 비운 속에 동아시아 풍운의 희생자가 된 지 이제 20여 년. 가만히 그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도저히 조선인이라면 알 수 없는 희비의 교차에 따른 감개가 가슴에 가득 차 온다.

한일병합의 참된 정신을 지금 조용히 반추해 보라! 당시 어선문(御宣文)을 받아 조선 2천 만의 백의 백성들은 모두 제국의 신민으로서 폐하의 적자로서 일시동인의 은혜를 입고, 제국과 함께 더욱 번영·발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메이지 대제의 크신 마음은 당시 동양 평화의 암이었던 조선을 병합하시어,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2천 만 백성까지 폐하의 적자로서 대자무사(大慈無私)의 황을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옛 한국 황제의 예려(叡慮)를 받아, 당시 동아시아 정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메이지 대제의 성려(聖慮)에 찬성하시어, 태공전하(太公殿下)로 예우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호의까지도 거절하시고, 일신상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2천 만 적자의 차별 없는 보호가 있기만을 바라셨으며, 매우 겸손한 조건 아래 한일병합이라는 역사적 대업이 불과 2주간의 두 차례 대표 회견에 의해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는 것도, 당시 두 분 폐하의 크신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였는지를 엿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근합체(桑椹合體)의 진의는 사실 이처럼 현명하신 두 분 폐하의 크신 마음에 있다.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은 천지와 함께 변하지 않을 이 크신 마음으로 서로 애·융화의 황금율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은 도저히 일본의 품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민(棄民)이다” 하던가, 혹은 “일본은 조선을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적 식민지의 착취 정책에 따라 억압하고 있다” 등, 일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경솔하고 건전하지 않은 불평이 오가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이들은 모두 그 일면만을 보고 있는

피상적인 속단이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억측이다. 세상 물정은 그 태도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보인다. 처음부터 불손한 색안경 너머로 보면,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되어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도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선결하여야 할 문제는 천 마디 만 마디 말로 내선용화를 주창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색안경을 벗는 일이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솔직한 모습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상근합체의 목적은 도저히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 (2) 조선 통치의 회고

1910년의 한일병합 이후, 일본 통치 하의 조선은 어떠한 도정을 지나왔는지 회고해 보면, 먼저, 총독 정치가 실시되어 오늘날까지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일 병합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던 1904년부터 1906년까지의 보호정치시대와, 1906년부터 1910년 병합까지의 통감부 시대 등 6년 간의 일도 논해야 하겠지만, 본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 ① 제1기 : 무단정치시대(데라우치(寺內)·하세가와(長谷川) 총독(總督) 재임기(在任期))
- ② 제2기 : 문화정치시대(사이토(齋藤)·야마나시(山梨) 총독 재임기)
- ③ 제3기 : 적극정치시대(우가키(宇垣) 총독 재임 이후)

즉, 제1기 무단정치시대란, 한일병합의 참된 정신이 아직 조선 전체의 민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각지에서 의병(義兵)이 봉기하여 폭동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본으로서도 아직 마음을 놓고 잠을 청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어쨌든 실력으로 억압해 놓는 것을 가장 안전한 방책으로 여긴 데라우치·하세가와 총독 시대를 말한다.

제2기의 문화정치시대란, 유럽 대전의 결과, 미국 대통령인 윌슨의 제창에 따라 봉화를 올린 세계 민족 자결주의의 조류가 조선에도 흘러 들어와, 1919년의 이른바 만세 소요 사건을 야기한 직후의 조선에 처음으로 조선어 출판 인가제가 실시되었고, 문관대검(文官帶劍)이 폐지되었으며, 지방행정구에 평의 원회를 마련하여 지방 자치의 기초를 형성하였고, 문화 사업을 조성하는 등 무단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전환된 사이토 총독 재임 시기를 말한다.

제3기는 임시로 적극정치시대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이 아시아로 적극적 진출의 불을 당기었으며, 그 반영으로 조선인의 국민적 각성도 일대 전향을 보여, 위정자도 민중도 모두 적극적으로 분기하여야 할 비상시로 나아가는 우가키 총독 재임 이후를 말한다.

제1기의 무단 정치는 조선 말엽의 사대적 굴종의 비정(秕政) 아래 민족적 거세의 파탄을 불러, 산은 메마르고 들은 황폐해져, 팔도가 황량한 폐허처럼, 민심은 쇠잔하여 자포자기 하게 되는 당시의 정세로서는 민심 쇠신을 위해 어느 정도 강력한 정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 특징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러한 노력은 조선인에게 새로운 시대에 눈 뜨게 하여 직접적 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민족적 각성의 수준이 상승함과 동시에 시대의 요구는 조선 민족에게 언제까지나 무단 정치 아래 두는 것을 만족하지 않게 되어, 1919년의 만세소요사건을 전기로 하여 정부는 조선에 문화

정치를 전개하여 당시 시대적 요구에 답하였다.

과거 21년 동안(1910년부터 1931년까지), 무단 정치·문화 정치 라는 두 시대를 거쳐, 일본은 조선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 왔는가?

먼저 교육 사업에서, 보통학교가 1973개 교(校), 중등학교가 180개 교, 전문학교 이상이 15개 교(이상 모두 관공사립 합계 — 1931년 말 현재), 언론 보도 기관 분야에서, 신문이 39종(이 가운데 조선인 경영은 6종), 통신이 9종(조선인 경영은 없다) 합계 66종(1931년 말 현재)이다.

산업 방면에서는, 농업 투자 총액이 1억 1,500여 만 원(1932년 현재), 쌀 생산액이 1910년의 1,040만 석에서 1931년에는 1,587만 석으로 증가하였으며, 임업의 식재면적(植栽面積)이 한일 병합 당시에 비해 23배나 확장되었으며, 광산액이 3,005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공업에서는 3,840개의 공장(1923년 현재)이 4613개(1931년 현재)로 증가하였다. 생산고는 한일 병합 당시의 약 9배인 2억 7,500여 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교통 사업에서는 도로망이 25,000킬로미터(1931년 현재)를 완성하였으며, 철도는 2,790킬로미터(1931년 현재)를 연장하여 1900년의 약 100배에 달하며, 또한 무역액은 한일 병합 당시의 10배 이상인 5억 3,200여 만 원(1931년 현재)으로 약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세출입 예산에서, 한일 병합 당시를 100으로 하여 그 증가 지수를 살펴보면, 1919년은 564, 1931년은 664로, 불과 21년 동안에 조선의 세대(世帶)는 거의 7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아주 대략적인 수치만으로는 엄청난 템포로 근대적 자본주의 권내로 약진해 가는 조선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으나, 다만 조선이 과거 21년 동안에 각 방면에서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를 말해주는 편린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이 정도로 발전한 조선에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이면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① 농업 파산자의 속출(농촌 파괴).
- ② 실업자 범람.
- ③ 사상범 급증.

①에 대해서는, 조선 산업 총생산액의 64%가 농산물이고, 총인구의 82%가 농업 종사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조선은 농업에 운명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농민의 80%가 영세농 계급(소작농 및 소작 겸 자작농)이므로, 이들 영세농 계급은 사실 조선 통치의 중대한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울러 1927년도 상반기의 당국 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파산하여 눈물로 고향을 떠나는 자가 실로 15만 112명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민중 자체가 농촌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그 중요한 내적 요인 중 하나이겠지만, 위정 당국이 도시 중심주의에 편중하여 조선 농촌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이 중대한 외적요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②에 대해서는, 실업자 총수의 정확한 조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최근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결과를 아래에 열거해 보겠다.



조선 실업자 통계표 (부읍면(府邑面) 의 거주자에 한한다)

업태별	실업자 수	백분비(百分比)
급료 생활자	197,826명	14.5%
일용노동자	623,711명	45.6%
기타 노동자	545,906명	39.9%
계	1,367,443명	100%

농촌 지방의 주민을 제외하고 부읍면에 거주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조선총독부가 그 전(全) 기능을 발휘하여 본격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업자의 총수가 놀랍게도 1,367,443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확인하였다. 그 중에 급료 생활자(지식계몽시대의 조선에서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들이므로 지식 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 실업자가 197,826명이라는 사실은 개탄스러울 정도이다. 현재 조선 전체에서 초등학교 졸업자는 약 40만 명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지식 계급의 50%는 실업자라는 말이 된다. 사실 조선 당국의 일본인 편중 인사 정책은 지식 조선인에게 큰 위협이다. 지식 조선인 계급의 현실을 타개하는 일이 앞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③에 대한 고등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별표와 같이 1927년의 수감자 814명이 5년 뒤인 1931년에는 1,593명으로 2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감 사상범과 잡범 증가 비교표

연차	사상범 수	사상범 지수(指數)	잡범 수	잡범 지수
1927년	814명	100	12,948명	100
1928년	1,016명	125	13,248명	102
1929년	1,241명	152	14,656명	113
1930년	1,384명	170	15,848명	122
1931년	1,593명	196	15,766명	122

위에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일반 잡범은 5년 동안(1927년부터 1931년까지)에 22% 증가하였는데 반해, 사상범은 96% 증가를 보이고 있다. 조선의 사상범은 다른 범죄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본래 이는 복역자만을 계산한 것인데, 사상 범죄 혐의로 검거된 자 내지 면소된 자를 계산에 넣으면 매년 천 수 백 명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조선의 사상계는 이를 통해 보아도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엿 볼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종래의 사상 대책은 너무 소극적이며, 단속에만 편중되어 선도라는 적극적인 방법에는 거의 힘을 쏟고 있지 않는 결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인들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삼대추세는 오직 조선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며, 최근 세계 각 국 공통의 고민거리이며, 이로 인해 조선 통치를 이러쿵저러쿵 비난할 일은 아니다. 우리 조선의 변명과 민중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도 민중도 모두 함께 협력하고 분발하여 나아가야 하는 중대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농촌의 진흥·실업자 구제·사상의 선도는 제3기에 남겨진 숙제이다.

### (3) 조선 통치의 제3기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만주사변은 일본 역사상 실로 일대 획기적 시기를 낳는 동기가 되었다. 이를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외적으로는 재만 조선인에게 갱생의 여명을 가져왔으며, 내적으로는 2천 만 민중의 친일감을 높이고 내선융화에 광명을 가져온 것이다.

이를 일본 전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적으로는 국민의 대만(對滿) 관심을 높여, 애국 정신을 한층 견고히 하였으며, 외적으로는 일본의 세계 진출의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아가 이를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문화의 세계적 웅비를 보였으며, 동아시아 민족의 각성을 의미하며, 태서(泰西) 문명의 실각을 촉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우리 우가키(宇垣) 총독이 만주 사변이 한창이던 때에 조선에 부임하던 도중에 조선 통치의 정신을 토로한 말을 기억하고자 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인에게 빵을 줄 것이다”라고 천명하여 의미심장하게 조선 통치 제3기를 맞았으며, 적극적 수단을 발휘하겠다는 비상시 총독으로서의 신념으로, 나는 이에 일찍부터 탄복하였다.

그렇다면, 제3기는 어떠한 정책을 특징으로 삼아야 할까?

즉, 적극적 정책, 오직 이것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종래 통치 노력으로 백척간두 일보나아가, 제2기의 정세를 제압하고, 가난한 조선·실업의 조선·무지의 조선을 바닥부터 고쳐 나가기 위해 열성적인 관민의 협력, 이것을 제3기의 특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총독부에서 계획을 발표한 산업 경제 방면의 플랜 실현은 물론이지만, 나는 또한 진일보하여 조선 경제계의 근본적 재건과, 내선융화의 실현을 철저히 단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3기에 부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시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① 대규모 자작농 창정(농촌진흥의 근본책)
- ② 조선의 상공화(조선분위의 산업 정책)
- ③ 징병제 실시(국민의무의 평등)
- ④ 의무교육 실시(문명퇴치의 근본책)
- ⑤ 청년훈련연맹 결성(사상선도의 조직적 강구책)

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은 총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며, 산업 총생산고의 60%가 농산물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조선은 그 민족도 경제도 모두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본주의의 침투로, 대자본의 토지 겸병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작농의 토지 상실과 소작농으로 전락, 소작농의 파산에 따른 노동자 내지 실업군으로 전업·타락 등의 추세가 더욱 가속이 붙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의 붕괴를 말해 주는 것이며, 농촌의 붕괴는 조선 전체의 파멸을 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선의 경제와 문화는 모두 농촌이라는 기초 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선 농촌은 수술이 늦어져 병이 중중에 빠진 감이 있다. 서둘러 자력 갱생을 도모하고 부업을 장려하며 근검절약을 권장하고, 혹은 소작령을 제정하여 각종 조합을 설치함으로써, 물론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있겠지만, 빈사 상태의 중환자를 깨울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

때에는 크게 영단을 내려 근본적으로 대대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즉, 농촌의 근본적 진흥책으로서 가능한 한 법령을 제정하여 토지 겸병을 제한함과 동시에, 현존의 금융기관을 개조하여 국영으로 바꾸고, 저리로 농토 구입비를 융통하여 대규모 자작농 창정의 일대 사업을 전개하며, 한편으로는 부락 단위의 협동조합(協同組合)을 조직하여 생산과 판매 및 구매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상공업자의 폭리를 없애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② 조선이 농업국이라는 것은 현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 내에서 자급자족을 하던 쇠국시대는 몰라도, 현 단계와 같은 자본주의 자유경쟁의 세상에서 농업 국민은 오로지 상공업 국민의 착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필경 그 앞길에는 끝없는 빈곤이 가로 놓여 있을 뿐이다.

여기서 살펴보면, 조선 빈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조선이 빈곤의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선의 상공화” 뿐이다.

조선에는 무진장한 전력이 있고 석탄이 있으며,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다. 조선의 주변에는 일본·만주·중국과 같이 큰 시장이 있다. 조선인은 방적도 할 수 있고 제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인도인의 일용품도 만들 수 있고 일본인·미국인의 기호품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 자체의 각성·분기·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는 당국의 일본 본위 산업 정책을 완화 또는 포기하고, 조선 본위의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성의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조선의 공업화를 일본 공업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협하게 여기고 조선을 영원히 일본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만들려는 것이 일부 일본인의 생각인 듯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을 식민지로 보는 편견으로, 장차 유구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일본 자체의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조선 경제의 파멸은 일본 상품의 구매력을 줄이거나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을 영구히 “빈곤의 지옥”으로 버려두는 것은 일본이 스스로 자신의 왼팔을 자르는 것과 같은 타격을 주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을 절대적 자주 경제 단위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본과 조선 본연의 불가분의 관계에 비추어 원래 찾아야 할 것은 아니지만, 조선과 일본 경제 블록권 내에서의 독립 경제의 한 단위로 만드는 일은 충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징병제 실시에 대해서는 각 방면에서 찬반의 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결국 이를 조선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유력한 의견이다. 아울러 제국 신민의 삼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징병 의무를 조선에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천 마디 만 마디의 미사여구로 내선용화를 주장한 점에서 볼 때 휴지조각일 뿐이다. 어떻게 국가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않는 자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온전히 부여될 리가 없으며, 따라서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국가에 받치는 충성스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우리 조선인에게 진정한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에 그들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 조선인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다 할 때 스스로 일본 국민으로서의 일시동인의 황은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의무를 온전히 다 하여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에 징병제 실시를 요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신을 살펴보면, 조선 청년은 그 언어·동작·생활·체격·심리·사상·교육 정도 등의 여러 사항에서 일본 청년에 비해 훨씬 열등하다고 하는데, 이는 내 경험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털(毛)을 보고 말(馬)을 짐치다”와 같이 지레짐작한 면이 있다. 무기력·무풍대(無風帶)의 농촌에서, 종래의 무감각한 인습에 사로잡혀, 투쟁 의식을 거세당한 무지한 농민의 자제는 목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인습의 굴레를 끊고 현대적 공기를 호흡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받은 발달한 청년 학생은 일본 청년과 비교해 아무런 손색이 없지 않은가? 당분간은 이러한 청년층을 표준으로 삼아 지원병제를 시행하여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좋다.

한 발 양보하여, 조선 청년에 다소 뒤떨어지는 점이 있다고 하고, 일본과 조선의 청년이 완전히 동일한 수준에 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현재의 비상시에 비추어, 우선 지원 병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지원병 제도라고 하여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길은 가까운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만주에 조선인 의용군(義勇軍)을 편성하여 이를 실지에서 훈련하고, 한편으로 조선 내 각지의 청년훈련소를 조선 청년에게도 개방하여 의용군 단원으로 양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의용군의 성적에 따라 어느 시기에 달하면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병제 실시의 성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순서로서 가장 적당한 방책으로 생각된다.

④ 오늘날의 이른바 문명국가는 모두 그 나라의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일본은 물론, 중국도 가까운 시일에 이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일등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일부인 조선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인도적 내지 정치적 모든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농촌을 개량하기 위해서도, 조선의 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혹은 징병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의무 교육의 실시는 실로 긴급한 기본적인 큰 문제이다.

조선은 실로 교육 기근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학령 아동의 20% 취학률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조선총독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1면(面) 1학교(學校)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조선 전체 2,469개 면에서 학생 총수가 198,000명(한 학교 수용 평균 260명으로 계산하였다)이며, 교우 학령 아동의 28%만이 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맹 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조선 전체의 문맹자 수에 대해 다방면의 조사를 종합하여 백분율을 내 보았다.

조선 전체 문맹자 인구와의 대비표

도별	문맹자 전 인구에 대한 비율	도별	문맹자 전 인구에 대한 비율
경기도	67.5%	황해도	74.6%
충청남도	77.4%	평안남도	78.5%
충청북도	80.4%	평안북도	79.5%
전라남도	79.1%	함경남도	81.2%

전라북도	77.7%	함경북도	81.5%
경상남도	77.8%	강원도	82.6%
경상북도	78.4%	평균	78.2%

비고)

- 1) 여기서 문맹자란, 언문(諺文) 및 가나(假名)를 모르는 자이다. 따라서 언문 혹은 가나 중에 어느 하나를 알고 있으면 문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2) 경기·충남 및 충북 등 삼도(三道)는 1930년의 국세(國勢) 조사에 따른 것이다.
- 3) 전남·전북·황해 등 삼도는 언문신문(諺文新聞)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 4) 극 밖의 각 도는 위의 조사에 준해 필자가 추정한 것이다.

위에 제시한 표는 물론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도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오늘날 조선에서의 문맹자가 전체 인구의 78%라는 것을 상정해 보아도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라! 문명인의 치욕, 전체 조선인의 78%가 문맹이다. 그리고 현재 학령 아동의 20%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조선은 교육 기근이라는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구제하는 길은 오직 하나, 의무 교육 실시뿐이다. 교육 기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상하여야 하는 일인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당면 문제 중 가장 초미의 급무일 것이다.

⑤ 사상 국난으로 시끄러운 오늘날, 특히 조선에서는 사상범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더구나 매년 놀라울 정도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을 하여야 할 문제이다.(앞 항(項)의 표를 참조)

그런데 앞 항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국자는 종래 사상 단속에 크게 주의를 기울였던 데 비해, 이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데에는 그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그 증거로서, 현재 조선에는 조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사상 선도 기관이 없다. 일본의 청년훈련소와 같은 강력한 수양 단체를 당국의 후원으로 조선 전체에 조직망을 구축하여, 준군대식(準軍隊式) 단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착실강직한 심신을 연마하여 충효보국의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의 중견 인물을 육성하며, 사상의 악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불온 사상을 극복하여 이를 축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는 뒤에서 언급할 의용군의 제정(制定)과 함께 지원병 제도 혹은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 작업이 될 조선 청년훈련감(가칭)과 같은 조직은 때가 때인 만큼 당국자의 현명한 배려를 촉구하는 문제이다.

이상 언급한 것과 같은 몇 가지 요망은 본래 제3기에 이루어야 할 사업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민중 자체 내에서 아주 서둘러 실시되기를 기다리는 긴급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조선이라는 것을 단지 일본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차별적 시정을 개혁하고, 일본과 조선의 유형무형의 장벽을 제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평등해져, 명실공히 일시동인의 황은이 널리 미치는 날이 바로 상근합체(桑椹合體)가 성공하는 날이다. 바라건대 제3기여! 조선에 갱생(更生)의 행운을 가져다주기를!

## 6. 만주제국 내의 조선인 문제

○ 적(籍)이 없는 일본 국민이 50만 명 — ○ 선농의 특수 입장 — ○ 전작(畑作)은 만주인이 독점 — ○ 전전(田畑) 양작(兩作)의 가부(可否) 문제 — ○ 당분간은 수전(水田) 일작(一作)으로 진행하라 — ○ 조선인 사상운동은 반만군(反滿軍)의 한 세력 — ○ 책진회(策進會) 전성 시대 — ○ 양파(兩派) 항쟁 시대 — ○ 반제 동맹(反帝同盟) 대두기 — ○ 만주사변 후의 사상운동의 경향 — ○ 독립공산당의 죄악 — ○ 사상도 역시 유행병과 같다 — ○ 예방주사가 최고 — ○ 조선인 무장화 — ○ 안전농촌의 좋은 결과 — ○ 일본인 20만 명은 불안하다 — ○ 만주국의 국경을 지켜라 — ○ 일본인은 만철(滿鐵)의 상아탑을 나와라!

만주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지금 그 정확한 실제 수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저 광대한 지역에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흩어져 살고 있고, 만주사변 전에는 옛 동북 관현의 박해와 추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주인으로 위장하는 자가 많았고, 혹은 귀화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 이주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1909년, 조선에서 신민적령(新民籍令) 발표이전에 이주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기이한 존재이므로, 앞으로 만주국의 치안을 공고히 하여 국적법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으면 그 실제 수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재만조선인은 적어도 10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측이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의 조선인은 조선 자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아시아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존재들이므로, 여기서 그들의 근황과 이에 대한 비견을 잠시 언급한다고 하여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옛 동북군정시대의 조선인 문제는 지금 박해·추방·유린과 같이 피와 눈물로 일관한 비참한 추억에 불과하다. 왕도낙토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날의 만주에서 쓸데없이 과거의 가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어 우울해지기 보다는, 현재의 자기를 돌아보고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어리석음보다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 더욱 긴요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과거의 일은 새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 (1) 재만 조선인의 갱생과 미작 문제

공산 러시아가 낳은 세계 인류 역사상의 죄악, 그것은 일찍이 추방 민족 유태 민족에 의해 기록된 한 대목의 슬픈 역사가 20세기인 지금 백인계(白人系) 러시아인에 의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이다. 만주에는 10 수 만 명을 헤아리는 이들 무적민(無籍民)들이 이미 잃어버린 그들의 시대를 지금 다시 꿈꾸면서 집시의 슬픈 곡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만주에 50만 명을 헤아리는 백의의 무적민이 전자와 함께 떠돌면서 이중주곡을 연주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실에 걱정을 하면서 주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전자(前者)에 대한 공산 러시아의 정책적 압박과 주구 뿐만 아니라, 후자에 대한 옛 동북장가군벌(東北張家軍閥)의 폭력무도한 박해는 아마도 세계에 그 예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의·인도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인간 사회에서, 천인공노할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일이 언제까지나 통할 리가 없으며, 이 조선인 폭압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일본군이 분기하여, 과거 20여 년 동안 만몽 3,000만 민중의 고혈을 착취한 장가군벌을 모조리 만몽 천지에서 제거하였으며, 지금은 왕도낙토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재만 선농의 특수한 입장이 점차 이해를 얻으면서, 최근 만주국·관동군·조선총독부 삼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조선인 이식·보호·구제 및 지도에 관한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고 있어, 우리 재만 동포의 갱생에 빛이 드리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농의 특수한 입장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동포의 만몽 이주를 객관적 사정에 따라 귀납하면, 주로 농촌에서 생활할 방도가 없어 좌절하여 죽음을 기다리다 못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온 사람들로, 이제 돌아 갈 고향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만몽 땅에 뼈를 묻어야 하는 절박한 경우와, 주관적으로는 만몽 개발의 제일선에 두어야 할 천품과 소질(즉 수전작(水田作)의 특기와 벽지 개간의 근성을 말한다), 등이 두 가지 사정을 들 수 있다.

만주에서 수도(水稻) 재배를 시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남만(南滿)의 통화(通化)·관전(寬甸) 지방에서 조선인이 벼농사를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지금까지 눈물어린 고군분투 속에 개간된 수전 경작지는 실로 58,000정보(만주 전체 수전 경작지의 57%)에 이르며, 연 수확량 83만 석(만주 전체 수확고의 78%)을 차지하며, 만주 쌀의 어머니로서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77,000여 평방리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진 만몽에 75,000여 정보의 수전 경작지라면 새 밭의 피일 지도 모르지만, 본래 거의 전부가 수전 경작지가 아니라, 중국인이 “초전지(草甸地)”라고 부르며 돌아보지도 않던 저습벽지(低濕僻地)를 중국인 지주에게 단기 계약으로 상조(商租)하여 개간하였으며, 더구나 점차 수전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더욱 고율의 소작 계약이 체결되어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나아가 주위의 비도(非道)한 학대에 견디며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천신만고를 맞보면서도 더욱 부지런히 경작한 땅이 현재 만주 전체 수전의 거의 전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농의 토지에 대한 이와 같은 뜨거운 집착력, 이것이 바로 만몽 개발을 위한 최적의 천품(天稟)이 아니겠는가?

봉천(奉天)·길림(吉林) 등 두 성(省)의 수전 가경지(可耕地)가 586,845 정보(1912년, 농상무성(農商務省) 기노시타(木下) 기사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나 된다고 할 정도이므로, 국가의 통제력을 기울여, 지도·보호·장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오래 걸리지 않아 오늘날의 2배 혹은 3배의 경작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재만 선농 중에서 간도(間島) 지방에 사는 거의 전부는 함경남도·함경북도 출신인데, 간도 외에 오만주(奧滿洲)에 흩어져 사는 농민은 남선인(南鮮人)과 북선인(北鮮人)이 반반이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조선의 수전업은 남선이 본고장이며, 따라서 수전 기술은 남선 농민이 아주 뛰어난 편이다. 이는 만주에서도 비교적 수전업이 왕성한 지방에 남선 농민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북선 농민은, 조선인 모두 전작 방법에 뛰어난 편이지만, 만주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 그들의 자신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만주에서는 중국인 농민이 모두 전작에 종사하고 있어, 그 가경지 대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 전작을 위한 가경지를 얻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인이 기피하는 수전업에 나섰으며, 남선 동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치가 없는 황무지를 개척하여 중국인 지주에게

“선반에서 목단병(牧丹餅)”을 얻는 이득을 가져다주었던 셈이다.

따라서 간도 지방과 같이, 주민의 80% 이상(약 45만 명)이 조선인 이며, 전 경작지의 반 이상(약 10만 정보) 가 조선인의 소유지인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면, 만몽이 넓다고는 하지만 동포의 손으로 경작된 전작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을 전작에도 진출시켜 논밭 경작 모두를 경작하도록 하여야 할까? 혹은 종래 대로, 수전작에만 힘을 쏟도록 하여야 할까? 라는 논의를 자주 듣지만,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 ① 전작은 수전작보다 농경하기가 쉽다.
- ② 전작은 윤작(輪作)이 가능하며 농가의 수입이 많아진다.
- ③ 수전작에 편중된 결과, 만주 쌀이 격증하게 되면 일본의 생산 쌀 과잉과 중복된다.
- ④ 일종작(一種作)만으로는 농민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며, 장래 한계(漢系) 농민에게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

후자(後者)를 주장하는 의견을 열거해 보면,

① 수전 일종작은 농민의 대량 이식 통제에 간편하지만, 논밭 모두를 경작하는 것은 쓸데 없는 번거로움을 동반한다.

② 전작은 농경에 우마(牛馬)가 필요하며, 자본이 상당히 투입되지만, 수전작은 가래 한 자루에 몸뚱이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③ 일가(一家)의 생계상 전작은 적어도 5, 6 정보의 경작지가 필요하지만, 수전작은 1정보 내지 2정보만 있으면 충분하다.

④ 만주 쌀 증식이 일본의 생산 쌀 과잉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 생산 쌀은 터무니없이 격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과 만주 경제 블록의 국방적 견지에서 수전업의 융성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⑤ 만주국의 정치 공작의 측면에서 볼 때, “떡은 떡집에서”식으로 만주·조선 각 민족의 각각의 장점에 따라 수전업은 선농(鮮農), 전작은 만농(滿農)에게 맡기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나의 연구 입장에서 논단한다면, 국방 경제 정책 면에서, 혹은 만몽 대량 이민 계획을 실시하는 정책 면에서, 당분간은 수전 일작을 권장하며, 그 이유도 앞에서 언급한 후자의 의견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안정이 되고 나서 가급적 전작으로도 진출하도록 하기를 주장한다. 그 이유를 열거해 보면,

① 산이 적은 만몽의 농촌, 특히 온돌 생활을 하는 조선 농민에게 연료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비싼 땔나무와 석탄을 때는 일은 경제적으로 제한이 많다. 벚짚은 지붕을 잇는 데뿐만 아니라, 새끼줄·나팔·돛자리 등 조선 농민의 중요한 수공업의 재료가 되므로, 연료로 쓸 수도 없다. 게다가 전작



물의 경류(莖類)는 좋은 연료가 될 수 있으므로, 농민의 자급자족을 피할 수가 있다.

② 수전 일작은 벼농사가 잘 안 된 흉년이 들었을 때를 상상하면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수전작·전작 모두를 경작한다면, 그중 하나에 의지한다면 기근은 벗어날 수 있다.

③ 조선 지방의 농민도 그렇지만, 만주의 선농은 쌀 생산자이면서 가계를 위해 속(粟)·보리·대두(大豆) 등을 함께 먹고 있다. 즉, 쌀을 팔아 값이 싼 속·보리·대두 등을 사서, 그중에서 남는 돈을 1년 동안 생활 자금으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속·보리·대두 등을 스스로 생산하는 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이어서, 따라서 수전작·전작 모두를 경작하는 것은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만 선농의 진정한 발전은 수전작·전작 모두를 경작함으로써 비로소 촉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전작·전작 모두를 경작하는 것은 이민 계획 초기부터 실시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여 거의 배 이상의 자본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잠시 동안 이를 미루었다가 서서히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 (2) 사상적 환경과 선도 문제

우리 재만 동포의 이식 발전을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만주국의 치안 공작을 위해서도 암적 존재로 우려가 되는 반만분자가 함부로 날뛰는 것은 만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옛 동북계 군벌의 잔당·토착 비적(태도회(太刀會)·홍창회(紅槍會)·마적(馬賊)) 및 중국 공산당 등과 함께, 현재 반만·항일군(反滿·抗日軍)의 일대 세력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간도공산당(間島共產黨)·국민부(國民府) 및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 등의 조선인 무장 사상 단체가 있다.

만주는 이와 같은 조선인 사상 단체에게 최적의 활동 무대이며, 그들 세력은 놀라울 정도로 세력을 뻗히고 있어 앞으로 어떤 사태가 전개될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만주사변 발발과 함께 황군의 획기적인 대대적 소탕으로 그토록 창궐하던 그들도 거의 궤멸에 이르는 타격을 입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르러 중국공산당과 의식적으로 제휴하고, 또한 동북계 반만(反滿) 세력과의 협력하여, 잠행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듯하며, 이들 세력의 결합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다.

재만 조선인 사상운동은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 불과하다. 조선 말에 조선 전도(全道)를 뒤덮었던 미증유의 대기근은 북선인을 어쩔 수 없이 국금을 어기고 간도 지방으로 내몰아 갔던 것이다. 이 때 발각되면 가차 없이 엄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쇠국주의 정치를 저주하며 목숨을 걸고 만주로 건너가는 자가 속출하여 관현을 거슬렀다. 이처럼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불평불만에 그 출발이 있었다. 아울러 만주에 정치적 색채를 띤 사상운동의 역사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인 1910년 한일병합이 되던 해부터 시작되었다. 즉, 한일 병합을 거부하며 불만을 품은 불평분자가 몰래 만주로 들어가 동지를 규합하여 조선 독립을 획책한 것이 아마 그 효시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3, 4년이 흘러 1915년, 1916년 무렵에 이르러, 정의부(正義府)·신민부(新民府) 및 참의부(參議府)를 조직하여 요원(燎原)의 불과 같은 기세로 그 세력을 확장하여, 이른바 삼부 시대의 전성기(1920년 무렵)에는 그 세력 아래에 들어간 지방은 봉천·길림 등 두 성(省)에 40여 개 현(縣)에서 20여 만 호(戶)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정도이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완성되어 제3인터내셔널의 만주 잠입

에 따라, 그 새로운 이론에 빠지는 자가 각 부내에 속출하여, 결국 민족주의를 지키는 일파와 대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자는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며 양보하지 않아, 알력·반목이 이어지는 동안에, 삼부도 사분오열하여 와해되었으나, 각 부내의 공산계 분자의 활동에 의해 한 때 삼부를 합체·통일하여 국민부를 결성하여 세력 만회에 힘썼다. 그런데, 앞서 삼부를 탈퇴한 좌경분자의 결합으로 조직된 민족독립당 책진회(策進會)라는 조직이 점차 세력을 얻기에 이르러, 마침내 국민부 안의 공산 분자를……(판독불가)……하여 우세를 보였으며, 길림 지방에서 국민부를 남만 지방으로 밀어내 그 지방을 빼앗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만주 전체 조선인 사상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모두를 압도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 국민부 일파의 무력파는 옛 삼부 시대의 잔당을 끌어 모아 무장 혁명을 조직하여, 테러의 폭정을 휘두르며 책진회의 아성으로 쳐들어 갔으며, 이에 두 파의 항쟁 시대를 연출하게 되었다. 그 동안에 두 파의 협력·제휴를 책동하는 자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간부 암살·당원 살육 등을 되풀이 하여, 피범벅의 암투가 그칠 줄 모르고 서로 자신의 힘을 죽이며 자멸의 길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 중에서 주로 상해 방명에서 잠입한, 국제 계통(國際系統)의 공산주의자의 암약에 의해, 이른바 전만한인반제 연맹을 조직하여, 책진회 및 국민부의 탈퇴분자들을 규합하고, 만주 전체 운동계의 이론적 통일을 획책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책진회 및 국민부의 항쟁 청산을 책동하였으나, 공산당 자체가 이미 몇 개 파(ML당·화요회(火曜會)·상해파(上海派)·서운계 등)로 나뉘어, 모두 다른 파를 배척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적본주의(敵本主義)의 기치를 올리고 있었으므로, 갑론을박상태가 이어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상이 재만 조선인 사상운동 연혁에 대해 매우 대략적으로 그 내력을 살펴보았는데, 1931년의 중일 충돌과 함께 만주 전체에 황군의 대활동이 시작되면서 이들 사상 단체에도 일대파문을 야기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만주사변 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재만 조선인 사상운동은 그 색채가 분명해졌다. 즉, 만주국에 찬동하여 귀순한 자는 어려움 없이 오지에서 점차 나옴과 동시에, 한편으로 사상운동에 참여한 자는 독홀식(毒皿式)으로 극도로 불온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사변을 전후하여 간도공산당의 대폭동화는 이와 같은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고할 수 없는 것으로 러시아 령지방에는 조선인 적아대(朝鮮人赤衛隊) 및 기병대(騎兵隊)가 조직되었다는 점인데, 이들 적아대는 동북 만주 지방의 공산당운동의 활발한 정도에 비추어 그 배후에서 조정당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최근 언론신문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동만 지방의 조선인 부락에 있는 모든 단체(부인 단체 및 소년 단체까지)가 공산주의 지지를 결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보증할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 100만 동포의 그 사상적 환경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찍이(사변 직후) 오지에서 나온 피난민으로부터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을 들었다.

오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국 관헌·폭민(暴民) 혹은 마적 등의 박해도 받으면서, 독립당이라는 등 공산당이라는 등 하는 미명의 도적이 가장 무서웠다. 그들은 인가로 잠입하기 전에 주인의 유무, 가을 수확량의 정도, 저축 혹은 현금의 유무와 같은 그 집안의 사정을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조사해 놓고, 대개 심야를 틈타 두, 세 명이 무장을 하고 와서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가져가 1년 동안의 땀을 도루아미타불로 만들어 버린다. 더구나 마적이라도 왔다면 이튿날 즉각

관현에 고발하지만, 상대가 독립당이나 공산당인 경우에는, 대개가 그들의 복수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수가 얼마나 잔혹하고 집요하며 나아가 정확한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촌락의 청년들은 항상 입당을 강요당하고, 거절하면 생명을 위협 당하므로 전전공공하며 평안할 날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안하기 그지없는 사상적 환경에 처해 있는 재만 조선인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종래의 그 사상 대책은 단속에 편중되어 선도 방면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과연 조선인을 사상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사상이라는 것은 그 좋고 나쁨은 별 문제로 하고, 병균처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이다. 한 사람 입에서 나온 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몇 십, 몇 백 만 명의 뇌리에 쌓이는 것이다. 콜레라나 티푸스가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전염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콜레라나 티푸스가 유행할 때에 질환자의 수용이나 사후 처리를 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소독을 하거나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듯이, 나쁜 사상이 유행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취하여야 할 것이다. 검거와 처벌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온건한 사상을 고취하여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불온사상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재만 조선인에 대한 지도·교화의 조직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철권주의(鐵拳主義)에 의한 강력한 상무단체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철권주의란 무엇인가? 철(鐵)에는 철로 상대하고, 권(拳)에는 권(拳)으로 상대한다는 주의이다. 철폐(鐵砲)나 피스톨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에게 권골(拳骨)로 상대하면 승산이 없다.

더 이상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즉 재만 조선인의 무장화이다. 보라! 만주국의 접경지는 어디나 무장화(武裝化)가 되어 있다. 공산 러시아의 무장이민단(武裝移民團)과 무장청년단(武裝靑年團), 내몽고의 적아무장단(赤衛武裝團), 북중국의 동북계(東北系) 잡색군(雜色軍), 그리고 만주 내에 횡행하는 반만군(反滿軍)과 무장공산당(武裝共產黨)! 이들 무시무시한, 철이 부딪치는 소리가 쟁쟁한 환경에 처해 있고, 몸에 철을 두르지 않은 자에게 배짱이 있을 리 없다. 빵 하는 총소리 한 방에 주저앉고 마는 자에게 공산당에 대항할 만큼의 자제력이 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상무강의(尙武剛毅)의 기상을 조장하고, 의용봉공의 사기를 고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해, 사상 선도와 상무의 기상은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만 조선인의 무장화를 실행할 것인가가 이어질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는 별항의 조선인의용군 편성을 그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별기 <조선 의용군 편성에 관한 제안> 참조)

### (3) 이민 대책을 위해 중요한 문제

최근 2, 3년, 비적의 도발에 위협을 받으며, 만철 연선을 따라 모여드는 수 만 명의 피난 동포의 귀농 대책으로서, 조선총독부에서는 작년부터 3, 4 군데의 미개간 지대를 골라, 안전농촌 건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상 밖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당국자로서 주의하여야 할 한 가지는 이 계획의 실시를 통해 우리 재만조선인의 많은 관심을 모아, 민심(民心)을 획기적으로 수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안전농촌 제1회 실시 상황

농촌명	지점	경지 면적	수용 호수	경비대책
난석산(亂石山) 농촌	봉천·신경 사이의 난석산 역(驛)에서 서쪽으로 1리(里) 지점	600정보	250호	봉천서(奉天署)에서 경관 30명을 교대로 상주한다.
하동(河東) 농촌	길림성의 주하(珠河)·연수(延壽) 두 현(縣)에 걸친 일원	3,600정보	1,000호	경관 40명이 상주하며, 하동분서(分署) 신축 실시 중. 장정 20명으로 구성된 자경단을 조직다.
영구(營口) 농촌	영구항(營口港)의 서쪽 주변 전장대(田庄臺) 지방	3,000정보	800호	조선 재향군인 40명이 혼재하여 경비를 한다. 영구서(營口署)에서 경관대(警官隊) 파견.
합계		7,200정보	2,050호	

위 표 외에 간도 지방에서는 안전 집단 부락건설에 착수하여 9 군데의 100호(戶) 집단 부락을 건설하고 있다. 각 부락의 경비 방책을 살펴보면, 각 부락의 주변에는 견고한 울타리를 두르고, 각각 4 곳에 포대를 만들며, 농민은 한 손에 쟁기, 한 손에 총을 들고, 농사와 경비를 겸하고 있다. 이는 하동 농촌의 청년들이 카키색 제복까지 갖추고 무기를 들고 농촌 경비에 나서고 있다는 것과 함께, 만몽농촌 경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쌍벽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간도 지방에는 위와 같은 것 외에 약 200만 원을 투자하여 간도 자작농 창정 4개년 계획을 세우고, 가까운 시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며,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 내의 빈농을 만주로 대량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재만 동포의 앞 날에 갱생의 희망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만주에서 일본·만주·한족 등 세 민족의 인구 대비에서 보이는 일본의 열세이다. 20억 국탕(國幣)을 투입하여 국가 민족의 존망을 건 이룬바 생명선인 만주에, 일본인이 고작 2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불안한 일이다. 100만 명 안팎의 조선인과 합쳐서 조금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전체 만주 총인구의 80%를 차지하는 2,500여만 명의 중국인과, 10.5% 를 차지하는 400만 명의 만주인에 비해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약 100만 명이라고 하는 조선인은 대부분 만주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경제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고 있으며, 또한 20만 명의 일본인은 그 90%가 남만주·북만주를 관통하는 한 가닥의 만철 정강이를 물고 늘어지는 가난한 월급쟁이처럼 한층 불안함이 커진다. 20억 원의 투자 내역은 일본의 만몽경영이 상공업에 편중되어 자본주의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준다.

만몽을 국방 생명선으로 규정한 이상, 대지의 표면에 어렴풋이 깔린 자본주의적 기구만으로는 강하게 뿌리 낼 수 없다. 지각(地殼)의 바다까지 침투할 수 있는 농업적 발전 없이는 국가 백년 대계는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본은 만철 편중주의를 개선하여야만 한다. 8억 원의 만철 투자에 비해 2,000만 원에 못 미치는 농업 자본, 더구나 그 온실과 같은 관동주(關東州) 안에 한정되어 있다. 아울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대만(對滿) 국책이 이러한 상공업 편중주의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농업 정책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는 객관적 정세가 닥쳐오고 있다. 일본과 만주 경제 블록이 완성하면, 공업 원료품 생산지로서의 만몽에 가속도가 붙어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므로, 일본과 조선의 농민을 만몽에 대량 이식하는 것은 국가적 대사업으로 신속하게 결행하여야 할 일이다.

최근 만주국을 둘러싼 사방의 정세를 살펴보면, 동북지역 주변의 러시아·만주 국경 지방은 소비에트 연방이 구미제국(諸國)과 외교상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아, 최근 마침내 극동 적극 진출을 본격화시키면서, 시베리아에 대군을 수송하여 만주와의 국경 지방에 대대적으로 군비를 확장하였으며, 국민 지원병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한편, 극동 이민을 장려하고, 사유재산을 승인하는 등 예상 밖의 대우를 하며, 국경 지방에 러시아인 세력 부식에 부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려할 점으로는, 조선 농민의 러시아 영내 이주자가 급증하여 이미 20만 명을 헤아리며, 작년의 경우에는 1년 동안에 만여 명이 이주를 하였다. 언뜻 들은 바에 따르면, 앞 항(項)에서도 조금 언급하였듯이, 이 러시아 영내 거주 조선인이 소련군 직속대로서 적아대를 몇 개 연대로 편성하여, 만주·간도 지방의 공산당 직속 행동 단체를 조정하면서, 만주 적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서북국경은 어떠한가? 집요한 공산 러시아의 마수는 이미 외몽고를 적색 지대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몽고는 독립을 선언하고 반한(反漢)의 활을 당기고 있다.

또한 서남국경에는 만리장성 너머에 동북 군벌 잔당이 어금니를 갈고 있다. 또, 매년 영구·대련을 통해 평화적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 산동계 노동민의 30만 명 안팎을 헤아리는 방대한 유입은 몽고계 민족의 낙토인 만몽을 한족(漢族)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산동계 노동민의 소굴이 되어가려 하고 있다.

이처럼 만주국의 주변 사방은 어느 곳이나 모두 안한(安閑)한 공기를 감지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나는 재만 일본인의 “상아탑 탈출”을 주장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 만철연선(이외의 땅을 뱀이나 전갈 보듯이 멀리 하고, 만철연선 지대에만 모여 있는 만철탁생주의(滿鐵托生主義)를 버려라! 만철연선만이 청토(靑土)는 아니다. 대만몽 7만 방리(方里)는 우리 일본과 조선 형제들에 의해 개척되고 또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일본과 조선이 손을 잡고 만철을 중심으로 사방 원심(遠心) 방면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만주국 내에서 한 지방에 편중되게 모여 있는 것을 피하고, 가급적 만주국 국경선으로 방사선(放射線) 방향으로 진출하라. 그러게 함으로써 다른 국민의 국경 침범을 막고, 또한 인접 민족과 접촉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의 건설이 촉진 될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이와 같은 대국(大局)에 유의하여, 이민 계획은 가능한 한 만철연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 즉, 국경선 부근의 적당한 지점을 골라, 강력한 경비조직을 완성함과 함께, 대량 이민 방침을 취하는 것이 그 장래를 고려할 때, 가장 현명한 백년대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책에 관한 구체적 의견은 다른 기회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 7. 결론

만주제국의 확립으로 대 아시아주의가 즉각 이론의 범주를 넘어 실천의 경지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여도 실로 많은 인종과 국가가 존재하는데, 현재 만주국 내에서 융화·친선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일본·조선·만주·몽고 등 타타르 계 몽고인의 후예인 민족이 주동하면서, 일본의 지휘

하에 점차 다른 민족을 규합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주국은 실로 대 아시아 건설의 본무대인 것이다. 여기서 조선의 존재가 한층 중요하게 부각된다. 왜냐하면 아시아주의의 입장에서 조선 문제는 단순한 국내 문제로서의 영역을 넘어, 아시아적 성질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대 아시아주의의 시각에서, 조선의 재인식과 획기적 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즉, 한일병합의 참된 정신을 직접 인식하고, 모두 하나 되어 빈틈없이 일심동체의 제휴가 급선무임을 논하고, 국민으로서 최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조선인에게도 부여하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하는데, 이는 즉시 실시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 비추어, 먼저 그 예비 시안으로서 만주에 조선의용군 편성이 급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요컨대 본론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창한다.

### (1) 몽고족 신문화 건설의 정신 작흥을 도모하라

우리 일본·만주·조선·몽고(타타르 계 몽고족)의 신성한 발상지인 아무르 및 송화강(松花江) 유역 지방의 한 곳(또는 국도 신경도 괜찮다)을 골라, 그 곳에 몽고족의 발상을 영원히 기념할 금수탑(金守塔)과 이를 기리는 몽고묘(蒙古廟)(혹은 아시아 묘(廟))를 건설하고, 그 곳을 동아시아 민족의 “메카”로서 매년 정기 제일(祭日)을 정해 각 민족의 대표가 참석하여 동아시아의 태평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祭)를 거행하여, 대대적으로 샤머니즘의 기세를 드높이고, 한편으로는 각 민족의 대표자가 한 곳에 모여 정치·경제 방면의 회동을 갖는 것도 제정일치 기운을 높이는 것이 된다.

또한 이 제일(몽고제(蒙古祭) 혹은 아시아 제)을 공휴일로 정해 각 민족은 제묘가 있는 방향으로 요배식을 거행하고, 몽고족 선조에게 배운 고전적인 공연과 여흥 등을 성대히 거행하여 버터 냄새가 풍미하는 현대에, 우리 몽고족 특유의 문화에 대한 회모(懷慕)의 기운을 진흥하고, 몽고족 신문화의 건설 정신 작흥을 도모하는 것은 때가 때인 만큼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2) 조선의용군을 제정하라

나는 내선융화는 평등한 의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만주국의 확립에 따라 아시아 문제가 점점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일본과 대륙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지고 있다. 그만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조선은 한층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의 근본적인 융화가 필요함을 통감한다. 종래와 같은 미적지근한 통치·미온적인 융화로는 한일병합의 참된 정신을 달성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조선 해협을 매립할 정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합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일본인과 조선인의 의무 균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의무를 온전히 다 함으로써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제국헌법이 정한 국민의 삼대 의무 중에, 국가 법령에 따르는 의무 혹은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는 조선인도 이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 의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국가를 위해 바치는 신성한 정신적 인륜도의 상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름뿐인 내선융화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높은 정신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 없이 미침으로써 비로소 참된 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모든 급선무를 주장하기에 앞서 징병 의무의 실시를 절실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쉽사리 실시하기 어렵다면, 당분간은 보통교육을 받은 자를 표준으로 삼아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만주에서는 그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별계(別擧) 제안과 같은 방법으로 조선의용군을 편성하기를 제창한다. 이는 재만 선농 부락의 경비를 위해 혹은 사상 선도를 위해, 나아가 만주국의 치안 유지를 위한 획기적 계획이며, 아울러 조선 징병제 실시의 예비 시안이라고 하며, 내선용화의 장래에, 장차 일본의 장래에, 나아가 대 아시아 건설 도상에 을 발하는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 부(附) 조선의용군 편성에 관한 제안 - 제안 내용

1. 명칭
2. 취지
3. 목적
4. 사업
5. 지도
6. 단원 구성
  - (1) 자격
  - (2) 방법
  - (3) 연한
  - (4) 대우
  - (5) 특전
7. 통제
  - (1) 총본부
  - (2) 대
  - (3) 반
8. 조직
  - (1) 단장
  - (2) 부장
  - (3) 대장
  - (4) 반장
9. 무장
  - (1) 제복
  - (2) 무장
10. 훈련
11. 사용 무기
12. 단원 모집 방법

### 13. 경비

- (1) 제1 년도 예산
- (2) 제2 년도 예산
- (3) 제3 년도 예산

#### 1. 명칭

조선의용군으로 부른다.

#### 2. 취지

최근의 세계 정국은 우리에게 다음에 닥칠 사태에 대한 어떤 준비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협조주의는 근저에서부터 붕괴되어, 세계는 서로 경쟁하면서 정치·경제에서 혼자만의 번영을 획책하며 연형합종의 대세에 따르고 있고, 가까스로 제동이 걸린 세계 무장 평화의 제방은 지금 파괴되려는 균열이 보이고 있으며, 극동천지는 대폭풍우 직전의 정적과 싸우고 있다. 들어라! 아시아의 자녀들이여!! “고립(孤立)된 극동을 지켜라”라고 울리는 경종소리에 누가 가슴 두근거리지 않겠는가! 실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인 이외에는 지킬 사람이 없다. 일어서라! 아시아여! 그리고 아시아 십자군의 기치를 흥안령(興安嶺) 하늘 높이 펴도록 치켜 세워라!!

조선 의용군은 아시아 수호의용군의 단위 기구로서, 아시아에서 살고, 아시아에서 자란 4천 년의 우리 조선 민족이 자발적으로 분기하여 편성되었으며, 일본 제국 황군의 지도에 따라 생명선 만몽에서의 국방 활동의 일단을 짚어지고, 그리고 우리 재만 동포의 번영·발전의 근거인 농촌의 자주적 경비 활동은 평상시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사대적 의타심과 문약 나태성처럼 우리의 전통적 결함을 근저에서부터 고쳐, 자립자존의 정신을 함양하며, 상무강직한 기상을 닦아, 세계 일등 국민으로서의 소질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에 충실하라”는 말에 국가에 대한 의무 정신을 함양하고, 아울러 온건·착실한 사상 보급을 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삼는다.

여기서 내 주목을 끄는 하나는, 구미 각 국은 각각 그 식민지에서 그곳의 토착민으로 구성된 토민군(土民軍)을 제정·편성하는 힘을 쏟아, 국방 보충 예비군으로서 적지 않은 공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각 자치령 및 식민지의 토민군은 현재 그 총수가 352,8000여 명에 이르고, 프랑스의 토민 및 외국인 병사는 191,000여 명이며, 이탈리아는 50만 명의 식민지 토민군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밖의 중견 국가는 모두 각 식민지의 의용군을 지원제도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이들 토민군이 일단 전시대에 본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유럽 대전 당시에 영국에 대한 인도 의용군의 공헌과, 프랑스에 대한 안남(安南) 토민군의 희생적 활동이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지금 일본 제국 미증유의 시련을 앞두고, 조선 의용군 제정이 급선무라는 것을 통감하며, 이에 조선 의용단의 편성을 제창하고, 위정자 및 군부의 현명한 지도와 민간 유지의 찬성·협력을 구하며, 이로써 동양 역사상 찬연한 족적을 새기게 될 조선 의용단의 현실에 매진하고자 한다.



### 3. 목적

- (1) 아시아 수호의 의용 활동에 참여한다.
- (2) 일본 제국의 국방 의무의 일단에 바친다.
- (3) 만몽 농촌 경비에 철저를 기한다.
- (4) 조선 동포의 사기를 고무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한다.
- (5)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한다.

### 4. 사업

만 3년을 1기로 하고, 1,000명으로 단원을 구성하며, 준군대식 훈련에 따라 만주 전체 동포 농촌에 조직적 경비망을 구축하며 또한 치안 공작에 조력한다.

### 5. 지도

관동군 사령부 내에 조선의용군 지도부를 두고, 현역 좌관(佐官)을 부장(部長)으로 임명하여 의용단을 지도·감독하게 한다.

### 6. 단원 구성

#### (1) 자격

- ① 직접 징병령에 관계없는 제국민(帝國民)일 것.
- ② 신체 건강, 사상 온건, 품행 방정할 것.
- ③ 만 17세부터 만 35세까지의 남자일 것.
- ④ 가족 부양에 직접 책임 없는 자.
- ⑤ 초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단, 만몽농촌 거주자는 여기서 제외한다.

#### (2) 방법

- ① 만몽 농촌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무제로 할 것.
- ② 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지원제로 할 것.
- ③ 모두 그 지역 관현의 적격 증명을 필요로 할 것.

#### (3) 연한

: 만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자 혹은 희망자에게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 (4) 대우

- ① 갑종은 군인 출신자, 중등학교 이상 졸업자 정도 및 청년훈련소 수료자.
- ② 을종은 초등교육 정도인 자.
- ③ 병종은 갑종·을종 자격 이외의 자.

#### (5) 특전

- ① 단원에게 식비·복장·의약 및 약간의 급료를 준다.
- ② 사회에서는 준정규병의 대우를 받는다.

- ③ 훈공을 인정받은 자는 국가의 표창을 받는다.
- ④ 퇴단자에게는 본국이 책임을 지고 직업을 알선한다.

7. 통제

(1) 총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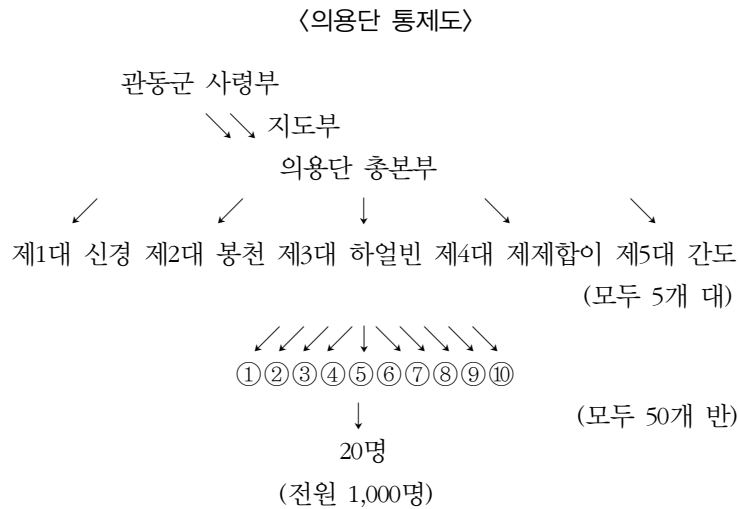
- ① 중앙(신경)에 두고 전국을 총 지휘한다.
- ② 총본부는 의용단의 총괄적 사무를 맡아 보며, 각 당국과 연락을 취한다.

(2) 대

- ① 의용단을 5개 대로 분할하고, 제1대는 신경, 제2대는 봉천, 제3대는 하얼빈, 제4대는 제제합이, 제5대는 간도에 각각 그 본부를 둔다.
- ② 대는 총본부의 지휘명령을 받는다.

(3) 반

- ① 대는 각각 10개 반 내외로 분할하고 의용단의 활동 단위로 삼는다.
- ② 반은 각 집단 부락에 두고, 단원 20명 안팎으로 편성한다.
- ③ 반은 대의 지휘명령을 받는다.



8. 조직

(1) 단장

- ① 총본부에 의용단장을 두고, 모든 단의 지휘·감독을 담당한다.
- ② 총본부에 총무·군령·훈련·구호·교양 및 정리등 6부를 두고, 각각 그 사무를 분장한다.

(2) 부장

- ① 각 부에 부장을 두고, 각각 담당 사무를 처리한다.

- ② 단장은 지도부의 도의를 얻어 부장을 임명한다.  
단, 군령·훈련 등 두 부의 부장은 예비좌위관(豫備佐尉官)을 이에 임명한다.
- ③ 각 부의 담당 사무는 다음과 같다.
  - ㉠ 총무부 : 총본부의 사무 방침, 고사(考査), 인사, 외교, 각 부와의 사무 연락 및 그 밖에 각 부에서 하지 않는 사무.
  - ㉡ 군령부 : 단 전체의 행동을 총괄, 지휘, 명령, 감독, 작전 및 징벌 등의 제반 사무.
  - ㉢ 훈련부 : 군사 교련, 정신 도야 및 실력 양성을 위한 제반 사무.
  - ㉣ 구호부 : 위생, 구호, 의료, 시약 및 보건과 관련한 제반 사무.
  - ㉤ 교양부 : 의용단 취지의 선양 사업, 단원 모집 및 교화, 사상 선도, 선전 등 모든 사무.
  - ㉥ 경리부 : 예산·결산의 편성, 건축·그 밖의 부동산 관리, 군용품 배급 및 보관, 금전 및 물품의 출납, 그 밖에 재무 관련 모든 사무.

(3) 대장

- ① 대본부에 대장을 두고, 대의 지휘·감독 및 대무 처리를 담당한다.
- ② 대장의 임면은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단장이 행한다.
- ③ 대장은 예비 위관 혹은 예비 하사관에서 임명한다.

(4) 반장

- ① 반에는 반장을 두고, 반의 지휘·감독 및 반무 처리를 담당한다.
- ② 반장의 임면은 단장이 행한다.
- ③ 반장은 예비 군인에서 임명한다.

9. 무장

(1) 제복

- ① 단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제복을 착용한다.
- ② 카키색의 제복 상하 한 벌, 특정한 휘장(徽章), 견장(肩章), 수장(袖章)을 착용한다.
- ③ 카키색의 외투 및 두건.
- ④ 백근(白筋) 한 줄의 카키색 모자 하나, 적화(赤靴) 한 켤레, 각반(脚絆) 하나.

(2) 무장

- ① 단원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다음과 같이 무장을 한다.
- ② 군용 장총 및 그 부속품, 총검 하나, 배낭·그 밖에 필요한 도구.
- ③ 장검, 피스톨, 망원경, 말은 반장 이상의 간부가 탄다.

10. 훈련

- 총본부의 훈련부에 의해 총괄적으로 순군대식 훈련을 실시한다.
- 각 대본부에 2명의 교관을 두고, 관동군 현역 위관에게 이를 위탁한다.
- 신입 단원은 1년간 훈련부에서 직접 교련을 담당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를 각 반에 배치한다.

다만, 이미 교련을 받은 자는 즉각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

- 만철연선 각 지의 청년훈련소를 조선 청년에게도 개방하여 교련 보급을 꾀한다.
- 조선 및 일본 각 지의 청년 훈련 단체에 조선 청년을 참가시켜 훈련을 실시하여, 단원 편성을 용이하게 한다.
- 각 반의 우수 단원을 두, 세 명 선발하여 특별 훈련을 하여 중견 단원 양성을 꾀한다.
- 제1대는 의용군 정예부대로서 우수 단원으로 편성하여 특별 훈련을 실시해 각 지에 이동시켜 활약하도록 한다.
- 총본부 훈련부의 교련 종목은 다음과 같다.
  - 병식조련(兵式操練), 사적실습(射的實習), 승마술, 검도, 유도, 무기 사용법, 군용어 교수, 실전 연습, 작전법

#### 11. 사용 무기

- 사이드 카 13대      총본부 3대, 각 대 2대.
- 중기관총 6대      제1대 2대, 그 밖에 각 대 1대.
- 경기관총 50정      각 반에 1정씩.
- 군마 50마리      각 반에 1 마리씩.
- 장총 1,000정      전 단원에게 1정씩.
- 권총 100정      반장 이상의 간부 휴대용.

#### 12. 단원 모집 방법

- 총본부(總本部) 교양부는 만주국·관동청·영사관·조선총독부·내무성 등 각 관서의 후원을 얻어, 보도 기관·선전문 및 포스터 등을 통해 단원 모집을 발표하고, 한편으로는 각 중요 지역에 특파원을 보내 의용단 조직의 취지·목적을 일반 민중에게 철저히 보급하기 위해 선전 강연을 개최한다.
- 각 지의 관헌에게 후원을 요청하여 지원자 신청을 받고, 이를 각 중요 지역에 소집하여 그 지역의 관헌 입회 하에 적격 검사를 실시한다.
- 총본부는 각 지의 관헌을 통해 합격자를 발표·통지하고, 정해진 날에 합격 증명서 및 여비를 교부하여 총본부로 부른다.
- 만주의 국영농촌(國營農村)·그 밖에 동포집단부락에서는 의무제 시행에 따라 감독관청에서 강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 제1회 단원 모집 정원은 100명으로 하며, 두 번째 해에는 400명, 세 번째 해에는 500명으로 하며, 그래서 세 번째 해에 정원 1,000명을 완성한다.
-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는 총본부에서 직접 통제 훈련을 하고, 세 번째 해부터는 대(隊)·반(班)으로 개편 조직한다.
- 현재 만주 농촌 부락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경단은 의용단 제정 세 번째에 해에 전부 편입 통제한다.

○ 단원 모집은 매년 3월 중에 실시한다.

### 13. 경비(經費)

#### A. 제1년도 수지 예산

##### (1) 수입부

○ 수입 총액 금(金) 삼 만 원이다.

일반 유지의 기부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2) 지출부

○ 지출 총액 금 삼 만 원이다.

〈내역〉

① 인건비	14,400원
○ 단장	1,600원
○ 부장	3,600원
○ 사무원	3,600원
○ 단원	6,000원
② 사무비	2,400원
③ 단원회비	6,000원
④ 단원 모집비	1,600원
⑤ 여비	1,000원
⑥ 피복비	3,000원(1인당 30원 씩)
⑦ 잡비	600원
⑧ 임시비	1,000원

이상 합계 금 삼만 원이다.

○ 비고 : 사무비 2,400원을 계상한 것은 총본부 사무소 및 단원 숙소의 임대비, 사무용구, 그 밖에 필수품 구입비 및 각 부의 사무비이다.

○ 단원회비는 단원의 공동 취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1사람 당 1개월 금(金) 5원으로 견적을 내어 계상한다.

○ 단원 모집비는 선전문 및 포스터의 인쇄비, 특파원 출장비, 그 밖에 단원 모집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한다.

#### B. 제2년도 수지 예산

##### (1) 수입부

○ 수입 총액 금 십만 원이다.

〈내역〉

금 10,000원 육군성 보조

금 25,000원 조선총독부 보조  
 금 25,000원 만철회사 보조  
 금 20,000원 만주국 정부 보조  
 금 5,000원 관동군 사령부 보조  
 금 10,000원 외무성 보조  
 금 5,000원 동아권농공사 보조  
 이상 합계 금 십만 원이다.

(2) 지출부

○ 지출 총액 금 십만 원이다.

〈내역〉

① 인건비	42,240원
○ 단장	1,800원
○ 부장	5,040원(1인당 840원, 6명 분)
○ 사무원	5,400원(1인당 360원, 5명 분)
○ 단원	30,000원(1인당 60원, 500명 분)
② 사무비	5,000원
③ 단원회비	20,000원(1인당 60원, 500명 분)
④ 단원 모집비	3,000원
⑤ 여비	4,000원(1인당 10원, 400명 분)
⑥ 피복비	12,000원(1인당 30원, 400명 분)
⑦ 잡비	2,000원
⑧ 임시비	1,760원

이상 합계 금 십만 원이다.

C. 제3년도 수지 예산

(1) 수입부

○ 수입 총액 금 이십만 원이다.

〈내역〉

금 20,000원 육군성 보조  
 금 50,000원 조선총독부 보조  
 금 50,000원 만철회사 보조  
 금 40,000원 만주국 정부 보조  
 금 10,000원 관동군 사령부 보조  
 금 20,000원 외무성 보조  
 금 10,000원 동아권농공사 보조

이상 합계 금 십만 원이다.

(2) 지출부

○ 지출 총액 금 이십 만 원이다.

〈내역〉

① 인건비	90,000원
○ 단장	1,400원
○ 부장	7,200원(1인당 1,200원, 6명 분)
○ 대장	4,200원(1인당 840원, 5명 분)
○ 반장	9,000원(1인당 180원, 50명 분)
○ 사무원	7,200원(1인당 360원, 20명 분)
○ 단원	60,000원(1인당 60원, 1,000명 분)
② 사무비	10,000원
③ 단원회비	60,000원(1인당 60원, 1,000명 분)
④ 단원 모집비	3,000원
⑤ 여비	5,000원(1인당 10원, 500명 분)
⑥ 피복비	15,000원(1인당 30원, 500명 분)
⑦ 잡비	7,000원
⑧ 임시비	10,000원

이상 합계 금 이십만 원이다.

부설(附說)

1. 무기 및 그 부속품은 육군성 및 관동군에서 빌리고, 제4년도부터 그 대금을 연부상환도록 할 것이며, 필수 군용품이지만 의용단의 예산 관계상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
2. 제3년도 수지 예산을 의용단 1년도 경상비의 기준으로 삼는다.
3. 제3년도 수입부에서 각 당국의 보조금은 모두 재만 동포 보호비, 만주 경비비, 국방비, 농촌 자경비 등의 일부로, 매년 조성하도록 한다.
4. 본 제안의 예산은 가급적 최소한도로 잡았으므로, 의용단의 사무소, 숙소, 그밖에 필요한 건축물은 모두 임차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 수입금 혹은 경비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이를 신축하도록 한다.

이상 제안자 백대승(白大昇), 권태산(權泰山)

※ 저자가 지난 가을 동상(東上)하여, 재만 조선인 구제에 관해 사이토(齋藤) 수상(首相)을 비롯하여 중앙 요로에 진정을 냈고 동시에, 조선의용군 편성에 관해 전(前) 육군대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각 하에게 진정을 낸 일이 있다. 참고를 위해 여기에 그 진정서 내용을 게재하니 보시기를 바란다.

## 진정서

국가 미증유의 비상시를 맞아, 각하의 무한한 건승을 나라를 위해 빕니다. 소쟁은 이번 재만 조선인의 일원으로서, 또 재만 조선인 문제에 공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만선연구사(滿鮮研究社)를 대표하여, 비록 비천한 학식과 얇은 재주이지만, 오랫동안 숙망이던 재만 조선인의용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려 각하께 진정하고자 합니다.

생각건대, 제국의 국제 연맹 탈퇴와 함께 극동의 풍운역도를 허용치 않고 거국일치·상하합체하여 국가의 완급을 조절하며 태만하지 않는 오늘날, 제국의 신민으로서 황은을 입고 있는 우리 조선인이 헛되이 무위도식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동포의 각성을 촉구하며, 대 아시아주의에 매진하는 주의·주장을 통해 이번에 상경하여, 감히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진정을 하며 제국의 대만 국책 상, 혹은 조선 통치 상 혹은 국방 대책 상, 각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 1. 재만 조선인 군사 훈련의 필요와 그 의의

재만 조선인에게 무기를 갖도록 허락할지 말지의 문제는 제국 정부의 만몽 이민 계획에서 선농의 자위권 부여 요망으로 등장한 것입니다만, 소쟁은 지난번의 만주사변 전후에 만철연선 각 지에 피난 선농의 위문 순행 때에 자위 능력이 없는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지를 통감하였습니다. 재만 선농에게 자위권을 부여 자위 무장단을 조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훈련의 결과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은 재작년 겨울 이래, 간도 영사관 내의 조선인 자경단의 성적을 통해 이미 시험이 끝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조선 내에도 징병제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제국의 국방 대책과 대만국책 상의 견지에서 소쟁이 보기에는, 먼저 재만 조선인에게 군사 교련을 실시하여, 만주국 치안 문제와 사상 대책 문제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철연선 각 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인청년훈련소와 유사한 기관을 선농 집단지 혹은 만철 연선 도시에 설치하여, 입소자에게는 의식을 제공하는 정도의 특전을 부여하고, 조선인 장정 중에서 입소 지원자를 모집한다면, 오래지 않아 일본인 청년 훈련소를 능가할 정도의 발전을 보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재만 조선인의 상무 기상을 길들일 수 있고, 또한 위험한 그 사상 환경에서 분명 선도될 것이며, 그리고 농촌 자위의 성과를 거두어 재만 선농의 산미보국(産米報國)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재만 조선인 의용군 편성과 그 정치적 의의

유럽 선진 제국(諸國)은 그 식민지의 원주민에게 자신감을 갖고 무기를 보유하도록 하여, 비용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정도의 아량을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의 과보(果報)를 가져왔던가? 유럽 대전당시, 인도(印度)는 수 억의 부와 수 만의 생명을 스스로 영국을 위해 제공하여 그 위험한 상황을 구제하였으며, 또한 수 만의 안남(安南) 의용군이 프랑스를 위해 총탄 앞에 몸을 던져 도운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가? 적어도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자는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에게 무기를 안겨주고 군사 교련을 실시할 정도의 대담함과, 어느 정도 그 민족의 민의를 존중하여 지도할 정도의 아량을 갖고 임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보답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제국도 조선인 무장화의 대전향을 전제로 사전 연습의 의미에서 재만 조선인에게 무련(武練)을 실시하여 의용군편성을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 지의준순(遲疑逡巡)하면 한도 없는 것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일대 용단을 내려 재만 조선인 무장화라는 큰 발걸음을 떼어야 할 것입니다. 종래 만주에서 토비·흉적이 백주에 횡행하며 폭위를 휘두르고, 국민부·공산당·혁명군 등의 불온 단체가 우리 앞에 발호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조선인이 충성 한 발에 무서워 벌벌 떨며 날뛰 정도로 무위(武衛)와 연(緣)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수 백 만 원의 비용을 할당하여 경관이나 군대를 통해 비적에 대한 방비에 힘쓰는 것보다도, 그 비용의 절반으로 민중의 무장화, 즉 용감한 의용군을 편성하여 자위의 임무를 맡겨, 민중의 사기를 고무함으로써 비적이 들어설 자리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만 조선인의 사상을 안정·통일시켜 선도하고, 불온한 단체에 대한 무력 방비를 하며, 나아가서는 제국의 국방 상 한 역할을 담당할 조선의용군을 편성하는 일을 현재 급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제국의 만주 국방 기관을 충실히 다지고, 재만 조선인의 사상을 안정·선도하며, 재만 선농의 안주·발전을 찾음으로써 정부의 대만(對滿) 국책의 안전 수행을 기하는 데, 재만 조선인 의용군의 편성·지도와 같은 사업은 때가 때인 만큼 무엇보다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며, 각하의 현명한 판단을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참고로, 별책 줄저 『중대 위기에 직면한 재만 조선인 문제에 관해 일본 관민에게 하소연하다(重大危機に直面せる在滿朝鮮人問題に關して日本官民に懇ふ)』를 첨정(添呈)합니다. 부디 한 번 읽어 주십시오.

1933년 9월 22일

대련시(大連市) 동향정(東郷町) 12번지 만선연구사(滿鮮研究社) 대표 권태산  
아라키(荒木) 육군대신 각하

〈출전 : 權泰山, 『滿洲帝國の確立と大東亞建設の基本問題』, 大連:滿鮮研究社, 1933년, 1~76쪽〉

## (2) 이범익, 간도에 와서

간도성장(間島省張) 이범익(李範益)

야 만주국은 건국 후 근 7년을 경과하였으나 국가 만반의 제도가 대개 정비되고 문화적 시설 교시 그 이목을 일신하여 내정은 더욱 신장하고 국력은 더욱 충실되어 건국의 근본이념인 왕도낙토의 건국과 민족협화의 이념이 착착 실현 진전되어 작년 람월(臘月)<sup>62</sup>에는 맹방(盟邦)의 치법권의 전면적 철폐와 함께 열국의 정식 승인이 있어 국초(國礎)는 날마다 견고를 가하여 일만(日滿) 일덕일심 공존공영의

결실을 거둬주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일만독이(日滿獨伊)의 방공 추보(樞輔)의 중요 지위를 담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과에 공헌하고 있는 일은 실로 경하하지 아니지 못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우리 간도성(間島省)의 정세를 대관하면 그 면적은 2천만 리에 불과하고 인구는 아직 70만이 넘지 못하는 성이기는 하나 그 위치 즉 동쪽은 소련과 경계를 접하고 남쪽은 일위대수(日葦帶水)를 격하여 조선과 상대하여 있어서 현하의 정세에 감하여 지리상, 사상상 또는 군사상 극히 주요(樞要)한 역할을 지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상 경제상에 볼 것 같으면 조선의 소위 북선(北鮮) 3항과 연락하고 있고 경도선 및 도가선이 어느 것이나 아아(我我) 도문(圖們)을 기점으로 성내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일만 교통의 최첩경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창되고 있는 일본해의 호수화 문제가 근근 실현되는 때에는 일만 간의 교통은 시간적으로도 극도로 단축되어 따라서 일만 양국의 산업상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최근 일만 무역의 추세에서 보면 도문을 통과하는 수출입 무역액이 매년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어 금후 배후지인 동북만 일대의 자원의 개발과 상사(相俟)하여 내선만(內鮮滿)<sup>63)</sup>을 통하는 경제적 대동맥이 되어 일만 교통상 경제상으로 그 약진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유래 이 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만선 간에 극히 착종한 좋지 못한 사상 없지 않습니다. 만주 건국 이래 과거의 경쟁선이었던 두만강은 이제 만선 간을 일여(一如)로 하는 친선 하천으로 되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실로 환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당성의 인구 중 약 80퍼센트 즉 50만 인이 조선인으로서 민족적으로는 타지방과 상이한 실정에 있는 것이나 시정의 요체인 민족협화는 다사(多斯)한 특이한 지방에 있어서 절실히 통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국 후 특히 작년 지나사변을 계기로 부지불식간에 만선 양 민족은 서로 신뢰, 서로 제휴하여 외부에서의 사변이 내부에서의 약속으로 되는 동시에 충후의 열성을 피력하여 화에 협동한다고 하는 아름다운 정경이 전개된 것은 우리들이 가장 감격하고 있는 바로서 금후일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민족협화를 완성할 것을 주야 염원하여 그 구현에 관민일치 노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당성은 5현과 51가촌에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가촌 행정은 종래 일본인민회 조선인민회 혹은 상부국(商埠局) 등 민족적으로 분립되었던 각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를 통감하여 1936년 8월 성령(省令)으로써 다른 성에 솔선하여 가촌제도를 실시한 것인데 다행히 의외의 좋은 결과를 재래(齎來)하여 특히 작년 일본 제국의 대승적(大乘的) 호의에 의한 치외법권 철폐와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가촌제도의 제정에 반하여 더욱 그 기초가 법적으로 확립되었으므로 금후 일층 명량한 발전이 약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 지방은 건국 전후를 통하여 혹은 공산당의 도량(跳梁) 혹은 불령분자의 발읍(跋邑) 혹은 반만항일의 비적의 출몰 등에 의하여 양민을 괴롭게 한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1932년 조선군의 출동을 위시하여 이래 일본의 주둔 수비대 병 만군 및 일만 양 경찰의 쉬지 않는 대토벌 및 귀순공작 등에 의하여 이들 비적은 그 근거지가 완전히 복멸되어 이와 상호 응하여 도시에 피난하였던 선량한 농민을

62) 음력 선달을 뜻함.

63) 일본, 조선, 만주를 통칭함.

원지(原地)에 복귀케 함과 동시에 자위적 조직에 의한 집단부락을 결성케 하여 일만 군정 및 성현(省縣)의 지도 하에서 부락 자체의 경비와 오지(奧地) 치안유지의 일조케 하였으므로 이제 본 성내에는 산간에서 불우생활에 궁핍한 소수의 토비가 식량을 약탈하고 있는 것뿐으로 관내 극히 안온하여 이것을 건국 당초에 비교하면 전혀 격세의 감을 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산업 방면에 있어서는 농가가 총 호수의 80퍼센트를 점령하고 있고 경작 면적 28 정보(町步)고 전작(畑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축년(逐年) 수전 경작지 격증을 보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상당 대면적의 미간지가 개척의 손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목하 국책으로 금차 계획 하에 이민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본성에 있어서도 일찍 농촌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착착 실행 중에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산업 5개년 계획은 여기 박차를 가하여 예정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품의 대종인 대두는 연 생산액 약 70만 석에 달하는 것인데 1934년 이래 품종의 개량 및 격부(格付)<sup>64)</sup> 검사를 실행한 결과 금일에는 일본 각지의 취인(取引)<sup>65)</sup>에서 간도 대두(大豆)는 비상한 성가를 높이고 있으므로 이에 의한 농민의 이익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래와 같은 조잡한 경영법으로는 도저히 시세(時勢)의 진전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임으로 금후는 할 수 있는 대로 집단적 다각형적인 영농법에 의하여 하려는 일 방법으로 먼저 각 농가로 유축(有畜) 농가가 되게 하려는 필요상 본년부터 상당 대규모의 축산 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때에는 실시 중의 자작농 창정과 상사하여 건실한 농촌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해당 성 동북부 및 서부 지방에는 재적(材積) 수 5억 석이라고 하는 삼림이 밀생하여 있어 1936년에 삼림철도가 부설되어 현재 착착 벌채 반출되고 있는데 중앙부 및 남부의 무립목(無立木) 지방에는 본 년도부터 식목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또 광산자원에 있어서는 성내 도처에 금 및 석탄 등의 중요광물이 외량(外量)으로 매장되어 있고 특히 동(銅) 오이루셀안치모니와 같은 특수 광물이 발견되었으므로 금후 교통의 완비 확보에 수반하여 그 장래성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공업방면에 있어서는 풍부한 재목(材木) 석탄을 이용하여 펄프를 제조하는 2대공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공업용수로 가장 적당 또 풍부한 두만강의 하수는 손을 벌리고 공업적 이용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천연자원의 개발과 상사하여 1대 공업지대가 출현할 것도 가까운 장래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내에서 교육 상황을 보면 국민의 기초인 초등학교가 공사립 합하여 280개 학교 그 재학 아동 수 약 4만 인으로서 추정 학령 아동의 약 45퍼센트가 취학하고 있습니다. 그중 종래 만주국 측에서 시설한 초등 또는 중등학교에는 만선인 공학이 다수하여 여기 소국민<sup>66)</sup>의 민족협화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치안의 확보와 농가 경제력의 나아짐에 의하여 자제 교육의 향학열이 현저히 왕성하게 되었으므로 금후 교육 기관이 확장과 함께 그 내용을 충실케 하여 다음 시대를 배부하고 건실한 국민의 양성에 노력하

64) 일정한 표준과 비교하여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

65) 매매.

66) 어린이를 일컬음

려고 목하 계획 중입니다.

특히 재학 아동 수는 75퍼센트 즉 3만인이 조선인으로서 이들 아동에 대하여서는 일본 제국 국민으로서의 소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만주제국의 선량한 구성분자가 되게 하여 양국 일척일심의 결실을 거두려고 그 정신적 도야에 대하여는 격단의 유의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교육方面에는 멀리 조선 내에서 입학 희망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일은 극히 자미(滋味) 있는 현상으로 이것은 만주국의 약진을 말하는 한 증좌(證左)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내에 유교가 현저히 진흥하고 있는 일은 극히 기뻐할 현상으로서 충효인으로써 교육 정치의 기초로 한 우리 만주국에 그 연원인 공자의 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활동은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진전과 동양도덕의 부흥에 공헌하는 바 다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어 정민국(政民國) 시대의 정책과 비정(批政)과의 아래서는 각 민족 간에 분쟁 알력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서 특히 우리 간도성에서는 가장 심한 바이었으나 건국 후 일만 불가분의 굳은 서약이 된 후 이래 민족이 상친 공영(相親共榮)의 자연한 현상에 돌아가 이기심의 억제와 인보상애(隣保相愛)의 지정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다만 도의국가 건설의 이상 지성에 약용매진하고 있는 실상을 목격하는 일은 실로 혼쾌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특히 현하 사위의 정세는 오히려 일층 그 필요를 통감하는 실정에 놓여있음으로 성내의 관민 일동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조그마한 간극이 없이 불안도 일으키지 않고 확호한 신념하에 잘 시국을 인식하여 총후의 임무를 다하여 “이상의 실현은 간도에서”라는 모토로 일보 일보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전 : 李範益 「間島에 와서」, 『三千里』 第10卷 第10號, 1938년 10월, 166~169쪽〉

### (3) 장규원(高山遼源), 건국 실천담

지방처 참서관 고산규원(高山遼源, 張遼源)

요사이 국내 전체를 통하여 건국에 대한 정열이 저조하다는 말을 이따금 듣는데 그에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내 정세가 건국당시와 매우 다르다는 관계가 클 줄로 안다. 지금에 와서는 건국의 기초가 대부분 완료된 만큼 관리가 하는 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건국당시의 관리의 일에 비하여 매우 사무적이고 기술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건국당시의 관리들은 그야말로 각자가 국가를 등지고 있는 듯한 기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요사이의 나는 건국 당시에 비하여 확실히 추락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떤 정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국 당시는 물론 치안 제일주의이다. 그러니까 관리 특히 지방에 있는 관리란 치안공작이 가장 중요한 일로 되어 있는데 그 치안공작이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생명을 바치고 하는 일이니 만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국 직후의 관리들은 참 비적이 우글우글 끓는 지방에도 잘 정신(挺身) 뛰어 들어가 사명을 다한 것이었다. 이것은 동변도(東邊道) 치안공작의 이야기인데 당시 나는 동지 김태호(金泰昊) 외 수십 명과 함께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에 들어가

동지(同地) 일대에 발호하고 있던 수천 명의 선계공산군(鮮系共產軍)의 귀순공작을 하였는데 하여튼 이 쪽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공산군을 상대로 싸우자니 단순한 무력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의 고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범새끼를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과 같이 우리 일행은 사지에 들어가는 생각으로 그 소굴에 들어가서 혹은 위협으로 혹은 달래면서 귀순공작으로 진행한 것이다. 동지 현기영(玄基永) 씨는 일찍이 경도제대(京都帝大)를 졸업한 전도유위(前途有爲)의 청년관리였는데 일신(一身)을 만주치안공작에 바쳐서 크고 많은 활약을 하던 중 마침내 과로로 도중에 병을 얻어 불행하게도 현지에서 절명하여 눈물로 장례를 드렸었다.

이러한 생명을 바친 희생적 활동에 의하여 수천 명의 대량귀순을 보게 되어 당시 인구 7천여 명에 불과하였는데 삼원포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에 약 3배인 2만여 명에 달하고 조선농민이 경작하는 수전(水田)도 1만여 무(畝)나 되는데 그 농민들 역시 치안공작대와 함께 사선을 돌파하여 금일의 안정을 본 것이다.

앞에도 말한 바이지만 오늘날 건국 당시의 정신이 매우 저조해졌다 하는데 우리로서는 될수록 건국 당시의 고난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그 때의 고난으로서 금일의 생활을 돌아보아 참된 건국의 한 분자가 되어야 할 것을 종종 느끼고 있다.

〈출전 : 高山達源(張達源), 『建國實踐談』,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滿鮮學海社, 1943년, 42쪽〉

#### (4) 최남선, 건국대학과 조선청년

신경 건국대학 교수 최남선

### 1

국도(國都) 신경(新京)의 남방, 환희령두(歡喜嶺頭)에 흘립(屹立)하는 소박한 노(櫓). 이것을 중심으로 한 광망(曠茫) 65만 평의 대지(臺地)야 말로 만주국의 최고 학부 건국대학의 학원이다. 그리하여 그 노야 말로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만주국 육지 측량의 원점 표식으로서 지금은 반드시 도의(道義) 흥융의 원점인 것을 아울러 표시하는 듯이 되어 있는 것도 그 큰 사명으로 보아서 당연한 포부일 것이다.

북은 건국묘의 성역에 이웃해 있고 남은 호수에 면해 있으며 동은 연병장을 격해서 사변 당시의 전적이든 남령병사(南嶺兵舍)를 바라보게 되고 또 평원 저쪽으로는 으스스한 산계(山系)를 볼 수 있고 뒤로는 끝없는 평원으로서 여기 서 있으면 지구가 둥근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난 5월 2일 방일(訪日) 선조(宣詔) 기념의 가신(佳辰)으로 복(卜)하여 황송하옵게도 칙서를 봉대하여 개학한 후 역사적 제일보를 내어 놓은 이래 학생이나, 학사나 모두 장엄한 5년 후의 장래에 속한 바 지금은 그저 광야에 부린 일립(一粒)의 종자라고 칭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금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대학의 취지는 학생 모집 공고문에 있는 대로 건국 정신의 신수(神髓)를 체득하고 학문의 온오(蘊奧)를 연구하며 몸으로서 이것을 실천해서 문무불기(文武不岐), 지행합일, 근로자유의 행(行)에 철두철미

하며, 씨 도의세계 건설의 선각적 지도자로서 나라의 정간(楨幹) 동량될 만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

따라서 학생은 다- 제국을 구성하는 각 민족의 청년으로부터 선발당한 우수한 인물로써 현재 만(滿), 일(日(선(鮮), 대(臺)), 몽(蒙), 로(露)의 각 민족을 합하여 141명쯤 되는 학생이 전기 제1기 학생으로서 학과에, 군사에, 무도(武道)에, 농작업에 맹훈련을 받고 있다. 특별히 농(農)작업을 하는 이들은 이때까지 호미 한 번 손에 들어본 일 없는 몸으로 저녁때까지 본격적 맹(猛)작업에 힘쓰는 관계상 처음엔 허리가 앞으로 손이 부르터서 불평을 품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나 점차로 작업이 익숙해짐을 따라서 자기가 밭갈이 한 땅으로부터 자기가 심은 팔, 조이, 밭 같은 것이 싹터 오르고 장성하는 것을 보고는 깊이 감격하는 일이 적지 않다. 각력(角力)의 토표(土俵)라든지 교정의 길뒤이도 인부의 손을 빌지 않고 자기들이 손수 일하는 동안에 대학 전체가 형식상으로 보더라도 자기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창조된다 하는 자각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자연일 것이다. 기타 군사, 무도도 마찬가지로 맹훈련으로 전(全)신심을 쏟아하고 소제나 정리 같은 것도 전부 학생 자신으로 해 가는 것이다. 이같이 해서 얻은 자각과 신념의 우에 쌓아 올린 학문이야 말로 진실로 피와 살이 되어 같은 학문이라 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법이 종래와 다를 것이다.

학과는 전기에 있어서는 정신 강화를 시작해서 문과 계통의 고등 기초학과를 수득한다. 그래서 이 여러 학과가 건국 정신의 파악 철저를 주안으로 해서 교수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얻은 식견이 또는 행동 우에 나타나서 학문과 행(行)이 불이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상 말한 외에 또 한아 이 학교의 특색은 숙(塾) 교육이다. 즉 교실과 도량(道場)에 대한 훈육이 잘 조화되어서 기거의 동안이 훈도(薰陶)할만하다 한다. 즉 숙의 기거의 동안엔 ‘건국 정신을 체득하고 이것이 양양에 불식신명(不惜身命)의 자각과 신념을 양한다’, ‘전원을 영원의 동지로 하고 협화정신의 선각적 지도자 되게 한다’, ‘품성의 향상, 건강의 증진, 지능의 계발, 정조의 도야에 대해 절차탁마시키려고 한다’. 여기는 교관과 학생들이 개인과 개인이 상접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연마한다. 학생 동지도 서로 인생을 논하고 포부를 의론해서 정조 도야에 지능 계발에 개인적 수양에 서로 절차탁마하도록 한다. 설혹 피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이상에 타는 순외(醇外)하고 순한 청년들인 고로 기거 간에 고락을 함께하는 동안에 서로서로의 미점(美點)을 취하고 혈액을 초월함으로 인습과 이론과 성격을 이해하여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고 동지로서 서로 단결한다. 이리하여 건국정신의 체득이든지 민족협화의 실천이든지 스스로 기거 간에 체득하는 것이다. 고로 전 6개년을 통해서 숙에 기거하게 하고 또는 제민족 공숙(共塾)으로 숙두(塾頭) 지도하에 엄격 명량한 규율 생활을 한다. 지금 전부의 학생을 6숙으로 분배하고 숙두 3인 조수 3인이 각 숙의 지도하에 임해 있다. 숙생은 책상과 침상을 50음순에 함께 두었으므로 용모는 갖고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는 몽고 어느 땅 사람이오.”하고 물으면 그는 일본인이요 일본인이려니 하고 말해보면 그는 만주인으로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로인(露人) 뿐으로 앞으로 6년이 지나면 피부색까지 분별키 어려울지 모른다.

숙의 규율은 군대식으로 엄격하고 생활은 가정적으로 친밀하고 명량해서 부형같이 친척이 되어 개개 학생에게 지도자도 되고 상담 상대도 되어주는 것이다. 숙에 대한 날마다의 행동 일과에 대해서도 학생이 질문하는 여러 가지를 일일이 지도하는데 이것은 숙두 1인이 하는 일 뿐 아니라 숙두 알선 아래

다른 교실과 학외의 권위 선달(先達)을 초빙하여 좌담회 강연회를 열고 여기서 교실에서 맛볼 수 없는 인간미와 사상에 접촉하며 사회의 산지식과 깊은 온축(蘊蓄)에 왕성한 지식욕을 만족시키며 자유로 열 열하게 상담의 꽃이 핀다. 기타 독서 지도, 종교, 수양회, 취미회, 각 운동 경기, 근교 시찰, 다화(茶話) 등등 속 생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아직 개교 후 얼마 안 되는 고로 장래를 두고 희망에 붙일 뿐이다. 식물로 말하면 아직 종자요, 싹의 상태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선 교실이나 학생이나 다 힘을 쓴다.

이같이 하여 전기 3년간에 건국정신을 체득하고 도의세계 건설의 선각적 지도자다운 자각과 신념을 양하며 나라를 위하여 정간한 인격의 근본을 연성하고 후기에는 그 기초 위에 깊은 학문의 온오를 연구하여 만주학원을 구명하고 국가 부하(負荷)의 중임에 당하는 실제의 재기(材器)를 연성할 것이다.

최후에 건대를 지망하는 청년 제군에게 고하노라.

나라를 위하여 일신을 바칠 큰 뜻이 있고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곤고(困苦) 결핍이나 어떠한 근로라도 사양하지 않을 결심이 있으며 사명이면 던진 돌이 되고 일생을 흙 속에 못치더라도 후회함이 없을 자는 오라. 그러라면 먼저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철벽이라도 뚫고 나갈 기운과 철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오인은 오국(吾國)을 구성하는 각 민족 중에 이러한 청년이 많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 같은 큰 힘을 가진 청년이라야 학자(學資)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장래 동량의 재(材)로서 중임(重任)에 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반하여 전기(前記)의 각오가 없는 자, 단 학자를 요하지 않고 학문을 닦고 생각하는 자, 취직의 근심이 없는 점, 장래 국가 요무(要務)로 인하여 입신출세가 될 수 있다든가. 즉 건대를 이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지금부터 단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분골쇄신하기를 싫어하는 자, 자기의 입신출세를 지망하는 자, 규율 있는 공동생활에 견디기 어려운 자, 신체 건강하지 않은 자는 입학의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러한 사람들은 혹시 모르고 입학했다라도 스스로 실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당한 신분이라고 판정되는 때 즉시 퇴학을 당하는 것이다. 담(談). (문책기자(文責記者))

〈출전 : 崔南善, 「建國大學과 朝鮮靑年」, 『三千里』 第10卷 第10號, 1938년 10월, 170~173쪽〉

## (5) 최남선, 만주건국의 역사적 유래

만주 건국대학 교수 최남선

### 서언

만주건국이 이미 십년이라 하면 혹시 역사의 유구성에 빚대어서 그까짓 동안이 얼마란 말이나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주국의 건립이 세계역사를 고쳐 쓰는 동기가 되어서 선건전곤(旋乾轉坤)의 대풍운

이 뒤를 이어 발작하고 그 끝이 마침내 대동아전쟁이라는 일대무대를 용현(湧現)케 한 과정을 살필진대 아래의 십년이란 실상 인류역사의 전 과거에도 필적할만한 중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다지 어그러지는 말이 아닐듯하다. 시간의 가치가 □엽의 다소에 있을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시 한 번 번득여 생각할 것 같으면 만주건국이 표면의 실현을 보인 것은 십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될 약속으로 말하면 아득한 옛날로부터 잠복하여 나오는 것으로서 드러난 십년의 배후에 숨은 누천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기회에 눈을 한번 덜미로 돌려보자.

## 1

아세아의 내륙지방, 곧 시방 몽고지방으로부터 만리장성 부근의 오르도스<sup>67)</sup>지방에 걸쳐서 신석기 내지 구석기시대 인류의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면 이 일대지역이 어떻게 아득한 고대에 이미 인류의 무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네가 무슨 종류이오 어떻게 분포하였던 것은 물론 짐작하기 어려운 바이다.

대체 아세아북방이나 동방민족의 고대사 사실은 오로지 지나(支那)의 문적(文籍)을 힘입어 약간 그 형적(形跡)을 짐작하는데 여기에 관한 최고사실은 기원전 제4세기, 곧 2천 3, 4백 년 전경으로부터 비로소 명확히 재전(載傳)된다. 그 중에도 가장 일찍 드러나고 또 가장 세력도 절대한 자는 유명한 흉노족(匈奴族)이니 이 종족은 대개 오르콘, 도올라, 오논, 킬렌 제하(諸河)의 유역을 본거로 하여 그 전진분자는 훨씬 남방으로 음산산맥(陰山山脈)으로부터 산서성(山西省), 하북성(河北省)의 북변에까지 번져 내려와 살았었다.

이네들은 대개 목축과 수렵으로 생활수단을 삼는 이른바 유목민으로서 목축에 적당한 물 좋고 푸새 우거진 곳을 따라서 천전(遷轉)하여 다니는 부속이니 한서에 이른바 행국(行國)—일정한 주착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나라, 곧 단기는 나라라한 것이 이 의미이다. 또 이네들은 성질이 극히 표한(標悍)하여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서 그네의 말굽과 화살이 향하는 바에 대적할 이가 없었으니 역시 한서에 지나를 의관지국(衣冠之國), 곧 너그러운 옷에 큰 갓을 쓰는 나라라고 일컬음에 대하여 흉노는 인공지국(引弓之國), 활잡아 다니는 사람의 나라라고 별명한 것은 이 특색을 나타낸 것이다. 요컨대 흉노민족은 북방의 본색을 온전히 가진 강한(強悍)한 민족으로 천후(天候)가 좋아서 목초가 족하면 모르되 푸새가 잘 자라지 못하여 가축이 많이 죽어버리거나, 또 가축은 그리 번식하지 못하였는데 인구가 와짜 증식되었거나하여 여하간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네들이 떼를 이끌고 장구남하(長驅南下)하여 지나의 북변을 침구하기를 당사로 하고 어떤 때에는 남린(南隣)의 지나는 물론이오 서방으로 동서 터키스탄의 여러 고등문화권을 굴복시켜 엄연한 왕조를 건설하고 사방을 눈을 흘겨보기도 하는 자였다.

67)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內蒙古自治區)의 중남부에 있는 고원 지역. 북쪽과 서쪽은 황허(黃河) 강이, 남쪽은 만리장성이 둘러싸고 있다. 예로부터 한족(漢族)과 북방 유목 민족의 쟁탈지였으며, 명나라 때에 몽고의 오르도스부(部)가 점거하였었다.